

한영  
대역

# 수궁가

## 바디별전집 4

정광수 바디 · 정응민 바디

Jeong Gwang-su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Jeong Gwang-su)  
Jeong Eung-min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Jo Sang-hyeon)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수궁가바디별전집 4

2010년 11월 25일 인쇄

2010년 12월 1일 펴냄

지은이 || 채록·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Philip Owen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02) 3704-9114

전라북도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063) 280-211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1층

☎ (063) 232-8398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 - 04810

978-89-5925- - (전4권)



수궁가

바디별전집 4

##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네 번째 결과물이다. 2007년에는 〈춘향가〉, 2008년에는 〈심청가〉, 2009년에는 〈홍보가〉를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수궁가〉 여덟 바탕을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수궁가 바디별 전집》(1-4)을 내게 되었다.

이 성과물은 총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연수 바디 오정숙 창 수궁가〉와 〈유성준 바디 박복남 창 수궁가〉, 2권은 〈정웅민 바디 정권진 창 수궁가〉와 〈강도근 바디 강도근 창 수궁가〉, 3권은 〈박봉술 바디 송순섭 창 수궁가〉와 〈박초월 바디 최난수 창 수궁가〉, 4권은 〈정광수 바디 정광수 창 수궁가〉와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수궁가〉이다. 이만하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수궁가〉 바디를 망라하고, 같은 바디인데도 창자에 따라 다른 것까지 포괄하여 자막으로 사용할 때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12권의 책과 석 장의 CD를 내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분

에 넘치는 칭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동시에 받았다. 칭찬을 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질책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다 이 작업의 소중함을 먼저 인식하고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울 뿐이다.

판소리 사설의 번역 작업은 다른 번역 작업에 비해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각종 고사와 지명, 인명에다가 우리 민속, 그리고 한시들과 지극히 한국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번역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의 예술성을 살려서 번역해야 한다는 명제에 수긍은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였다. 번역자들의 능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번역은 ‘자막 제작’이라고 하는 매우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다. 자막은 공연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위해 제공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판소리를 부르는 시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에 상관 없이 원문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게 번역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 사설의 예술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데 대한 질책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판소리 사설의 영어 번역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열망 때문에 분에 넘치는 일을 벌였다는 점을 해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번역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이 번역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다 좋은 번역을 내놓기를 바란다. 이 번역이 훗날의 더 좋은 번역을 위한 작은 디딤돌 노릇이라도 온전히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명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예쁜 디자인을 맡아주신 여태명문자조형연구소의 여태명 선생과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다시 가을이 깊다. 이 작업을 시작한 후 네 번째 맞는 가을이다. 깊어가는 가을을 따라 우리의 삶도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0년 깊어가는 가을

최동현 · 박승배 씀

## 차 례

■ 책머리에 • 4

■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11

### \* 정광수 바디 수궁가(정광수 창)

1. 용왕 득병 .....	14
2. 도사 문병 .....	16
3. 약성가 .....	16
4. 토끼 간 처방 .....	22
5. 어전 회의 .....	26
6. 거북 천거 .....	28
7. 방개 자원 .....	30
8. 조개와 메기 추천 .....	32
9. 별주부 상소 .....	34
10. 토끼 화상 .....	34
11. 별주부 모친 만류 .....	38
12. 별주부 부인과 작별 .....	40
13. 고고천변 .....	42
14. 날짐승 상좌 다툼 .....	48
15. 길짐승 상좌다툼 .....	52
16. 호랑이 등장 .....	58
17.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	62

18. 별주부 호랑이 축송 .....	68
19. 별주부 산신제 .....	72
20. 별주부 토끼 상면 .....	74
21. 토끼 홍미 자랑 .....	76
22. 토끼의 팔난 .....	82
23. 수궁 홍미 .....	88
24. 여우 만류 .....	92
25. 별주부 토끼 유인 .....	94
26. 범피중류 .....	102
27. 토끼 잡아들임 .....	104
28. 토끼의 찢 .....	112
29. 수궁 풍류 .....	122
30. 토끼 방정 .....	126
31. 별주부 애원 .....	128
32. 토끼 생환 .....	130
33. 토끼 별주부 조롱 .....	134
34. 토끼 엉터리 약 처방 .....	134
35. 토끼 그물에 걸림 .....	136
36. 초동목수 신세 타령 .....	140
37. 토끼 살아남 .....	142
38.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	146
39. 후일담 .....	152



★ 정응민 바디 수궁가(조상현 창)

1. 용왕 득병 .....	210
2. 도사 문병 .....	210
3. 약성가 .....	212
4. 토끼 간 처방 .....	218
5. 어전 회의 1 .....	222
6. 어전 회의 2 .....	226
7. 별주부 상소 .....	230
8. 토끼 화상 .....	234
9. 별주부 아내와 작별 .....	236
10. 고고천변 .....	240
11. 온갖 짐승들이 모임 .....	244
12. 별주부 호랑이를 부름 .....	246
13.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	248
14. 별주부 호랑이 축송 .....	254
15. 별주부 산신제 .....	258
16. 별주부 토끼 상면 .....	262
17. 토끼 흥미 자랑 .....	264
18. 토끼의 팔난 .....	270
19. 수궁 흥미 .....	274
20. 여우 만류 .....	278
21. 별주부 토끼 유인 .....	282
22. 토끼 잡아들임 .....	288
23. 토끼의 찢 .....	294
24. 수궁 풍류 .....	302

25. 토끼 방정 .....	306
26. 별주부 애원 .....	308
27. 토끼 생환 .....	312
28. 토끼 별주부 조롱 .....	314
29. 토끼 그물에 걸림 .....	318
30. 초동목수 신세 타령 .....	324
31. 토끼 살아남 .....	326
32.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	330
33. 후일담 .....	338

##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정광수 바디 수궁가(정광수 창)

Jeong Gwang-su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Jeong Gwang-su)

1. (용왕 득병) 남해 용왕이 병을 얻어 나를 가망이 없자,  
홀로 탄식을 한다.

[아니리] 지정<sup>1)</sup> 갑신년 중하지절<sup>2)</sup>에 남해 광리왕<sup>3)</sup>이 영덕전<sup>4)</sup> 새로  
짓고,  
대연<sup>5)</sup>을 배설<sup>6)</sup>혈 제,<sup>7)</sup> 삼해 용왕<sup>8)</sup>을 청래<sup>9)</sup>하니  
군신빈객<sup>10)</sup>이 천승만기<sup>11)</sup>였다.  
개성연어구중<sup>12)</sup>허고 격금고이영가<sup>13)</sup>로다.  
주육<sup>14)</sup>에 잠기어 이삼일을 즐기더니,  
남해 광리왕이 영해천열풍<sup>15)</sup>을 복중<sup>16)</sup>에 과히<sup>17)</sup> 썩어 졸연득병<sup>18)</sup>하  
야  
수부조정<sup>19)</sup> 문무제신<sup>20)</sup>이 황황분급<sup>21)</sup>하야 주야로 시의치병<sup>22)</sup>허되  
소무회춘지도<sup>23)</sup>하고,  
난구명의지방<sup>24)</sup>이라.  
용왕이 쓸쓸히 누워 자탄<sup>25)</sup>을 하신디,  
[진양조] 탑상<sup>26)</sup>을 탕탕 뛰다리며<sup>27)</sup> 신세자탄 울음을 운다.  
“천무열풍<sup>28)</sup> 좋은 시절 해불양파<sup>29)</sup> 태평헌디,  
용왕의 기세<sup>30)</sup>로되 괴이한 병을 얻어 남해 수궁 높은 궁궐 벗 없이  
누웠은들,  
어느 뉘라서 날 살리리오?  
의약만세<sup>31)</sup> 신농씨<sup>32)</sup>와 화타,<sup>33)</sup> 편작,<sup>34)</sup> 노월인<sup>35)</sup> 그러한 수단을 만  
났으면 나를 구원하련마는  
이제는 하릴없구나.<sup>36)</sup>  
답답한 나의 회포를 어느 뉘게다<sup>37)</sup> 하소허리?”  
웅장헌 용성<sup>38)</sup>으로 신세자탄<sup>39)</sup> 허는구나.

1. (The Dragon King Gets Ill)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gets ill. He is not likely to recover, so he despairs.

[Aniri] In summer of a certain year,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builds a new palace.

He throws a big party, inviting dragon kings of three seas.  
There are numerous kings and officials with their carriages and horses.

They sing a song and hit drums in the party.

They enjoy wine and meat for a few days.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suddenly gets ill, having exposed his belly to the warm wind of the sea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military and civilian, stand by day and night while doctors take care of the dragon king in vain.

There is no way to find a good doctor.

Lying alone, the dragon king laments over his lot.

[Jinyangjo] The dragon king bewails his lot, pounding the table.  
“The people enjoy peace and prosper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I was healthy, but I have come down alone with a strange disease in the high palace of the South Sea.

Is there anyone to save me?

Famous ancient doctors — Shen Nong Shi(神農氏), Hua Tuo(華陀) and Bian Que(扁鵲) — could have saved me.

But they are not here now.

Whom should I talk with about my trouble?”

He laments over his misfortune in the grand dragon voice.

## 2. (도사 문병) 도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왕의 병세를 살 핀다.

[아니리] 이렇듯이 자탄허실 적에,  
하루는 선의도사<sup>40)</sup>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꼭 이렇게 내려오던 것  
이었다.

[옛모리] 현운,<sup>41)</sup> 흑운<sup>42)</sup>이 궁전을 뒤덮고,  
표풍세우<sup>43)</sup>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선의도사가 학창의<sup>44)</sup>를 떨쳐 입고 궁전을 내려와 재배이진왈,<sup>45)</sup>  
“약수삼천리<sup>46)</sup>에 해당화 구경과 백운 요지연<sup>47)</sup>의 천년벽도<sup>48)</sup>를 얻  
으려고 가옵다가,  
풍편<sup>49)</sup>에 듣자오니, 대왕의 병세가 만만위중타기로<sup>50)</sup> 뵈옵고저<sup>51)</sup> 왔  
나이다.”

## 3. (약성가) 도사가 온갖 약과 침법을 다 써도 용왕의 병세 가 나아지지 않는다.

[아니리] 용왕이 왈,<sup>52)</sup>  
“도사 이리 오시기는 하늘의 도움이라.  
원컨대 도사는 황탄한<sup>53)</sup> 나의 병세를 자세히 짐작하여 특효지약<sup>54)</sup>을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 왈, “그럼 우선 맥<sup>55)</sup>을 보사이다.”

[자진모리]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 맥<sup>56)</sup>을 볼 제,  
“심소장<sup>57)</sup>은 화<sup>58)</sup>요,  
간담<sup>59)</sup>은 목<sup>60)</sup>이요,  
폐대장<sup>61)</sup>은 금<sup>62)</sup>이요,  
신방광<sup>63)</sup> 수<sup>64)</sup>요,



## 2. (A God Visits) A god comes down from heaven and diagnoses the dragon king.

[Aniri] The dragon king laments over himself as said above.  
One day, a god wearing divine clothes comes down from heaven as follows.

[Eonmori] All of a sudden, black clouds cover the palace.

A wind and drizzle surround it.

A god wearing blue clothes comes down to the palace and bows twice and speaks.

“I have come to the earth to see wild roses and a long river and to pick divine peaches by a legendary pond.

I heard Your Majesty has a serious illness. I came here to see you.”

## 3. (Medicine Song) The god tries all sorts of medicines and needles in vain.

[Aniri] The dragon king speaks.

“You came here. Heaven must be helping me.

I want you to check my symptoms carefully and tell me about an effective medicine.”

The god speaks, “Let me first check your pulse.”

[Jajinmori] The king holds out his arm, and the god checks his pulse.

“The heart and the small intestine are Fire.

The liver and the gall bladder are Wood.

The lungs and the large intestine are Gold.

The kidney and the bladder are Water.

비위난<sup>65</sup>) 토라.  
 간맥<sup>66</sup>)이 태과<sup>67</sup>)하야  
 목극토<sup>68</sup>)허였으니 비위가 상하옴고,<sup>69</sup>)  
 담경<sup>70</sup>)이 심허니<sup>71</sup>) 신경<sup>72</sup>)이 미약허고,  
 폐대장이 왕성허니 간담경<sup>73</sup>) 자진<sup>74</sup>)이라.  
 방서<sup>75</sup>)에 일렸으되, 비<sup>76</sup>)는 일신지조종<sup>77</sup>)이요,  
 담<sup>78</sup>)은 내 일신지표본<sup>79</sup>)이라.  
 심정즉 만병이 식허고,<sup>80</sup>)  
 심동즉 만병이 생하오니,<sup>81</sup>)  
 심경<sup>82</sup>) 곧 상하오면 무슨 병이 아니 날까?  
 오로칠상<sup>83</sup>)이 급하오니  
 보중탕<sup>84</sup>)으로 잡수시오.”  
 숙지황<sup>85</sup>) 주초<sup>86</sup>) 닛 돈<sup>87</sup>)이요,  
 산사육<sup>88</sup>) 천문동<sup>89</sup>) 세신<sup>90</sup>)을 거토허고,<sup>91</sup>)  
 육정용<sup>92</sup>) 택사<sup>93</sup>) 앵속각<sup>94</sup>) 각 한 돈, 감초<sup>95</sup>) 칠 푼,  
 수일승전반연용<sup>96</sup>) 이십여 첩<sup>97</sup>)을 쓰되 소무동정<sup>98</sup>)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백출탕<sup>99</sup>)을 잡수시오.”  
 백출<sup>100</sup>)을 초구<sup>101</sup>)하야 서 돈이요,  
 사인<sup>102</sup>)을 초구하야 두 돈이요,  
 백복령<sup>103</sup>) 사향<sup>104</sup>) 오미자<sup>105</sup>) 회향<sup>106</sup>) 당귀<sup>107</sup>) 천궁<sup>108</sup>) 강활<sup>109</sup>) 녹  
 각<sup>110</sup>) 각각 한 돈, 감초 칠 푼<sup>111</sup>)  
 수일승전반연용<sup>112</sup>) 삼십여 첩 쓰되 소무동정이라.  
 “양감<sup>113</sup>)이 급하오니 가미강활탕<sup>114</sup>)을 잡수시오.”  
 마황<sup>115</sup>) 두 돈, 진피<sup>116</sup>) 강활 방풍<sup>117</sup>) 백지<sup>118</sup>) 천궁 창출<sup>119</sup>) 승마<sup>120</sup>)  
 갈근<sup>121</sup>) 세신 각 한 돈, 감초 오 푼  
 수일승전반연용 사십여 첩을 쓰되 소무동정이라.

The spleen and the stomach are Earth.  
Your liver is too strong.  
Wood defeats Earth, so your liver has injured your spleen and stomach.  
Your gall bladder is so strong that your kidneys are weak.  
Your lungs and large intestine overshadow your liver and gall bladder.  
A medical book says the spleen is the most important organ.  
The gall bladder is the indicator of the bodily condition.  
If you aren't anxious, all illnesses will disappear.  
If you have any anxiety, all illnesses will appear.  
If your heart is weak, all illnesses will appear.  
All your internal organs are weak.  
Please take some medicinal soup."  
The god prepares a steamed medicinal root.  
He shakes dust off medicinal fruit and a medicinal root.  
He also prepares medicinal plants, a root, a stem,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2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medicines above in vain.  
"You have serious diarrhea. Eat medicinal root soup."  
The god fries a medicinal root.  
He also roasts medicinal seeds.  
He prepares medicinal materials: a tuckahoe, a yam root, a schizandra, a fruit, an angelica root, a stem,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4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preceding medicines in vain.

“신농씨<sup>122)</sup> 백초약<sup>123)</sup>을 갖가지로 다 쓰려다는<sup>124)</sup> 지레<sup>125)</sup> 먼저 죽  
 을 테니,  
 백초약을 한 데 모아 가마<sup>126)</sup>에 많이 달여<sup>127)</sup> 한 번에 먹어 보자.”  
 약을 한 데 모을 적에,  
 인삼은 미감<sup>128)</sup>허니 대보원기<sup>129)</sup>허고, 지갈생진<sup>130)</sup>허며 조영양  
 위<sup>131)</sup>로다.  
 백출은 감온<sup>132)</sup>허니 건비강위<sup>133)</sup>허고, 제사제습<sup>134)</sup>허고 겸치담  
 비<sup>135)</sup>라.  
 감초는 감온허니 구즉온중<sup>136)</sup>허고 생직사화<sup>137)</sup>로다.  
 청심환<sup>138)</sup> 소합환<sup>139)</sup> 팔미환<sup>140)</sup> 육미환<sup>141)</sup>  
 경옥고<sup>142)</sup> 자음경옥고<sup>143)</sup>  
 백복령<sup>144)</sup> 적복령<sup>145)</sup> 영양  
 대황<sup>146)</sup> 망초<sup>147)</sup> 창출 백출,  
 소엽<sup>148)</sup> 방풍 진피  
 반하<sup>149)</sup> 계향<sup>150)</sup> 육계<sup>151)</sup>  
 단사<sup>152)</sup> 차전자<sup>153)</sup> 연실<sup>154)</sup>  
 시호<sup>155)</sup> 전호<sup>156)</sup> 목통<sup>157)</sup>  
 인삼 천문동 맥문동<sup>158)</sup>  
 매실 오미자 감초 지초<sup>159)</sup>  
 가미육군자탕<sup>160)</sup> 청서육화탕<sup>161)</sup>  
 이원익기탕 청풍보음탕 백사의 위령탕.  
 신농씨 백초약을 갖가지로 다 써봐도 효무동정이라.

“Your positive energy is too strong. Take medicinal soup.”

He prepares medicinal materials: an ephedra stem, an old tangerine skin, a parsnip root, diverse roots, kudzu,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4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foregoing medicines in vain.

“You might die before you take all of the herbal medicines one by one.

Let’s boil all of them together in an iron pot. Take them at once.”

The god puts all the medicines together.

Ginseng is sweet, so it creates vigor, eases thirst, and strengthens the stomach.

A japonica root is warm and sweet, so it stops diarrhea and makes healthy the spleen, the stomach, and the gall bladder.

A licorice root is warm and sweet too, but it is the best when it is fried and gives off heat in a raw state.

He tries pills that clear one’s heart and stomach, pills that restore vigor,

a medicine for blood circulation, a medicine for negative energy, a white medicine, a pink medicine,

a rhubarb root, niter, roots,

grass, old tangerine skins,

a *Pinellia ternata* root, cinnamon fragrance, some cinnamon bark,

a medicinal mineral, a herb seed, lotus fruit,

a herb for removing fever, a root for alleviating fever, a vine stem,

ginseng, a medicinal root, a root increasing negative energy,

plum, schizandra, licorice,

hematic soup, soup for the heart,

soup for intestines, soup for backache, and white snake soup.

All sorts of medicinal herbs of Shen Nong Shi(神農氏) are tried in vain.

효험이 없으니 침구로 다스릴 제,  
 천지지상경<sup>162)</sup>이니 갑일<sup>163)</sup> 갑술시에<sup>164)</sup> 담경<sup>165)</sup> 주유<sup>166)</sup>를 주고,  
 을일<sup>167)</sup> 유시<sup>168)</sup>에 대장경 상양<sup>169)</sup>을 주고. 영구<sup>170)</sup>로 주어 보자.  
 일 신맥,<sup>171)</sup> 이 조해,<sup>172)</sup> 삼 외관,<sup>173)</sup>  
 사 임읍,<sup>174)</sup> 육 공손,<sup>175)</sup>  
 칠 후계,<sup>176)</sup> 팔 내관,<sup>177)</sup> 구 열결,<sup>178)</sup>  
 삼기<sup>179)</sup>를 붙여 팔문<sup>180)</sup>과 좌맥<sup>181)</sup>을 풀어주되 효험이 없으니,  
 십이경맥<sup>182)</sup>을 주어 보자.  
 승장<sup>183)</sup> 염천<sup>184)</sup> 천돌<sup>185)</sup> 구미<sup>186)</sup>  
 거궤<sup>187)</sup> 상완<sup>188)</sup> 중완<sup>189)</sup> 하완<sup>190)</sup> 신궤<sup>191)</sup> 단전<sup>192)</sup>  
 곤륜<sup>193)</sup>을 주고, 족태음비경<sup>194)</sup> 삼음교<sup>195)</sup> 음릉천<sup>196)</sup>을 주어 보되,  
 아무리 약과 침구를 쓰되 병세<sup>197)</sup> 점점 위중<sup>198)</sup>터라.

#### 4. (토끼 간 처방) 도사가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니, 용왕은 토끼를 구하기 어렵다며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아니레] 도사는 신통한 도사인바,  
 한 번 맥을 보고 모를 리가 없지마는 병론의 이치가 그러하다는 말이  
 겠다.  
 도사가 맥을 또 다시 보시는데,  
 [중모레] 도사 맥을 다시 볼 제,  
 “맥이 경동맥<sup>199)</sup>이라  
 비위맥<sup>200)</sup>이 상하오니 복중으로<sup>201)</sup> 난 병이요,

Because they don't work, the god tries acupuncture.  
 Since timing is important, he applies acupuncture on the gall bladder at the right time.  
 He applies acupuncture on the large intesti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oriental medical practice.  
 Needles are applied to the shinbones, the ankle bones, the wrists,  
 the top and bottom of the feet,  
 fingers, palms, a part of the wrists,  
 eight important parts of the king's body in vain.  
 Twelve special parts of the king's body are tried.  
 They are the lower lip, the tongue bone, the chest bone, the space between ribs,  
 upper parts of the navel, the navel, a lower part of the navel,  
 an upper part of the ankle, and diverse parts of the feet.  
 No matter what medicines and needles are tried, the king's illness gets more and more serious.

**4. (Prescription of a Hare's Liver) The god prescribes a hare's liver. The dragon king asks for a different prescription, saying it is hard to get a hare's liver.**

[Aniri] The god has an extraordinary ability.  
 He should know how to cure the dragon king by checking his pulse, but he doesn't.  
 He checks the dragon king's pulse again.  
 [Jungmori] The god check's the dragon king's pulse again.  
 "Your pulse moves in fear.  
 The veins in the spleen and stomach were damaged, so your illness occurred in the belly.

복중이 절려<sup>202)</sup> 아프기는 화병<sup>203)</sup>으로 난 병인데, 음양풍병<sup>204)</sup>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동하야,<sup>205)</sup>  
 손기,<sup>206)</sup> 신기난<sup>207)</sup> 정음<sup>208)</sup>이요, 진경해미난<sup>209)</sup> 정양<sup>210)</sup>이라.  
 음허화동<sup>211)</sup> 황달<sup>212)</sup>을 겸하였사오니,  
 진세산간<sup>213)</sup>의 천 년 토간<sup>214)</sup>을 얻으면 차효<sup>215)</sup>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라대왕이 동성<sup>216)</sup> 삼춘이요, 동박삭<sup>217)</sup>이가  
 조상이 되어도 누루 황, 새암 천, 돌아갈 귀.”<sup>218)</sup>

**[아니레]** 용왕 왈,

“어찌 신농씨<sup>219)</sup> 백초약은 어찌 약이 아니 되옵고, 진세<sup>220)</sup> 산간의  
 조그만한 토끼 간이 약이 되느니까?”<sup>221)</sup>  
 도사 왈, “대왕은 진이요, 토끼는 묘운데,  
 묘을손은 음목이요,<sup>222)</sup>  
 간진술은 양토<sup>223)</sup>라  
 목극토<sup>224)</sup> 하였으나,  
 갑인진손대강수<sup>225)</sup>요,  
 진간사산원속목<sup>226)</sup>이라  
 수생목<sup>227)</sup>하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즉시 회춘<sup>228)</sup>하오리다.”

**[진양조]** 왕왈<sup>229)</sup>

“연하다.<sup>230)</sup> 수연이나,<sup>231)</sup> 창망현<sup>232)</sup> 진세간의<sup>233)</sup> 벽해<sup>234)</sup> 만경 밖  
 의,<sup>235)</sup> 백운이 구만리요,<sup>236)</sup>  
 유사 이래로 유현<sup>237)</sup>이 노수<sup>238)</sup>허나,  
 석자의<sup>239)</sup> 진시황은 만승지위력<sup>240)</sup>으로 장생불사하려 하고  
 동남동녀<sup>241)</sup> 오백인을 허송삼산<sup>242)</sup>한 연후에  
 수명장단<sup>243)</sup> 재천<sup>244)</sup>이라,



It stemmed from the mental disorder and the disharmony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energies.

Six energies were activated.

The strongest negative energy and the strongest positive energy  
coexisted.

The negative energy shrunk, the positive energy rose, and  
jaundice followed.

A hare's liver from the mountain of the human world would  
work.

If you don't get Hare's liver, you will die even if the God of  
Death is your uncle, and even if your ancestor lived very long."

**[Aniri]** The dragon king speaks.

"How come a famous ancient doctor's medicines don't work, but  
a liver of a little hare on the land does?"

The god responds, "You are a dragon, and he is a hare.

Wood has negative energy.

Earth has positive energy.

Wood overcomes Earth.

A dragon is Wood.

A hare is Earth.

Earth and Wood create life together.

How can a hare's liver not be a medicine?

You will recover immediately."

**[Jinyangjo]** The king speaks,

"That makes sense, but the human world is out of this sea, and  
white clouds are far from here.

The land is vast and has always been unknown to us.

An ancient emperor wanted to live healthily forever.

He sent five hundred boys and girls to a divine mountain in  
vain.

The length of our life depends on heaven.

여산 송백<sup>245</sup>) 울울창창<sup>246</sup>) 삼천고분<sup>247</sup>) 황제묘인데,  
 토끼라 허는 짐생은 해외<sup>248</sup>) 일월의 밝은 세상, 백운 청산 무정처  
 로<sup>249</sup>) 시비 없이<sup>250</sup>) 다니는 짐생을  
 내가 어찌 구하더란 말이오?  
 죽기는 내가 쉽사와도 토끼 구할 길은 없사오니,  
 다른 약명을 일러를 주오.”

## 5. (어전 회의) 용왕이 어전회의를 소집하니, 온갖 물고기 들이 들어온다

[아니레] 도사 왈,  
 “대왕의 성덕<sup>251</sup>)으로 어찌 성공지신<sup>252</sup>)이 없으리까?”  
 말을 마친 후로 인홀불견<sup>253</sup>)이었다.  
 용왕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수부조정<sup>254</sup>) 만조백관<sup>255</sup>)을 일시에 모이라 하령하시니,  
 우리 세상 같고 보면 일품<sup>256</sup>) 재상님네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터인데,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이<sup>257</sup>) 각각 벼슬 이름을 타 가지고 들어오는데,  
 용국의 벼슬 이름이 사기<sup>258</sup>)에 있는 바라,  
 이렇게 들어오겠다.

[자진모레] 승상<sup>259</sup>)은 거북,  
 승지<sup>260</sup>)는 도미,  
 판서 민어,  
 주서<sup>261</sup>) 오중어,<sup>262</sup>)  
 한림<sup>263</sup>) 박대,<sup>264</sup>)  
 대사성<sup>265</sup>) 도로목,<sup>266</sup>)  
 방첨사<sup>267</sup>) 조개,

There are thousands of imperial tombs in the mountain thick  
with pine trees and nut pine trees.

A hare is an animal that wanders around in mountains and  
clouds under the sun and the moon in the bright outside world.

How can I get one?

It's easier to die than to acquire a hare.

Please prescribe a different medicine for me."

## **5. (Royal Meeting) The dragon king convenes a royal meeting and his subjects come.**

[Aniri] The god speaks,

"There is sure to be a loyal official because you are a virtuous  
king."

After finishing speaking, the god suddenly disappears.

The dragon king bows to the sky numerous times.

He orders all of his officials to come to the palace for a meeting.

If this were the world of the land, the premier would come in  
first.

But this is a sea world, so fishes come in according to their  
government titles.

Government titles of the sea country are recorded in a history  
book.

The fishes come as follows.

[Jajinmori] A turtle is a minister.

A snapper is an advisor to the king.

A croaker is a minister.

An octopus is a recorder of history.

A shark is a minister of the government record.

A sandfish is a regulator.

A shellfish holds a military officer.

해운궁<sup>268</sup>) 방개,<sup>269</sup>)  
 병사<sup>270</sup>) 청어,  
 군수 해구,<sup>271</sup>)  
 현감 홍어,  
 조부장<sup>272</sup>) 조구,<sup>273</sup>)  
 부변랑청<sup>274</sup>) 장대,<sup>275</sup>) 승대,<sup>276</sup>) 청달이,<sup>277</sup>) 가오리,  
 좌우 나줄,<sup>278</sup>) 금군<sup>279</sup>) 모조리,<sup>280</sup>) 상어, 술치,<sup>281</sup>) 눈치,<sup>282</sup>)  
 삼치, 멸치, 미끈<sup>283</sup>) 장어,  
 좌수<sup>284</sup>) 자가사리<sup>285</sup>)며, 껍지,<sup>286</sup>) 금리어,<sup>287</sup>)  
 장동이<sup>288</sup>) 망동이,<sup>289</sup>)  
 뼈각 뼈각 뼈각 들어와서 대왕전에 절을 꾸벅 꾸벅 꾸벅 꾸벅 하니,

## **6. (거북 천거) 토끼 간을 구해 올 신하로 용왕이 거북을 추천하니, 정언 잉어가 안 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용왕이 요만허고<sup>290</sup>) 보시더니,  
 “경내<sup>291</sup>) 중에 세상을 나가서 천년 토끼 간을 얻어 짐의 병을 구원할  
 자 누구 있나뇨?”<sup>292</sup>)  
 좌우의 신하들이 면면상고<sup>293</sup>)하고 묵묵부답<sup>294</sup>)이 되었었다.  
 [중모리] 왕이 푹푹 탄식한다.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군<sup>295</sup>) 개자추<sup>296</sup>)와  
 광초망신 기신<sup>297</sup>)이는 죽을 임군<sup>298</sup>)을 살렸건마는,  
 우리나라는 충신이 있어도  
 어느 누가 날 살리리오?”

A diving beetle is a ship captain,  
A herring is a general.  
A seal is a county administrator.  
A skate is a provincial head.  
A yellow corbina is a military officer.  
A sea robin, a purple fish, a blue ray, and a ray are secret agents.  
A gray mullet, a shark, a cornet fish,  
a mackerel, an anchovy, and a slippery eel are soldiers.  
A small yellow catfish, a striped flat fish, a golden carp,  
an indigo fish, and a goby are feudal lords.  
They come in crowd around and bow to the dragon king one by one.

**6. (Recommendation of a Turtle.) The dragon king designates a turtle to bring a hare's liver. A debate official, a carp, explains why the turtle can't go.**

[Aniri] Leaning back, the king has been watching the fishes.  
“Who will go out to the land and bring a thousand year old hare to cure me?”

The subjects are silent, looking at each other's face.

[Jungmori] The king heaves a sigh.

“There are loyal subjects in other countries.

Jie Zi Tui(介子推) saved his king by giving him his thigh to eat.

Ji Xian(紀信) saved his king by deceiving the enemy.

There might be a loyal official in my country.

Who will save me?”

정언<sup>299</sup>) 이어<sup>300</sup>)가 여짜오되,  
 “세상이라 허는 곳은 인심이 소박하야  
 지혜 용맹이 없는 자는 성공하기를 못허리다.”  
 “좌승상 거북이 어떠하뇨?”  
 “승상 거북은 지략<sup>301</sup>)이 넓사오나  
 복판<sup>302</sup>)이 모두 다 대모인 고로,<sup>303</sup>)  
 세상에 나가오면 인간들이 잡어다가 복판 떼어  
 대모장도,<sup>304</sup>) 밀이개살짝,<sup>305</sup>) 탕건<sup>306</sup>) 묘또기<sup>307</sup>)며, 주일쌈지<sup>308</sup>) 끈  
 까지 대모가 아니면은 헐 줄을 모르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 7. (방개 자원) 방개가 세상에 나가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자원하자, 용왕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이때에 해운공<sup>309</sup>) 방개<sup>310</sup>)가 열 발을 짹 벌리고 살살 기어  
 들어와서  
 공손히 복지하더니, 장담으로 말을 허는디,  
 [중중모리] “신의 고향 세상이요.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 벽계<sup>311</sup>) 산천수 가만히 잠신하야<sup>312</sup>) 천봉만학<sup>313</sup>)을 바라봐,  
 산중토<sup>314</sup>) 월중토<sup>315</sup>) 안면<sup>316</sup>)이 있사오니,  
 소신<sup>317</sup>)의 엄지발<sup>318</sup>)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득<sup>319</sup>) 안어다  
 가 대왕전<sup>320</sup>) 바치리다.”  
 [아니리] “네 말은 그러하나,  
 너 생긴 눈이 허망하게 폭 솟았기로

A carp, a debate officer, responds,  
 “They are merciless on the land.  
 No one lacking wisdom and courage can succeed.”  
 “What about the turtle, a minister?”  
 “The turtle is smart and knowledgeable.  
 But his shell is used by humans as an ornament.  
 If he goes out, humans will catch him and cut his shell off.  
 His shell will be widely used to make such things as knives,  
 tools, skullcaps, tobacco pouches, and cords.  
 So we can’t send him there.”

**7. (A Diving Beetle Volunteers) A diving beetle volunteers to go to the land to catch a hare. The dragon king explains why the diving beetle can’t go there.**

[Aniri] A diving beetle, a ship captain, steps forward slowly with his ten legs wide open.

He kneels down politely and speaks with confidence.

[Jungjungmori] “The land is my hometown. The land is my hometown.

Immersed in a blue stream in a green forest, I watched numerous mountain peaks and valleys.

I am familiar with hare in the mountain and on the moon.

I will grab hare’s thin waist with my claw and bring him to Your Majesty.”

[Aniri] “You say so.

Your eyes rise high from your body.

전거후거<sup>321</sup>)를 잘하니,  
가다가 뒷걸음질을 잘할 테니,  
물렀거라.”

## 8. (조개와 메기 추천) 조개와 메기를 추천하자, 잉어가 안 되는 이유를 말한다.

[중모리] “방침사<sup>322</sup>) 조개가 어떠하뇨?”

정언 잉어가 여짜오대,  
“방침사 조개는 철갑<sup>323</sup>)이 곳곳<sup>324</sup>)  
방신제도<sup>325</sup>)가 종사오나,  
옛 글에 이르기를, 관방홀지세허고 좌수어인지공이라.<sup>326</sup>)  
세상에를 나가오면, 홀조라는 새가 있어 수루루 펄펄 달려들어,  
홀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홀조를 물고, 서로 놓지를 못할 적에,  
어부에게 잡혀 가서 속절없이 죽을 터이니  
보내지를 못허리다.”

[아니리] “그리하면 어찌해야 옳단 말이냐?”

[자진모리] “수문장 물메기가 어떠하뇨?”

정언이 여짜오되  
“메기는 장수구대<sup>327</sup>)하고 호풍신<sup>328</sup>)하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룬 고로,<sup>329</sup>)  
세상을 나가오면 요기감<sup>330</sup>) 얻으려고 조그만헌 산천수<sup>331</sup>) 이리저리  
기댔 제,  
사립<sup>332</sup>) 쓴 어웅<sup>333</sup>)들이 사풍세우불수귀라 입감<sup>334</sup>) 뛰여서<sup>335</sup>) 물  
에 풍,



You move back and forth with ease.  
You will retreat easily in a dangerous situation.  
Step back.”

**8. (Recommendation of a Shellfish and a Catfish.) The  
dragon king recommends a shellfish and a catfish.  
A carp explains why they can't go.**

**[Jungmori]** “How about a shellfish?”

The carp, the debating official, answers.

“The shellfish’s body is covered with hard shell.

The shell protects his body.

But an ancient book says a shellfish once fought with a snipe.

On the land, the snipe flew at the shellfish vigorously.

The snipe and the shellfish bit each other and refused to release each other.

They were caught by a fisherman and died helplessly.

So we can’t send the shellfish there.”

**[Aniri]** “Then, whom should we send to the land?”

**[Jajinmori]** “If so, how about the gatekeeper, the catfish?”

The carp speaks.

“The catfish looks good with big mouth and long whiskers.

But his mouth is so big that he needs a lot of food.

If he goes out, he will wander around in small streams, looking for food.

Old fishermen wearing bamboo hats will cast hooks with baits into water.

탐식<sup>336</sup>)으로 덜컥 생켜<sup>337</sup> 단불요대<sup>338</sup> 죽게 되면  
인간의 이질, 복질, 설사, 배앓이 얻은 데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 9. (별주부 상소) 별주부가 들어와, 토끼 간을 구해오겠다는 상소를 올린다.

[아니레] 한참 이리 공론<sup>339</sup>)이 미결할 제,<sup>340</sup>  
[진양조] 영덕전<sup>341</sup>)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은목단죽<sup>342</sup>)이요, 장경오획<sup>343</sup>)로구나.  
호흥배<sup>344</sup>) 등에다 방패<sup>345</sup>)를 지고 양금양금<sup>346</sup>) 기어 들어오더니,  
국궁재배<sup>347</sup>)허고 상소<sup>348</sup>)를 올리거늘,

## 10. (토끼 화상) 별주부가 토끼 얼굴을 모르니 토끼 화상을 그려달라고 하자, 용왕이 화공을 불러 토끼 화상을 그리게 한다.

[아니레] 용왕이 상소 받아 보시고 칭찬 왈,  
“참으로 충신일다.<sup>349</sup>)  
그러나 우리 수국 충신이 다 세상 사람의 고기밥이 된다하니,  
그 아니 원통허냐?”  
별주부 여짜오대,  
“신은 사족<sup>350</sup>)이 구비하야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잘하와<sup>351</sup>)  
인간의 붕패<sup>352</sup>)는 없사오나,

The gluttonous catfish will bite the hook and die without fail.  
He will be used as a medicine for dysentery, stomachache,  
diarrhea, and belly trouble.  
So we can't send him there."

**9. (Terrapin's Formal Letter) Terrapin gives a formal letter to the dragon king that he will bring a hare's liver.**

[Aniri] There is no agreement so far.

[Jinyangjo] An official comes through the back gate of the palace.

He has small eyes, short legs, a long neck, and a curved mouth.  
He comes in slowly with a cloth on his hard shell.

He bows twice to the king and gives a formal letter to the king.

**10. (A Picture of a Hare) Terrapin asks for a picture of a hare, saying that he has not seen one before. The dragon king calls an artist and has him draw a picture of a hare.**

[Aniri] The dragon king reads the formal letter and praises him.  
"You are truly a loyal subject.

But every loyal subject of this sea palace says you will become food for humans on the land.

Isn't that sad?"

Terrapin responds,

"Having four limbs, I am good at seeing things on the surface of a river.

I will not fall into disaster.

해중지소생<sup>353</sup>)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sup>354</sup>)을 하나 그려 주사이다.”

“글랑은<sup>355</sup>) 그리 하여라.”

[중중모리] “화사자<sup>356</sup>)를 불러라.”

화공을 불러 들어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청홍연<sup>357</sup>) 금수추파<sup>358</sup>) 거북 연적<sup>359</sup>) 오징어로 먹 갈아,  
양두화필<sup>360</sup>)을 덩벽<sup>361</sup>) 풀어 단청 채색<sup>362</sup>)을 두루 묻히어서 이리저  
리 그린다.

천하명산<sup>363</sup>) 승지간의 경개<sup>364</sup>) 보던 눈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 제<sup>365</sup>)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난초 지초<sup>366</sup>) 원갯 행초<sup>367</sup>) 꽃 따 먹든 입 그리고,

봉래<sup>368</sup>) 방장<sup>369</sup>) 운무<sup>370</sup>) 중의 내<sup>371</sup>) 잘 맡던 코 그리고,

대한<sup>372</sup>) 엄동<sup>373</sup>) 설한풍<sup>374</sup>) 방풍<sup>375</sup>)하던 털 그리고,

만화방창화림중<sup>376</sup>) 펼 펼 뛰든 발 그리고,

두 귀는 쫓긋,<sup>377</sup>)

눈은 도리도리,<sup>378</sup>)

허리는 늘씬,<sup>379</sup>)

뽕뎡이<sup>380</sup>) 묘뚝,<sup>381</sup>)

좌편은 청산이요,

우편은 녹순데,<sup>382</sup>)

녹수청산<sup>383</sup>)의 애굽은<sup>384</sup>) 장송,<sup>385</sup>)

휘늘어진 녹음 속, 들랑날랑<sup>386</sup>) 오락가락

앙그주춤<sup>387</sup>) 기는 토끼

산중퇴<sup>388</sup>) 월중퇴,<sup>389</sup>) 화중퇴<sup>390</sup>) 얼푯<sup>391</sup>) 그려,

아미산월이 반륜추,<sup>392</sup>) 이어서<sup>393</sup>) 더할쏘냐?

“아나, 옳다,<sup>394</sup>)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I was born here, so I am not familiar with what a hare looks like.  
Please draw a picture of a hare for me.”

“That’s not a problem at all.”

**[Jungjungmori]** “Bring an artist here.”

An artist comes and draws a picture of a hare.

He uses a colorful inkstone, a turtle-like bowl, and black ink  
from a squid.

He puts a two-sided brush in the ink of various colors and  
moves the brush around.

He draws the picture of the eyes which were gazing at the  
beautiful scenery,

the ears which were listening to the songs of cuckoos and  
parrots,

the mouth which was eating fragrant grass and flowers,

the nose which was smelling everything in mountains covered  
with cloud and fog,

the fur which was protecting him from the cold wind and snow  
in winter.

the legs which were moving fast through the green spring forest.

The ears are straight up.

The eyes are round.

The waist is slim.

The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Tall pine trees hanging down are on the blue mountain and stream.

A hare appears to move in and out of a willow drooping down.

The hare appears to crawl hesitantly.

The hare is drawn swiftly in the picture.

He looks better than the one on a half moon over a mountain.

“Here you are, Terrapin.

Take this and go out.”

11. (별주부 모친 만류) 별주부가 용왕께 하직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모친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별주부 화상을 받아 들고 목덜미에다 턱 넣고 목을 쑥 움츠  
려 노니,

저 막통창사<sup>395</sup>)에 가 딱 붙어 있겠다.

필갑<sup>396</sup>)은 무던하야 물 한 점 내왕할 수가 없겠다.

어전 숙배<sup>397</sup>)허고 본댁<sup>398</sup>)으로 돌아오니,

그때여 별주부 모친 대부인<sup>399</sup>)이 이 소식을 듣고

천방지축<sup>400</sup>) 뛰어나와 별주부를 붙들고 가지 말라 만류허며,

통곡으로 울음을 우는디,

[진양조] “여봐라, 주부야. 너 내 말을 들어 보라.

네가 세상을 간다고 하니,

무엇하러 가라느냐?

삼대독자<sup>401</sup>) 네 아니냐?

가지 마라. 가지를 말어라.

장탄식<sup>402</sup>) 병이 든들

뉘 알뜰히 구환<sup>403</sup>)을 허며,

불쌍허신 너의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시었다

세류청계<sup>404</sup>) 맑은 물에 가련히 별세를 했으니,

너조차 갈라느냐?

네 한 몸이 죽어지면 골포사장<sup>405</sup>)에 희여져서<sup>406</sup>) 오연<sup>407</sup>)의 밥이  
된들,

뉘라 손뼉을 두다리며,<sup>408</sup>) 후여 처<sup>409</sup>) 날려주더란 말이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주부야.

11. (Terrapin's Mother Stops Terrapin.) Terrapin goes home after saying goodbye to the king. His mother tells him not to go to the land, shedding tears.

[Aniri] Terrapin takes the picture, puts it on the back of his neck, and draws his neck in.

The picture is attached to his deep place below, viz., his appendix.

Water cannot go in and out of the place.

Terrapin says goodbye to the king and goes to his home.

Meanwhile, Terrapin's mother heard the news about her son. She comes out hurriedly, holds Terrapin, and tells him not to go.

She wails.

[Jinyangjo] "Hello, Terrapin. Listen to me.

I heard you are going to the land.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You are the only son for three generations in a row.

Don't go. Don't go there.

I might get sick and give a deep sigh.

Who will take good care of me?

Your poor father went out to the land for sightseeing.

He died pitifully in a small and clear stream.

Do you want to go there too?

I might die and my white bones might become food for crows and kites.

Who will clap his hands and shout out to drive the birds away?

Don't go. Don't go, Terrapin.

제발덕분에 가지 마라.

네가 가면 어미 일을 어쩔라느냐?

위방불입<sup>410</sup>)이라니 가지를 말아라.”

## 12. (별주부 부인과 작별) 별주부가 화를 내는 부인에게 남 생이를 조심하라고 이른다.

[아니리] 별주부 여짜오대,

“나라<sup>411</sup>)에 환후<sup>412</sup>)가 계서 약 구하러 가는 길인데,

충성 지극하면 수로 육로 수만 리를 무사히 다녀올지니다.<sup>413</sup>)

아무 염려 마시옵소서.”

노모님전에 하직하고 침실에 잠깐 들렀더니,

별주부 마누라가 이 소문을 듣고

성을 내어 나오는데,

[중모리] 주부 마누라 말을 듣고 성을 내어 나오는데,

노기가 등등하고,<sup>414</sup>)

살기<sup>415</sup>)가 충천,<sup>416</sup>)

눈살<sup>417</sup>)이 꾀꾀하여<sup>418</sup>)

아장 아장 아장 아장 나오더니마는,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위수파광<sup>419</sup>) 깊은 물에 양주<sup>420</sup>) 서로 마주 떠 맛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 리 청산을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별주부 말을 듣고,



Please don't go there.  
If you go, what will become of me?  
A dangerous foreign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12.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Terrapin's  
wife is angry with him. He tells her to watch out  
for the tortoise.**

[Aniri] Terrapin explains.

"The king is ill, so I am leaving to get medicine.  
If I am loyal to the king, I will come back in one piece, taking  
a long trip over sea and land.

Don't worry about me."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old mother.

His wife heard the news about him.

Angry, she comes out.

[Jungmori] Angry, Terrapin's wife comes out.

Her face is filled with anger.

She is ready to kill anyone.

Her eyes are glaring.

She walks out in a cute manner.

"Hello, darling.

I can't believe you are going to the land.

We had good time together in the deep water, facing each other.

You forgot the good memory, going to the land far from here.

When are you coming back?"

Terrapin has been listening to her.

“아니,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그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당상<sup>421</sup>) 학발<sup>422</sup>) 늙은 모친 조석공대<sup>423</sup>)를 못 잊어요?

군신유의<sup>424</sup>) 장한 충성 조정 사직<sup>425</sup>)을 못 잊어요?

규중<sup>426</sup>)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sup>427</sup>)를 못 잊어요?

말을 허오, 말을 허여.

답답허니 어서 말을 허오.”

[아니레] 별주부 허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집 떠났단 소문이 멀리 나면,

변산 진털발<sup>428</sup>) 남생이<sup>429</sup>)란 놈이 소식을 듣고,

내 집을 종종 찾아다닐는지 몰라.

혹시 그놈은 나와 모양이 방사<sup>430</sup>)허나,

어두운 밤이라도 노랑내<sup>431</sup>)가 심히 나느니.

각별히 조심하오.”

충충히<sup>432</sup>) 작별허고,

### 13. (고고천변) 별주부가 세상에 나가 보니 세상 경치가 아름답다.

[중중모리] 수정문<sup>433</sup>) 밖 썩 나서,

고고천변일륜홍<sup>434</sup>) 부상<sup>435</sup>)에 높이 떠,

양곡<sup>436</sup>)의 잣인<sup>437</sup>) 안개 월봉으로<sup>438</sup>) 돌고돌아,

예장춘<sup>439</sup>) 멀어 있고,

회안봉<sup>440</sup>) 구름이 떴다.

노화<sup>441</sup>)는 다 눈 되고,

"I am going to the land, but one thing concerns me."

"What concerns you?"

Are you worried that your old mother might not be taken care of?

Are you worried about this country as a loyal subject?

Are you worried your young wife might not be faithful?

Talk to me. Talk to me.

I am anxious to know."

[Aniri] Terrapin responds,

"This is what worries me.

The word will spread that I left home.

The tortoise living in a field with long grass will hear the news.

I am afraid he might come to my home often.

He looks like me.

Bad smell comes out from his body even at night.

Watch out for him."

He says goodbye to her quickly.

### 13. (Sunrise) Terrapin sees the beautiful scenery in the world of the land.

[Jungjungmori] Terrapin goes out through the crystal gate.

The red sun rises high above the horizon.

A thick fog in the sunny valley moves around the Moon Peak.

A village is seen from a distance.

Clouds hang over a peak.

Reed flowers fall down like snow.

부평<sup>442</sup>)은 물에 등실 떠  
 어룡<sup>443</sup>)은 잠들고,  
 자고<sup>444</sup>)는 펄펄 날아  
 동정여천과시추<sup>445</sup>) 금성추파<sup>446</sup>)가 여기라.<sup>447</sup>)  
 앞발로 벽파<sup>448</sup>)를 찍어당겨, 뒷발로 창랑<sup>449</sup>)을 탕탕.  
 이리 저리 저리 요리,  
 양금 등실 떠 사면 바라보니,  
 지광<sup>450</sup>)은 칠백 리요,  
 파광<sup>451</sup>)은 천일색이라.<sup>452</sup>)  
 천외무산십이봉<sup>453</sup>)은 구름 밖에 가 멀고,  
 해외소상<sup>454</sup>)은 일천 리 눈 앞의 경<sup>455</sup>)이로다.  
 오초는 어이하야 동남으로 벌였고,  
 건곤은 어이하야 일야에 등실 떠,<sup>456</sup>)  
 남훈전<sup>457</sup>) 달 밝은데 오현금<sup>458</sup>)은 끊어지고,  
 낙포<sup>459</sup>)로 둥둥 가는 저 배,  
 쪼각달 무관수의<sup>460</sup>) 초 회왕<sup>461</sup>)의 원혼이요.  
 모래 속에 가 잠신하야<sup>462</sup>) 천봉만학<sup>463</sup>)을 바라봐,  
 만경대<sup>464</sup>) 구름 속 학선<sup>465</sup>)이 울어 있고,  
 칠보산<sup>466</sup>) 비리봉<sup>467</sup>) 허공에 솟아,  
 계산파물이울차야<sup>468</sup>) 산은 층층 높고,  
 경수무풍으야자파<sup>469</sup>) 물은 풍풍<sup>470</sup>) 짚고,<sup>471</sup>)  
 만산<sup>472</sup>)은 우루루루루루루,  
 국화는 점점, 낙화<sup>473</sup>)는 동동,<sup>474</sup>)  
 장송은 낙락,<sup>475</sup>) 늘어진 잡목,  
 평퍼진<sup>476</sup>) 떡갈, 다래몽동,<sup>477</sup>)

Duck weeds float on the pond.  
 Fishes sleep in the water.  
 A bird flies vigorously in the sky.  
 The breeze and the waves of a wide and clear lake signify  
 autumn.  
 Terrapin pulls and pushes blue waves of water with his front  
 and rear legs.  
 He moves around.  
 He gazes aroun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land is wide.  
 The color of the wat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sky.  
 Twelve peaks are above the clouds at a distance.  
 A beautiful river stretches for thousands of miles in front of  
 Terrapin's eyes.  
 Wu(吳) and Chu(楚) countries were to the east and to the south.  
 The sky and the earth are reflected on the lake day and night.  
 The sound of a pentachord stopped in a palace on the bright  
 moon.  
 A boat goes to a port.  
 It seems to be the vengeful spirit of an imprisoned king, King  
 Huai(懷).  
 Terrapin hides himself in the sands and sees numerous  
 mountains and valleys.  
 A crane sings on a tower in some clouds.  
 A peak rises high into the sky.  
 When the fog clears, the mountain looks even higher.  
 Clear and deep water creates waves without wind.  
 All the mountains are steep.  
 Mottled chrysanthemums, fallen leaves,  
 drooping branches of a tall pine, stretching scrubs,  
 a wide oak trees stumpy actinidia argutas,

칩년출,<sup>478)</sup> 머루, 다래,  
 으름년출,<sup>479)</sup> 능수버들이, 벗남기,<sup>480)</sup>  
 오미자, 치자, 감자,<sup>481)</sup> 대추,  
 갓인<sup>482)</sup> 과목<sup>483)</sup> 얼크러지고 뒤틀어져 구부<sup>484)</sup> 칭칭 감졌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sup>485)</sup>  
 갈매기, 해오리,  
 목포리,<sup>486)</sup> 원앙새,  
 강상<sup>487)</sup> 두루미, 수많은 떼고니,<sup>488)</sup>  
 소호천자 기관허든<sup>489)</sup> 만수문전의<sup>490)</sup> 봉황새,  
 양양창과점점부<sup>491)</sup> 사랑허다<sup>492)</sup>고 원앙새,  
 칠월 칠석 은하수 다리 놓던 오작이,<sup>493)</sup>  
 목포리,<sup>494)</sup> 해오리,<sup>495)</sup> 너수,<sup>496)</sup> 진검새,<sup>497)</sup> 아옥 따옥 이리저리 날아  
 들어.  
 또 한 경개<sup>498)</sup>를 바라봐.  
 치어다보니 만학천봉이요,<sup>499)</sup>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장.<sup>500)</sup>  
 예구부러진<sup>501)</sup> 늙은 장송<sup>502)</sup> 광풍<sup>503)</sup>을 못 이기어 우줄우줄<sup>504)</sup> 춤을  
 춘다.  
 원산<sup>505)</sup>은 암암,<sup>506)</sup>  
 근산<sup>507)</sup>은 중중,<sup>508)</sup>  
 기암<sup>509)</sup> 층층,<sup>510)</sup>  
 메사니<sup>511)</sup> 울어,  
 시내 유수난<sup>512)</sup> 청산으로 휘돌아,  
 이 골 물이 쭈루루루루, 저 골 물이 펄펄,<sup>513)</sup>  
 열의 열두 골<sup>514)</sup> 물이 한 데로<sup>515)</sup> 합수쳐,<sup>516)</sup>

kudzu vines, actinidia argutas, wild grapes,  
clematises, weeping willows, cherry trees,  
schizandra, gardenias, persimmons, jujubes,  
and all sorts of fruit trees are firmly intertwined with each other.  
A fishing boat comes back.  
Seagulls fly around.  
Seagulls, white herons,  
unknown birds, mandarin ducks,  
cranes on the river, numerous swans,  
a phoenix which used to work for the government at a gate,  
lovely mandarin ducks which drifted on the waves of the wide  
sea,  
crows and magpies which form a bridge in the Milky Way on  
July 7th,  
white herons, ospreys, and other birds come from different  
places.  
Terrapin beholds another place.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s are above.  
A white sandy plain is below.  
The branches of old drooping pine trees dance in the wild wind.  
Distant mountains are dusky.  
Close mountains are deep.  
Bizarre rocks are steep.  
Echoes are heard.  
Streams flow around green mountains.  
Flowing water generates sounds in valleys.  
Water from different valleys is combined in one place.

천방자 지방자 월턱져 구부져,<sup>517)</sup> 방울이 버큼져,<sup>518)</sup>  
 건너 평풍석<sup>519)</sup>에다 마주 짱짱 마주 썰려,<sup>520)</sup>  
 대해수중<sup>521)</sup>으로 내려가느라고 버큼<sup>522)</sup>이 북적,<sup>523)</sup>  
 물너울<sup>524)</sup>이 뒤뚱,<sup>525)</sup> 워르르르르 췌췌 뒤둥그러져<sup>526)</sup> 산이 울렁거  
 려<sup>527)</sup> 떠나간다.  
 아마도 예로고나,<sup>528)</sup>  
 요런 경개<sup>529)</sup>가 또 있나?

#### 14. (날짐승 상좌 다툼) 별주부가 한 편을 바라보니 온갖 날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한다.

[아니리] 그 때에 별주부는 운층경<sup>530)</sup> 높은 곳에 기어올라 바라보니,  
 전후불견<sup>531)</sup> 처음 보는 곳이라, 별주부 마음이 산란하것다.  
 [중모리] 층암절벽<sup>532)</sup> 기어올라 사면 산세<sup>533)</sup>를 살펴보니,  
 “전후 층층 산은 높고,  
 갈 길은 험준헌디,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토끼를 만나보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토끼 만날 길은 전혀 없네.”  
 한 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때에 마침<sup>534)</sup> 건너편에 여러 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좌다툼<sup>535)</sup>을 허  
 는구나.  
 [아니리] 한편을 바라보니,  
 원갓 날짐생<sup>536)</sup>들이 모여 들어 상좌다툼을 허는디,  
 앵무새가 나왔으며,  
 “내가 상좌를 하겠다.”



The water runs down wildly, making foam.  
It bumps head-on into large rocks.  
It heads to the middle of a wide sea while making foam.  
Large waves dance around, make loud sounds, and shake a  
mountain, as they go down.  
This is the scenery.  
What a spectacle it is!

**14. (Birds Compete for a High Seat.) Terrapin beholds  
a certain place. All sorts of birds gather and  
compete for a high seat.**

[Aniri] Terrapin climbs to a place covered with clouds and looks  
around.

He is confused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for him to see such  
things.

[Jungmori] Terrapin climbs a rugged cliff and looks at the  
mountains.

“There are high mountains in the front and in the rear.

The road is rugged.

Where can I find a hare?

No matter how hard I think, I have no idea where I can meet  
a hare.”

Terrapin looks at a certain place.

Just then, many animals gather and compete for a high seat.

[Aniri] Terrapin beholds a certain place.

All sorts of birds gather and compete for a high seat.

A parrot moves forward.

“Let me sit on the high seat.”

봉황새가 꾸짖어 왈,

“에라. 이놈 물렀거라.<sup>537)</sup>

네가 어디 상좌를 헌단 말이나?

내 이를게 들어보아라.”

[중모리] “네 내 말을 들어봐라.

순임금<sup>538)</sup> 남훈전<sup>539)</sup>에 오현금<sup>540)</sup> 가지시고 소소귀성<sup>541)</sup> 노래할 제,

기산<sup>542)</sup> 높은 봉 아침 별에 내가 가서 울음을 우니,

팔백 년 문물이 울울허여<sup>543)</sup> 주문무<sup>544)</sup> 나 겨시고,<sup>545)</sup>

만고대성<sup>546)</sup> 공부자<sup>547)</sup>도 내 앞에서 탄식허고,

천 길<sup>548)</sup>이나 높이 날아 기불탁속<sup>549)</sup>허여 있고,

영주산<sup>550)</sup> 석상 오동<sup>551)</sup> 기엄기엄 기어올라

소상오죽<sup>552)</sup> 좋은 열매 내 양식 하였으니,

그 아니 좋을쏜가?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아니리] 까마귀 나았으며,

“내가 상좌를 하겠다.”고 하니,

부영이 듣고,

“주둥이 길고,

전신에 흰빛 없고,

눈이 검은창<sup>553)</sup>뿐인 놈이

어디 상좌를 헌단 말이나?”

까마귀 왈,

“대구리<sup>554)</sup> 크고, 털 넘적허면 어른이나?

내 이를게 들어보아라.”

[엇중모리] “내 근본<sup>555)</sup>을 들어라. 네 내 근본을 들어 봐라.

이 주둥이 길기는 월왕 구천<sup>556)</sup>이 방불<sup>557)</sup>허고,

A phoenix scolds the parrot.

"You villain. Step back.

How can you sit on the high seat?

Let me tell you something."

**[Jungmori]** "Listen to me.

King Shun(舜) played a pentachord in a palace, making a dreary sound.

I sang a song on a peak in the morning sun.

Two great kings were born when the nation prospered for eight hundred years.

The greatest saint, Confucius, sighed because of me.

I flew high without eating food even if I was hungry.

I crawled up on a paulownia tree in a legendary mountain.

I fed on the good fruit of variegated bamboo along a river.

Isn't that great?

Aren't I your boss?"

**[Aniri]** A crow steps forward.

He says, "Let me sit on the high seat."

An owl responds,

"Your beak is long.

There is no white color in your entire body.

Even your eyes are all black.

How dare you sit on the high seat?"

The crow speaks,

"Can you say you are our boss because your head is big and your feathers are wide?

Let me tell you something."

**[Eot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root.

My beak is long like an ancient Chinese king.

이 몸이 검기는,<sup>558)</sup> 산음<sup>559)</sup>땅 지내다가 왕희지<sup>560)</sup> 세연지<sup>561)</sup>에 풍  
 덩 빠져 먹물 들어, 이몸이 검어 있고,  
 은하수 삼긴<sup>562)</sup> 후에 그 물에 다리를 놓아 건우 직녀 건너주고,  
 오는 길에 적벽강<sup>563)</sup> 성희<sup>564)</sup>혈 제,  
 남비<sup>565)</sup> 둥둥 떠 삼국홍망<sup>566)</sup>을 걱정하고,  
 공림의 반포은<sup>567)</sup>은 내 홀로 알았으니,  
 천하에 비금주수<sup>568)</sup> 효자는 나뿐이라.  
 아이고, 설운지고.  
 아이고, 설음이야.  
 아이고, 설음이야.”

[자진모리] 부엉이 허허 웃고,  
 “네 암만 그런대도, 네 심성<sup>569)</sup> 불측하야<sup>570)</sup>  
 열두 가지 울음을 지어,  
 과부집 남계<sup>571)</sup> 앓어 울음을 울어 동혈 제,<sup>572)</sup>  
 까옥까옥 또락또락 흥합흥합 괴이한 음성으로 수절 과부<sup>573)</sup> 유인하고,  
 네 소리 ‘꼭꼭’ 나면 세상 인간이 미워라 돌을 들어서 날릴 제,  
 너 날자 배 떨어지니,<sup>574)</sup>  
 세상에 미운 놈은 너밖에 또 있느냐?  
 빈 통이나 찾아가지,  
 이 좌석은 불길허다.”

## 15. (길짐승 상좌다툼) 또 한 편에서는 여러 길짐승들이 모 여 상좌다툼을 한다.

[아니리] 이렇듯이 날짐승들이 노닐 적에,

My body is black because I fell into a pond in which an ancient calligrapher washed his ink stone, and was dyed with ink.  
Ever since the galaxy was created, I have served as a bridge between Herdsman and Vega.

On my way back, stars were sparse above Chibi(赤壁) River.  
Hovering in the south sky, I pondered the rise and fall of the three ancient countries of China.

I take care of my old parents in an empty forest.  
I am the only animal supporting its parents.

Alas, How sad I am!

Alas, How sad I am!

Alas, How sad I am!"

[Jajinmori] The owl laughs loudly.

"Even so, you are born wicked.

You make twelve sounds.

You sit in a tree of a widow's house and confuse her.

With a weird voice, you entice a faithful widow to betray her deceased husband.

If your unpleasant cry is heard, humans pick up stones in hatred and drive you away.

If you fly, a pear falls down.

Who else is so detested?

Go and find an empty stump.

You bring bad luck to this seat."

**15. (Four-legged Animals Fight for the High Seat). In another place,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compete for the high seat.**

[Aniri] The birds play as said above.

또 한편을 바라보니

거기는 원갯 길짐승 모족<sup>575</sup>)들이 모여 들어 상좌다툼이 벌어졌는디,  
겹도 날 일이고, 가만히 은신<sup>576</sup>)하여 그 곳을 바라 볼 제

[중모레] 공부자 작춘추<sup>577</sup>)에 절필<sup>578</sup>)허던 기린이며,<sup>579</sup>)

삼군삼영<sup>580</sup>) 거동시<sup>581</sup>) 천자 옥련<sup>582</sup>)의 코끼리,  
옥경선관<sup>583</sup>) 승필<sup>584</sup>)허던 풍채 좋은 노사자<sup>585</sup>)와  
서백<sup>586</sup>)이 위수<sup>587</sup>) 사냥할 제 비웅비표<sup>588</sup>) 곰이로다.

창해박랑사중 저격시황<sup>589</sup>) 저 다람이,<sup>590</sup>)

강수동류원야성<sup>591</sup>)에 슬피 우는 저 잔나비,<sup>592</sup>)

피 많은 여우,

날랜 토끼,

털 좋은 너구리,

암곰, 숫곰, 멧돌<sup>593</sup>)이며, 노루 사슴 승냥이 오소리 담비<sup>594</sup>) 날담  
비<sup>595</sup>) 고라니<sup>596</sup>) 등물들이<sup>597</sup>) 앙금앙금 내려와서  
상좌다툼을 하는구나.

[아니레] “자 우리가 연년이<sup>598</sup>) 모여 노는 놀음에

상좌 없이 못 놀을레.”<sup>599</sup>)

금년부터는 연치<sup>600</sup>) 차례로 상좌를 정허고 늪이 어떠하오?”

“그 말이 옳습네.”

“그럼 저기 앉은 장도감<sup>601</sup>)은 언제 났소?”

노루 앉아 허는 말이,

[중모레]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보소.

내 나이를 셀작시면,<sup>602</sup>)

기경상천<sup>603</sup>) 이태백이 날과<sup>604</sup>) 둘이 동접<sup>605</sup>)허여 광산<sup>606</sup>) 십년 글을  
짓다,

태백은 인재로서 옥경<sup>607</sup>)으로 상천<sup>608</sup>)허고,

Terrapin beholds a place.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come and compete with one  
 another for the high seat.  
 Scared, Terrapin hides himself and looks at them.  
**[Jungmori]** Confucius ended his book with a story of hunting  
 down a giraffe.  
 An elephant carried a wagon for an emperor.  
 A god used to ride a large old lion in heaven.  
 A king came across a bear when he was hunting in a river.  
 A squirrel watched someone try to kill a king.  
 A river flowed constantly to the east, and a monkey wept sadly  
 at night.  
 A fox is sly.  
 A hare is fast.  
 A raccoon has great fur.  
 Such animals as a female bear, a male bear, a boar, a roe deer,  
 a deer, a dhole, a badger, a marten, a sable, and an elk come  
 slowly.  
 They compete for the high seat.  
**[Aniri]** “We gather every year to have fun.  
 There is no fun without a boss.  
 From this year on, why don’t we choose our boss in accordance  
 with our age before we have the party?”  
 “That’s a good idea.”  
 “Hi, there, Mr. Roe Deer. When were you born?”  
 The roe deer speaks.  
**[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Let me estimate my age.  
 Li Bai(李白) read poems with me for ten years and flew up to  
 heaven, riding a whale.  
 He was such a talented man that he ascended to the capital city  
 of heaven.

나는 미물<sup>(609)</sup> 짐승으로 이리 천케<sup>(610)</sup> 되었으나,  
태백과 연갑<sup>(611)</sup>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달파총<sup>(612)</sup> 너구리가 썩 나왔더니,  
“장도감도 내 아래요.”

[진양조] “달파총은 언제 낳소?”

“나의 연세 들어보오.  
동작대<sup>(613)</sup> 지은 집이 좌편은 옥룡각<sup>(614)</sup>이요, 우편은 금봉루<sup>(615)</sup>라.  
이교녀<sup>(616)</sup>에 뜻을 두고  
조자건<sup>(617)</sup>이 글을 지어 동작대부<sup>(618)</sup> 운허던<sup>(619)</sup>  
조맹덕<sup>(620)</sup>의 연갑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중중모리] 멧돌<sup>(621)</sup>이 들고 나온다. 멧돌이 들고 나온다.

꺼시려<sup>(622)</sup>을 끔적끔적<sup>(623)</sup>  
나발<sup>(624)</sup>같은 주둥이로  
입맛을 찌찌 다시며  
뒤뚱거리고 나온다.

“달파총도 내 아래요.”

“제낭청<sup>(625)</sup>은 언제 났소?”

“나의 연세 들어 보오.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sup>(626)</sup>에 사신 갔다,  
주린 충절 십구 년에 수발이 진백하여<sup>(627)</sup>  
고국산천 험한 길로 허유허유<sup>(628)</sup> 돌아오던  
소중량<sup>(629)</sup>의 연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아니리] 토끼가 깡장 뛰어 나왔더니,

[중중모리] “자네 내 나이를 들어보소.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봐.



Being an animal, I am worthless and humble here.  
 I am as old as the poet, so I deserve the high seat.”  
 A raccoon steps forward.  
 “Mr. Roe Deer, you are younger than I.”  
**[Jinyangjo]** “Mr. Raccoon, when were you born?”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Cao Cao(曹操) built a pavilion on the left and a tower on the right.  
 The premier had two girls in his mind.  
 He told his son to write a poem and recite it on the pavilion.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Jungjungmori]** A boar comes out. A boar jumps in.  
 He blinks his thorny eyes.  
 His mouth looks like a bugle.  
 He smacks his lips.  
 He staggers as he comes out.  
 “Mr. Raccoon, you are younger than I.”  
 “Mr. Boar, when were you born?”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Su Zhong Lang(蘇中郎) visited an enemy country as a diplomat.  
 His life was hard but he remained loyal to his country for 19 years, and his hair became gray.  
 He made an arduous journey back to his country.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Aniri]** A hare jumps up and sits down.  
**[Jungjungmori]** “Folks,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한 광무<sup>(630)</sup> 시절에 간의대부<sup>(631)</sup>를 마다하고,  
 부운<sup>(632)</sup>으로 차일<sup>(633)</sup> 삼고,  
 동강의 칠리탄<sup>(634)</sup> 뉘싯줄을 던져 놓고 고기 낚기하는 체하든  
 엄자룽<sup>(635)</sup>의 시조허고<sup>(636)</sup> 날과 둘이 동갑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토끼가 상좌를 허고  
 두 귀를 쫑긋쫑긋 하며 깡깡거리고 노닐 제,

## 16. (호랑이 등장) 이 때 굶주린 호랑이가 등장하니, 여러 짐승들이 두려워 떨며 호랑이를 상좌로 모신다.

[아니리] 이리 한참 놀 적에 저 아래서 여러 날 굶은 호랑이가 배가  
 딱 고파 올라오는데,  
 이 좋은 먹잇감 노는 것을 보았것다.  
 번쩍번쩍히는 몸뚱이를 쭉 늘이고 살같이 들어오며,  
 ‘으르릉’허고 달려드는디 장관<sup>(637)</sup>이었다.  
 못<sup>(638)</sup> 짐승들이 어찌 놀랐던지 한편으로 몰려 똥 오줌을 질금질금<sup>(639)</sup>  
 싸며,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오시오?”  
 “오, 이놈들 잘 만났다.  
 내가 지금 시장헌 판에  
 너희들 중에 살집<sup>(640)</sup> 좋고 살진 놈으로 빨리 하나 봉송<sup>(641)</sup>하여라.”  
 그 중에 멧돌이란 놈이 울음을 우는디,  
 “이놈 용케 잘 죽는다.  
 간밤에 꿈자리가 나쁘기로  
 이 잔치를 말자고 하였더니,

Yan Zi Ling(嚴子陵) declined the offer of a government position  
in ancient times.

He instead took clouds as a parasol.

He dipped a fishing line in a river, pretending to fish.

The fishing man and I are of the same age.

Isn't the high seat mine?"

The hare sit on the high seat.

He plays, moving his ears and jumping up and down.

## **16. (A Tiger Shows Up.) A hungry tiger shows up. Startled, the animals give him the high seat.**

[Aniri] While the animals have fun as said above, a tiger who  
hasn't eaten for several days comes up from below.

He sees good preys holding a party.

He stretches his shiny body long and come fast.

He roars at the animals, creating a show.

The animals so horrified that they shit and pee themselves as  
they move toward a place.

"General, where have you been?"

"It's good to see you all. You villains,

I am hungry now.

Pack up a plump one of you and send him to me right away."

Of the animals, the boar cries.

"I am dying by a curious coincidence.

I had a bad dream last night.

I proposed we discontinue this party.

속절없이<sup>642</sup> 내가 꼭 죽었구나.”

못 짐승들이 허는 말이,

“장군님 오늘은 연치를 찾아 상좌를 정하자는 놀이오니,

장군님은 언제 났소?

장군님 예법을 잘 아시리다.”

**[중모레]** “이놈들 내 나이를 들어 봐라.

혼돈미분태극초<sup>643</sup>)에

사정없이 너룬<sup>644</sup> 하늘 한편 쪽이 모자라서

광석<sup>645</sup>)을 다듬어 하늘을 때우던 여왜씨<sup>646</sup>) 동갑이니

내가 어른이 아니냐? 으르으르어형.”

달려드니

못 짐승들이 뿔어 엮드려,

야들이<sup>647</sup>) 모도 다 깜짝 놀라며, “아이고, 장군님. 아이고, 장군님.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 상좌로 앉으시오.”

**[아니레]** “오, 이놈들, 염려 마라.

오늘은 연치 찾아 규칙 있게 노는 놀이에,

내 백수지장<sup>648</sup>) 산군<sup>649</sup>)으로 살생을 하겠느냐?

내가 먹고 싶은 입맛을 좀 참으면 아니 좋으냐?”

한참 이리 할 제, 그 때에 별주부는 한편에 은신하야 그 곳을 바라  
볼 제,

호랑이를 토끼로 보고,

‘저기 저 바둑점<sup>650</sup>) 백이고<sup>651</sup>) 얼쑹덜쑹<sup>652</sup>)한 게 토생원 아니오?’ 허  
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만 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턱이 뻗뻗하게 늘어져  
토 자가 호 자가 되었것다.

“저기 저 바둑점 백이고 얼쑹덜쑹한 게 호생원 아니오?” 허고 불러노니,

I am bound to die today.”

The animals speak,

“General, we play the game of selecting our boss based on our age.

When were you born, general?

You must know the rules of etiquette.”

**[Jungmori]** “You villains.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When the universe was created, things were in chaos.

The sky was vast, but the half of it was empty.

I am as old as Nu Wa Shi(女媧氏) who fixed the sky with iron ore.

Aren’t I your boss? Come here.”

The tiger runs at the animals.

They kneel down.

They are so startled that they say, “Oh, general. Oh, general. Please sit on the high seat.”

**[Aniri]** “You rats! Don’t worry about that.

We are playing the game of seniority today.

How can I kill an animal today when I am the boss of all the animals?

I am hungry. Wouldn’t it be great to suppress my hunger?”

While the animals and the tiger are in that state, Terrapin watches them in secret.

Terrapin takes the tiger to be a hare.

Terrapin intended to say “Hey you mottled with black and white. Aren’t you Mr. Hare?”

His lower jaw is stiff because he pushed water with it on the long journey on the sea.

He mispronounced hare’s name.

He says, “Hey you mottled with black and white. Aren’t you Mr. Tiger?”

첩첩산중<sup>(653)</sup> 호랑이가 생원<sup>(654)</sup> 말 듣기 처음이라 이상하여,  
 무서운 대호<sup>(655)</sup>가 내려오느니 장관이었다.  
 [엇모래]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sup>(656)</sup>  
 깊은 골로 한 짐승 내려온다.  
 누에머리<sup>(657)</sup>를 흔들며,  
 양 귀 쪽 찢어져,  
 꼬리는 잔뜩 한 발<sup>(658)</sup>이 넘고,  
 전동<sup>(659)</sup>같은 앞다리,  
 동개<sup>(660)</sup>같은 뒷다리,  
 쇠낫<sup>(661)</sup>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sup>(662)</sup>를 좌르르 좌르르 흘리며,  
 주홍 입 찢 벌리고 자래 앞에 가 우뚝 서  
 ‘홍앵홍앵’ 허는 소리 산천이 뒤눕고,<sup>(663)</sup> 땅이 툭 꺼지는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sup>(664)</sup> 가만히 엎졌을 제,<sup>(665)</sup>

## 17.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호랑이가 내려와 별주부를 보고 잡아먹으려 하자, 별주부가 엉겁결에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아니레] 호랑이가 척<sup>(666)</sup> 내려와 보니, 아무 것도 없고 가마솥 얹어  
 놓은 것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누어 마른 쇠똥도 같다.  
 “이것이 날 불렀나?  
 두루평관<sup>(667)</sup>에 부쳐 놓은 밀부꾸미<sup>(668)</sup> 같다마는  
 고순<sup>(669)</sup> 내가 아니 나니 그도 아니요,  
 이리 봐도 둥글,

The tiger is puzzled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the tiger has  
been addressed with such respect.  
The frightening tiger comes down, generating a spectacle.  
**[Eonmori]** The tiger comes down.  
A beast comes down through a deep valley.  
He shakes his sharp head.  
His ears are torn apart.  
His tail is more than one meter long.  
His fore legs are strong.  
His hind legs look like arrow-carriers.  
With his long claws, he disturbs the thick sand and the roots  
of the grass.  
He opens his red mouth and stops in front of Terrapin.  
The tiger's roar seems to shake a stream and a mountain and  
destroy the ground.  
Terrapin is so scared that he remains motionless with his head  
pulled in.

**17. (The Tiger and Terrapin Meet.) The tiger comes  
down, sees Terrapin, and tries to eat him.  
Terrapin says his name by accident.**

**[Aniri]** The tiger has come down and realizes that there is only  
something which looks like an iron pot upside down.  
It also looks like dry cow dung.  
“Did this thing call me?  
It looks like a pancake on a wide round plate.  
It isn't a pancake because it doesn't smell good.  
It looks round in this direction.

저리 봐도 둥굴,  
 둥굴둥굴 우둥굴<sup>670</sup> 납작쇠<sup>671</sup>냐?”  
 대답이 없으니,  
 하늘을 보고 땅을 보더니,  
 “웁지. 이것이 하느님 똥이 떨어졌을까?  
 하느님 똥 먹으면 약이 될 터이니  
 먹어 보자.”  
 그 지독한 발을 별주부 등에다가 콧 부딪쳤었다.  
 자라가 복장<sup>672</sup>이 콧 막히어 깜짝 놀라  
 입부리<sup>673</sup>만 겨우 열어,  
 “게서<sup>674</sup> 뉘라 허시오?”  
 호랑이 듣고,  
 “아, 이것 봐라.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sup>675</sup>하자는데,  
 그것 묘허거든.  
 그래,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이라고 허는 어른이시다.  
 너는 대저<sup>676</sup> 무엇이냐?”  
 자라가 호랑이란 말을 듣고 어찌 놀랐든지 겹겹에<sup>677</sup> 말을 바른대로  
 일렀었다.  
 “나는 명색<sup>678</sup>이 자라 새끼요.”  
 호랑이가 자라 말을 듣고,  
 귀에 익은 이름이라 좋아라고,  
**[중중모리]** “얼씨구나, 좋을시고. 얼씨구나,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sup>679</sup>이 원일러니,  
 맛 좋은 진미를 배어 먹어보자. ‘어형’  
 허고 달려드니



It looks round in that direction.  
 Hey Mr. Round! Hey Mr. Flat!"  
 There is no answer.  
 The tiger looks up to the sky and back to the ground.  
 "Yes, this must be God's dung which fell down.  
 God's dung is good medicine.  
 Let's eat it."  
 The tiger puts his awful foot on Terrapin's back.  
 Terrapin is surprised and feels the pressure on his chest.  
 Terrapin barely opens the end of his mouth in his body.  
 "Hello, sir! Who are you?"  
 The tiger responds,  
 "Look at this. It wants to exchange names with me.  
 It looks strange.  
 Okay. I am Mr. Tiger, the ruler of the mountains.  
 What on earth are you?"  
 Terrapin is so startled at the word 'tiger' that he gives him his  
 name.  
 "Yes! I am Terrapin."  
 The tiger hears the name 'terrapin.'  
 He is pleased because it is a familiar name.  
**[Jungjungmori]** "Hurray! Yippee! Whoopee! Oh boy! What a  
 pleasure! What a pleasure!  
 I've wanted to eat terrapin soup all my life.  
 Let me bite and taste this cuisine. Come here!"  
 The tiger makes a move.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자라 아니오.”

“이놈,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sup>(680)</sup>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sup>(681)</sup> 명약<sup>(682)</sup>  
이라.

두 말 말고 먹자.”

“아이고, 내가 남생이<sup>(683)</sup>요.”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어쨌든 종기 습기<sup>(684)</sup>에는 남생이가 제일이라.

너를 산 채 먹어보자.

이리 오느라, 먹자.”

호랑이 좋아라고 ‘으르으르어형’ 하고 달려드니,

**[아니리]** 별주부 하릴없이 죽게 되었구나.

충성이 지극한 별주부는 이 급한 때라도 용왕을 사모하야<sup>(685)</sup> 양천통  
곡<sup>(686)</sup>을 하는디,

**[중모리]** 자라가 망극허여,<sup>(687)</sup>

“못 보겠네. 병든 용왕님을 못 보겠네.

천신이 감동허여 축송맹호<sup>(688)</sup>허여 주오.

연장군<sup>(689)</sup>의 살<sup>(690)</sup>을 빌려 사살백호<sup>(691)</sup>호를 허여 주오.

나 죽기는 싫잖으나,<sup>(692)</sup>

내가 만일 죽고 보면 어느 누가 토끼를 구하여다 병든 용왕님을 구원  
허리?

어쩔거나. 어쩔거나. 우리 용왕님을 어쩔거나? 아이고, 아이고.”

슬피 운다.

Terrapin is astonished.  
 “Oh, I am not a terrapin.”  
 “You rat! Then, what are you?”  
 “I am a toad.”  
 “A toad is even better.  
 If I roast you alive and eat you with wine, I will gain my health  
 back.  
 Let me eat you now.”  
 “Oh, I am a tortoise.”  
 “A tortoise is even better.  
 It is the best medicine for a boil and wet energy.  
 I will eat you alive.  
 Come here so I can eat you.”  
 Pleased, the tiger roars and moves at Terrapin.  
**[Aniri]** It appears Terrapin will die.  
 Being loyal to his king, Terrapin misses him and bewails in this  
 urgent situation.  
**[Jungmori]** Terrapin is grateful to the dragon king.  
 “I can’t see my dragon king anymore.  
 I wish heaven to move and drive the tiger away.  
 Please shoot an arrow at the tiger and kill him.  
 I don’t mind my dying.  
 If I die, however, who will get a hare and save my sick dragon  
 king?  
 What will become of my dragon king? Alas!”  
 Terrapin wails.

18. (별주부 호랑이 축송) 별주부가 목이 늘어난 내력을 말하고, 호랑이에게 겁을 주면서 불알을 꼭 물자, 호랑이가 급히 도망한다.

[아니리] 호랑이 보다가,

“아, 이놈아.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느냐? 이리 오너라. 먹자.”

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

화타,<sup>693</sup> 편작<sup>694</sup> 처방의 약화제<sup>695</sup>를 몽땅 살라<sup>696</sup> 먹고 달통<sup>697</sup>을 하였는가,

모르는 약이 없고 되는 대로 먹기로만 드는구나.

예라, 죽어도 패술<sup>698</sup>이나 한 번 써보리라.” 허고,

죽으면 대수<sup>699</sup>냐 하고 몽그릴 제,<sup>700</sup>

[자진모리] 저 자라 몽그렸다 목을 훔썩<sup>701</sup> 빼어 들고 호랑이 앞으로 바짝 바짝 바짝 달려들어,

“네 이놈 말 들어라. 호랑아, 내 목 나간다.

내가 수국 전옥주부<sup>702</sup> 공신<sup>703</sup> 사대손<sup>704</sup> 별주부 별나리<sup>705</sup>라 한다.”

바짝바짝 달려드니,

호랑이 뒤로 엉금엉금,

“허허, 그것 꺾이허다. 별나리, 별나리?

내가 이놈 별나리면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뒤움치기<sup>706</sup>를 잘 하느냐?”

별주부 이 말 듣고,

“나의 말을 들어봐라.

우리 수궁이 퇴락<sup>707</sup>하야

천여 간 온<sup>708</sup> 기와를 내 솜씨로 이을 제,

**18. (Terrapin Expels the Tiger) Terrapin explains how his neck got long, threatens the tiger, and bites the tiger's balls. The tiger runs away.**

[Aniri] The tiger has been watching Terrapin.

"You scoundrel. What are you murmuring? Come here. Let me eat you."

Terrapin is stunned.

He says, "This tiger is a bastard.

He must have mastered the medical books by famous ancient doctors: Hua Tuo(華陀) and Bian Que(扁鵲).

He knows all the medicine, resolute to eat anything.

I cannot but play a trick on him before I die."

He is ready to make a move, thinking that there is nothing great about death.

[Jajinmori] Terrapin gets ready, sticks out his long neck, and runs up at the tiger.

"You villain. Listen to me, tiger. Here goes my neck.

"I am Mr. Terrapin, the fourth descendent of a loyal official in the sea world."

Terrapin goes at the tiger.

The tiger steps back little by little.

"This is strange. Mr. Terrapin?

Are you good at pulling your neck in and out because you are Mr. Terrapin?"

Terrapin responds,

"Listen to my story.

Our sea palace once collapsed.

I was building a large tile-roofed house.

이 골 이고, 저 골 이고, 충설<sup>709</sup> 끝 돌아 단다 한 발이 자칫 미끄러져  
 뱅뱅 내려오다,  
 목으로 절컹 꺼꾸러져 뒤움치기가 되었는데,  
 명의다려<sup>710</sup> 물어본즉  
 호랑이 쓸개가 좋다기로,  
 우리 수궁 도리랑귀신<sup>711</sup> 잡어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는데,  
 네가 바로 그것이나?  
 쓸개 한 보<sup>712</sup> 못 주셨나?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비수검<sup>713</sup>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리랑 도리랑 살같이 쫓아 들어가,  
 호랑이 밀주머니<sup>714</sup>를 꼭 물고 뽕뽕 돌아 뚝 떼어 제껴노니,<sup>715</sup>  
 호랑이 어찌 아프든지 구르고 뛰고 몸부림쳐 어형엉 울며 질색하다,  
 “아이고, 별나리. 나 죽겠소. 조금만 놓으시오.”  
 떨어지면 대수냐 허고 도망가는데,  
**[휘모리]** 호랑이 몽그렸다 필쩍 뛰어 달아난다.  
 초가성<sup>716</sup> 놀랜 패왕<sup>717</sup> 겨우 약출<sup>718</sup>하는 격으로,<sup>719</sup>  
 휘전<sup>720</sup> 살 달아나듯,  
 매에 쫓긴 꿩 달아나듯,  
 귀에 불이 번쩍 철환<sup>721</sup> 단듯,<sup>722</sup> 주루루루.  
**[중모리]** 태산을 넘고, 강수<sup>723</sup>를 지내어  
 여 가<sup>724</sup> 번쩍, 저 가<sup>725</sup> 번쩍, 번뜻번뜻이<sup>726</sup> 달아날 제,  
 함경도 쇠스랑고개<sup>727</sup>에 번쩍 올라 앉아,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프구라.”<sup>728</sup>  
 아랫도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니,  
 처음에는 귀주머니<sup>729</sup>만큼 하던 것이 큰 북통만 허니 부어 버렸겠다.

While I was lifting riles, I took a false step around the corner  
 of the eaves and swirled down.  
 My neck touched the ground first, and it became like this.  
 I consulted a famous doctor.  
 A tiger's gall bladder is effective medicine.  
 I came here, riding a stream demon, to hunt down a tiger.  
 Are you a tiger?  
 Give me your gall bladder.  
 Is the stream demon there?  
 Cut this tiger's belly open with a sharp knife."  
 Terrapin moves swiftly to the tiger.  
 He bites the tiger's balls hard and turns around.  
 The tiger is in such pain that he goes wild and cries.  
 "Mr. Terrapin. I am dying. Please release me."  
 The tiger runs away, not caring that his balls might get off.  
**[Hwimori]** The tiger gets ready and runs away.  
 He runs as an ancient king who managed to escape a siege,  
 as a short arrow flies,  
 as a pheasant runs from a hawk,  
 and as a bullet is fired from a rifle near an ear.  
**[Jungmori]** The tiger goes over a mountain and crosses a river.  
 He shows up here and there as he runs away.  
 He climbs a mountain pass in Hamgyeong-do.  
 "Oh, my legs. My legs hurt."  
 The tiger looks down at the lower part of his body.  
 His balls were small, but now they are swollen to the size of  
 a drum.

“아따, 그 징그란 놈.

나의 용맹 아니었다면 속절없이 내가 꼭 죽었제.”

석산<sup>730</sup>) 바우 틈에 뜻밖에 남생이란 놈이 목을 길게 늘어 나오거늘,  
남생이를 자라로 보고,

“아이고, 저 징그란 놈 여기까지 또 왔구나.”

이놈이 어찌 놀랐든지 백두산 상상봉을 번개같이 도망쳐 가버린 후에,  
그때에 별주부는 범을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내 충성이 부족한가? 나의 정성이 부족한가?’

호랑이라 허는 것은 산중지영물<sup>731</sup>)이라.

나의 지기<sup>732</sup>)를 보랴 허고 이 변화<sup>733</sup>)를 붙였는지?

산신제<sup>734</sup>)를 모시어 보리라.’ 허고,

**[아니리]** 별주부는 일편단심<sup>735</sup>) 굳은 충성

청수<sup>736</sup>)에 목욕재계<sup>737</sup>)하고,

지성으로 산신제를 모신디,

## 19. (별주부 산신제) 별주부가 산신제 준비를 하고 축문을 지어 읽으며 토끼 만나기를 기원한다.

**[진양조]** 계변양류<sup>738</sup>) 늘어진 양류가지를 앞니로 잘끈 꺾어내어

진토<sup>739</sup>)를 쓱쓱 쓸어버리고, 암상<sup>740</sup>)으로 제판<sup>741</sup>) 삼고,

낙엽으로 배석<sup>742</sup>) 깔고,

산과목실<sup>743</sup>) 주워다가 방위 가려서 갈라놓고,

은어 한 마리 잡어내어 동두서미<sup>744</sup>)로 꾸며 놓고,

석하에<sup>745</sup>) 배례<sup>746</sup>)허고 지성독축<sup>747</sup>)을 허였으되,



“He is an awful bastard.  
 Without my bravery, I would have died.”  
 A tortoise suddenly comes out from between rocks of a rocky  
 mountain with his neck stuck out long.  
 The tiger takes the tortoise to be Terrapin.  
 “What an awful bastard! He followed me all the way here.”  
 The tiger is so startled that he flees to a peak of Baekdu  
 Mountain at the speed of lightning.  
 Meanwhile, Terrapin ponders after he drove the tiger away.  
 He speaks to himself, “I was not conscientious.  
 A tiger is a divine animal of a mountain.  
 A mountain god appeared in the form of the tiger to test my  
 fortitude.  
 Let me hold a ritual to the mountain god.”  
**[Aniri]** Terrapin is loyal to his king.  
 He takes a bath in the clean stream.  
 He holds a ritual with great care.

**19. (Ritual to a Mountain God) Terrapin prepares for  
 a ritual to a mountain god. He writes and reads  
 a ritual prayer, praying that he will meet a hare.**

**[Jinyangjo]** Terrapin cuts a drooping willow branch off by a  
 stream with his front teeth.  
 He brushes dirt off a flat rock and uses it as a ritual table.  
 He puts fallen leaves on the rock.  
 He picks up mountain fruits and places them in the right  
 directions.  
 He catches a fish and places it on the rock with its head to the  
 east and its tail to the west.  
 He bows politely and recites the ritual prayer conscientiously.

[축문] “유세차<sup>748</sup> 갑신 오월 갑진 삭<sup>749</sup> 초구일 임자  
 남해수궁 별주부 자라 감소고우.<sup>750</sup>  
 상천일월성신<sup>751</sup> 후토<sup>752</sup> 명산 신령님전<sup>753</sup> 지성 복축하느니다.<sup>754</sup>  
 남해용왕이 우연득병<sup>755</sup>하야  
 천의도사<sup>756</sup> 문병<sup>757</sup> 후에 천년토간<sup>758</sup> 즉차운헌 고로,<sup>759</sup>  
 차산중<sup>760</sup> 천년토일수<sup>761</sup> 허급<sup>762</sup>하사 천만축원.<sup>763</sup>  
 근이청작.<sup>764</sup> 상사<sup>765</sup> 상향.”<sup>766</sup>  
 이렇게 축수<sup>767</sup>를 한 연후로,

## 20. (별주부 토끼 상면) 별주부가 토끼를 발견하고 토생원 이냐고 물으니 토끼가 좋아하며 내려온다.

[중중모리] 한 곳을 바라보니 묘한 짐승이 앉았다.  
 두 귀는 쫘긋,  
 눈은 도리도리,<sup>768</sup>  
 허리 늘썸,  
 꼬맹이<sup>769</sup> 묘뚝.<sup>770</sup>  
 좌편은 청산이요,  
 우편은 녹순데,  
 녹수청산<sup>771</sup>에 에굽은<sup>772</sup> 길로 휘늘어진 양류<sup>773</sup> 속,  
 들랑날랑 오락가락 앙그주춤<sup>774</sup> 기는 토끼, 산중토,<sup>775</sup> 월중토.<sup>776</sup>  
 자라가 보고서 괴이 여겨,  
 화상<sup>777</sup>을 내어 보고 토끼를 바라보니 산중퇴<sup>778</sup> 월중퇴<sup>779</sup> 화중  
 퇴<sup>780</sup>가 분명쿠나.  
 자라가 보고서 좋아라고,

[Prayer Mode] “This ritual prayer begins on May 9th.  
Terrapin from the sea palace prays to you.  
I pray to the gods of the sun, the moon, the land, and famous mountains.  
The dragon king got sick suddenly.  
A god from heaven said a thousand year old hare’s liver would cure him immediately.  
I pray for a one-thousand-year-old hare in this mountain.  
Please drink this clear wine.”  
Terrapin recites the ritual prayer as said above.

**20. (Terrapin Meets a Hare.) Terrapin spots a hare and asks him whether he is a hare. Hare happily comes to Terrapin.**

[Jungjungmori] Terrapin spots a strange animal sitting in a place.  
His two ears are long.  
His two eyes are round.  
His waist is thin.  
His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A tall pine tree and a willow droop down by a blue stream and in the green mountain.  
A hare which is said to be in mountains and on the moon crawls in and out of the trees.  
Hare catches Terrapin’s interest.  
Terrapin looks at the picture and at Hare, and becomes certain that he is a hare.  
Terrapin is delighted to see Hare.

“저기 섰는 것이 토생원이오? 퇴생원!”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중에 놀든 토끼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펄쩍 나서면서,  
 “거 누가 날 찾나?  
 거 뉘기가<sup>781)</sup> 날 찾아?  
 기산<sup>782)</sup> 영수<sup>783)</sup> 소부<sup>784)</sup> 허유<sup>785)</sup> 피세 가자고<sup>786)</sup> 날 찾나?  
 수양산<sup>787)</sup> 백이 숙제<sup>788)</sup>가 재미허자고<sup>789)</sup> 날 찾나?  
 백화심처일승귀라 춘풍석교화림중<sup>790)</sup>에 성진<sup>791)</sup>화상<sup>792)</sup>이 날 찾나?  
 완월장취<sup>793)</sup> 강남 태백<sup>794)</sup>이 기경상천<sup>795)</sup>허는 길에 함께 가자고 날  
 찾나?  
 도화유수<sup>796)</sup> 무릉도원<sup>797)</sup> 어디 긴가<sup>798)</sup> 날 찾아?  
 청산기주백록탄<sup>799)</sup> 여동빈<sup>800)</sup>이 날 찾나?  
 차산중운심한데 부지처 오신 손님<sup>801)</sup> 날 찾을 리가 없건마는  
 거 뉘기가 날 찾아?  
 건넌산 과부 토끼가 연분<sup>802)</sup>을 맺자고 날 찾아?”  
 이리로 깡짱, 저리로 깡짱, 깡짱거리고 내려온다.

## **21. (토끼 흥미 자랑) 별주부가 토끼를 만나 흥미를 묻자 토끼가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며 얘기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내려오다 별주부하고 탁 들이받아 놓았겠다.  
 “아이고, 코야.”

He says, "Isn't that Mr. Hare over there? Mr. Hare!"  
 This is the first time Hare is addressed with such respect.  
 Pleased, he says,  
 "Who is looking for me?  
 Who is looking for me?  
 Are ancient hermits asking me to join them to live on a mountain  
 and by a river?  
 Are ancient brothers asking me to join them picking up brackens  
 for food on a mountain?  
 Are you the Buddhist monk who came back to a place where  
 there are all sorts of flowers, a spring wind, and a stone bridge?  
 Is the ancient poet who enjoyed wine and the moon asking me  
 to join him on the journey to heaven riding a whale?  
 Did a person from a paradise where peach blossoms flow in  
 a river come here?  
 Are you the ancient hermit who lived in a green mountain and  
 feared a blue shallow stream?  
 I am in deep mountains covered with clouds, so I am not  
 expecting anybody.  
 Who is looking for me?  
 Is the widow hare from the neighboring mountain proposing a  
 date?"  
 Hare jumps here and there unsteadily, and comes to Terrapin.

**21. (Hare Boasts of His Life) Terrapin meets Hare and  
 asks him how he enjoys his life. Hare brags about  
 his life.**

[Aniri] While Hare comes down, he bumps into Terrapin.  
 "My nose hurts."

“아이고, 이마빡이야.

아, 이분 초면에 이마빡은 왜 이리 받으시오?”

“이마빡은 고사하고

내 코도 다쳤소.

자, 우리 인사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별주부가 먼저, “게서 뉘라 하시오?”

토끼 대답하되, “나는 천상<sup>803</sup>)에서 이음양순사시<sup>804</sup>)하야 화초를 분별  
하든 예부상서<sup>805</sup>) 월퇴려니<sup>806</sup>)

도약주<sup>807</sup>) 취케 먹고

장생약<sup>808</sup>) 그릇 짓고

적하인간<sup>809</sup>) 산중에 머무른 제 오래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명색 토생원이라 허오.

게서는 누구라 하시오?”

자라가 토명<sup>810</sup>)을 반겨 들고,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sup>811</sup>) 공신<sup>812</sup>) 사대손<sup>813</sup>) 별주부 별나리<sup>814</sup>)라  
하오.

자, 우리 금일에야 상봉허니

하상견지만만무고불측<sup>815</sup>)이오그려.”

토끼가 듣고 생각허니, ‘저 놈이 단문<sup>816</sup>)하교야 저렇게 문자를 쓸 수  
있나?

내가 만일에 문자<sup>817</sup>) 하나라도 저 놈 앞에 잘못 단문하게 쓰다가는  
세상 문장들이 날로 인하야 망신을 당할 터이니,

내가 문자통<sup>818</sup>)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하고

무슨 문자라는지 뒤죽박죽 풀어 놓을 제,

“자 내 문자통 궁굴어가니 자세히 들어보오.

“My forehead hurts.  
 Why did you bump into my forehead on the first time we met?”  
 “Forget about your forehead.  
 My nose hurts.  
 Let’s greet each other.”  
 “That’s a good idea.”  
 Terrapin says, “Who are you?”  
 Hare answer, “I am Hare. I was a ceremonial officer in heaven  
 responsible for the smooth change of seasons.  
 I was drunk on a medicinal wine.  
 I made an elixir incorrectly.  
 I have been relegated to the earth for a long time.  
 They call me Mr. Hare here on earth.  
 Who are you?”  
 Terrapin is glad to hear about the word ‘hare.’  
 “I am Mr. Terrapin, the fourth descendent of a loyal official in  
 the sea world.”  
 We finally meet today.  
 I didn’t expect it would take so long to find you.”  
 Hare talks to himself, ‘He must be knowledgeable to speak with  
 such language.  
 If I speak a low level language in front of him, I will bring  
 disgrace to all people who speak a high level language.  
 I have no choice but to speak profound sentences to him.’  
 Hare throws out profound sentences incoherently.  
 “Listen carefully to my profound sentences.

법안홍안<sup>819</sup>)이요,  
 홍안백발<sup>820</sup>)이요,  
 아가사창<sup>821</sup>)이요,  
 홍불감장<sup>822</sup>)이요,  
 여담절각<sup>823</sup>)이요,  
 이불가독식<sup>824</sup>)이요,  
 전불괘괘<sup>825</sup>)이요,  
 탄탄대로<sup>826</sup>)요,  
 어동육서<sup>827</sup>)  
 홍동백서<sup>828</sup>)  
 좌포우혜<sup>829</sup>)요,  
 오육칠두루송이<sup>830</sup>)요,  
 일삼오대감<sup>831</sup>)이요,  
 일구이언은 이부지자<sup>832</sup>)요,  
 명기위적은 전라감영<sup>833</sup>)이 이 아니란 말이오?”  
 별주부 듣고 함소왈,<sup>834</sup>)  
 “토선생 높은 위명<sup>835</sup>) 들은 지 오래러니,  
 오늘에 화답<sup>836</sup>)허니 듣는 귀가 흰칠<sup>837</sup>)허오.  
 잘났다. 잘났어.  
 토선생 세상 흥미가 어떠허오?”  
 “내 팔자 홍락<sup>838</sup>)이 세상에서 무쌍<sup>839</sup>)이지요.  
 내 이를게 들어보시오.  
 강산풍월<sup>840</sup>)을 이를게 들어보시오.”  
**[중모리]** “임자 없는 녹수청산<sup>841</sup>)  
 일모황혼<sup>842</sup>) 저문 때에 월출동령<sup>843</sup>)의 잠을 깨어,  
 청림벽계<sup>844</sup>) 집을 삼고,



Eyes can penetrate things through principles.  
 A face is healthy, and hair is gray.  
 Your criticism against me can be directed to you.  
 You can't suppress your vigor.  
 My ox's horn is broken because of your fence.  
 You can't take all the benefits for yourself.  
 A crop can't be harvested.  
 The road is broad and flat.  
 Fish to the east, and meat to the west.  
 Red fruit to the east, and white fruit to the west.  
 Dried meat to the left, and a sweet rice drink to the right.  
 Five, six, and seven are lucky in gambling.  
 One, three, and seven are also lucky in gambling.  
 Contradicting oneself is like having two fathers.  
 The confession of a theft should be done at the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Terrapin smiles.  
 “I heard about your high fame long time ago.  
 Today, you finally responded to me clearly.  
 How great you are!  
 How is your life in the land?”  
 “My life is full of fun. It is the best in the world.  
 Let me tell you about it.  
 Listen to my story about my fun in nature.”  
**[Jungmori]** “Blue rivers and green mountains are ownerless.  
 I get up at twilight, when the moon rises over a peak in the  
 east.  
 I take green forests and streams as my home.

값이 없는 산과목실<sup>845)</sup> 양식을 삼아서 감식<sup>846)</sup>허고,  
 신여부운<sup>847)</sup> 일이 없어 명산 찾아서 완경<sup>848)</sup>혈 제,  
 여산 동남 오로봉<sup>849)</sup>과  
 진국명산<sup>850)</sup> 만장봉<sup>851)</sup>과  
 봉래 방장 영주 삼산<sup>852)</sup>이며,  
 태산 숭산 형산 화산<sup>853)</sup> 만학천봉,<sup>854)</sup>  
 구월<sup>855)</sup> 삼각<sup>856)</sup> 금강산 아미산<sup>857)</sup> 태백<sup>858)</sup> 수양<sup>859)</sup> 아미산을 아니  
 본 곳 없이 모도 놓고,  
 영주 상상봉<sup>860)</sup>을 완완히<sup>861)</sup> 기어올라  
 흑운<sup>862)</sup>을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여산의 낙조경<sup>863)</sup>과 위수<sup>864)</sup>의 일출경<sup>865)</sup>을 안하<sup>866)</sup>에 삼렬허니,<sup>867)</sup>  
 등태산소천하<sup>868)</sup>의 공부자<sup>869)</sup>의 대관<sup>870)</sup>인들 이에서 더하드란 말이오?  
 밤이면 완월<sup>871)</sup>하고,  
 낮이 되면 유산<sup>872)</sup>혈 제,  
 강산풍경 흥미간에<sup>873)</sup>  
 지상신선<sup>874)</sup>이 나뿐인가?  
 안기생<sup>875)</sup> 적송자<sup>876)</sup>를 나의 제자를 삼아 두고,  
 이따금 심심허면 종아리 서너 개씩 때려줍네.”<sup>877)</sup>

## 22. (토끼의 팔난) 별주부가 토끼의 험난한 삶을 말하며 겁을 준다.

[아니레] 별주부 듣고 함소왈,  
 “잘났다. 토선생 얼굴을 보니 남중일색<sup>878)</sup>이요,  
 발맵시가 오입쟁이<sup>879)</sup>요,  
 세상에서 몰라 그렇지,

I take the delicious fruit in the mountains as my food and eat  
 it for free.  
 I visited famous mountains leisurely like clouds.  
 I visited the Five Peaks which look like old men,  
 the high peak on which the future of a country depends,  
 and the three divine mountains,  
 and numerous valleys and other peaks.  
 There is not a famous mountain in Korea or China that I didn't  
 visit.  
 I slowly climbed a divine peak and saw things below.  
 I kicked away a black cloud and faced a white cloud.  
 I watched the sunset over a mountain and the sunrise over a  
 river below me.  
 I felt better than Confucius who said the world looked small  
 from the top of Tai Shan(泰山) Mountain.  
 I watch the moon at night.  
 I visit mountains by day.  
 I enjoy the beautiful mountains and rivers.  
 I am the only living god on land.  
 I treat two legendary gods as my students.  
 When bored, I lash their calves a few times."

## **22. (Hare's Eight Hardships) Terrapin threatens Hare, telling him about Hare's hard life.**

[Aniri] Terrapin smiles.  
 "Great. Your face is the most handsome.  
 Your feet indicate you are virile.  
 This world doesn't recognize you.

우리 수궁에 들어가면 호걸스런 저 풍골<sup>880</sup>)에 훈련대장을 꼭 하겠소.  
 그러나 미간<sup>881</sup>)에 화망살<sup>882</sup>)이 들어  
 생전에 죽을 지경을 여덟 번을 당하겠소.”  
 “어, 그 분 초면에<sup>883</sup>) 방정맞은 소리를 허는고?  
 내 미간이 어떻게 생겨서 하는 말이요?”  
 “토선생 거기 팔자 홍망을 이를 터이니 들어보시오.”  
 “아무커나<sup>884</sup>) 이르시오. 들어봅시다.”  
 별주부가 토끼 산중에 고통 광경을 그려보는데 그럴 듯하였다.  
**[자진모리]** “일개 한토<sup>885</sup>) 그대 신세  
 삼춘구추<sup>886</sup>) 다 지내고,  
 대한<sup>887</sup>) 엄동<sup>888</sup>) 설한풍<sup>889</sup>) 만학에<sup>890</sup>) 눈 쌓이고  
 천봉에<sup>891</sup>) 바람칠 제,  
 화초목살<sup>892</sup>) 바이없어<sup>893</sup>)  
 앵무원앙<sup>894</sup>)이 끊쳤다.  
 어둑한<sup>895</sup>) 바위 밑에 고풍 배 틀어쥐고 발바닥만 할짝할짝<sup>896</sup>) 더진  
 듯이<sup>897</sup>) 앓은 모양,  
 차운<sup>898</sup>) 편월<sup>899</sup>)의 무관수<sup>900</sup>) 초희왕<sup>901</sup>)의 원한이요,  
 일월고초 북해상 소중랑<sup>902</sup>) 원혼이라.  
 거의 주려서 죽을 토끼 삼동<sup>903</sup>) 고생을 겨우 지내,  
 벽도홍행<sup>904</sup>) 춘이월<sup>905</sup>)에 주린 구복<sup>906</sup>)을 채우려고, 심산궁곡<sup>907</sup>) 찾  
 고 찾아 이리 저리 히델<sup>908</sup>) 제,  
 골골이 묻은 것은 목달개<sup>909</sup>) 엄착귀<sup>910</sup>)요,  
 봉봉이<sup>911</sup>) 섰는 것은 매 받은<sup>912</sup>) 응주<sup>913</sup>)로다.  
 목달개에 채이거드면 결항치사<sup>914</sup>)가 대랑대랑 제수<sup>915</sup>) 고기가 될 것  
 이요,

If you go to the sea palace, you will become a general of military academy, given you look majestic.

But the space between your eyebrows means you are fated to die by fire.

You are fated to go through eight critical hardships.”

“We just met. How dare you make such a rude remark?

What’s wrong with the space between my eyebrows?”

“Let me tell you about the rise and fall in a hare’s fate.”

“You can say anything about my fate. I am ready to listen.”

Terrapin draws a plausible picture of how hard Hare’s life is in a mountain.

**[Jajinmori]** “You are just a hare with a trivial fate.

Spring and autumn go.

In cold winter, snow piles up on numerous valleys.

A wind blows hard on numerous peaks.

Flowers, grasses, and fruits are gone.

The parrot and the Mandarin duck disappear.

Under a dark rock, you hold your hungry belly and lick the bottom of your feet feebly, while sitting weakly.

Your fate is the same as that of the ancient king who died below radiant clouds and the crescent moon.

Your life is as hard as that of the ancient diplomat Su Wu(蘇武) who lived in a hut near the Caspian Sea.

You almost starve to death and manage to hang on in winter with your backbone bent.

When peach and apricot blossoms bloom in spring, you wander around deep mountains and valleys to fill your empty stomach.

Snares and traps are hidden in every valley.

Hunters stand up, holding up hawks on every peak.

If you are caught in a snare, you will be strangled to death and be served on a ritual food table.

물이꾼 사냥개 음산골<sup>916</sup>로 기어들어서 퍼긋퍼긋<sup>917</sup> 뛰어갈 제,  
 토끼 놀래 호도독호도독,<sup>918</sup>  
 ‘수알치<sup>919</sup> 매 놓아라!’  
 해동창<sup>920</sup> 보라매<sup>921</sup> 짓두루미<sup>922</sup> 빼깃<sup>923</sup> 공작우<sup>924</sup> 마루<sup>925</sup> 도래  
 장스치 바까치 떨쳐,<sup>926</sup>  
 쭉지 치고 수루루루루,<sup>927</sup>  
 그대 킷전 양 발로 당그랴게<sup>928</sup> 추켜 들고,  
 꼬부랑헌 주둥이로 양미간<sup>929</sup> 골치 대목<sup>930</sup>을 콕콕!“  
 “허허, 그 분이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그리 하는데?  
 그러면 누가 게<sup>931</sup> 있가디?<sup>932</sup>  
 산 중등<sup>933</sup>으로 돌지.”  
 “중등으로 돌아가면, 송하에<sup>934</sup> 숨은 것은 오는 토끼 놓으려고 불 차  
 리는<sup>935</sup> 도포수<sup>936</sup>라.  
 풀감투<sup>937</sup> 푸삼<sup>938</sup> 입고,  
 상사방물<sup>939</sup> 왜물<sup>940</sup> 조총<sup>941</sup> 화약 덮사슬<sup>942</sup>을 얼른 넣고,  
 반달같은 방아쇠,  
 고추 같은 불을 얹어,  
 한 눈 찡그리고 반만 일어서서,  
 닫는 토끼 찡그려 보고 꾸르르 탕!”  
 “어, 그분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 더 하는데.  
 그러면 누가 게 있가디?<sup>943</sup>  
 너른<sup>944</sup> 들로 다니제.”  
 “들로 내려가면 초동 목수<sup>945</sup> 아이눔들 몽둥이 드러메고,<sup>946</sup>  
 없는 개 호구리며,<sup>947</sup> ‘들토끼 잡으러 가자. 위리!’<sup>948</sup> 두두<sup>949</sup> 쫓아  
 갈 제,  
 그대 간장<sup>950</sup> 생각하니 백등칠일곤곤 한태조의 간장,<sup>951</sup>

Hunters and hunting dogs run to a dark valley, panting heavily.  
 Petrified, you move fast.  
 'Hunter, release a hawk.'  
 The young hawk has a tag of a crane's feather, a decoration of  
 a peacock's feather, and a leather cord on its leg.  
 It moves its wings and flies.  
 It catches you around your ears with two legs  
 With the curved beak it punches the bone between your two  
 eyebrows!"  
 "My goodness. I told you to stop the rude talk, but you keep  
 doing it."  
 If so, who would stay there?  
 I would run to the middle of a mountain."  
 "If you go to the middle of the mountain, a hunter hides under  
 a pine tree, ready to fire a rifle at you.  
 He wears a hat and clothing made of grass.  
 He loads a Japanese rifle with powder and a bullet right away.  
 The trigger looks like the half moon.  
 He kindles fire as red as pepper.  
 He squints his eye and stands half way up.  
 You run, but he frowns at you. Bang!"  
 "Gosh, I told you to cut out this unpleasant talk!  
 If so, who would stay there?  
 I would run to the open field."  
 "If you go down to the field, young woodcutters and cow-herds  
 carry sticks on their shoulders.  
 There is no dog, but they say "Let's go to hunt a hare" and chase  
 you.  
 You feel like the ancient king surrounded by an enemy for seven  
 days.

적벽강상화전중<sup>952)</sup> 조맹덕<sup>953)</sup> 정신이라.

거의 주려 죽을 토끼

충암절벽<sup>954)</sup> 석간<sup>955)</sup> 틈으로 기운 없이 올라갈 제,

짜룬<sup>956)</sup> 꼬리를 살에<sup>957)</sup> 끼고 요리 깡깡, 저리 깡깡, 깡깡접둥<sup>958)</sup> 뛰  
놀 제,

목궁기<sup>959)</sup> 쓴 내<sup>960)</sup> 나고,

밑궁기<sup>961)</sup> 조총 노니<sup>962)</sup>

그 아니 팔난<sup>963)</sup>인가?

팔난 세상 나는 싫네.

조생모사<sup>964)</sup> 자네 신세

한가하다고 뉘 이르며,

무슨 정<sup>965)</sup>으로 유산?

무슨 정에 완월?<sup>966)</sup>

아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단

그런 거짓부렁이<sup>967)</sup>를 뉘 앞에다가 내어 씹나?”<sup>968)</sup>

### 23. (수궁 흥미) 별주부가 수궁의 온갖 자랑을 늘어놓으며, 토끼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아니래] 토끼가 듣고 허는 말이,

“내 팔자 영락없이<sup>969)</sup> 꼭 다 옳소.

어찌 그리 잘 아시오?

수궁에 흥미는 어떠하오?”

별주부 답왈,<sup>970)</sup>

“수궁 흥미야 말할 게 없소.

천하에<sup>971)</sup> 제일이지요.”



You feel like the ancient premier Cao Cao(曹操) defeated by a  
 fire attack in Chibi(赤壁) River.  
 You narrowly escape death.  
 You climb weakly a rugged cliff through the spaces between the  
 rocks.  
 Your short tail is attached to your groin, and you jump around  
 here and there.  
 A bad smell comes out of your throat.  
 You are shot on the back.  
 These are the eight hardships.  
 I hate the eight hardships.  
 Your life is always in jeopardy.  
 Who says you have any leisure time?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visit mountains for fun?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enjoy the moon?  
 A few minutes ago, you said you lashed the calves of gods.  
 Did you think I would buy such a blatant lie?"

### **23. (Good Things about Sea Palace) Terrapin boasts of the sea palace, proposing to Hare to go with him.**

[Aniri] Hare has been listening.  
 "My fate is exactly as you described.  
 How did you know so well about my life?  
 How is the life in the sea palace?"  
 Terrapin responds,  
 "The life in the sea palace is fantastic.  
 It is the best in the world."

토끼가 허는 말이, “그러면 한 번 일러보시오. 들어봅시다.”

“우리 수국 풍경 듣고 좋으면 따라올려고 그러지요?”

“나 좋으면 따라갈랴요.”

별주부 속으로 좋아라고 수국 풍경 생애를 떠벌리는데,

“잘 들어나 보시오.”

[진양조] “우리 수궁 별천지<sup>972</sup>)라.

천양지간<sup>973</sup>)에 해내최대<sup>974</sup>)하고,

만물지중에<sup>975</sup>) 신위최령<sup>976</sup>)이라.

무변대해<sup>977</sup>)에 천여 간<sup>978</sup>) 집을 짓고,

유리 기둥, 호박 주초,<sup>979</sup>) 주란화각<sup>980</sup>)이 반공에<sup>981</sup>) 솟았는데,

우리 용왕 즉위하사<sup>982</sup>) 만조정<sup>983</sup>)이 구축<sup>984</sup>)허고, 백성이 안락<sup>985</sup>)이라.

앵무<sup>986</sup>) 금잔<sup>987</sup>) 천일주<sup>988</sup>)와

천빈옥반<sup>989</sup>) 담은 안주

불로초<sup>990</sup>) 불사약<sup>991</sup>)을 싫도록 먹은 후에,

일등 미색<sup>992</sup>) 갖은 풍류<sup>993</sup>)를 대홍선<sup>994</sup>)에다 가득 싣고 자연거수승  
거산<sup>995</sup>)이라.

요지<sup>996</sup>)로 돌아드니,

칠백 리 군산<sup>997</sup>)은 물 속에 벌여 있고,

십리사장<sup>998</sup>) 해당화는 약수<sup>999</sup>)에 붉었도다.

해내태평<sup>1000</sup>) 월청명<sup>1001</sup>)

추강상<sup>1002</sup>) 어적소리<sup>1003</sup>)를 화답<sup>1004</sup>)허고,

경수<sup>1005</sup>) 위수<sup>1006</sup>) 낙수<sup>1007</sup>) 회수<sup>1008</sup>) 양진<sup>1009</sup>) 포진<sup>1010</sup>) 팽예<sup>1011</sup>)

소상<sup>1012</sup>) 흑거흑래<sup>1013</sup>) 왕래헐 제,

적벽강<sup>1014</sup>) 소자첨<sup>1015</sup>)과 채석강<sup>1016</sup>) 태백<sup>1017</sup>) 홍미 이런 자미<sup>1018</sup>)  
를 알았으면 이 세상에 있을쏜가?

Hare says, "If so, tell me about it. I am ready to listen."

"Do you intend to follow me if the life in the sea palace sounds great to you?"

"If it is good, I will follow you."

Pleased deep in his mind, Terrapin talks about the sea life and landscape.

"Listen carefully."

**[Jungjungmori]** "My sea palace is a paradise.

It is the largest thing between heaven and earth.

It is the most sacred thing in the world.

My palace is wide in the limitlessly large sea.

Glass pillars, jade cornerstones, and multicolored towers rise to the sky.

When my king came to the throne, all the people became rich and happy.

A thousand-day-old wine is served on a shell.

Enough food for a thousand valuable guests is on a jade tray.

We help ourselves to the elixir of youth and elixir of no death.

We enjoy ourselves with beautiful girls on a shiny pleasure boat, thinking the water is better place to live in than a mountain.

The boat arrives at a divine pond.

Many mountains are reflected on the pond.

Wild roses are red on a long sandy field of a divine river.

The sea is peaceful, and the moon is bright.

We respond to a fisherman's flute on an autumn river.

We travel to and come back from famous rivers, their tributaries, ports, lakes, and sites famous for scenic beauty.

If ancient poets had known the excitement of the sea world, they would not have lived on the land.

원컨대 토선생도 나를 따라 수궁을 가면 훨씬 벗은<sup>1019</sup>) 저 풍골  
에<sup>1020</sup>) 좋은 벼슬을 헐 것이요,  
미인미색<sup>1021</sup>)을 밤낮으로 다리고<sup>1022</sup>) 만세동락<sup>1023</sup>)을 헐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를 갑세.”

#### 24. (여우 만류) 토끼가 별주부를 따라 수궁을 가는데, 여우 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토끼가 가만히 듣고 생각하더니,  
“월일견지수궁<sup>1024</sup>)이요,  
두 말 말고 따라갈라요.”  
남해 수변<sup>1025</sup>)을 내려가는데,  
토끼가 정든 고국산천을 떠나갈라 허니 마음이 일희일비<sup>1026</sup>)가 되어  
흑선흥후<sup>1027</sup>) 내려가는데,  
[중모리] 자래는 앞에서 앙금앙금,<sup>1028</sup>)  
토끼는 뒤에서 갱짱갱짱  
원로수변<sup>1029</sup>)으로 내려갈 제,  
건넌산 바위틈에 여호<sup>1030</sup>)란 놈이 나았으며,  
“여봐라, 토끼야!”  
“왜야?”  
“너 어디 가느냐?”  
“별주부 따라 수궁에 벼슬허러 간다.”  
“허허, 자식 실없는<sup>1031</sup>) 놈.  
불쌍허다, 저 토공아.  
녹록한<sup>1032</sup>) 네 놈 마음 말려 무엇허라마는,

Given that you look far more majestic than the average,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acquire a high government position.

You will be happy with beautiful girls and music day and night forever.

Don't worry. Follow me."

**24. (Fox's Dissuasion) Hare follows Terrapin to the sea palace. A fox shows up and tries to dissuade Hare from going.**

[Aniri] After listening to Terrapin, Hare ponders.

"I wish to see the sea palace.

Let me follow you without reservation."

Terrapin and Hare take the journey to the shore.

Hare is joyous and sad because he is leaving the hometown he feels attached to.

He is sometimes ahead of and sometimes behind Terrapin.

[Jungmori] Terrapin toddles ahead of Hare.

Hare scampers behind Terrapin.

They take the long journey to the shore.

A neighboring fox comes out from the lair between rocks.

"Hello, Hare!"

"Yes!"

"Where are you going?"

"I am following Terrapin to the sea palace to get a government position."

"My goodness. You are a fool.

How pathetic you are, Mr. Hare!

You are worthless, so it is of no use to try to stop you.

고인<sup>1033</sup>)이 이르기를 토사호비<sup>1034</sup>)라 하였으니,  
 너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에<sup>1035</sup>) 길들이고,<sup>1036</sup>)  
 임천<sup>1037</sup>)에 같이 놀아,  
 비 오고 안개 낀 날 발자취 서로 찾아  
 동성 삼아 동기상통<sup>1038</sup>) 일시 이별 말자더니,  
 저 지경이 웬일이냐?  
 옛말을 못 들었나?  
 칼 잘 쓰던 연인<sup>1039</sup>) 형가<sup>1040</sup>) 역수한풍<sup>1041</sup>) 슬픈 소리 장사일거<sup>1042</sup>)  
 계<sup>1043</sup>) 못 왔고,  
 천추 원한<sup>1044</sup>) 초희왕<sup>1045</sup>)도 진 무관<sup>1046</sup>)에 한 번 가서 다시 오지  
 못했으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수궁이라 하는 데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느니라.  
 위방불입<sup>1047</sup>) 난방불거<sup>1048</sup>)라니  
 수궁길을 가지 마라.”

## **25. (별주부 토끼 유인) 토끼가 주저하자 별주부가 토끼를 유인하여 수궁으로 출발한다.**

[아니레] 이 말 듣고 따라오든 토끼 발딱 자드라지는다,<sup>1049</sup>)  
 “별주부 잘 가시오.  
 나 오늘 저 우리 여호 사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보았소.  
 평안히 가시오.”  
 따뜻한 양지쪽에 앉아  
 낮<sup>1050</sup>)만 좋은 반찬 구이 생선도막 되작이듯<sup>1051</sup>) 이리저리 되작되  
 작<sup>1052</sup>)허고 있으니,

A proverb says, however, that if a hare dies, a fox mourns.  
We lived together in a burrow under a rock in this mountain.  
We had fun together in nature.  
On rainy and foggy days, we traced each other, using footprints.  
We were good friends and promised not to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even temporarily.  
I can't believe what is happening now.  
Don't you know the old saying?  
An ancient swordsman left a river in a cold wind to kill a tyrant  
king, but he could not return.  
An ancient king went to a certain place, lived a resentment-filled  
life, and he never came back.  
Don't go there!  
The sea palace is a place of no return.  
A dangerous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Don't go to the sea palace."

## **25. (Terrapin Wins Hare Over.) Hare hesitates. Terrapin wins Hare over. They depart for the sea palace.**

[Aniri] Hearing the fox, Hare stops following Terrapin.  
"So long, Terrapin.  
But for my cousin, the fox, I would have gotten into big trouble.  
Take care."  
Hare sits in a sunny place.  
He moves his face around, as if he were moving a piece of  
baked fish served as a side dish.

별주부 기가 막혀 얼른 생각하니 이놈 속<sup>1053</sup>)을 한 번 푹 찢러봐  
야<sup>1054</sup>) 하겠거든.

토끼 속을 한 번 푹 찢러 넘겨보겠다.<sup>1055</sup>)

[자진모리] “너 이놈아, 썩 가거라. 이놈아, 썩 가거라.

장부 의심이 많으면 대소성사<sup>1056</sup>) 못허느니라.

너 생긴 모양 상<sup>1057</sup>)이 무슨 복이 있으며,

인중<sup>1058</sup>) 밑 팔룬<sup>1059</sup>) 것은 단명격<sup>1060</sup>)이 분명하고,

안중<sup>1061</sup>)에 화망살이 들어

내일 일모시<sup>1062</sup>) 김포수 날랜 총 네 놈의 징구리<sup>1063</sup>) 들이대고, 꾸루  
루루루 쿵!”

[아니리] 토끼 깜짝 놀래,

“여보, 쿵 소리 좀 내지 마시오.

나 총소리만 들으면 간담이 서늘하오.

그러면, 여보시오. 수궁에 들어가면 총 없소?”

“이런 갑갑한 양반 있나?

총이라는 것은 불이 있어야 나가는데

물속에서 어떻게 쏘?”

“그러면은 화망살은 없어지오?”

별주부 대답하되, “우리 수궁에 들어가면 화망살은 응당 면하려니와  
대번에 훈련대장을 꼭 하지요.”

“그럼 여기서 수궁이 얼마나 머요?”

별주부 구변<sup>1064</sup>)을 다시 내어,

[중모리] “수궁 천 리 머다 마소.

맹자도 불원천리<sup>1065</sup>) 양혜왕<sup>1066</sup>)을 가 보았고,<sup>1067</sup>)

어부 강태공<sup>1068</sup>)도 문왕<sup>1069</sup>) 따라서 입주<sup>1070</sup>)하고,

한기도창 축도난 황면장군 한신이<sup>1071</sup>)도 소하<sup>1072</sup>) 따라 한중<sup>1073</sup>) 가  
서 대장단에<sup>1074</sup>) 올랐으니,



Dumfounded, Terrapin thinks that he should make Hare angry.  
He pierces Hare's mind to see what happens.

**[Jajinmori]** "You scoundrel! Gest lost!

If you doubt a lot, you can accomplish nothing.

There is nothing fortunate about your look.

The short line in your upper lip indicates you will surely die young.

Your red eyes signify you will die by fire.

At sunset tomorrow, a fast hunter will point his rifle at your head. Bang!"

**[Aniri]** Hare is horrified.

"Gosh. Cut the word 'bang' out of your language.

The word 'bang' scares me.

By the way, aren't there rifles in the sea palace?"

"How ignorant you are!

Look, a rifle can't be triggered without fire.

How can a rifle be fired in water?"

"Then, I won't die by fire. Right?"

Terrapin replies, "If you go to the sea palace, you will avoid the fate to die by fire.

You will become a general of military academy immediately."

"How far is the sea palace from here?"

Terrapin becomes eloquent again.

**[Jungmori]** "Don't say the sea palace is far.

Mencius visited his king, taking a long journey.

An ancient fisherman followed his king and became his premier.

An ancient military officer who led his soldiers on a muddy road followed a politician and became a general.

토선생도 나를 따라 우리 수궁 들어가면 훨씬 벗은<sup>1075)</sup> 저 풍골<sup>1076)</sup>  
 에 좋은 벼슬을 할 것이요,  
 화용미색<sup>1077)</sup>들을 화초 속에서 밤낮없이 다리고서 만세동락을 할 것  
 이니,  
 염려 말고 나를 따라 갑세.”<sup>1078)</sup>  
 “그리하면 갑세그러.”  
 강상을 바라보니  
 도용도용<sup>1079)</sup> 떠가는 배는  
 한가할손 추장<sup>1080)</sup> 어부 풍월<sup>1081)</sup> 신고 가는 뱃가?  
 십리장강벽파상<sup>1082)</sup>에 왕래허든 거룻뱃가?<sup>1083)</sup>  
 오호상 연월 속에 범상국 가는 뱃가?<sup>1084)</sup>  
 야박진회근주가<sup>1085)</sup> 술 사 신고 가는 뱃가?  
 양양창과<sup>1086)</sup> 노니난<sup>1087)</sup> 깃 쌍쌍백구<sup>1088)</sup>가 떠서 논다.  
 “소소추풍송안군<sup>1089)</sup>에 슬피 우는 저 기력아,  
 네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sup>1090)</sup>으로 가려느냐?  
 동정호<sup>1091)</sup>로 가려느냐?  
 가지 말고 게<sup>1092)</sup> 잠깐 머물러 내의 한 말을<sup>1093)</sup> 들어서라.  
 백운창산<sup>1094)</sup> 놀든 토끼가 벽해<sup>1095)</sup> 수궁에 내가 들어 가드라고,  
 우리 벗님 앵무 전에 그 말 조금 부디 전하여다오.”  
 잔말을 허고 내려갈 제,  
 그날사 말고<sup>1096)</sup> 풍세<sup>1097)</sup>가 사나와  
 물결이 워르르르 출렁 쉼 뒤둥그러<sup>1098)</sup> 떠내려간다.  
**[아니리]** “아이고, 저 물 보라.  
 물속에 들어가 훈련대장은 말고 용왕이 된다고 하여도 저 물 무서워  
 못 가겠소.”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get a good government job, given that you look majestic.

You will be happy with beautiful girls in a garden day and night forever.

Don't worry. Follow me."

"If that is so, let's go."

Hare and Terrapin look at the surface of the river.

A boat moves gently by the waves.

Is it going to carry a fisherman's poem in the quiet autumn river?

Is it the barge that traveled back and forth in the wide blue river?

Is it the boat in which an ancient retired politician enjoyed himself on at a foggy moonlit night?

Is it a boat carrying wine to a bar?

Sea gulls fly in pairs over the endlessly wide blue water.

"Wild geese, you sing sadly in a lonely autumn wind.

Where are you headed?

Are you headed to a river?

Are you headed to a lake?

Don't go. Stay there for a moment and listen to me.

A hare who lived in a mountain and a cloud is going to the sea palace.

Please tell my friend, a parrot, about that."

Hare whines as he walks along.

Of all days, it is a windy day.

Strong waves of water move away, twisted and crushed.

[Aniri] "Look at that water.

I won't get into that water even if I become a dragon king, to say nothing of a training officer."

까딱하면 뒤로 돌아 주 자 판<sup>1099</sup>)을 하게 되었는데,  
 별주부 속으로는 기가 맥힐 일이 났제.  
 “예끼, 복쪼가리<sup>1100</sup>) 없는너르<sup>1101</sup>) 자식!  
 벼슬하러 가자닝개<sup>1102</sup>)  
 용대기<sup>1103</sup>) 뒷줄 췌기듯<sup>1104</sup>) 장히<sup>1105</sup>) 자센다.<sup>1106</sup>)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갈라면 어서 췌 가거라, 이놈아!”  
 별주부가 물로 선뜻 들어가서 해엄을 둥둥둥둥 멋있게 치고 놀며,  
 “이렇게 시원도 허고, 이 아니 좋으냐?  
 무엇이 무서워야?”  
 토끼가 보더니,  
 “아니, 여, 별주부! 그러면 좋은 수가 있소.  
 내가 저기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내 뒷발 물에 점거보아<sup>1107</sup>)  
 발목물만 지면<sup>1108</sup>) 가려니와,  
 깊으면 갈 수 없소.”  
 “글랑 그리 하오.”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잡고,  
 “자, 발목물에 닿을만한가 보시오?  
 자, 어디만큼 닿았는가 좀 보시오.”  
 그때에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짐생<sup>1109</sup>)이라,  
 편전<sup>1110</sup>) 살<sup>1111</sup>)같이 들어가서 토끼 뒷다리를 꼭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sup>1112</sup>) 끌어 들어가니,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나 죽겠다. 조금만 놓아라, 똥 싸겠다.”  
 “아가리 벌리지 마라.  
 찢물 입에 들어가면 지레<sup>1113</sup>) 죽는다.  
 내 등에 가만히 업혀서 세상 구경이나 허고 들어가세.”

Hare is about to turn around and run away.  
 Terrapin thinks that Hare is beyond salvage.  
 “How stupid you are! You scoundrel!  
 I am just trying to get you a government position.  
 You are stubborn, and you are not pliable.  
 You can come with me or stay there.  
 If you want to go back, get lost right away. You villain!”  
 Terrapin gets into the water without hesitation and swims  
 around on the surface elegantly.  
 “I feel good here. Isn’t this great?  
 What are you afraid of?”  
 Hare watches Terrapin.  
 “Hello, Terrapin. I’ve got an idea.  
 I will hold that willow branch and dip my hind leg in water.  
 If the water stays below my ankle, I will go.  
 If the water is deeper than that, I won’t go.”  
 “Suit yourself.”  
 Hare holds a willow branch.  
 “Check whether water reaches my ankle.  
 Tell me where water reaches.”  
 Terrapin is an aquatic animal.  
 Like a sharp arrow, Terrapin runs to Hare and bites his hind  
 leg.  
 Terrapin gets into the water, creating waves.  
 “Terrapin, you villain! I am dying. Let go of me. I might take  
 a shit.”  
 “Don’t open your mouth.  
 If salty water gets in, you will die.  
 Just enjoy the beautiful landscape on my back.”

## 26. (범피중류)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소상팔경을 구경하며 수궁으로 들어간다.

[진양조] 범피중류<sup>1114</sup>) 등덩실<sup>1115</sup>) 떠나간다.

망망<sup>1116</sup>)한 창해<sup>1117</sup>)이며,

탕탕한<sup>1118</sup>) 물결이라.

백빈주<sup>1119</sup>) 갈매기는 흥요안<sup>1120</sup>)으로 날아들고,

삼강<sup>1121</sup>)의 기러기는 한수<sup>1122</sup>)로 돌아든다.

요랑한<sup>1123</sup>) 남은 소리 어적<sup>1124</sup>) 이언마는<sup>1125</sup>)

곡종인불견<sup>1126</sup>)의 수봉<sup>1127</sup>)만 푸르렀다.

애내성중만고수<sup>1128</sup>)는 날로 두고<sup>1129</sup>) 이름인가?

장사<sup>1130</sup>)를 지내가니 가태부<sup>1131</sup>)는 간 곳이 없고,

떡라수<sup>1132</sup>)를 바라보니 굴삼려<sup>1133</sup>) 어복충훈<sup>1134</sup>) 무양<sup>1135</sup>)도 하시  
던가?

황학루<sup>1136</sup>)를 당도하니 일모향관하처시오?

연파강상의 사인수는 최호의 유적인가?<sup>1137</sup>)

봉황대<sup>1138</sup>)를 당도하니 삼산은 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sup>1139</sup>)는 이태백이 놀던 데요,

심양강<sup>1140</sup>)을 돌아드니, 백낙천<sup>1141</sup>) 일거후에<sup>1142</sup>) 비파성<sup>1143</sup>)도 끊  
어지고,

적벽강<sup>1144</sup>)을 그저<sup>1145</sup>) 가랴?

소동파<sup>1146</sup>) 놀던 풍월 의구하여<sup>1147</sup>) 있다마는,

조맹덕<sup>1148</sup>) 일세지웅<sup>1149</sup>) 이금에 안재오?<sup>1150</sup>)

월락오제<sup>1151</sup>) 깊은 밤에 고소성외<sup>1152</sup>) 배를 매니,

**26. (On the Sea). Terrapin goes to the sea palace with  
Hare on his back while watching the eight  
beautiful sites.**

[Jinyangjo] Terrapin and Hare go slowly in the wide sea.  
The sea is endlessly wide.  
The large waves are strong.  
Sea gulls fly from the island of white flowers to the hill of red reeds.  
Wild geese return from three rivers to another river.  
A far-reaching sound seems to be from a fisherman's flute.  
When the song is over, only a few green peaks are seen.  
The oar sounds seem to express anxiety.  
Terrapin and Hare pass a place where a famous politician and poet lived in ancient times.  
They watch a river and say hello to a loyal official who became food for fish in the river in ancient times.  
They arrive at a tower where an ancient poet said "The sun sets.  
Where is my hometown?  
A fog rising up from the river intensifies my anxiety."  
They reach another tower and see clouds hanging around the middle of Three Peaks.  
A river flows around the island where another ancient poet enjoyed himself.  
Terrapin and Hare enter another river where a lute sound stopped after another ancient poet had gone.  
They drop by another river.  
The beautiful site remains the same as when another ancient poet enjoyed himself.  
In ancient times a hero was here, but he has gone.  
A boat casts an anchor near a castle at night when the moon sets and a crow cries.

한산사<sup>1153</sup>) 쇠북소리는<sup>1154</sup>) 객선에<sup>1155</sup>) 텅텅 떨어진다.  
 진회수<sup>1156</sup>)를 바라보니,  
 연룡한수월룡사할 제,<sup>1157</sup>)  
 상녀<sup>1158</sup>)는 부지망국한<sup>1159</sup>)하고, 격강유창후정화<sup>1160</sup>)를 즐기더라.  
 소상강을 들어가니 악양루<sup>1161</sup>) 높은 집은 호상에<sup>1162</sup>) 솟았는 듯.  
 점점 수궁을 당도하여 동으로 바라보니 삼백 척<sup>1163</sup>) 부상<sup>1164</sup>) 위에  
 일륜홍이<sup>1165</sup>) 어리었고,  
 바다가 뒤끓으며<sup>1166</sup>) 어룡<sup>1167</sup>)이 싸우는 듯  
 수진남천<sup>1168</sup>) 둘러 있고,  
 서로<sup>1169</sup>) 바라보니 서천서역<sup>1170</sup>) 연화세계<sup>1171</sup>) 삭발일체<sup>1172</sup>) 대  
 사<sup>1173</sup>)들이 경문<sup>1174</sup>) 놓고 설법<sup>1175</sup>)한다.  
 한 곳을 당도하니 금계<sup>1176</sup>)소리가 쨍쨍 은은히 들리거늘,  
 눈을 들어 가만히 살펴보니 백옥 현관<sup>1177</sup>)에 황금 대자<sup>1178</sup>)로 ‘남해  
 수궁 수정문’이라 동두렛이<sup>1179</sup>) 새겼거늘,  
 토끼가 보고 좋아라고 한다.

## 27. (토끼 잡아들임) 수궁에 당도하여 나졸들이 토끼를 잡 아들이자, 토끼가 자신은 토끼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아니레 “좋다 좋다 과연 듣던 말과 다름이 없다.  
 별유천지비인간<sup>1180</sup>)이로다.  
 내 훈련대장 할 기상<sup>1181</sup>)으로 풍월<sup>1182</sup>) 한 수 못 헐쏘냐?  
 ‘산중유객이 도수궁허니 사해풍광이 입안중이라.’<sup>1183</sup>)  
 대체 좋소, 좋아. 들어가서 미관말직<sup>1184</sup>)이라도 시켜주시오.”  
 “그러시오.”



A drum sound from a Buddhist temple reaches the boat with  
 a traveler.  
 Terrapin and Hare see a canal.  
 Thick fog hangs over the cold river and the moonlight is shiny  
 on the sandy field.  
 Bar girls across the river only sings a song without knowing of  
 the fall of their country.  
 They enter a river and see a high pavilion on a lake.  
 They gradually arrive at the sea palace and see the sun on the  
 horizon in the east.  
 The sea runs wild as if fishes and dragons fight each other.  
 A blue sky meets the sea on the horizon.  
 In the Western Paradise, Buddhist monks with shaven heads  
 explain Buddhist scriptures.  
 Terrapin and Hare arrive at a place and hear the sound of a  
 golden pheasant.  
 They raise their eyes and see a white jade board with clear and  
 large golden letters "The Main Gate to the Sea Palace."  
 Hare is pleased to see the board.

## **27. (The Arrest of Hare) Guards try to arrest Hare, and Hare denies he is a hare.**

[Aniri] "The landscape is as spectacular as I heard.  
 This is a paradise.  
 In the spirit of a training office, let me recite a poem.  
 'A guest from a mountain arrives in the sea palace. Marine  
 scenes enter eyes from all directions.'  
 Bravo. I would be happy even with a low position in the sea  
 palace."  
 "That's fine."

별주부 땅을 동그랗게 그려 놓고,  
 “여기 앉으시오.”  
 “이게 무엇이요?”  
 “옥<sup>1185</sup>)이요. 여기 앉어 있다가, ‘토끼 잡어 올리라’ 하거든 부디 놀래  
 지 마시오.”  
 토끼 깜짝 놀래, “아니, 거 무슨 말이오?”  
 “아니, 저 세상<sup>1186</sup>) 같으면 훈련대장 입시<sup>1187</sup>) 들래라<sup>1188</sup>) 허는 분부니  
 부디 놀래지 마시오.  
 내 가 남여<sup>1189</sup>) 가지고 곧 나오리다.”  
 “예, 그리 하리다마는 법인즉 말질<sup>1190</sup>)이요.  
 내 훈련대장을 허면 그 법은 꼭 착 뜯어고칠라요.”  
 별주부 영덕전 너룬 뜰에 공손히 복지<sup>1191</sup>)하여,  
 “진세<sup>1192</sup>)에 나갔든 별주부 현신<sup>1193</sup>)이요.”  
 용왕 반기하사,<sup>1194</sup>)  
 “수로 만 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 하였느냐?”  
 “토끼를 생금<sup>1195</sup>)하야 문밖에 대령<sup>1196</sup>)하였나이다.”  
 “네 토끼 바빠 잡아 들여라.”  
**[자진모리]** 좌우 나줄,<sup>1197</sup>) 금군<sup>1198</sup>) 모지리,<sup>1199</sup>)  
 수달 해구<sup>1200</sup>) 순령수<sup>1201</sup>)  
 일시에 내달려<sup>1202</sup>) 토끼를 에워쌀 제,  
 진황<sup>1203</sup>) 만리장성 쌓듯,  
 산양 싸움에 마초 싸듯,<sup>1204</sup>)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들입다<sup>1205</sup>) 잡는 모양 영문출사<sup>1206</sup>)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꼭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Terrapin draws a circle on the ground.

"Sit here."

"What is this?"

"It is a prison. Sit here. Don't be surprised even if you hear 'Arrest Hare.'"

Astonished, Terrapin says, "What are you saying?"

"The sentence means 'Training officer, see the dragon king in the place' in the language of the land.

Don't be surprised.

I will go inside and bring a carriage."

"I'll do as you told me to do, but the law is sick.

If I become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I will change the law without fail."

Terrapin kneels down in the wide yard in the palace.

"Your Majesty, this is Terrapin from the land."

The king is glad to see him.

"How was your long trip in the sea?

Did you bring a hare?"

"I brought a hare alive. He is waiting outside."

"Bring the hare here right away."

**[Jajinmori]** Gray mullets are royal guards.

Otters and seals are soldiers.

They rush to Hare and surround him,

as if an ancient emperor constructed the Great Wall,

and as if an ancient warrior was surrounded by his enemy.

They treat Hare harshly as if they had arrested a bandit.

They grab Hare by his ears tightly.

"Are you a hare, bastard?"

토끼 눈이 휘둥글,  
 “내가 토끼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달음<sup>1207</sup>)에 너를 잡아 약개장<sup>1208</sup>)도 좋거니와,  
 네 간을 내어 오계탕<sup>1209</sup>)을 달여 먹고,  
 네 가죽 벗겨 내어 잘랑<sup>1210</sup>) 무어서<sup>1211</sup>) 깔고 자면  
 어혈<sup>1212</sup>) 내종<sup>1213</sup>) 혈담<sup>1214</sup>)에는 만병회춘<sup>1215</sup>) 명약이라.  
 이 강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송아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도탄<sup>1216</sup>)에 너를 잡아  
 두피,<sup>1217</sup>) 족,<sup>1218</sup>) 살찐 다리,  
 양,<sup>1219</sup>) 회간,<sup>1220</sup>) 처넙,<sup>1221</sup>) 콩팥  
 후박없이<sup>1222</sup>) 나눠 먹고,  
 네 뿔 빼어 활도 매고,<sup>1223</sup>)  
 네 껍질 벗겨 내어 신도 짓고, 북고 매고,  
 네 속에 든 우황<sup>1224</sup>) 값 중헌<sup>1225</sup>) 약이 되고,  
 똥 오줌은 거름을 하니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송아지를 몰아가자!”  
 “아니고, 내가 소도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Hare is petrified.

"I am not a hare!"

"Then, what are you?"

"I am a dog!"

"A dog is even better.

A dog is a good material for a tonic soup in hot summer.

Your liver will be boiled down with a black chicken.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as a mat.

It is an effective medicine for slow blood flow, sore organs, and bloody phlegm.

Let's take this puppy to the king."

"Oh my god. I am not dog either!"

"Then, what are you?"

"I am a calf!"

"A cow is far better.

We will paste you with mud and put you in a charcoal fire.

Your head, skin, feet, plump legs,

stomach flesh, liver, fourth stomach, and kidney,

will be evenly distributed among us.

Your horn will be used to make a bow.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to make shoes and drums.

The bile in your gall bladder is an expensive medicine.

Your dung and urine will be used for manure.

No part of your body will be useless.

Let's take this calf to the king!"

"Oh my god. I am not calf either!"

"Then, what are you?"

“아, 가만 있으시오. 내가 생각해 가지고 가르쳐 드릴 테니,  
 여기 좀 놓으시오.  
 망아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목후간죽이라,<sup>1226)</sup>  
 요단향장천리마로다.<sup>1227)</sup>  
 연왕도 오백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sup>1228)</sup>  
 너를 산 채 몰아다 대왕전에<sup>1229)</sup> 바치면 천금상<sup>1230)</sup>을 아니 주랴?  
 들거라. 우.”  
 토끼를 결박<sup>1231)</sup>하여 빨가란<sup>1232)</sup> 주장대<sup>1233)</sup>로 꼭 찢러 들어매니,  
 토끼 하릴없이 대랑대랑 매달려,  
 “여봐라, 별주부야!”  
 “왜야?”  
 “내 탄 것 이것 이름이 무엇이냐, 이녀석아?”  
 “오, 그것 우리 수궁 남여라 허는 것이니라.”  
 “너희 수궁 남여가 본래 이러느냐?”  
 “오냐, 그러느니라. 썸썸 말고 있거라.”  
 “어따,<sup>1234)</sup> 이 제기를 붙을 놈의 남여 두 번만 타거드면 옹두리뼈<sup>1235)</sup>  
 도 안 남겼다.”  
 대랑 대랑 대랑 달려갈 제,  
 영덕전<sup>1236)</sup> 넓은 마당 동맹이쳐,<sup>1237)</sup>  
 “토끼를 잡아 들었소!”

“Hold on. Let me think. And I will let you know.  
Let go of me.  
I am a colt!”  
“A colt is much better.  
You have good eyes and legs.  
You must be a fine horse.  
An ancient man paid a lot of money to buy the bones of a dead  
horse.  
Since you are alive, the king will give us more money if we  
take you to him.  
Carry him inside.”  
They tie Hare with a rope, push a red stick between his legs,  
and carry him on their shoulders.  
Unavoidably, Hare hangs on the stick.  
“Hey Terrapin!”  
“What?”  
“What is this thing I am on? You scoundrel.”  
“Oh, that is a carriage in this sea palace.”  
“Does a carriage in this sea palace look like this?”  
“Yes, it does. Don’t move.”  
“Gosh. If I ride this darn carriage twice, my body will be  
completely destroyed.”  
Hare is taken inside, hanging on the stick.  
Hare is thrown down on the wide yard of the sea palace.  
“We have brought Hare here!”

## 28. (토끼의 피) 용왕이 토끼 배를 가르라고 하니, 토끼가 피를 내어 뱃속에 간이 없다고 둘러댄다.

[아니리] 토끼 잡혀 들어가 좌우를 살펴보니,  
강한지장<sup>1238</sup>과 천택지군<sup>1239</sup>이 좌우로 웅위<sup>1240</sup>하여 있거늘,  
저양이 축변에 진퇴유곡이요,  
용궁지하에 필사당토였다.<sup>1241</sup>  
눈만 깜빡깜빡 허고 앉았을 적에  
용왕이 분부하시되,  
“여봐라, 너희들 토끼 배 갈라  
간을 더운 짐에<sup>1242</sup> 식지 않게 소금 찍어 올려라.”  
토끼 생각하니 훈련대장 간 곳 없고 하릴없이 죽게 되어 기가 맥힐  
지경이라.  
한 피를 얼른 생각허고,  
“소퇴 한 말씀 아뢰리다. 원통헌 말씀 아뢰리다.  
회음<sup>1243</sup>땅 한신<sup>1244</sup>이가 소하<sup>1245</sup> 따라 파촉<sup>1246</sup> 가기는 한왕<sup>1247</sup>  
섬길 마음이요,  
궁팔십<sup>1248</sup> 강태공<sup>1249</sup>도 주나라에 가웁기는 문왕<sup>1250</sup> 섬길 마음이요,  
남양<sup>1251</sup> 땅 제갈량<sup>1252</sup>이 한나라 가웁기는 현덕<sup>1253</sup> 섬길 마음이요,  
소퇴도 주부 따라 수궁에 들어오기는 대왕 섬길 마음이온데,  
열 번 죽드라도 무슨 여한<sup>1254</sup> 있으리오마는,  
미련헌 주부에게 진즉 말 못 듣고 아차 잊은 이 속이 절통하오.  
말로만 소용 있소?  
자, 내 배를 따<sup>1255</sup> 보시오.”  
용왕 앞으로 배를 와락 내미니,



**28. (Hare's Trick) The dragon king gives the order to open Hare's belly. Hare thinks up a trick and tells a lie that there is no liver in his belly.**

[Aniri] Taken inside, Hare takes a look around.  
On the left and right are soldier fishes from rivers, streams, and ponds.  
Hare can move neither forward nor backward.  
He cannot help dying.  
He blinks his eyes in anxiety.  
The dragon king speaks.  
“Guards, open Hare’s belly.  
Put his liver on salt and bring it to me while it is warm.”  
Hare is stunned, thinking that he won’t become a general of military academy and he is bound to die.  
He thinks up a good idea.  
“Let me tell you something sad, Your Majesty.  
An ancient general followed a high official to a foreign country to serve the official’s king.  
An ancient politician who lived a poor life for eighty years went to a foreign country to serve his king.  
An ancient military strategist followed his king to serve him.  
Similarly, I followed Terrapin to the sea palace to serve Your Majesty.  
I don’t mind even if I die ten times.  
I resent that I didn’t tell foolish Terrapin something important.  
I don’t have to tell you about it.  
Just open my belly and see what happens.”  
Hare moves to the king and sticks out his belly.

‘저 놈이 배를 아니 때일려고<sup>1256</sup> 잔말<sup>1257</sup>)이 무수할 줄 알았더니,  
배를 와락 내미는 것이 또 필유곡절<sup>1258</sup>)이로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고?

네가 무슨 험 말이 있으면, 다 말을 하여라.”

토끼가 좋아라고,

[중모리]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태산이 봉퇴하고<sup>1259</sup> 오성<sup>1260</sup>)이 음음하여<sup>1261</sup>

시일갈상<sup>1262</sup> 노래 소리 억조창생<sup>1263</sup>) 원망 중에,

탐학한<sup>1264</sup> 상주임금<sup>1265</sup>)이 성현<sup>1266</sup>)의 뱃속에 칠구무<sup>1267</sup>)가 있다  
하고,

비간<sup>1268</sup>)의 배를 갈라 무고히<sup>1269</sup> 죽였은들 일곱 궁기<sup>1270</sup>) 없었으니,

소토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거드면,<sup>1271</sup>) 불쌍한 토명<sup>1272</sup>)만 끊사옵제,

뉘를 다려<sup>1273</sup>) 달라허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옵소서.”

용왕이 화를 내어,

“이 놈, 네가 그 말이 당치 않은 말이로다.

의서<sup>1274</sup>)에 이르기를 비수병즉구불능식<sup>1275</sup>)하고,

담수병즉설불능언<sup>1276</sup>)하고,

신수병즉이불능청<sup>1277</sup>)하고,

간수병즉목불능시<sup>1278</sup>)라.

간이 없고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sup>1279</sup>)을 보느냐?”

“예. 소토<sup>1280</sup>)가 아뢰리다.

소토의 간인즉<sup>1281</sup>) 원륜정기<sup>1282</sup>)로 생겼삽더니<sup>1283</sup>)

보름이면 간을 내고,

The dragon king mumbles, "I thought Hare would make a lot of noises to refuse to have his belly opened.

But he sticks his belly out. There must be some reason."

"What do you act like that?

You can say whatever you want to say."

Hare is pleased.

**[Jungmori]** "Let me talk to you something because you insist. A mountain collapsed, and five stars became dark.

The people sang a song, wishing for the death of their king.

An atrocious king believed there were seven holes in a wise man's belly.

He opened his good official's belly only to learn there were not seven holes.

It would be nice if you opened my belly and found a liver.

If you open my belly but can't find a liver, you will only kill a poor hare.

Whom would you ask to give you a liver?

How would you get a liver?

Open my belly right away."

The dragon king is infuriated.

"You rat! What you said is nonsense.

A medical book says if your spleen is ill, you can't eat.

If your gall bladder is ill, you can't speak.

If your kidneys are ill, you can't hear.

If your liver is ill, you can't see.

If you don't have a liver, how can you see things?"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 Majesty.

My liver was created by the energy from the moon.

On the full moon, I take it out.

그믐이면 간을 들이내다.<sup>1284)</sup>  
 세상의 병객<sup>1285)</sup>들이 소토 곧 얼른하면<sup>1286)</sup>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sup>1287)</sup>  
 간을 내어 파초 앞에다가 꼭꼭 싸서,  
 칙으로 칭칭 동여,<sup>1288)</sup>  
 영주<sup>1289)</sup> 석상<sup>1290)</sup> 계수나무 늘어진 상상가지<sup>1291)</sup> 끝끝터리에<sup>1292)</sup>  
 달아매 놓고,  
 도화유수<sup>1293)</sup> 옥계변<sup>1294)</sup>에 탁죽하러<sup>1295)</sup>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기로  
 완경차<sup>1296)</sup>로 왔나이다.”  
 용왕이 듣고 분을 내어,  
 “이놈! 네 그 말도 거짓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내장<sup>1297)</sup>은 다를 바가 없는데,  
 네가 어찌 간을 내고<sup>1298)</sup> 들이고 임의로<sup>1299)</sup> 출입한단 말이냐?”  
 토끼가 당돌히 여짜오대,  
 “하하하하. 대왕이 도지일이요, 미지기이로소이다.<sup>1300)</sup>  
 태호 복희씨<sup>1301)</sup>는 어이하여 사신인수<sup>1302)</sup>가 되었으며,  
 신농씨<sup>1303)</sup> 어찌하여 인신우수<sup>1304)</sup>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지드란허웁고,<sup>1305)</sup>  
 소토는 무슨 일로 꼬리가 이리 묘뚝<sup>1306)</sup>하웁고,  
 대왕의 옥체<sup>1307)</sup>에는 비늘이 번쩍번쩍,  
 소토의 몸에는 털이 요리 송살송살,<sup>1308)</sup>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개 있고, 오후 까마귀 쓸개 없사오니,  
 인생 만물 비금주수<sup>1309)</sup>가 한가지라 뻑뻑 우기니 답답치 아니 하오  
 리까?

On the end of the month, I put it back in.  
 Sick people of the world pester me for my liver if I don't take  
 great care.  
 I wrap my liver in a plantain leaf.  
 I tie it tightly with a vine.  
 I hang it at the end of the top branch of a cinnamon tree in  
 a divine rocky mountain.  
 I came down to wash my feet in a clear stream carrying peach  
 blossoms.  
 I met Terrapin by chance.  
 I heard there is a lot of fun in the sea palace.  
 I am here for sightseeing."  
 The dragon king is indignant.  
 "You bastard! That is nonsense too.  
 For humans and beasts, a liver is an internal organ.  
 How can you take your liver in and out at your will?"  
 Hare dares to say as follows.  
 "Hahaha. Your Majesty, your knowledge is incomplete.  
 Why did a legendary king have a snake's body and a man's  
 head?  
 Why did another legendary king have a man's body and a cow's  
 head?  
 Why does Your Majesty have a long tail?  
 What made my tail this short?  
 Why does Your Majesty have shiny scales?  
 Why is my body covered with soft hair?  
 Let's talk about a crow.  
 It has a gall bladder before noon, and not after noon.  
 Isn't it frustrating you insist flying and walking animals are of  
 the same kind?

당장에 배를 따 보옵소서.”

용왕이 그제야 돌리느라고,<sup>1310)</sup>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들이고 혀는 표<sup>1311)</sup>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그란<sup>1312)</sup> 궁기<sup>1313)</sup>가 셋이 나란히 있거늘,

“저 궁기가 모두 다 어쩐 내력<sup>1314)</sup>이냐?”

“예. 내력을 아뢰리다.

한 궁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 궁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궁기로는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로 출입하나이다.”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궁기<sup>1315)</sup>로 내오니<sup>1316)</sup>

만물시생어<sup>1317)</sup>

동방삼팔목,<sup>1318)</sup>

남방이칠화,<sup>1319)</sup>

서방사구금,<sup>1320)</sup>

북방일육수,<sup>1321)</sup>

중앙오십토,<sup>1322)</sup>

천지음양,<sup>1323)</sup> 사시정기,<sup>1324)</sup> 오색광채,<sup>1325)</sup> 아침 안개 저녁 이슬을

화하야<sup>1326)</sup>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내오니,<sup>1327)</sup>

만병회춘<sup>1328)</sup>의 명약<sup>1329)</sup>이라.”

“그러하면 네 간 먹고 효험 본 이<sup>1330)</sup> 뉘 있느냐?”

“있기를 이를 말씀이오?

위수 어부 강태공<sup>1331)</sup>은 고기 낚으러 나왔다가,

Open my belly immediately.”

The dragon king is taken in.

“If so, do you have a mark for taking your liver in and out?”

“Yes, I have.”

“Let me take a look.”

“Here you are!”

There are three red holes in a row.

“What do you have the three holes for?”

“Let me tell you in detail.

I use one to take a shit and another to take a pea.

I take my liver out and put it back in at my will through the last hole.”

“Which holes do you use to take your liver in and out?”

“I swallow my liver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When things were first created,

Wood was in the east,

Fire was in the south,

Gold was in the west,

Water was in the north,

and Earth was in the middle.

I harmonized with the earth, the sky, negative energy, positive energy, energy for seasons, the five brilliant colors, the morning fog, and the evening dew.

I put my liver in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My liver is a panacea.”

“If so, is there anybody who was cured after eating your liver?”

“Of course, there are.

An ancient politician went to a river to fish.

우리 선조 간 씻을 적에 뉘싯대 내버리고  
 찻던 표자<sup>1332</sup>)를 선뜻<sup>1333</sup>) 끌러 그 물 조금 떠 마시고,  
 궁팔십 달팔십<sup>1334</sup>)에 일백육십 세를 살으시고,  
 우리 부친 현고<sup>1335</sup>)께서 요산요수<sup>1336</sup>)를 허옵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될 적에,  
 동방삭이<sup>1337</sup>)가 건져주어  
 그 은혜 갚노라고 간 조금 주었더니  
 삼천갑자<sup>1338</sup>)를 살았으니,  
 대왕의 성덕<sup>1339</sup>)으로 영주 석상 달아논 간 보째<sup>1340</sup>) 들여다 자셨으  
 면,<sup>1341</sup>)  
 백발이 환혹,<sup>1342</sup>)  
 낙치부생,<sup>1343</sup>)  
 환골탈태,<sup>1344</sup>)  
 연년익수,<sup>1345</sup>)  
 만병회춘<sup>1346</sup>)을 허오리다.  
 미련허드라, 저 주부야.  
 세상에서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하였으면 계수나무 달린 간을 팔난만  
 큼<sup>1347</sup>) 떼어다가  
 대왕병 즉차하고,<sup>1348</sup>)  
 너도 충성이 나타나서  
 양주<sup>1349</sup>) 양합<sup>1350</sup>)에 좋을 것을.  
 미련하더라, 저 주부야.  
 만시지탄<sup>1351</sup>)이 쓸 데가 없구나.”



He threw away his fishing rod when my ancestor washed his liver.  
He untied a gourd dipper from his body, picked up water, and drank it.  
He had lived poorly for eighty years and happily for another eighty years.  
My late father liked mountains and rivers.  
He was drowning in a river.  
Another ancient politician saved my father from the river.  
To return his favor, my father gave a little bit of his liver to him.  
The ancient politician lived for 180,000 years.  
If Your Majesty eats my entire liver that I left in a divine rocky mountain,  
your gray hair will become black,  
new teeth will grow in the places where old teeth were pulled out,  
you will look far better,  
you will live long,  
and you will be cured of any disease.  
How stupid you were, Terrapin!  
If you had told me the truth on the land, I would have brought a little bit of my liver hanging on a cinnamon tree.  
The king would be cured immediately.  
You would become a loyal official.  
You and I would become friends.  
Terrapin, how stupid you are!  
It is of no use to regret the past.”

## 29. (수궁 풍류)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고, 큰 잔치를 베풀어 즐기도록 한다.

[아니래] 용왕이 들어본즉 이치가 그럴 듯하여,  
“네 여봐라. 토끼 해박<sup>1352</sup>하라.”  
토끼를 해박하여 놓고 분부하시되,  
“짐의 앞에 가까이 오라.”  
토끼를 어전<sup>1353</sup>에 가까이 앉히고,  
“짐이 아까 그대에게 현 말은  
훈련대장을 허면 시석중<sup>1354</sup>에 불분생사<sup>1355</sup>허고 다닐지 못 다닐지  
담력<sup>1356</sup> 보는 말이었으니,  
부디 조금도 섭섭히 아지 마오.”  
토끼가 속마음으로는 용왕 배 딸 마음 있으되,  
“무슨 그럴 리가 있으리까?”  
별주부를 위하여 음식을 차렸는데,  
자하주<sup>1357</sup> 천일주<sup>1358</sup> 기린포<sup>1359</sup> 안주 놓고,  
앵무잔<sup>1360</sup> 유리병<sup>1361</sup>에 천일주 가득 부어  
용왕이 주인지도리<sup>1362</sup>로 먼저 한 잔 자신<sup>1363</sup> 후에,  
토끼가 이삼배<sup>1364</sup> 더 먹은 후에 술이 다뿔<sup>1365</sup> 취하여  
용왕 자<sup>1366</sup>를 제 손수 지어서.  
“용왕님 소퇴 평생에 이러한 대접이 처음이옵고,  
죄를 짓는 일이오나, ‘용겸이’하고 한번 부르면 어떠하십니까요?”  
“오늘같이 좋은 날에 그렇게 하고,  
나도 ‘토겸이’라고 하겠소.  
토겸이 무엇할라요?”  
“내 전일에 의서<sup>1367</sup> 권이나 읽어 보았으되

## 29. (Having Fun in the Sea Palace) Believing Hare, the dragon king throws a big party for him.

[Aniri] Hare's story sounds plausible to the dragon king.

"Guards, release Hare."

After setting Hare free, the dragon king says,

"Come close to me, hare."

The dragon king has Hare sit in front of him.

"Let me explain what I said to you before.

I wanted to know how you, a general of military academy, would react to a life or death situation where arrows and stones fly.

I was testing your courage.

Don't be disappointed with me."

Hare knows the dragon king was trying to open his belly, but he says,

"How could I be disappointed with you?"

They prepare food for Hare.

There are a wine of purple cloud, a thousand-day-old wine, and giraffe meat.

The thousand-day-old wine is poured into a shell glass up to the brim.

The dragon drinks a glass of wine as a host.

Hare drinks a few glasses of wine and becomes drunk.

He creates the dragon king's nickname.

"Your Majesty, this is the first time I am served this well.

I know this is rude, but can I call you 'Dragonie?'"

"We feel great today, so suit yourself.

I'll call you Harie.

What do you want to do, Harie?"

"I read classic medical books before.

토끼 간 약된단 말씀 금시초문<sup>1368</sup>)이요.”  
 ‘아차차, 춘치자명<sup>1369</sup>)이로고.’  
 뜻밖에 풍류<sup>1370</sup>)를 갖추어 한 편에 풍악<sup>1371</sup>)이 낭자<sup>1372</sup>)할 제,  
 [엇모레] 왕자 진<sup>1373</sup>)의 봉피리,<sup>1374</sup>)  
 광처사<sup>1375</sup>) 질장구<sup>1376</sup>) 정쿵 정저꿍,  
 성련자<sup>1377</sup>) 거문고 등당지 등당,  
 장량<sup>1378</sup>)의 옥통소 띠띠루 띠루,  
 혜강<sup>1379</sup>)의 해금<sup>1380</sup>)이며 고개 고개 고개, 완적<sup>1381</sup>)의 휘파람, 격타  
 고 취용적,<sup>1382</sup>)  
 능파사,<sup>1383</sup>) 보허사,<sup>1384</sup>) 우의곡,<sup>1385</sup>) 채련곡<sup>1386</sup>)을 곁들여서 노래할 제,  
 낭자한 풍악<sup>1387</sup>) 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토끼도 신명내어,<sup>1388</sup>)  
 “약일레라.<sup>1389</sup>) 약일레라.  
 나의 간이 약이여.  
 위수변<sup>1390</sup>)의 강태공도 토간<sup>1391</sup>) 씻은 그 물 먹고  
 궁팔십 달팔십<sup>1392</sup>) 일백육십세 살았고,  
 팽조웅<sup>1393</sup>) 동방삭<sup>1394</sup>)도 간 조금 달라기에 팔난만큼<sup>1395</sup>) 드렸더니  
 삼천갑자<sup>1396</sup>) 살았으며,  
 태평으로 누리시니  
 어찌 아니 약이여?  
 약일레라. 약이여. 나의 간이 약이여.  
 삼천갑자 수<sup>1397</sup>)를 허여 죽었던 말이 없고, 사기<sup>1398</sup>)에 전하였으니,  
 이런 신약이 또 있소?  
 용왕님, 용왕님. 토끼 내의 간을 용왕님께 드리면 장생불사<sup>1399</sup>)하실 테니,  
 세상에 빨리 가서 간 갖다 올리리다.”  
 토끼가 신명내어,<sup>1400</sup>)

This is the first time I've heard a hare's liver is medicine."  
 He murmurs, "I've asked for my own death."  
 Suddenly, music is prepared, shaking the sea palace.  
**[Eonmori]** A phoenix-shaped pipe is played.  
 A bowl-shaped drum creates its own sound.  
 A six-stringed zither makes its unique sound.  
 A jade flute generates its peculiar sound.  
 They play a Korean fiddle, a whistle, a drum made of alligator  
 skin, and a dragon pipe.  
 They sing a pond song and a divine song along with two ancient  
 songs.  
 The music spreads and shakes the sea palace.  
 Hare is exuberant.  
 "Medicine, medicine.  
 My liver is a medicine.  
 An ancient politician drank water of a river in which a hare's  
 liver was washed.  
 He lived poorly for eighty years and happily for another eighty  
 years.  
 Another ancient politician ate a little bit of a hare's liver and  
 lived for 180,000 years.  
 Everybody was happy.  
 A hare's liver is a medicine.  
 Medicine, Medicine. My liver is a medicine.  
 A history book says the ancient politician lived for 180,000 years.  
 What would be a better medicine than a hare's liver?  
 Your Majesty, if you eat a hare's liver, you will live forever.  
 Let me go to the land and bring my liver quickly."  
 Hare is excited.

### 30. (토끼 방정) 토끼가 출랑거리며 춤을 추고 놀다가 간이 들었다고 의심받자, 급히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한다.

[중중모리] 앞내 버들은 청포장<sup>1401</sup>) 두르고,  
뒷내 버들은 유록장<sup>1402</sup>) 둘러,  
한 가지 찢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청풍<sup>1403</sup>)이 불면 흔들,  
우줄우줄<sup>1404</sup>) 춤을 출 제,  
종달새 높이 뜨고,  
어머니는 동이<sup>1405</sup>)를 이고,  
아버지는 노구<sup>1406</sup>)를 지고,  
노고지리<sup>1407</sup>) 지리 지리 노고지리.”  
앞발을 번쩍 높이 들고 출랑거리고<sup>1408</sup>) 놀 제,  
[아니리] 금군장<sup>1409</sup>) 병치<sup>1410</sup>)가 토끼 뒤를 따라다니다다 출랑<sup>1411</sup>)  
소리를 듣고,  
“토끼 뱃속에 간 들었다!” 외치는데,  
토끼 듣고 깜짝 놀래,  
“야, 이놈아! 뱃속에 똥덩이 떠 출랑거리는 소리다.”  
토끼 생각하니, ‘군자는 가기이기방<sup>1412</sup>)이라, 속인 김에 얼른 도망치  
는 것이 옳다.’ 하고,  
“용왕님전 아뢰오.  
세상에를 빨리 나가서 간을 빨리 가져와 대왕님 환후<sup>1413</sup>)를 회춘<sup>1414</sup>)  
하게 하오리다.”  
용왕이 분부하시되,

30. (Hare's Flippancy) Hare dances frivolously. Others think there must be a liver in his belly. He says he wants to go back to the land immediately.

[Jungjungmori] Green willows are along the front stream.

Blue willows are along the back stream.

A branch is torn off.

Another hangs down.

When a cool wind blows, it swings.

It dances in big motions.

A skylark flies high.

My mother carries a water jar on her head.

My father carries an iron pot on his back.

A skylark sings a song."

Hare holds up his fore legs and dances flippantly.

[Aniri] A goby, a head guard, hears a sound from Hare, while following Hare.

He shouts, "There is a liver in Hare's belly!"

Hare is startled.

"You bastard! The sounds are made by some dung floating in my belly."

Hare thinks a wise man can deceive others well, but he should run away.

"Let me speak to Your Majesty.

Let me go back to the land and bring my liver quickly so that you can recover."

The dragon king gives an order.

“별주부는 들으라.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 빨리 가져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옆에 말없이 앉아 있다가,

토끼 뺏속에 분명 들어 있는 간을 용왕이 속으신 모양이라.

기가 막혀 원통한 말을 허는디,

### 31. (별주부 애원) 별주부가 토끼의 배를 가르자고 용왕에게 애원하니, 토끼가 배를 가르라고 큰소리친다.

[중중모리]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토끼란 놈 본시<sup>1415</sup> 간사<sup>1416</sup>하오.

일루<sup>1417</sup> 충성을 다하와<sup>1418</sup> 산에 올라 잡은 토끼

뺏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면, 초목금수<sup>1419</sup>라도 비소<sup>1420</sup>할 일이요,

맹획<sup>1421</sup>을 칠종칠금<sup>1422</sup>하던 제갈량<sup>1423</sup>의 채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은 일이요,

만일에 간이 없사오면 소신의 구족<sup>1424</sup>을 멸하여<sup>1425</sup>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sup>1426</sup>하더라도 여한<sup>1427</sup> 없사오니

당장에 배를 따 보옵소서.”

토끼가 듣고 기가 막혀 깡깡 뛰어 나왔으며,

“어따, 이놈, 별주부야!

너 날과 무슨 원수더냐?

왕명이 지중<sup>1428</sup>헌디

내가 어찌 기망<sup>1429</sup>허리?

옛 일을 내가 모르느냐?



“Listen, Terrapin.

Take Mr. Hare to the land and bring back his liver immediately.”

Terrapin has been silent all long.

He knows that there is a liver in Hare’s belly, and that the dragon king has been fooled.

Stunned, Terrapin speaks in tears.

**31. (Terrapin’s Entreaty) Terrapin entreats the dragon king to open Hare’s belly. Hare boldly tells them to open his belly.**

[Jungjungmori] Terrapin speaks to the dragon king in tears.

“A hare is originally a wicked animal.

Being loyal to you, I climbed a mountain and caught this hare.

If we don’t take the liver out of Hare’s belly now, grasses, trees, and animals will laugh at us.

I am not th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who captured and released his enemy king seven times.

How will I be able to get Hare once we set him free?

Cut his belly open now. It would be good if a liver is in it.

If there is no liver, you can kill all of my family and relatives.

I will not resent you even if you chop my body into pieces.

Please cut Hare’s belly open immediately.”

Struck dumb, Hare jumps in.

“Hey you villain. You bad terrapin!

Why do you act like my enemy?

The king’s order is grim.

How can I deceive His Majesty?

Don’t you know the old story?

하걸<sup>1430</sup>)이 학정<sup>1431</sup>)으로 용봉<sup>1432</sup>)을 살해하고<sup>1433</sup>) 미구에<sup>1434</sup>) 망  
 국<sup>1435</sup>)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내 간이 없거드면,  
 원통한 나의 혼백 너의 나라 사귀<sup>1436</sup>)되어,  
 너의 용왕 백년 살 데<sup>1437</sup>)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수궁 만조백관<sup>1438</sup>) 한 날 한 시에 모두 다 몰사<sup>1439</sup>) 시키리라.  
 아나,<sup>1440</sup>) 옛다,<sup>1441</sup>) 배 갈라라!  
 아나 옛다, 배 갈라!  
 똥밖에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 네 보아라.”

[아니레] 용왕이 듣고 대경<sup>1442</sup>)하여,  
 “네 여바라. 토선생을 해치는 자 있으면 정배축출<sup>1443</sup>)을 할 것이다.  
 토공을 모시고 세상에를 나가 간을 빨리 가져 오도록 해라.”  
 별주부가 하릴없이<sup>1444</sup>) 토끼를 등에 얹고 다시 세상을 나올 적에

### 32. (토끼 생환) 토끼가 별주부 등에 업혀 세상을 나가면서 사면 경치를 구경한다.

[진양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sup>1445</sup>)를 지내어 백로주<sup>1446</sup>)를 어서 가자.  
 고국 산천이 어디메오?  
 삼산<sup>1447</sup>) 밖에 멀어 있고,  
 일락장사추색원한데  
 부지하처조상군고?<sup>1448</sup>)”  
 한 곳을 당도하니 한 군자<sup>1449</sup>) 서 있으되,

An atrocious king in ancient China killed his good official, and his country collapsed before long.

It would be nice if you open my belly and find a liver in it.  
If there is no liver in it,

my poor soul will become an evil spirit of this country,  
your dragon king will die in a day, instead of living for 100 years,

and my evil spirit will massacre all the officials in the sea palace at one time.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Only shit is in my belly.

Open my belly and check inside.”

[Aniri] The dragon king is exasperated.

“Hey, if anybody hurts Mr. Hare, I will banish him.

Take Mr. Hare to the land and bring his liver here quickly.”

Terrapin cannot but return to the land with Hare on his back.

### **32. (Hare Returns Alive) Hare comes back to the land on Terrapin’s back.**

[Jinyangjo] “Let’s go. Hurry.

Let’s hurry up to the sandy island in a river.

Where is our hometown?

It is far beyond three divine mountains.

The sun sets on the long sandy field, and a mountain with the autumn color is far from here.

It is not clear where a tribute should be paid to the ancient queens.”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place where a scholar stands.

푸른 옷 입고, 검은 관 쓰고,  
 문왈,<sup>1450)</sup> “토공이 하이지차오?”<sup>1451)</sup>  
 토끼가 대답하되,  
 “회족청산하니  
 관불과제관이요,  
 탁족무임하니  
 태불과봉황이라.  
 소무지식하여  
 유매평생이라.”<sup>1452)</sup>  
 강상에 빠른 저 귀범<sup>1453)</sup>은 월범려<sup>1454)</sup> 그 아닐까?  
 함외장강공자류<sup>1455)</sup>는 등왕각<sup>1456)</sup>이 저기로구나.”  
**[중중모리]** 백로주<sup>1457)</sup>를 바빠 지내 적벽강<sup>1458)</sup>을 다다르니,  
 소자침<sup>1459)</sup> 범주유,<sup>1460)</sup>  
 동산상<sup>1461)</sup> 달 떠나  
 두우간<sup>1462)</sup> 배회<sup>1463)</sup>하여,  
 백로 횡강<sup>1464)</sup> 바빠 가.  
 소지노화월일선<sup>1465)</sup> 추강<sup>1466)</sup> 어부 빈 배.  
 기경선자<sup>1467)</sup> 간 연후에 공명월지단단.<sup>1468)</sup>  
 자라 등에다가 저 달을 싣고  
 우리 고향을 어서 가.  
 환산농명월<sup>1469)</sup>  
 원해근산<sup>1470)</sup> 좋을시고.  
 위수<sup>1471)</sup>로 돌아드니  
 어조하던<sup>1472)</sup> 강태공<sup>1473)</sup>은 기주<sup>1474)</sup>의 조대<sup>1475)</sup>런가?  
 은린옥척<sup>1476)</sup>뿐이라.  
 벽해수변<sup>1477)</sup>을 당도하야  
 짱짱 뛰어내려서 모르는 체로<sup>1478)</sup> 가는구나.

He wears blue clothing and a black hat.  
 He asks, "Mr. Hare, what brought you here?"  
 Hare responds as follows.  
 "I came back to the green mountains.  
 I can't just pass by them because I missed them so much.  
 They were not trodden upon by dirty feet.  
 It is so peaceful that even a phoenix will not just go by them.  
 I was not knowledgeable.  
 I almost became a wandering ghost.  
 An ancient politician must be on that sailing boat coming to the  
 port fast.  
 A river flows incessantly below a tower."  
**[Jungjungmori]** Hare and Terrapin hurriedly pass by a sandy  
 island and get to a river.  
 An ancient poet amused himself on a boat in the river.  
 The moon rises over a mountain in the east.  
 The moon moves between Big Bear and the Herdsman.  
 A white heron crosses a river swiftly.  
 With a smile, the heron points to a boat loaded with white reed  
 flowers and moonlight.  
 After a god flew up on a whale, there is nothing but the full  
 moon in the sky.  
 Put that half moon on Terrapin's back.  
 Let's hurry to my hometown.  
 Let's enjoy watching the bright moon in mountains.  
 It is good that mountains are close and the sea is far.  
 Hare and Terrapin reach a river.  
 An ancient politician fished there.  
 There are large shiny fishes.  
 They arrive at a blue beach.  
 Hare jumps down and goes off without saying anything.

### 33. (토끼 별주부 조롱)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별주부를 욕하며 산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리] 토끼가 육지에 얼른 내려서더니

모르는 척하고 훨훨 달아나니,

“여보, 퇴궁!

나는 죽겠다 살겠다 여기까지 업어다노니,

당신은 그렇게 모르는 체라 깡충깡충 뛰어가신단 말씀이요?

이왕지사<sup>1479</sup>) 그렇게 가실라거든 간 내서 나를 파리 대가리만치만  
좀 떼어주고 가시오.”

가던 토끼가 깡충 뛰어 돌아서더니 욕을 뱉다<sup>1480</sup>) 퍼붓는다,

[중모리] “예끼, 시러베<sup>1481</sup>) 발기를 갈 녀석.<sup>1482</sup>)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들인단 말이나?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너의 용왕이 미련하더라.

너의 용왕 실겁기<sup>1483</sup>) 날갯고,<sup>1484</sup>) 내 미련키 너의 용왕 같았으면 영  
락없이 죽을 것을.

내 밀궁기<sup>1485</sup>) 서이<sup>1486</sup>) 아니었으면 내 목숨이 어찌 살아났을거나?

내 돌아간다. 내 돌아간다. 백운청산<sup>1487</sup>)으로 내가 간다.”

### 34. (토끼 엉터리 약 처방) 토끼가 별주부에게 엉터리 약 처방을 일러주며 조롱한다.

[아니리] “여보시오, 토선생! 간 팔난만큼만 주고 가시오.”

“네 이 놈, 별주부야! 이놈!

네 소위<sup>1488</sup>)를 생각하면,

네 등을 돌덩이로 콧 부딪쳐 바싹 옹기짐<sup>1489</sup>) 부서지는 소리가 나게  
혈 일이다마는,

**33. (Hare Mocks Terrapin.) After arriving in the land,  
Hare curses Terrapin and goes to mountains.**

[Aniri] Hare jump on the land rapidly.

He runs away, ignoring Terrapin.

“My goodness, Mr. Hare!

I carried you on my back all the way here from the sea palace.

How can you run away from me without saying anything?

If you want to run away from me, please give me a little bit of your liver first.”

Hare jumps around and throws curse words at Terrapin.

[Jungmori] “You are a villain to be torn to death.

How can I take my liver in and out of my belly?

How stupid! How stupid! Your dragon king was stupid.

I would surely be dead now if your dragon king were as smart as I, or if I were as foolish as your dragon king.

How would I come back alive if I didn't have three holes in my body?

I am going back to the green mountain covered with snow.”

**34. (Hare's Absurd Prescription) Hare mocks Terrapin,  
giving him an absurd prescription.**

[Aniri] “Hello, Mr. Hare. Please give me a little bit of your liver before you go.”

“Terrapin! You bastard!

Thinking about your behavior,

I would like to hit you with a rock so that your body creates the sound of an earthen pot breaking into pieces.

수로 만 리를 네 등에 업혀 온 그 공 인정으로 살려주거니와,  
 다시는 그런 보추<sup>1490</sup>) 없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수궁 용왕 약화제<sup>1491</sup>)를 일러주마.  
 너의 수궁에 복쟁이<sup>1492</sup>)가 많이 있더라.  
 복쟁이를 서너 섬<sup>1493</sup>) 잡아 가루를 작말<sup>1494</sup>)하여 오자대<sup>1495</sup>) 환<sup>1496</sup>)  
 을 지어,<sup>1497</sup>)  
 한꺼번에 한 되씩 사흘 아침만 먹이면 좌우간 끝장나리라.  
 또 하나 좋은 약을 일러 줄 것이니  
 자세히 들어봐라.  
**[자진모리]** 이 약 이름을 들어봐라.  
 약 이름은 가미허랑탕<sup>1498</sup>)이라.  
 두꺼비 썰개,  
 새새끼 발톱 각각 작말 서 되 허고,  
 빈대 월경수,<sup>1499</sup>)  
 하루살이 썰개 열 보,  
 이것을 흰구름 단지<sup>1500</sup>)에다 은하수 물 붓고,  
 번갯불에 얼른 달여,  
 그림자 수건으로 얼른 짜서 먹이면  
 꼭 즉효<sup>1501</sup>)할 것이다.

**35. (토끼 그물에 걸림) 방정을 떨다가 그물에 걸려 죽게  
 된 토끼가, 쉬파리들에게 쉬를 슬어주면 살아날 방법  
 이 있다고 말하자, 쉬파리가 사람의 손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리]** 토끼가 엉겨주춤하고 대변을 누어,



I am letting you live because you carried me on your back on  
the long journey in the sea.  
Don't act stupid like that again.  
Let me give you a prescription for your dragon king.  
I saw a lot of blowfish in the sea palace.  
Catch them, make them into powder, and make large balls out  
of the powder.  
If he eats them all for three days, he will be cured or die.  
Let me tell you another good medicine for him.  
Listen carefully.  
**[Jajinmori]** Listen to my prescription.  
This medicine is called Absurd Soup.  
Prepare a toad's gall bladder,  
three packs of young birds' nail powder,  
housebugs' menstrual blood,  
ten-day-flies' gall bladders.  
Put them in a cloud urn and pour water of the Milky Way in  
it.  
Boil it with lightning.  
Squeeze it with a shadow towel and have your king drink it.  
There will be an immediate effect.

**35. (Hare Gets Caught in a Net.)** Caught in a net, Hare  
asks flesh flies to lay eggs on him so that he can  
escape. The flesh flies say that Hare cannot defeat  
a human hand.

**[Aniri]** Hare hesitantly takes a shit.

칩앞에다 싸서  
 별주부 등에 칩넉출<sup>1502</sup>로 붙들어 매주며,  
 “아나, 이것이 간이다.  
 빨리 들어가 충신 노릇 하여라.  
 잘 들어가거라.”  
 별주부는 할 수 없이 물 우에 다시 떠서 둥둥둥둥실 들어가는구나.  
 그 때에 토끼는 별주부를 보내고 좋아라고 갹갹갹갹 뛰고 온갖 방정  
 을 떠는디,  
 깊숙한 산골짜기에 토끼를 잡으려는 그물을 쳐 놓았는데,  
 그물코<sup>1503</sup>에 가 두 발목이 빠져 탁 걸렸었다.  
 토끼 기가 막혀,  
 [창조] “아이고, 이 일을 어쩔거냐?  
 내가 차라리 수국에서 죽었으면  
 죽음이나 곱게 허고,  
 정조<sup>1504</sup> 한식<sup>1505</sup> 단오<sup>1506</sup> 추석에는 제사라도 착실히 얻어먹고,  
 목비<sup>1507</sup>라도 하나 깎아 세워줄 것을.  
 공연히 나왔다가 속절없이<sup>1508</sup> 이제는 꼭 죽었구나.  
 [아니리] 이러할 제 쉬파리떼<sup>1509</sup>가 웬 허고 날아오니,  
 “아이고, 쉬낭청<sup>1510</sup> 사촌들,  
 어디 갔다 인제 오시오?”  
 “오, 이놈 너 하릴없이 죽게 되었구나.”  
 “쉬낭청 사촌네들,  
 어렵소마는 내 등 털에다 쉬<sup>1511</sup>만 좀 다뽕<sup>1512</sup> 슬어주면<sup>1513</sup>  
 살어날 피가 있소.”  
 “네 아무리 피를 낸들 사람의 손 하나를 당할쏘냐?  
 내 이를게 들어보아라.”

He wraps it up with an arrowroot leaf.  
 He ties the leaf on Terrapin's back with an arrowroot vine.  
 "This is the liver.  
 Go back quickly and be loyal to your king.  
 So long."  
 Terrapin has no choice but to move on the surface of the water  
 back to the sea palace.  
 Hare acts frivolously, jumping around after sending Terrapin to  
 the sea palace.  
 A net was set up in a deep mountain to catch a hare.  
 Hare's two legs are caught in the net.  
 Hare is dumfounded.  
**[Song Mode]** "Alas. What should I do?  
 If I had died in the sea palace,  
 my death would have been splendid,  
 a ritual would be performed for me every big holiday,  
 and a wood monument would have been erected for me.  
 I left for no reason, and I am bound to die.  
**[Aniri]** Just then, a group of flesh flies quickly comes to Hare.  
 "Flesh flies. My cousins.  
 Where have you been?"  
 "Oh, it appears you will certainly die."  
 "Flesh flies. My cousins.  
 Please do me a favor. Lay a lot of eggs on the fur of my back.  
 I've got an idea to escape."  
 "No matter how smart you are, you can't defeat a human hand.  
 Let me explain. Listen."

[자진모리] “사람의 손 내력 들어라. 사람의 손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게 얹어 노면<sup>1514</sup> 하늘이요,  
 뒤췌노면<sup>1515</sup> 땅인디,  
 이리저리 금<sup>1516</sup>이 있기는 일월<sup>1517</sup> 다니는 길이요,  
 엄지 잔가락<sup>1518</sup>을 이룰진대 천지인<sup>1519</sup> 삼재<sup>1520</sup>요,  
 집가락<sup>1521</sup>이 장가락<sup>1522</sup>만 못하기는 정월, 이월, 삼월,  
 장가락이 그중에 길기는 사월, 오월, 유월이요,  
 무명지<sup>1523</sup> 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칠월, 팔월, 구월,  
 소지<sup>1524</sup>가 그중에 짜롭고짜롭기<sup>1525</sup>는 시월, 동지, 섣달인데,  
 자오묘유<sup>1526</sup>가 여기 있고,  
 건감간진손이곤태<sup>1527</sup> 구궁팔괘가 여기 있고,  
 불도<sup>1528</sup>로 두고 일러도 감중연,<sup>1529</sup> 간상연,<sup>1530</sup>  
 육도기문<sup>1531</sup>에 대장경,<sup>1532</sup>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라.<sup>1533</sup>  
 네 아무리 꾀를 낸들 사람의 손 하나 못 당하리라.  
 두 말 말고 네 죽어라.”

### 36. (초동목수 신세 타령) 토끼가 죽은 채하고 있을 때, 풀 베는 아이들이 신세타령을 하며 올라온다.

[아니리]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으니,  
 쉬나 좀 슬어주시오.”  
 쉬파리떼가 달려들어 쉬를 빈틈없이 슬어놓고 ‘뽕’ 하고 달아나간  
 후에,

[Jajin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the background of a human hand.

The principles of heaven can be seen on the palm.

The principles of earth can be seen on the back of the hand.

The lines of the palm are the paths of the sun and the moon.

The small thumb stands for heaven, earth, and humans.

The index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signifies January, February, and March.

The middle finger is the longest because it denotes April, May, and June.

The ring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indicates July, August, and September.

The little finger is short because it means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The four directions are in the palm.

The eight direction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Buddhist principle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some Buddhist teachings about the world are in the palm.

However clever you might be, you can't beat a human hand.

Shut up and accept your death.”

**36.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Bewail their Lot.) While Hare pretends to be dead,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approach him as they bewail their lot.**

[Aniri] “It's up to my ability whether I live or die.

Please lay some eggs on my back.”

The flesh flies lay a lot of eggs on Hare's body, leaving no empty spot, and fly away.

토끼란 놈 쉬 한 짐 짊어지고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았을 제,  
그때 초동목수<sup>1534</sup> 아이들이 낮 갈아 짊어지고 메나리<sup>1535</sup> 소리 듣고  
올라오것다.

[중모리] “어이 가리 너, 어이 가리 너, 어이 가리 너 너화로다.

태고라 천황씨는 목덕으로 왕하시고,<sup>1536</sup>

수인씨 교인화식<sup>1537</sup>)

어찌하여 마련되어 우리 곤케<sup>1538</sup>) 하셨는가.

하느님이 사람 낼 제 별로 후박<sup>1539</sup>)이 없건마는,

우리는 팔지는 무슨너르<sup>1540</sup>) 팔자로서

날 곧 새면 지게 갈퀴 짊어지고 심산궁곡<sup>1541</sup>)을 가더란 말이냐?

여보게, 친구네들.

너는 게서 그 골<sup>1542</sup>)을 베고,

나는 여기 이 골을 베고,

부러진 잡목, 떨어진 낙엽을 긁고,

베고, 엉뚱그려<sup>1543</sup>) 힘꼇대로<sup>1544</sup>) 하여다가

위부모보치자<sup>1545</sup>)를 내가 허여 볼거냐?

어이 가리 너 너화로다. 어이 가리 너 너화로다.”

### 37. (토끼 살아남) 토끼가 기지로 살아나서, 잘난 체하며 좋아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올라오다, 앞에 오던 사람이 소리를 높이 외치며,  
“에끼!<sup>1546</sup>) 저 그물에 토끼 걸렸다.

야, 우리 오늘 잔치 잘 된다.

여러 말 헐 것 없이 불 피워라.

불에 구워 먹고 가자.”

With a lot of eggs on the back, Hare remains still as if he were dead.

Just then,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come up to the mountain, carrying sharp sickles and singing a folk song.

**[Jungmori]**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An ancient man became a king thanks to the Wood energy.

A legendary king taught humans how to use fire to cook.

But how come we are poor?

When God created humans, there was not much inequality.

But our darn fate is detestable.

At dawn, we go to deep valleys, carrying A-frame carriers and rakes on our backs.

Hello, my friends.

You work in that valley.

I will work in this valley.

Let's rake broken scrub and fallen leaves.

Let's cut down and wrap up as many trees as we can.

Let's support our parents, wives, and children.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 **37. (Hare Survives) Wits save Hare, and he dances arrogantly and joyfully.**

**[Aniri]** While climbing the mountain as sang above, the boy in front shouts.

“Look! A hare is caught in the net.

Let's have a party today.

Don't argue with me. Just make a fire.

Let's roast this hare and eat it.”

한 사람이 썩 들어가서 토끼 뒷다리를 잡아 쑥 빼어 들고,  
 “야, 이 놈 걸린 지 오래다.  
 쉬를 빈틈없이 다뺏 슬었구나.”  
 뒤에서 목청이 된<sup>1547)</sup> 사람이,  
 “야, 이 녀석아. 썩었겠다. 내버려라, 내버려.”  
 “아니, 가만 있자.”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 토끼 뒤통무니에다 대고 맡아 놓은 것이,  
 꾀 많은 토끼가 수궁에서 잘 먹고 몽그려두었던<sup>1548)</sup> 도토리 방구를  
 기척<sup>1549)</sup> 없이 시르르르 꺾어 노니,  
 “에크,<sup>1550)</sup> 이놈 썩은 지 오래다.  
 코창이 떨어지겠다.  
 못 먹겠다.”  
 획 던져 노니,  
 토끼 저 건너에 가 깡깡 뛰어 서며,  
 “야, 이 멍청이들아. 네 눈들이 썩었다.  
 너희보담<sup>1551)</sup> 더한 수궁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데,  
 너희 놈들한테 죽을 성싶으냐?”  
 토끼가 신명내어<sup>1552)</sup> 또 한 번 뛰고 노는디,  
**[중중모래]** “관대장자<sup>1553)</sup> 한고조<sup>1554)</sup> 국량<sup>1555)</sup> 많기가 날만하며,<sup>1556)</sup>  
 운주결승<sup>1557)</sup> 장자방<sup>1558)</sup>이가 의사<sup>1559)</sup> 많기 날만해?  
 난세지웅<sup>1560)</sup> 조맹덕<sup>1561)</sup>이 꾀 많허기가 날만허며,  
 신출귀몰<sup>1562)</sup> 제갈량이 조화<sup>1563)</sup> 많기가 날만하며,  
 무릉도원<sup>1564)</sup> 신선인들 한가하기가 날같으랴?  
 예 들던 청산 두견,<sup>1565)</sup>  
 지지<sup>1566)</sup> 운다 각 새소리.  
 타향 수궁에 갔던 벗님 여기 달려서 내 왔네.



One of the boys get in the net and pulls up Hare's legs.  
 "This hare must have been caught for a long time.  
 There are a lot of fly eggs on it."  
 A boy in the back speaks loudly,  
 "You fool. It must be rotten. Throw it away."  
 "Let me think."  
 The boy takes a smell at Hare, but he does it at Hare's tail.  
 The cunning hare slowly releases an acorn fart he had held back  
 since he ate a lot in the sea palace.  
 "Oh my god. This hare has been rotten for a long time.  
 My nose might be destroyed.  
 We can't eat this hare."  
 The boy throws Hare away.  
 Hare stands up straight on a place away from the boys.  
 "You fools. Your eyes are rotten.  
 I even fooled the dragon king and came back alive.  
 Do you think I will die in your hands?"  
 Excited, Hare dances and sings again.  
**[Jungjungmori]** "I am smarter than a virtuous ancient king.  
 I have more ideas than an ancient military planner.  
 I am smarter than an ancient wicked hero of China, Cao Cao(曹操).  
 I can work out more miracles than an elusiv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Zhu Ge Kong Ming(諸葛孔明).  
 My life is more leisurely than that of gods in paradise.  
 Green mountains and the cry of a cuckoo sound familiar to me.  
 Birds are crying very much.  
 I have been to the sea palace and have come back here.

고국산천 다시 보니 어찌 이리 아니 반가우냐?

기산광야<sup>1567</sup>) 넓은 곳, 금잔디 자르르르 깔린 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짹짹 뛰고 놀자.

얼씨구 얼씨구 좋을시고. 절씨구 칠씨구 팔씨구<sup>1568</sup>) 지화자자 좋을시고.”

### 38.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토끼가 독수리에게 잡혔으나 속임수를 써서 독수리를 따돌리고 살아난다.

[아니리] 이렇듯이 깡충거리고 올라갈 제,

어디서 ‘위’ 소리가 나더니 난데없이

무서운 독수리가 토끼 대갈박<sup>1569</sup>)을 후닥닥 채놓았겠다.<sup>1570</sup>

토끼는 대그르르르 궁굴며,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오시오?”

“오, 이놈. 너 잡아먹을라고 왔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잡수실까요?”

“오, 네 맞진<sup>1571</sup>) 골치대목<sup>1572</sup>)에서부터 통째로 다 먹을란다.”

토끼가 또 한 꾀를 생각하고,

“장군님, 정 그러시면 마음대로 잡수시오마는,

이 원통한 설움타령이나 들어보시고 잡수시오.”

“어디 해보아라.”

[중모리]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나 죽기는 싫잖으나<sup>1573</sup>)

수궁 천 리 먼먼 길에 겨우 얻어내 온 것을 무주공산<sup>1574</sup>)에다 걸어두고

임자가 없었으니

I feel so good to see my country again.  
Let me have fun, jumping around on a wide field covered with  
the golden grass.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Oh boy! What a pleasure!"

**38. (Hare is Caught by an Eagle and Escapes.) Hare is  
caught by an eagle, but deceives the eagle and  
escapes from him.**

[Aniri] Hare dances and sings joyously as said above.  
Suddenly, a sound is made from somewhere.  
A scary eagle grabs Hare's head and flies up swiftly.  
Hare rolls over.  
"General, where have you been?"  
"Oh, you villain. I came here to eat you."  
"If so, which part of my body do you want to eat first?"  
"Oh! I will eat your head first and swallow your body whole."  
Hare thinks up another good idea.  
"General, if you really want to, you can eat me.  
But please listen to my sad story before you eat me."  
"No problem."  
[Jungmori] "Alas. Alas. I can't believe this. What should I do?  
I don't grieve my death.  
A thing I managed to bring from the distant sea palace is kept  
in an empty mountain.  
It is left unowned by anybody.

어찌 잊고 죽을거나!

아이고, 아이고, 아깝구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아니레] 독수리가 가만히 듣더니만,

“여봐라, 토끼야. 거 무엇이간디,<sup>1575)</sup>

너 죽기보다 삶고 아깝다니 그게 무슨 보물이냐?”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시오.

신기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응. 그래라.”

“이번에 내가 수궁을 들어갔었지요.

수궁 용왕이 나에게 의사쭈치<sup>1576)</sup>라고 이상스런 주머니 하나를 주십  
니다.”

“의사쭈치가 무엇이냐?”

“글쎄, 들어 보시오.

의사쭈치를 짹 벌여놓으면 궁기<sup>1577)</sup>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궁기를 툭 튕기면서 병아리새끼 나오느라 허면,

하루 일천오백 마리씩 꾸역꾸역 나오고요.

또 한 궁기를 툭 튕기면서 개창사<sup>1578)</sup> 돼지새끼 죽은 것 다 나오느라  
허면,

몇 날 며칠이라도 꾸역꾸역꾸역 나오니,

그런 보물이 어디가 있소?

그런 보물을 무주공산<sup>1579)</sup>에 던져 내버리고 죽게 되니 이 아니 삶소  
이까?”

독수리가 이 말을 듣더니 딱 반하겠다.

“여봐라, 토끼야. 너 살려 줄 것이니

그걸 나 주랴느냐?

그것 어디 있느냐?”

How can I forget it and die?  
 Alas! It is such a precious thing. What should I do?"  
**[Aniri]** The eagle has been listening carefully.  
 "Hey hare. What is that thing?  
 What is the treasure that makes you sadder than your death?"  
 "General, listen to my story.  
 Listen to this marvelous story."  
 "Okay."  
 "I went to the sea palace the other day.  
 The dragon king gave me a strange bag called Wish-Granting Bag."  
 "What is Wish-Granting Bag?"  
 "Hear me out.  
 If you unfold the bag, you can see several holes.  
 Hit one of the holes of the bag and say 'Come out chicks.'  
 Fifteen hundred of them will come out a day continuously.  
 Hit another hole of the bag and say 'Come out, rotten dog's intestines or pig's intestines.'  
 They come out continuously for days.  
 What can be more precious than the bag?  
 Isn't it sad for me to die, leaving such a treasure in an empty mountain?"  
 Hare's story makes the eagle excited.  
 "Hey hare. I will set you free.  
 Give the bag to me.  
 Where is it?"

“저 건네 석산<sup>1580</sup> 바우틈에 들었소.

저기 저, 저것 보시오.

까막까치<sup>1581</sup>가 그 냄새를 맡고 저렇게 날아들고 야단이오.”

독수리가 두 발로 토끼를 꼭 집어 소주병 들듯이 움켜들고 훨훨 날아가는디,

“어디쯤이나?”

“여기, 여, 여기 놓으시오.”

“자, 가서 내오느라.”

“장군님, 여기 여, 바우틈에 들었소.

저기 저, 대랑대랑 보이오.

내 뒷발목만 꼭 잡으시오.”

“그래라.”

“내가 들어가는 대로 조금씩만 놓아주시면

의사춤치를 딱 꺼내오리다.

자, 꼭 잡었소?”

“오냐.”

“여기 곧 닿소. 조금 놓으시오.”

“자, 조금 더 놓으시오. 자, 조금만 더 놓으시오. 조금만, 조금만.”

허다 뒷발로 탁 차버리고 쑥 빠져 들어가노니,

독수리 멍하고 있는디,

토끼가 시조 초장<sup>1582</sup>을 내것다.

[시조창] “반나마<sup>1583</sup> 늴었으니 다시 젊든 못허리라.”

[아니레] “네 이 토끼야, 내 시장허다.

시조 하지 말고 얼른 내오느라.”

토끼가 그제는<sup>1584</sup> 큰 소리를 허것다.

“너 이 놈 독술아. 내가 너에게 하릴없이 죽을 것을,

내가 둘라서<sup>1585</sup> 이 바우 궁기로 살아 들어왔으니

“It is between the rocks of that rugged mountain.  
 Look! Over there.  
 Having smelled it, crows and magpies fly toward it now, creating  
 a commotion.”  
 The eagle lifts up Hare’s head with his legs like a wine bottle,  
 and flies to the sky.  
 “Where is it?”  
 “Put me down here.”  
 “Okay. Bring the bag out.”  
 “General, it is in between these rocks.  
 I can faintly see it.  
 Please hold my hind legs.”  
 “Okay.”  
 “Please release me little by little as I go inside.  
 And I will bring out Wish-Granting Bag.  
 Are you holding my leg tight?”  
 “Yes.”  
 “I almost reached it. Release me a little.”  
 “Release me a little more. Release me a little more. A little  
 more.”  
 Hare kicks the eagle with his hind leg and goes deep inside.  
 The eagle is confused.  
 Hare recites a poem.  
**[Poetic Mode]** “Half of my life is gone. I can’t become young  
 again.”  
**[Aniri]** “Hey Hare. I am hungry.  
 Cut the poem out. Bring the bag out immediately.”  
 Hare now speaks boldly.  
 “Eagle, you bastard! I was about to be killed by you.  
 I fooled you and got into this burrow between rocks.

이것이 의사쭈치가 아니냐?

어서 갈 데로 날아가거라.”

독수리 기가 차서,

“너 이놈아, 내 발톱으로 집어내리라. 나오느라!”

“오냐, 이놈 발톱을 들여놓으면 돌덩이로 네 발등을 날날이 깨트려  
쪼으리라.”

독수리가 듣고, “이놈 언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죽을 것이다.”

“이놈아, 내가 지금 노경에 들었아 손자나 봐주고, 자봉<sup>1586</sup>)이나 할  
란다.

잔소리 말고 썩 날아가거라.”

### 39. (후일담) 독수리는 날아가고, 용왕은 병이 낫고, 토끼는 산중에서 늙도록 지내게 된다.

[옛중모리] 독수리 그제야<sup>1587</sup>) 돌린 줄<sup>1588</sup>) 알고 훨훨 날아가고,

별주부 자라는 수궁에 돌아가서 토분<sup>1589</sup>)을 시탕<sup>1590</sup>)하여

용왕 환후<sup>1591</sup>) 직차<sup>1592</sup>)하여

충성을 다하였고,

토끼는 그 산중에 완연히<sup>1593</sup>) 늙은 후 월궁<sup>1594</sup>)으로 갔다하며,

수궁가로 말할진대 우의소설<sup>1595</sup>)이라,

짐승으로 이명<sup>1596</sup>) 붙여 우의<sup>1597</sup>) 저작하니<sup>1598</sup>) 대의명분<sup>1599</sup>) 그 아  
닌가?

이 가사를 들으시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면 그 아니 좋을  
쏜가?

더질더질.<sup>1600</sup>)



Isn't this Wish-Granting Bag?

Fly away immediately."

The eagle is stunned.

"You villain, I will pull you out with my claws. Come out!"

"Okay. If you stick your claws in, I will break your feet into pieces with a stone."

The eagle says, "You rat. The moment you come out, you will die."

"You villain, I am old now. I will take care of my grandchildren and myself here.

Shut up and fly away."

### **39. (Subsequent Story) The eagle flies away. The dragon king gets cured. Hare grows old in the mountains.**

[Eotjungmori] The eagle finally realizes he was taken in and flies away.

Meanwhile, Terrapin carries Hare's dung to the sea palace and serves it to the king.

The king's illness is cured immediately.

Terrapin's loyalty pays off.

Hare grows old in the mountains and goes to the palace on the moon.

Sea Palace Song is an allegory.

The names of the animals are used figuratively to express some cause.

Wouldn't it be great that you become loyal to your country and nice to your parents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Let me finish.

- 
- 1) 至正, 중국 원나라 순제 때의 연호. 갑신년이면 1344년임.
  - 2) 仲夏之節, 한여름.
  - 3) 廣利王, 중국 신화에서 남쪽 바다를 맡고 있다는 축융(祝融) 신. 당나라 현종이 광리왕에 봉했다고 함.
  - 4) 靈德殿,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5) 大宴, 큰 잔치.
  - 6) 排設, 연회나 어떤 의식에 쓰는 여러 가지 재구를 벌여 배풀어 놓음.
  - 7) 때.
  - 8) 三海, 세 방향의 바다.
  - 9) 請來, 오라고 청함.
  - 10) 君臣賓客, 임금과 신하, 그리고 손님.
  - 11) 千乘萬騎, 수많은 수레와 말. 승은 수레를 세는 단위.
  - 12) 開盛宴於九重, 궁궐 안에서 큰 잔치를 엮.
  - 13) 擊金鼓而詠歌, 북을 치고 노래를 부름..
  - 14) 酒肉, 술과 고기.
  - 15) 瀛海天熱風, 큰 바다의 뜨거운 바람.
  - 16) 腹中, 뱃속.
  - 17) 過히, 지나치게 많이.
  - 18) 卒然得病, 갑자기 병을 얻음.
  - 19) 水府朝廷, 물을 다스리는 조정.
  - 20) 文武諸臣, 문관과 무관의 모든 신하.
  - 21) 皇皇奔急, 정신이 없이 매우 급함.
  - 22) 侍醫治病, 의원을 가까이 두고 병을 치료함.
  - 23) 少無回春之道, 나을 방법이 거의 없음.
  - 24) 難求名醫之方, 명의의 치료법을 구하기 어려움.
  - 25) 自歎, 스스로 탄식함.
  - 26) 榻床, 걸상이나 침대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 27) 두드리며.
  - 28) 天無烈風, 하늘에 거센 바람이 불지 않음.
  - 29) 海不揚波, 바다에는 파도가 일지 않음.
  - 30) 氣勢, 기운차게 뻗치는 형세
  - 31) 醫藥萬歲, 의약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름이 높음.
  - 32) 神農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33) 華陀, 중국 후한 말기의 명의. 약제의 조제, 침술, 뜸질에 두루 통했으며, 외과 수술에 마취약을 쓰기도 했다고 함. 조조의 병을 치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돌아오지 않자, 조조의 노여움을 사 죽임을 당했음.

- 34) 扁鵲. 이름은 진월인(秦越人). 중국 전국 시대의 의학자. 명의로서 전설적 명성을 남겼으며, 그의 저서라고 하는 의서가 많음.
- 35) 老越人. 늙은 월나라 사람. 곧, 편작.
- 36) 어찌할 수 없구나.
- 37) 누구에게다가.
- 38) 龍聲. 용의 울음소리.
- 39) 身世自嘆. 가련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스스로 탄식함.
- 40) 仙醫道士. 신선의 옷을 입은 도사.
- 41) 玄雲. 검은 구름.
- 42) 黑雲. 검은 구름.
- 43) 飄風細雨. 회오리바람이 불고 가는 비가 내림.
- 44) 鶴氅衣. 옛날 옷옷의 한 가지로, 뒷술기가 터지고 소매가 넓으며, 가를 돌아가며 검은 형짚을 넓게 대었음.
- 45) 再拜而進曰. 두 번 절하고 나와 말하기를.
- 46) 弱水三千里. 삼천 리나 되는 약수. '약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강물로,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여국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길이는 2,700리이며, 부력이 약하여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 47) 白雲 瑤池宴. 흰 구름 속의 요지에서 열리는 잔치. '요지'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다는 연못.
- 48) 千年碧桃. 천 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신선 세계의 복숭아. 반도(蟠桃).
- 49) 風便. 소문.
- 50) 萬萬危重타기로. 매우 위태하고 심하다고 하기로.
- 51) 뵙고자 해서.
- 52) 曰. 말하기를.
- 53) 荒誕한. 허황된. 여기서는 치료하기 어려운.
- 54) 特效之藥. 특효약.
- 55) 脈. 맥박. 심장의 박동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얇은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동맥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 맥박의 빠르기나 강하고 약함 따위로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
- 56) 脈. 손목이나 발목의 맥박.
- 57) 心小臟. 심장과 소장.
- 58) 火. 오행의 화를 가리킴.
- 59) 肝膽. 간과 쓸개.
- 60) 木. 오행의 목.
- 61) 肺大臟. 허파와 대장.
- 62) 金. 오행의 금.
- 63) 腎膀胱. 생식기와 오줌보.
- 64) 水. 오행의 수.
- 65) 비위(脾胃)는. 지라와 위는.

- 66) '간목(肝木)'의 잘못. '간목'은 오행의 목에 해당하는 간을 이르는 말.
- 67) 太過. 아주 지나치게 심하거나, 많거나, 큼.
- 68) 木克土. 음양오행설에서 목이 토를 이긴다는 말.
- 69) 傷하옴고. 다쳐 상처를 입고.
- 70) 膽經. 쓸개의 경락. '경락(經絡)'은 오장 육부의 병이 몸 거죽에 나타나는 자리. 이 자리를 침이나 뜸, 그밖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하면 관계된 장부의 병이 낫게 됨.
- 71) 甚하니. 보통의 정도보다 더하니.
- 72) 腎經. 생식기의 경락.
- 73) 肝膽經. 간과 쓸개의 경락.
- 74) 自盡. 저절로 없어짐.
- 75) 方書. 약방문을 적은 책. '약방문'은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 이름과 분량을 적은 종이.
- 76) 脾. 지라.
- 77) 一身之祖宗. 한 몸에서 으뜸으로 중요한 것.
- 78) 膽. 쓸개.
- 79) 一身之標本. 한 몸의 표본임.
- 80) 心靜則 萬病이 息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 81) 心動則 萬病이 生하오니.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병이 생기오니.
- 82) 心經. 심장의 경락.
- 83) 五勞七傷. 오로와 칠상. '오로'는 심(心)이 피로하면 혈(血)이 약해지고, 간이 피로하면 혈이 약해지고, 폐가 피로하면 기(氣)가 약해지고, 신(腎)이 피로하면 정력이 약해지고, 방광(오줌보)이 피로하면 먹는 것이 약해지는 것임. 허하고 약한 병이 스스로 오로를 낳고, 오로가 육극(六極)을 낳고, 육극이 칠상을 낳는데, 칠상의 1은 음한(陰寒), 2는 음위(陰痿), 3은 이급(裡急), 4는 정루(精漏), 5는 정소(精少), 6은 정청(精淸), 7은 소변삭(小便數)을 말함.
- 84)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한의학에서 원기를 도우며 외감(外感. 한의학에서 감기를 가리키는 말)을 푸는 데 쓰는 탕약.
- 85) 熟地黃. 한약재의 한 가지. 생지황을 술에 담갔다가 여러 번 쪼갠 것. 보혈(補血), 보음(補陰)에 효과가 많음.
- 86) '주증(酒蒸)'의 잘못. 술을 뿌려 쪼임.
- 87) 다섯 돈. '돈'은 무게의 단위. 관(貫)의 1/1000로 약 3.75g.
- 88) 山查肉. 한약재로서, 씨를 빼낸 산사나무의 열매. 위장을 튼튼하게 하거나 소화제로 씀.
- 89) 天門冬. 한약재의 한 가지. 호라지꽃의 뿌리. 성질은 찬데, 진해제(鎮咳劑)·강장제(強壯劑) 등으로 씀.
- 90) 細辛. 한약재의 일종. 족두리풀이나 민족두리풀의 뿌리. 말려서 두통(頭痛), 발한(發汗), 거담(祛痰) 등의 약재로 씀.
- 91) 去土. 흙을 떨어냄.
- 92) 肉蓯蓉. 열당과(列當科)에 딸린 기생식물의 한 가지. 줄기는 살지고 기둥 모양이며, 잎은 비늘같이 나는데, 줄기와 함께 엽록이 없어 누런 갈색을 띰. 깊은 산속에 나는데,

폐병의 특효약이라고 함.

- 93) 澤瀉. 한약재의 일종으로,택사의 덩이뿌리를 가리킴. 성질이 차며, 이수도(利水道), 임질(淋疾), 습진, 부종 따위의 약재로 씀.
- 94) 罌粟殼. 한약재의 한 가지로, 양귀비 열매의 껍질. 거담(祛痰), 진경약(鎮莖藥) 또는 설사, 이질 따위에 약재로 씀.
- 95) 甘草. 한약재의 일종으로 감초의 뿌리. 비위(脾胃)를 돕고, 다른 약의 작용을 부드럽게 하므로, 모든 처방에 널리 쓰임.
- 96) 水一升煎半連用.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계속 복용함.
- 97) 貼. 약봉지에 쓴 약의 멍치를 세는 말.
- 98) 小無動靜. 조금도 효과가 없음.
- 99) 加減白朮湯. 백출탕의 원방에서 다른 약재를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여 지은 탕약. '백출'은 한약재의 한 가지로,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 100) 白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성질이 따뜻하며, 비위(脾胃)를 돕고, 소화불량, 구토, 설사, 습증 등에 씀.
- 101) 炒灸. 불에 볶음.
- 102) 砂仁. 한약재의 일종으로, 측사밀(縮砂密. 키가 1m 쯤 되는 생강과에 딸린 풀)의 씨.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제로 좋은 약재.
- 103) 白茯苓. 한약재의 한 가지로, 빛깔이 흰 복령. 땀이 알맞게 나도록 하고, 오줌을 순하게 하며, 담증(痰症), 부종(浮症), 습증(濕症), 설사 따위에 쓰는데, 보(補)하는 효험이 있음.
- 104) 麝香. 사향노루의 사향낭에서 얻어지는 향료. 여기서는 '산약(山藥)'의 잘못인 듯. '산약'은 한약재의 하나로, 마의 뿌리. 강장제의 약재로서 유정, 몽설, 대하, 요통, 설사 따위에 씀.
- 105) 五味子. 한약재의 한 가지로, 오미자나무의 열매. 폐를 돕는 효험이 있으므로 기침, 갈증에 쓰며, 땀과 설사를 그치게 하는 데에도 씀.
- 106) 懷香. 회향풀. 회향풀의 열매. 대회향과 소회향이 있는데, 다 같이 약으로 쓰고, 기름도 짤.
- 107) 當歸. 한약재의 한 가지로, 승검초의 뿌리.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피를 돕는 약으로 쓰이며, 강장제, 진정제로도 쓰임. 특히 부인병에 좋음.
- 108) 川芎. 한약재의 한 가지로, 천궁이·궁궁이의 뿌리. 성질이 따뜻하고, 신맛이 있으며,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순혈·청혈제로 쓰임.
- 109) 羌活. 한약재의 한 가지로, 강활의 뿌리. '강활'은 미나리과에 딸린 두해, 세해살이풀. 깊은 산골짜기에 절로 나는데, 그 뿌리를 해열 및 진통제로 씀.
- 110) 鹿角. 사슴뿔. 한약재의 한 가지.
- 111) 돈의 1/10.
- 112) 水一升煎半連用.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계속 복용함.
- 113) 陽減. 양의 기운을 줄임.
- 114) 加味羌活湯. 강활탕의 원방에 다른 약재를 넣은 탕약.
- 115) 麻黃. 한약재의 한 가지로, 마황의 줄기. 성질은 따뜻하며, 땀을 내게 하는 힘이 강하며, 기침, 두통, 오한 따위에 약재로 쓰임.

- 116) 陳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오래 묵은 귤껍질. 위를 튼튼하게 하고, 땀을 내게 하는 약효가 있음.
- 117) 防風.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방풍나물의 말린 뿌리. 고별(감기), 풍병 등에 약으로 씀. 방풍나물은 미나리과에 딸린 세해살이풀.
- 118) 白芷. 한약재의 한 가지로, 구리때의 뿌리. 감기로 인한 두통·요통·비연(鼻淵. 코에서 콧물이 많이 나오고, 때때로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하는 병) 따위에 쓰며, 외과 약으로도 널리 쓰임.
- 119) 蒼朮. 한약재로 쓰는 삼주(엉거시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의 뭉치지 않은 뿌리. 백출보다 땀을 내는 힘이 강하여 소화기를 범한 외감(外感.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일컫는 말. 감기.)을 푸는 데 많이 씀.
- 120) 升麻. 한약재의 한 가지로, 승마·왜승마·춧대승마 따위의 뿌리. 열을 내리게 하거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데 쓰여, 외감·설사·하혈·변혈·탈음·탈항 따위에 많이 쓰임.
- 121) 葛根. 한약재의 한 가지로, 칩의 뿌리. 갈증·두통·요통·항강증(項強症) 및 상한(傷寒) 등에 발한·해열제로 쓰이며, 가루로 하여 복용함.
- 122) 神農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123) 百草藥. 온갖 약초로 만든 약.
- 124) 쓰려고 하다가는.
- 125) 무슨 일이 채 되기 전이나, 기회나 시기가 이르기 전에.
- 126) 가마솥.
- 127) 달여.
- 128) 味甘. 단맛.
- 129) 大補元氣. 원기를 크게 불돋아 줌.
- 130) 止渴生津.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함.
- 131) 造營養胃. 영양을 조성하고 위를 건강하게 함.
- 132) 甘溫. 달고 따뜻함.
- 133) 健脾強胃. 지라를 건강하게 하며, 위를 강하게 함.
- 134) 除瀉除濕. 설사를 멎게 하고, 습기를 제거함.
- 135) 兼治膽脾. 쓸개와 지라의 병도 아울러 치료함.
- 136) 灸則溫中. 볶으면 따뜻함이 알맞고.
- 137) 生則瀉火. 생것은 열기를 내보냄.
- 138) 清心丸. 심경(心經)의 열을 푸는 환약.
- 139) 蘇合丸. 소합향을 원료로 하여 만든 환약의 한 가지. 위장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맑게 함.
- 140) 八味丸. 육미환에다 육계(肉桂)와 부자를 더한 약. 정력을 돕는 데 쓰임.
- 141) 六味丸. 가루로 만든 육미탕을 꿀에 반죽하여 만든 환약. ‘육미탕’은 숙지황·산약·산수유·백복령·목단피·택사 따위로 된 가장 흔히 쓰이는 보약. ‘환약(丸藥)’은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둥글둥글하게 빚은 약.

- 142) 瓊玉膏. 혈액순환을 고르게 하기 위한 보약의 한 가지로, 생지황·인삼·백복령·백밀 따위의 약재를 씀.
- 143) 滋陰瓊玉膏. 음기를 보충해 주는 경옥고.
- 144) 白茯苓. 빛깔이 흰 복령. 오줌이 잘 나오게 하고 담병, 부종(浮腫), 습증 따위를 다스리거나 몸을 보하는 데 쓴다.
- 145) 赤茯苓. 색깔이 담홍색인 복령. 수종(水腫), 소변불리, 설사 따위에 쓴다.
- 146) 大黃. 한약재의 한 가지로, 장군풀의 뿌리.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통리(通利, 대소변이 통합)하는 힘이 많아 대소변 불통·조열(燥熱, 마음이 답답하고 몸에 열기가 남)·헛소리·잠꼬대·적취(積聚, 오랜 체증으로 인하여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정가(癥瘕, 여자의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어혈(瘀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맺혀 있는 증세) 같은 병에 씀.
- 147) 芒硝.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박초(朴硝)를 두 번 달여서 만든 약재. 성질은 차고, 훑어 내리는 작용을 함. ‘박초’는 초석(硝石, 질산칼륨)을 한 번 구워서 만든 약재.
- 148) 蘇葉. 꿀풀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30—100cm이며, 잎은 마주나고 달걀 모양에 가장 자리에 톱니가 있다. 8—9월에 연한 자주색 꽃이 잎겨드랑이나 줄기 끝에서 피고, 열매는 둥근 모양의 열매를 맺는다. 잎과 줄기는 약재로 쓰고 어린잎과 씨는 식용한다
- 149) 半夏.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반하의 뿌리. ‘반하’는 천남성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로 땅속에 둥근 뿌리가 있으며, 꽃줄기는 높이 30cm 안팎임. 둥근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담, 구토, 습증, 해수 등에 쓰임.
- 150) 桂香. 한약재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계향’은 계수나무의 향기라는 뜻임.
- 151) 肉桂.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건위, 강장제로 씀.
- 152) 丹砂. 주사(朱砂). 천연적으로 나는 유화수은으로, 한약재로 사용함.
- 153) 車前子. 이노제로 쓰이는 질경이의 씨앗.
- 154) 蓮實. 연꽃의 열매.
- 155) 柴胡. 미나리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그 뿌리를 발한, 해열제로 씀.
- 156) 前胡.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바다나물의 뿌리. 성질이 약간 차며, 외감에서 오는 두통·담·해소·해열 따위에 씀.
- 157) 木通. 으름덩굴의 말린 줄기 또는 말린 뿌리의 목질부. 성질은 차고, 임질과 부종(몸이 뚱뚱하게 붓는 병)에 쓰임.
- 158) 麥門冬. 한약재의 한 가지로, 맥문동이나 소엽맥문동의 뿌리. 보음(補陰, 음기를 도움)·청폐(淸肺, 폐를 깨끗이 함)·거담 및 자양제 따위로 씀.
- 159) 芝草. 지치. 지칫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30—60cm이며, 잎은 어긋나고 피침 모양이다. 뿌리는 약용하거나 자주색 염료로 쓴다.
- 160) 加味六君子湯. 보혈제로 쓰이는 탕약.
- 161) 清暑六和湯. 더위에 상한 심장을 다스리는 데 쓰는 탕약.
- 162) 天地之上經.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경락’이란 의미인 듯.
- 163) 甲日. 일진에 ‘갑’이 들어가는 날.
- 164) 甲戌時에. 육십갑자 중에서 갑술에 해당하는 시에.
- 165) 膽經. 쓸개의 경락.

- 166) 불명.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에는 44혈이 있는데, 여기에 '주유'는 없다.
- 167) 乙日. 일진에 '을'이 들어간 날.
- 168) 酉時.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 169) 大腸經 商陽. 수양명대장경에 속하는 상양혈. '상양'은 둘째손가락 노뼈 쪽 손톱 뒷모서리에서 일分寸(0.3cm 정도) 뒤에 있다.
- 170) 靈龜. '영구팔법(靈龜八法)'을 이름. 옛날에 쓰던 배혈방법의 하나로서, 고대에 쓰던 팔괘·구궁도·기경팔맥의 이론에 따라 침을 놓을 때의 날짜와 시간을 천간과 지지의 숫자로 계산하여 나온 숫자를, 이미 붙여놓은 팔맥교회혈의 숫자에 대입하여 혈을 선택하는 배혈방법.
- 171) 一 申脉.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1은 신맥에 해당된다는 말. '신맥'은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로서, 바깥복숭아뼈의 중심에서 4分寸 아래인 가는장강이뼈 머리의 아래 기슭 우묵한 곳이다.
- 172) 二 照海.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2는 조해에 해당된다는 말. '조해'는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혈. 안쪽 복사뼈의 중심에서 0.4인치 아래인데, 안쪽 복사뼈의 아래 우묵한 곳.
- 173) 三 外關.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3은 외관에 해당된다는 말. '외관'은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혈. 손등 쪽 손목 가로간 금의 중간에서 2치 위 자뼈와 노뼈 사이에 있다.
- 174) 四 臨泣.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4이면 임읍에 해당된다는 말. '임읍'은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혈. 임읍혈에는 머리 임읍혈과 발 임읍혈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리 임읍혈을 가리킨다. 머리 임읍혈은 눈동자로부터 5分寸 위에 있으며, 다리 임읍혈은 발등에서 제4, 제5 발목뼈가 갈라진 사이이며, 소지신근건의 바깥쪽에 있다.
- 175) 六 公孫.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6이면 공손에 해당된다는 말. '공손'은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 발 안쪽에서 제1 발목뼈바닥의 안쪽 전하방과 단모지굴근 사이에 있는 우묵한 곳이다.
- 176) 七 後谿.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7이면 후계에 해당된다는 말. '후계'는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혈. 새끼손가락뼈 쪽 제5 손목 손가락뼈마디의 뒤에 있는 금 끝에 있다.
- 177) 八 內關.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8이면 내관에 해당된다는 말. '내관'은 수궤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혈 이름. 손목의 손바닥쪽 가로 간 금의 가운데로부터 2 치 올라가서 장장근건과 노뼈 쪽 수근굴근간 사이에 있다.
- 178) 九 列缺.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9이면 열결에 해당된다는 말. '열결'은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혈 이름. 손목의 가로 간 금에서 1.5 치 올라가 요골경상돌기 위에 정맥이 있는 곳이다.
- 179) 불명.
- 180) 불명. 혹 '奇經八脉'의 잘못된지도 모르겠음. '기경팔맥'은 십이경맥과 달리 다른 길로 자기 혼자 행하는 경맥. 여덟 갈래인데, 임맥, 독맥, 충맥, 대맥, 음교맥, 양교맥, 양유맥, 음유맥이다.
- 181) 불명.



- 182) 十二經脈. 모든 경맥들 중 기본이 되는 12개의 경맥. 분포된 부위, 연계된 장부에 따라 음경, 양경, 수경, 족경으로 나눈다.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수소음신경(手少陰腎經)·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수궤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족궤음간경(足厥陰肝經)·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열두 가지임.
- 183) 承漿. 임맥의 혈. 정중선에서 아랫입술 아래 가장 깊숙한 곳이다.
- 184) 廉泉. 임맥의 혈. 혀뿌의 윗변연 중심부이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침을 놓는다.
- 185) 天突. 임맥의 혈. 앞 정중선상에서 흉골병의 경절혼으로부터 위로 5푼 되는 우묵한 곳이다.
- 186) 鳩尾. 임맥의 낙혈 이름. 검상돌기와 갈비활이 갈라진 사이를 연결한 중심에서 1치 아래에 있다.
- 187) 巨闕. 임맥의 혈로서, 앞 정중선 배꼽 위 6촌 되는 곳이다.
- 188) 上脘. 임맥의 혈로서, 앞 정중선 배꼽 위 5촌 되는 곳이다.
- 189) 中脘. 임맥의 혈 이름. 앞 정중선 배꼽 위 4촌 되는 곳이다.
- 190) 下脘. 임맥의 혈 이름. 앞 정중선 배꼽 위 2촌 되는 곳이다.
- 191) 神厥. 임맥의 혈 이름. 배꼽 중앙이다.
- 192) 丹田. 임맥의 혈인 석문(石門. 앞 정중선 배꼽 아래 2촌 되는 곳), 음교(陰交. 앞 정중선 배꼽 아래 1촌 되는 곳), 기해(氣海. 앞 정중선 배꼽 아래 1.5촌 되는 곳), 관원(關元. 앞 정중선 배꼽 아래 3촌 되는 곳) 혈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관원혈을 이른다.
- 193) 崑崙.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 이름. 바깥 복숭아뼈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 높이에서 바깥 복숭아뼈의 뒷기슭과 뒤축뼈힘줄의 바깥기슭과의 중간점에 있다.
- 194) 足太陰脾經. 십이경맥의 하나.
- 195) 三陰交. 족태음비경의 혈 이름. 안쪽 복숭아뼈의 중심에서 세 치 올라가 굽은정강이뼈의 안쪽 후연과 긴발가락굽 힘살 사이에 있다.
- 196) 陰陵泉.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 이름. 굽은정강이뼈 안쪽 뒤 아래 우묵한 곳이다.
- 197) 病勢. (더하고 덜한) 병의 형세.
- 198) 危重. (병세가) 위험할 만큼 매우 중함.
- 199) 驚動脈. 놀라 움직인 맥.
- 200) 脾胃脈. 지라와 위의 맥.
- 201) 腹中에서. 배속에서.
- 202) 결려. 숨을 크게 쉬거나 움직일 때에,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게 딱딱 마쳐.
- 203) 火病. 울화병. 울울하고 답답하여 일어나는 심화로 말미암아 생긴 병.
- 204) 陰陽風病. 음양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정신작용·근육 신축·감각 등에 고장이 생긴 병.
- 205) 動하여. 발동하여.
- 206) 異氣. 팔괘의 손에 속하는 기운.
- 207) 辛氣. 12지의 신에 속하는 기운.
- 208) 正陰. 가장 강한 음기.
- 209) 辰庚亥未는.

- 210) 正陽. 가장 강한 양기.
- 211) 陰虛火動. 음기가 허하고 화기가 활발함.
- 212) 黃疸. 주로 간장의 고장으로 생기는 증상으로서 쓸개즙의 색소가 혈액 속으로 이행하여 생기는 병.
- 213) 塵世山間. 인간이 사는 세상의 산 속.
- 214) 兔肝. 토끼의 간.
- 215) 差效. 차도. 병이 나아가는 일.
- 216) 同姓. 성씨가 같음.
- 217) 東方朔. 전한(前漢) 때의 사람. 자(字)는 만천(曼倩). 무제를 섬기어 금마문시중이 되었으며, 해학과 변설에 능하였음.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죽지 않고 장수하였으므로, 삼천 갑자 동방삭이라고 일컬음.
- 218) 누를 황(黃), 샘 천(泉), 돌아갈 귀(歸)하겠소. 황천으로 돌아감, 곧, 죽겠다는 말.
- 219) 神農氏. 중국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 성은 강(姜).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을 형상한 인신우수(人身牛首)의 신인(神人). 화덕(火德)으로써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약사의 신. 또 8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역자(易者)의 신이 되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도 불림.
- 220) 塵世. 속세. 인간이 사는 이 세상.
- 221) 뉘니까?
- 222) 卯乙巽은 陰木이요.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묘와 십간의 을은 오행으로는 목(木)에 속하는데, 팔괘의 손(巽)이 소음(少陰)이므로, 셋이 합하여 음의 목이 된다.
- 223) 辰戌은 陽土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진과 십간의 술은 오행의 토(土)에 해당되는데, 팔괘의 간은 소양(少陽)이므로 셋이 합하여 양의 토가 된다는 말.
- 224) 木克土. 나무가 흙을 이긴다는 말. 나무와 흙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로 남녀 관계나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형이 목극토일 경우 화합되지 않는다고 한다
- 225) 甲寅辰巽은 大江水. 십간과 십이지의 갑과 인과 진과 팔괘의 손은 큰 강의 기운을 나타낸다. 육십갑자 병납음(並納音)에는 '갑인을묘(甲寅乙卯) 대계수(大溪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의 잘못으로 생각됨.
- 226) 辰辰巳山은 元屬木. (점술이나 택일에 쓰이는 흉범 오행에) 진과 간과 사와 산은 원래 목에 속한다는 말.
- 227) 水生木. 음양오행설에서, 물에서 나무가 생긴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228) 回春. 중한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음.
- 229) 王曰. 왕이 말하기를.
- 230) 然하다. 그렇다.
- 231) 雖然이나. 비록 그러하지만.
- 232) 蒼茫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 233) 塵世間의. 이 세상의.
- 234) 碧海. 푸른 바다.
- 235) 萬頃 밖에. 만 이랑이나 되게 넓은 푸른 바다 밖에.

- 236) 白雲이 九萬里요. ‘흰 구름이 구만리나 뻗어 있는 먼 곳이요’라는 의미로 쓰였음.
- 237) 幽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치가 깊고 넓음.
- 238) 路殊. 길이 다름.
- 239) 昔者의. 옛날의.
- 240) 萬乘之威力. 만 대의 전차를 가진 위엄 있는 힘.
- 241) 童男童女. 어린 사내아이와 계집아이.
- 242) 虛送三山.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에 쓸데없이 보냄.
- 243) 壽命長短. 수명의 길고 짧음.
- 244) 在天. 하늘에 있음. 운명에 달려 있음.
- 245) 驪山 松栢.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중국 섬서성에 있는 여산의 소나무와 잣나무.
- 246) 鬱鬱蒼蒼. ‘울울창창’은 나무가 뻗뻗이 들어서 무성하여 푸른 모양. 따라서 여기서는 ‘울울창창한 속에’로 해야 옳음.
- 247) 三千古墳. 삼천 개나 되는 옛 무덤. 황제도 죽어 무덤이 그렇게 많다는 뜻.
- 248) 海外. 바다 밖.
- 249) 無定處로. 정한 곳 없이. 정처 없이.
- 250) 是非 없이. 본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이 없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가리지 않고’라는 의미 정도로 쓰였음.
- 251) 聖德. 임금의 덕을 높여서 이르는 말.
- 252) 成功之臣. 성공할 신하.
- 253) 因忽不見. 보이지 않음.
- 254) 水府朝廷. 물을 다스리는 조정.
- 255)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신하.
- 256) 一品. 옛날 벼슬아치의 최고 급수인데, 무관과 문관의 구별이 있고, 종일품과 정일품이 있다.
- 257) 等物들이. 여러 사물들이.
- 258) 史記. 역사의 기록.
- 259) 丞相. 옛날 중국의 벼슬인데, 우리나라의 정승에 해당한다.
- 260) 承旨.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던 정삼품의 벼슬아치.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관.
- 261) 注書.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려 역사 자료를 기록하던 정7품 벼슬.
- 262) 오징어.
- 263) 한림학사(翰林學士). 조선시대 예문관에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보던 정9품 벼슬.
- 264) ‘박죽상어’인 듯. ‘박죽상어’는 중간 크기의 상어를 말함.
- 265) 大司成. 고려와 조선시대 성균관의 으뜸 벼슬로 정3품.
- 266) 도루묵. 바닷물고기요, 몸길이 15~26cm에 입이 큼.
- 267) 蚌僉使. 내시부의 종3품 벼슬인 첨사 벼슬을 가진 조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 268) 해운공(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269) 물방개. 곤충의 일종으로 몸은 평평한 타원형이고, 길이 30~40mm이며, 몸빛은 흑갈

- 색에 녹색 광택이 남. 뒷다리는 길고 크며, 털이 많고, 물 속을 헤엄쳐 다님.
- 270) 兵使. 병마절도사.
- 271) 海狗. 물개.
- 272) 曹部將. 부장 벼슬의 초기. '조기'의 '조'자를 성으로 하여 만든 말임. 부장은 조선시대 종6품의 무관 벼슬.
- 273) 조기.
- 274) 비변랑(備邊郞). 낭청(郎廳)이라고도 하는, 나라 안팎의 군사기밀을 다루던 종6품 벼슬.
- 275) '달강어'의 방언. 몸이 가늘고 길며, 머리는 크고 검은데, 등은 고운 주홍빛을 띤 바닷물고기.
- 276) 성대. 몸길이 40cm 안팎으로 가늘고 길며, 주둥이가 빠죽하고 몸빛이 붉은 바닷물고기.
- 277) 청가오리. '청분'이라고도 함. 가오리의 한 종류로, 꼬리에 가시가 있음.
- 278) 左右 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에 딸린 하급 병졸. 나졸은 말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 체포를 담당했음.
- 279) 禁軍. 조선시대 금군청이나 용호영(龍虎營)에 딸려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던 말 탄 군사.
- 280) '숭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숭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281) 불명.
- 282) 누치.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잉어와 비슷하며, 몸길이는 20~30cm이나 큰 것은 50cm에 이름.
- 283) 미끌미끌한.
- 284) 座首. 조선조 때 지방에 두었던 향청의 우두머리.
- 285) 민물고기의 한 가지로, 동자개와 비슷하나 몸이 작고, 입 둘레에 네 쌍의 수염이 있으며, 몸빛은 누르다.
- 286) 격짓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20cm 정도이고 모양은 옆으로 납작하며, 엷은 녹색색 바탕에 7-8개의 검은 가로무늬가 있다.
- 287) 金鯉魚. 금빛 나는 잉어.
- 288) 찡뚱어. 망둑어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18cm 정도이고 가늘며, 푸른빛을 띤 남색이고 흰색의 잔 점이 많다.
- 289) 망둥어. 망둑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를 망둑어 또는 망둥어 등으로 부른다. 물고기의 과 중 가장 종류가 많아서, 200여 속에 2000여 종을 포함한다.
- 290) 몸을 뒤로 조금 젖히고 멀찌기서.
- 291) 경들. '경'은 임금이 신하를 가리키는 데 쓰는 말.
- 292) 있는가?
- 293) 面面相顧. 서로 얼굴만 쳐다봄.
- 294) 默默不答. 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음.
- 295) 割股事君.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여 임금을 섬김. 춘추시대 진(晉)의 개자추는 문공(文公)이 조나라 망명시에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었다고 함.
- 296) 개자추(介子推). 춘추시대 진(晉)의 선비로 문공(文公)이 망명시에 19년을 모셨으나,

- 문공이 귀국 후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면산(綿山)에 숨어버렸는데, 후에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자, 불을 질러 나오도록 했으나, 끝내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함. 한식(寒食)날은 개자추가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음.
- 297) 訛楚亡身 紀信. 초나라를 속이고 죽은 기신. 기신은 한나라 고조 때 충신. 한 고조 유방이 하남성에서 초나라의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여자들에게 갑옷을 입혀 뒤를 따르게 한 뒤, 유방의 수레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유방을 피신토록 하고 대신 죽었음.
- 298) 임금.
- 299) 正言.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에 딸린 벼슬. 정원은 2명이고 품계는 정6품이었음.
- 300) 鯉魚. 잉어.
- 301) 智略. 슬기로운 계략. 슬기와 꾀.
- 302) 몸뚱이의 한 가운데. 여기서는 등의 겹대기를 말함.
- 303) 대모(玳瑁)이기 때문에.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을 말하는데, 공예품이나 장식품의 고급 재료로 쓰임.
- 304) 玳瑁粧刀. 대모로 만든 장도.
- 305) 살쩍밀이. 망건을 쓸 때 살쩍을 망건 밑으로 밀어넣는 데 쓰는 도구. '살쩍'은 귀 밑에 난 털.
- 306) 갓 아래 받쳐 쓰는 관의 하나. 말총을 잘게 세워서 뜨는데,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턱이 졌음. 집안에서는 이것만 쓰기도 했음.
- 307) 탕건에 붙이는 장식물인 듯하나 불명.
- 308) 철쌈지. 담배를 넣어서 옷소매나 호주머니에 넣게 된 쌈지의 하나. 장방형(長方形)의 형겼으로 한 쪽에만 넣을 자리가 있는데,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음. 혹, 끈을 달아 묶기도 함.
- 309) 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310) 바위갯과의 하나. 등딱지의 길이는 3cm, 폭은 3.5cm 정도이며, 어두운 녹색이고 몸은 사각형으로 우툴두툴하고 다리에 털이 적다. 등에 'H' 자 모양의 흠이 뚜렷하며 집게발은 수컷이 암컷보다 억세다.
- 311) 靑林碧溪. 푸른 숲 속의 푸른 시냇물.
- 312) 潛身하여. 몸을 물속에 잠그고.
- 313) 千峯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골짜기.
- 314) 山中甕. 산 속의 토끼.
- 315) 月中甕. 달 속의 토끼.
- 316) 顏面. 서로 얼굴이나 알만한 친분.
- 317) 小臣.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318) 엄지발가락.
- 319) 무거운 물건을 힘겹게 들 때 나는 소리.
- 320) 大王前. 대왕께.
- 321) 前去後去. 앞으로 가고, 뒤로 감.

- 322) 蚌僉使. 내시부의 종3품 벼슬인 첨사 벼슬을 가진 조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 323) 鐵甲. 쇠붙이를 겹에 붙여 만든 갑옷. 여기서는 조개의 껍이 단단한 것을 이룸.
- 324) 굳굳하고. 단단하고.
- 325) 防身制度. 제 몸을 지키는 방법.
- 326) 觀蚌鷸之勢하고 坐收漁人之公이라. 홀조(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물고 놓지 않으며 싸우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어부가 둘 다 손쉽게 잡는다는 뜻으로, 둘이서 다투다가 마침내는 엉뚱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말함.
- 327) 長鬚口大. 수염이 길고 입이 큼.
- 328) 好風身. 풍채가 좋음.
- 329)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뚱이 들기 때문에'의 뜻.
- 330) 시장기를 면할 재료.
- 331)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 332) 蓑笠. 도롱이나 삿갓.
- 333) 漁翁. 고기 잡는 늙은이. 어부.
- 334) 미끼.
- 335) 꿰어서.
- 336) 飮食. 음식을 탐냄. 음식을 탐내어 먹음.
- 337) 삼켜.
- 338) '단불요대(斷不饒貸)'의 뜻. '단불요대'는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단숨에 꼼짝없이'라는 뜻인 듯.
- 339) 公論. 일반의 공통된 의견.
- 340) 未決할 제. 아직 결정하지 못할 때.
- 341) 靈德殿. 남해 용왕인 광리왕(廣利王)이 지었다는 궁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 편에 나옴.
- 342) 隱目短足. 눈이 작고 다리가 짧음.
- 343) 長頸鳥喙. 목이 길고, 주둥이가 까마귀의 부리와 같음.
- 344) 虎胸背. 호랑이를 수놓아 무관의 관복의 배와 등에 붙이던 천 조각.
- 345) 자라의 등껍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346) 어린아이나 다리가 짧은 동물이 느리게 걷거나 기어가는 모양.
- 347) 鞠躬再拜. 몸을 굽혀 두 번 절함.
- 348) 上疏. 임금에게 올리는 글.
- 349) 忠臣이다. 충신이로다. 충신이로구나.
- 350) 四足. 네 다리.
- 351) 잘하여.
- 352) 逢敗. 일이 잘못됨.
- 353) 海中之所生. 바다 속에서 태어난.
- 354) 畫像. 얼굴을 그린 그림.
- 355) 그것일랑은. 그것은.

- 356) 畫師子. 그림을 그리는 사람. 화가.
- 357) 洞庭琉璃青紅硯. 동정호의 유리창(琉璃廠)에서 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나는 고운 벼루.
- 358) 錦水秋波.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여기서는 '금수추파를 담은'으로 해야 함.
- 359) 거북 硯滴. 거북 모양을 한 벼루물을 담는 그릇.
- 360) 兩頭畫筆. 양 쪽에 화필이 달린 붓.
- 361) 덥석. 무엇을 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 362) 丹青 彩色. 붉고 푸른 여러 가지 빛깔.
- 363) 天下名山. 온 세상의 이름난 산.
- 364)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
- 365) 지저귀어 울 제.
- 366) 芝草. 지치. 쌍떡잎식물 갈래꽃류에 속하는 한 과(科)로, 염료나 약재용으로 쓰임.
- 367) 향초(香草). 향기나는 풀.
- 368) 봉래산(蓬萊山). 중국에서 상상하던 삼신산(三神山). 신선이 산다는 세 산으로,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산)의 하나.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369) 방장산(方丈山). 삼신산의 하나.
- 370) 雲霧. 구름과 안개.
- 371) 냄새.
- 372) 大寒.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소한의 다음이며, 양력 1월 21일 경으로 가장 추운 때임.
- 373) 嚴冬. 매우 추운 겨울.
- 374) 雪寒風.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 추위.
- 375) 防風. 바람을 막음.
- 376) 萬化方暢花林中. 봄이 되어 온갖 사물이 한창 피어나는 꽃수풀 속.
- 377) (입술이나 귀 따위를) 뽀뽀하게 치켜세우거나 뽀족이 내미는 모양.
- 378) 동글동글함.
- 379) 늘씬. 미끈하게 긴 모양.
- 380) 꼬리.
- 381)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382) 녹수(綠水)인데. 푸른 물인데.
- 383) 綠水青山. 푸른 물과 푸른 산.
- 384) 조금 휘어져 굽은.
- 385) 長松. 키가 큰 소나무.
- 386) 들락날락. 연거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 387) 엉거주춤.
- 388) 산중토(山中厖). 산 속의 토끼.
- 389) 월중토(月中厖). 달 속의 토끼.
- 390) 화중토(畫中厖). 그림 속의 토끼.
- 391) 얼른.

- 392) 峨眉山月이 半輪秋. 이백의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의 첫 구절. 아미산 위에 뜬 반달이 벌써 가을이 되었다.
- 393) 이에서. 이보다.
- 394) ‘여기 있다’의 준말. ‘해라’ 할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 395) 막창자. 맹장.
- 396) 筆匣. 붓을 넣어두는 통.
- 397) 肅拜. 서울을 떠나 임지로 향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던 일.
- 398) 本宅. 자기가 살고 있는 집.
- 399) 大夫人.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 400)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
- 401) 三代獨子. 3대에 걸쳐서 형제가 없는 외아들.
- 402) 長歎息.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함.
- 403) 救患. 어려움에서 구함.
- 404) 세류청계. 작고 맑은 시냇물.
- 405) 骨曝沙場. 죽어서 모래밭에 뼈가 드러남.
- 406) 허영게 뼈가 드러나게 되어서.
- 407) 烏鳶. 까마귀와 솔개.
- 408) 두드리며.
- 409) ‘후여’하고 소리를 질러서. 여기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와 솔개를 소리를 질러 내쫓는 것을 말함.
- 410) 危那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아니함.
- 411) 여기서는 나랏님, 곧 임금을 말함.
- 412) 患候. 어른의 병.
- 413) 다녀올 것입니다.
- 414) 怒氣가 騰騰하고. 성이 나서 노한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고.
- 415) 殺氣. 독살스러운 기운.
- 416) 衝天. 하늘을 찌름.
- 417) 눈에 독기를 띠며 쏘아보는 시선.
- 418) (눈을) 똑바로 뜨다.
- 419) 渭水波光. 위수의 물빛. ‘위수’는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로 강태공이 낚시질을 하던 곳.
- 420) 兩主. ‘양주’는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421) 堂上. 늙은 부모가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
- 422) 鶴髮. 학처럼 흰 머리.
- 423) 朝夕恭待. 아침저녁으로 늘 공손히 잘 받들어 모심.
- 424) 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오륜의 하나.
- 425) 社稷.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나라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26) 閨中.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 427) 節行之事. 절개 있는 행동을 하는 일.



- 428) ‘풀이 길게 자란 밭’을 이르는 말인 듯.
- 429)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볼록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430) 倣似. 비슷함.
- 431) 누린내. 짐승의 고기에서 나는 기름기 냄새나, 고기 또는 털 따위의 단백질이 타는 냄새처럼 역겨운 냄새.
- 432) 惇惇히. 惇惇. 몹시 급하고 바쁘게.
- 433) 水晶門. 수정으로 만든 문. 용궁의 문을 가리킴.
- 434) 杲杲天邊一輪紅. 동틀 무렵 하늘가에 떠 있는 붉은 해.
- 435) 扶桑. 해가 돋는 곳, 혹은 그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436) 暘谷. 해가 돋는 골짜기.
- 437) 자옥하게 긴.
- 438) 月峰으로. ‘월봉’은 달이 뜨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 439) 豫章村. 중국 회남과 강북의 경계에 있는 마을.
- 440) 回雁峯. 중국 호남성에 있는 형산의 으뜸가는 봉우리. 기러기가 겨울에 이곳까지 왔다가, 봄이 되면 북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441) 蘆花. 갈대꽃.
- 442) 浮萍. 개구리밥과에 딸린 물풀.
- 443) 魚龍. 물고기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
- 444) 자고새. 꿩과에 딸린 작은 새로, 모양은 메추라기와 비슷하나 조금 큼.
- 445) 洞庭如天波始秋. 하늘처럼 맑고 넓은 동정호의 물결이 비로소 가을을 알린다.
- 446) 金聲秋波. 가을바람 소리와 물결 소리.
- 447) 여기라.
- 448) 碧波. 푸른 물결.
- 449) 滄浪. 맑은 물결.
- 450) 地廣. 땅 넓이.
- 451) 波光. 물 빛갈.
- 452) 天一色인데. 하늘과 같은 색깔인데.
- 453) 天外巫山十二峯.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454) 海外瀟湘. 바다 멀리까지 뻗은 소상강.
- 455) 景. 광경. 경치.
- 456) (동정호를 중심으로) 오나라는 동쪽으로, 초나라는 남쪽으로 넓게 자리잡았고, (호수에는) 이 세상이 밤낮 없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두보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의 한 구절로, 원문은 ‘오초동남탁(吳楚東南坼) 건곤일야부(乾坤日夜浮)’이다.
- 457) 南薰殿. 순임금이 짓고 살았다는 궁전.
- 458) 五絃琴. 줄이 다섯 개가 있는 옛날 중국의 현악기로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함.
- 459) 洛浦. 낙수 강가에 있는 포구. 낙수의 북쪽에 낙양이 있는데, 낙양에서 무관은 하루나

- 이틀 걸리는 거리임.
- 460) 武關囚의. '무관수는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 461) 楚懷王. 초(楚)나라의 왕으로, 진나라의 소왕이 무관에서 만나자고 한 말을 믿고 갔다가 잡히고 말았음. 진나라는 회왕을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굴원이 벼슬을 하다가 참소를 입은 것이 이 때임.
- 462) 潛身하여. 몸을 물속에 잠그고.
- 463)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464) 萬鏡臺.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불명.
- 465) 鶴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 466) 七寶山. 중국 안휘성 무위현에 있는 산.
- 467) 비로봉(毘盧峯). 산봉우리 이름.
- 468) 계산과무울자아(稽山罷霧鬱嵯峨). 안개가 걷히니 계산이 더욱 높아 보인다. 당나라 시인 하지장의 <채련곡(採蓮曲)>의 일절.
- 469) 경수무풍야자파(鏡水無風也自波). 거울같이 맑은 물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물결이 일다.
- 470) 크고 무거운 물건이 깊은 물에 잇따라 떨어지는 소리.
- 471) 깊고.
- 472) 萬山. 온갖 산.
- 473) 落花. 떨어진 꽃.
- 474) 가볍게 물 위에 떠내려가는 모양.
- 475) 落落. 가지가 늘어진 모양.
- 476) (가로 퍼진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널찍한.
- 477) 뭉뚱한 다래나무.
- 478) 칙덩굴.
- 479) 으름덩굴.
- 480) 뱃나무.
- 481) 柑子. 감자나무의 열매. 감자나무는 귤과 비슷하나 열매가 귤보다 작음.
- 482) 갓은. 온갖.
- 483) 果木. 과일나무.
- 484) 굽이져.
- 485) 奔飛. 이리저리 날아다님.
- 486) 새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487) 江上. 강물 위의.
- 488) 때로 다니는 고니.
- 489) 少昊天子紀官하던. '소호천자가 벼슬의 이름에 새의 이름을 붙이던 때와 같은 태평성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소호천자는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소호 금천씨(金天氏). '소호 금천씨'는 중국 고대의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의 아들로, 황제의 위에 오르자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으므로, 관직 이름에 새이름을 붙였다고 함.
- 490) 萬壽門前의. 만수문 앞의.

- 491) 洋洋滄波點點浮. 넓고 넓은 바다 물결에 점점이 떠 있음.  
 492) 사랑롭다. 사랑스럽다.  
 493) 烏鵲이. 까마귀와 까치.  
 494) 새이름인 듯하나 불명.  
 495) 해오라기. 백로.  
 496) 너새. 기러기와 비슷하나 몸이 크고 부리가 짧음.  
 497) 징경이. 물수리라고도 하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498)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  
 499) 萬壑千峰이요.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요.  
 500) 白沙地場. 흰 모래사장.  
 501) 약간 휘우듬하게 구부러진.  
 502) 長松. 키가 큰 소나무.  
 503) 狂風. 사나운 바람.  
 504) 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몸 전체를 율동적으로 멋있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505) 遠山. 멀리 있는 산.  
 506) 暗暗. 깊고 그윽함.  
 507) 近山. 가까이 있는 산.  
 508) 重重. 거듭거듭 또는 겹겹으로 되어 있는 모양.  
 509) 奇巖. 기이한 바위.  
 510) 層層. 층을 이루어 높이 쌓여 있는 모양.  
 511) 메아리.  
 512) 流水는. 흐르는 물은.  
 513) 물줄기 따위가 끊이지 않고 강하게 흐르는 소리.  
 514) 모든 골짜기.  
 515) 한 곳으로.  
 516) 합수(合水)져. 물이 합쳐져.  
 517) 천방저 지방저 언덕저 구부저.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굽이쳐.  
 518) 거품이 일어.  
 519) 병풍석(屏風石). 병풍처럼 생긴 바위.  
 520) 때려.  
 521) 大海수중(大海水中). 큰 바다 물 가운데로.  
 522) 거품.  
 523) 술, 식혜 등이 괴어 끓어오르는 모양. 여기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거품이 끓어오르는 모양을 표현한 것임.  
 524) 바다같은 넓은 물에 크게 움직이는 물결.  
 525) 크고 묵직한 물체나 몸이 중심을 잃고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  
 526) 뒤틀려서 우그러져서.  
 527) 물결이 자꾸 흔들리는 모양. 여기서는 물속에 비친 산 그림자가 물결에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됨.

- 528) 여기로구나.
- 529) 景概. 경치.
- 530) 雲層境. 구름이 층층이 쌓인 높은 곳.
- 531) 前後不見.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지 못하여 처음 보는.
- 532) 層巖絕壁. 층층이 바위가 쌓인 높은 절벽.
- 533) 山勢. 산의 생긴 모양.
- 534) 마침.
- 535) 上座 다투. 서로 위치를 차지하려는 다툼.
- 536) 날짐승. 새.
- 537) 물리나 있거라.
- 538) 舜 임금.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
- 539) 南薰殿. 순임금이 정사를 보던 궁전.
- 540) 순임금이 탔다는 줄이 다섯인 비파.
- 541) 蕭蕭鬼聲. 쓸쓸한 귀신 소리.
- 542) 岐山.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 고공단보가 도읍을 삼은 곳.
- 543) 鬱鬱하여. ‘울울’은 나무가 매우 배게 들어서 무성함. 여기서는 ‘매우 무성하여’라는 의미로 쓰였음.
- 544) 周文武. 주나라 문왕과 무왕. 문왕은 무왕의 아버지이며, 무왕은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고 천하를 통일하여 주나라를 세웠음.
- 545) 계시고.
- 546) 萬古大聖. 세상에 다시 그 유례가 없는 대 성인.
- 547)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 548) 길. 자기 키만큼의 길이.
- 549) 飢不啄粟. 배가 고파도 곡식을 먹지 않음.
- 550) 瀛州山.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 551) 石上 梧桐. 바위 위에 난 오동나무.
- 552) ‘소상반죽(瀟湘斑竹)’의 잘못. 중국 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무늬가 있는 대.
- 553) 검은 자위. 눈알의 검은 부분.
- 554) 대가리. ‘머리’의 비어.
- 555) 根本. 자라온 환경과 경력.
- 556) 越王 句踐. 중국 춘추시대 말기의 월나라의 임금인 구천. 오나라의 부차(夫差)에게 패하여 회계산(會稽山)에서 항복을 했음. 그 후 명신 범려와 와신상담(臥薪嘗膽) 20년에 마침내 부차를 죽여 회계의 치욕을 씻고, 패자(霸者)가 되었음.
- 557) 彷彿. 거의 비슷함.
- 558) 검기는. 검은 것은.
- 559) 山陰. 중국의 지명.
- 560) 王羲之(307?-365?). 중국 동진(東晉)의 서예가. 자는 일소(逸少). 그의 전아하고 힘차며 품위 있는 서풍은 일찍부터 안팎의 존경을 받았음.
- 561) 洗硯池. 벼루를 씻은 연못.

- 562) 생긴.
- 563)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564) 星稀. 별이 드문드문함.
- 565) 南飛. 남쪽으로 날아감.
- 566) 三國興亡. 위·오·촉 세 나라의 흥망.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가 지은 시 〈단가행(短歌行)〉의 “月明星稀 烏鵲南飛 遶樹三匝 無枝可依(달은 맑고 별은 희미한 밤,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다)”를 두고 한 말임. 〈단가행〉은 패하여 도망칠 유비를 조종하여 지은 것임.
- 567) 反哺恩. 까마귀의 새끼가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잡아다 주어, 길러준 은혜를 갚는 일.
- 568)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569) 心性.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
- 570) 不測하여. 미리 헤아릴 수 없어서. 엉금하고 꿔잡하여.
- 571) 나무에.
- 572) 動할 제. 동요하게 할 때. 어지럽게 할 때.
- 573) 守節寡婦.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 절개는 지키는 여자.
- 574) ‘오비이락(烏飛梨落)’을 가리킴. ‘오비이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의심받게 됨을 이룸.
- 575) 毛族. 몸에 털이 난 짐승.
- 576) 隱身. 몸을 숨김.
- 577) 作春秋에. 《춘추》를 지을 적에.
- 578) 絕筆. 붓을 놓고 글 쓰기를 그만둠.
- 579) 공자가 《춘추》를 엮을 적에, ‘노나라 애공이 사냥을 가서 …… 기린을 잡다(획린(獲麟))’라는 구절로 끝을 낸 데서 나온 말임. ‘획린’은 절필, 혹은 임종의 뜻으로 쓰임.
- 580) 三軍三營. ‘삼군’은 군대의 좌익, 우익, 중군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삼영’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통틀어 일컫는 말.
- 581) 舉動時. 임금님이 나들이를 할 때에.
- 582) 天子 玉輦.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
- 583) 玉京仙官. 신선이 사는 하늘나라의 벼슬아치. ‘옥경’은 도교에서 옥황상제가 있는 곳.
- 584) 乘匹. 타고 다님.
- 585) 老獅子. 늙은 사자.
- 586) 西伯. 주나라의 문왕.
- 587)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588) 非熊非豹.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님.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기에 앞서 점을 쳤는데,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임금을 모실 훌륭한 신하를 만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는데, 이 점괘대로 문왕은 위수 북쪽에서 강태공을 만났음.
- 589) 滄海博浪沙中 狙擊始皇하든. 창해군이 박랑사 가운데서 진시황을 죽이려고 저격을 하던. 한 고조의 모사였던 장량이 젊었을 적 진시황을 죽이려고 창해군이라고 하는 장사를 만나 박랑사에서 시황이 탄 수레를 철퇴로 내리쳤으나, 실패한 일을 가리킴. ‘박랑

- 사'는 하남성 양무현(陽武縣)에 있는 지명.
- 590) 다람쥐.
- 591) 江水東流猿夜聲. 강물은 하염없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원숭이만 밤에 구슬피 운다. 이태백의 시 <양양가(襄陽歌)>의 한 구절.
- 592) 원숭이.
- 593) 멧돼지.
- 594) 족제빗과의 하나. 몸은 45-50cm, 꼬리는 20cm 정도이다.
- 595) 족제빗과 담비속에 딸린 만주날담비와 목도리날담비의 속칭.
- 596) 사슴과의 하나. 노루의 일종으로 몸의 길이는 90cm 정도로 작으며, 여름에는 붉은 갈색, 가을에는 잿빛 갈색이다.
- 597) 등등의 것들이.
- 598) 年年이. 해마다.
- 599) 놀 것이네. 놀겠네.
- 600) 年齒. '나이'의 높임말.
- 601) 獐都監. '도감 벼슬을 하는 노루'라는 뜻으로, 노루를 의인화한 표현.
- 602) 샌다고 하면.
- 603) 騎鯨上天.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 604) 나와.
- 605) 同接.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함.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관계.
- 606) 匡山. 이태백이 십 년 동안 글공부를 했다고 하는 중국 사천성에 있는 산.
- 607) 玉京. 도가에서 옥황상제가 있다는 신선 세계의 서울.
- 608) 上天. 하늘로 올라감.
- 609) 微物. 보잘 것 없는 물건.
- 610) 賤賤. 천하계.
- 611) 年甲. 나이가 같음.
- 612) 獐把獐. '파총 벼슬을 하는 너구리'라는 뜻으로, 너구리를 의인화한 표현임.
- 613) 銅雀臺. 중국 후한 건안 15년 겨울에 조조가 위나라 수도인 업(鄴)의 북서쪽에 지은 누대. 구리로 만든 봉황으로 지붕 위를 장식한 데에서 생긴 말이다.
- 614) 玉龍閣. 동작대의 우편에 크고 높다랗게 지은 집.
- 615) 金鳳樓. 동작대 좌편에 세운 누대.
- 616) 二喬女. 중국 삼국시대에 강동에 살던 교공의 두 딸인 대교와 소교를 가리키는데, 매우 예뻐했다고 한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주유가 손권의 형인 손책을 따라 완성을 칠 때 포로로 잡아 대교는 손책이, 소교는 주유가 차지했다. 본래 <동작대부>의 마지막 구절에 '연이교이동서혜(連二橋於東西兮)여 약장공지체동(若長空之蛟螭)'(동서로 다리를 이어놓으니, 마치 하늘에 뜬 무지개인 듯하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공명이 '攬二喬於東南兮 樂朝夕之與共(대교와 소교를 동남에서 데려와 밤낮으로 함께 즐기며 지내리라)'으로 쓸적 바꾸어 주유를 격노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이용한 것임.
- 617) 曹子建. 이름은 식(植). 조조의 아들로서 글재주가 뛰어나, 조조가 <동작대부>를 짓게 했음.

- 618) 〈동작대부(銅雀臺賦)〉. 동작대를 두고 조자건이 지은 시.
- 619) 韻하던. 읊던.
- 620)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 621) 멧돼지.
- 622) 거스름미 눈. ‘거스름미’는 나무의 결 같은 것이 얇게 터져서 일어난, 가시처럼 된 부분. ‘거스름미 눈’은 멧돼지의 눈썹이 가시처럼 거칠게 생겼기 때문에 이를 일컫은 말임.
- 623) 연이어 천천히 꺾박이는 모양.
- 624) 喇叭.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졌음.
- 625) 저낭청(猪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돼지’라는 뜻으로, 돼지를 의인화한 표현.
- 626) 匈奴國. 흉노족이 세운 나라. ‘흉노’는 기원 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 627) 주린 忠節 十九年에 首髮이 盡白하여. 굶주리면서 충성스런 절개를 지킨 지 19년만에 머리털이 모두 희어져.
- 628) 허위적허위적. (벗어나거나 헤어나라고)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 629) 蘇中郎. 중랑장 벼슬의 소무(蘇武). ‘소무’는 한나라 때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잡혀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충절을 지키다 19년만에 백발 노인이 되어 돌아왔음.
- 630) 漢 光武. 한나라 광무제. 후한을 세운 유수(劉秀).
- 631) 諫議大夫. 중국에서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정치의 득실을 논하던 벼슬아치.
- 632) 뜰구름.
- 633) 遮日. 햇볕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 634) 桐江의 七里灘. 중국 절강성 동로현에 있는 여울. 한나라 때 엄광(嚴光)이 여기서 낚시질을 하였다고 함.
- 635) 嚴子陵. 이름은 광(光)이고, 자통은 그의 자(字)임. 후한을 세운 유수와 어려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후에 유수가 광무제가 되어 간의대부 벼슬을 내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숨어 살았음.
- 636) ‘시조(始釣)’는 낚시질을 시작함. 따라서 여기는 ‘시조하고’를 빼버리고 ‘엄자통과 낚과들이’로 해야 어법에 맞음.
- 637) 壯觀. 훌륭하고 볼만한 광경
- 638) 여리.
- 639) 액체 따위가 조금씩 자꾸 새어 흐르거나 나왔다 그쳤다 하는 모양.
- 640) 살이 붙어 있는 정도나 부피.
- 641) 封送. 물건을 싸서 선물로 보냄.
- 642) 단념할 수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이.
- 643) 混沌未分太極初. 우주가 생겨서 혼돈이 아직 태극으로 나누어지기 전의 태초.
- 644) 넓은.
- 645) 鑛石. 쇠붙이를 유리하게 채취할 수 있는 광물이나 또는 그 집합체.
- 646) 女媧氏. ‘여왜씨’는 복희씨(伏羲氏)의 누이동생으로, 복희씨 다음으로 임금이 되었는데, 제후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하늘 한 쪽이 부서져서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자, 돌을

다듬어 부서진 곳을 메우고, 거북의 다리를 잘라 사방의 기둥을 세웠다고 한다.

- 647) 애들이.
- 648) 百獸之長. 모든 짐승의 어른.
- 649) 山君. 호랑이를 달리 이르는 말.
- 650) 바둑돌과 같이 동글동글한 점. 호랑이의 무늬를 가리킴.
- 651) 글자나 그림이 찍히고.
- 652) 얼룩덜룩.
- 653) 疊疊山中.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산 속.
- 654) 生員. 일반 백성이 양반 선비를 부르던 말.
- 655) 大虎. 큰 호랑이.
- 656) 松林. 소나무 숲.
- 657) 잠두(蠶頭). 보통 산의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특 불거진 모양을 가리킴.
- 658) 두 팔을 벌려서 편 거리.
- 659) 箭筒. 화살을 넣는 통.
- 660)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메는 기구.
- 661) 석로 만든 냇.
- 662) 큰 모래.
- 663) 뒤집혀 넘어지고.
- 664) 움츠리고.
- 665) 옆드려 있을 때.
- 666) 전혀 서슴지 않고 선뜻 행동하는 모양.
- 667) 둥글고 평평한 판.
- 668) 밀로 만든 부꾸미. ‘부꾸미’는 찹쌀·밀·수수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번철(지짐질을 하는 데 쓰는 무쇠 그릇)에 지진 음식.
- 669) 고소한.
- 670) 두루뭉술.
- 671) 납작한 것이나 납작한 사람.
- 672) 腹臑. 가슴의 한복판.
- 673) 두루뭉술.
- 674) 거기는.
- 675) 通姓名.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 676) 大抵. 대체로 보아서.
- 677) 겹김에. 겹이 나는 바람에.
- 678) 名色. 어떠한 명목으로 불리는 이름.
- 679) 자라탕.
- 680) 불에 태워.
- 681) 萬病回春.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682) 名藥. 효험이 좋은 이름난 약.



- 683)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볼록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684) 濕氣. 한의학에서 습한 기운을 이르는 말.
- 685) 思慕하여. 애뜻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여.
- 686) 仰天痛哭. 우러르며 슬프게 울.
- 687) 罔極하여. 어버이나 임금의 은혜가 한이 없어서.
- 688) 逐逐猛虎. 호랑이를 쫓아 보냄.
- 689) 連將軍. 장기에서, 어느 한쪽에서 연달아 부르는 장군. 또는 그런 말발에 놓인 관계.
- 690) 화살.
- 691) 射殺白虎. 활로 쏘아 죽임.
- 692) 서럽지 않으나.
- 693) 華陀. 중국 후한 말기의 명의. 약제의 조제, 침술, 뜸질에 두루 통했으며, 외과 수술에 마취약을 쓰기도 했다고 함. 조조의 병을 치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돌아오지 않자, 조조의 노여움을 사 죽임을 당했음.
- 694) 扁鵲. 이름은 진월인(秦越人). 중국 전국 시대의 의학자. 명의로서 전설적 명성을 남겼으며, 그의 저서라고 하는 의서가 많음.
- 695) 藥和劑. 약방문(藥方文).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재의 종류와 분량을 적은 글.
- 696) 불에 태워서.
- 697) 達通. 사물의 이치에 정통함.
- 698) 悖術. 사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술수.
- 699) 대단한 일.
- 700) 어떤 일을 하려고 버르거나 굳게 마음먹을 때.
- 701) 정도 이상으로 많게.
- 702) 典獄主簿. 감옥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 703)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 704) 四代孫. 4대 후손.
- 705) 鼈나리. 자라를 의인화하여 부른 이름. '나리'는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던 말.
- 706) 되움치기. (비교적 큰 동작으로) 몸의 일부를 내밀었다가 갑자기 오그려 들여보내는 동작을 반복하기.
- 707) 頽落. (건물 따위가) 무너지고 떨어짐.
- 708) 모든.
- 709) 衝舌. 추녀.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 710) 名醫다려. 명의에게.
- 711) 도랑귀신. 도랑은 '작은 개울'이므로, '작은 개울에 있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쓴 듯. 자라는 민물 물고기이므로 도랑과 연관을 지은 것임.
- 712) 돼지나 곰의 쓸개를 셀 때 쓰는 수효.

- 713) 匕首劍. 날카로운 단도.
- 714) 불알.
- 715) 젓혀놓으니.
- 716) 楚歌聲. 초나라 노래 소리. 항우가 유방과 해하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일 때, 유방의 군대가 달밤에 초나라 노래를 구슬프게 불러,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생각으로 진영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 항우가 전투에서 졌다고 함.
- 717) 霸王. 항우(項羽)를 이룸. 중국 진(秦)나라 말엽의 무장. 기원전 209년 유방(劉邦)과 같이 진나라를 쳐서 멸하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 됨.
- 718) 躍出. 힘차게 뛰어나옴.
- 719) 片箭. 아기사살. 짧고 작은 화살. 일천 보(步) 이상의 거리에 능히 이르며, 날썰고 축이 날카로워 갑옷이나 투구를 능히 뚫음.
- 720) 화살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721) 鐵丸. 처란. 엽총에 쓰는 갈게 만든 탄알.
- 722) 달리듯.
- 723) 江水. 강물.
- 724) 여기에 가서.
- 725) 저기에 가서.
- 726) 번뜻번뜻거리며. 계속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 727) 고개 이름이나 불명.
- 728) 아프구나.
- 729) 아래의 양쪽에 귀가 나오게 된 주머니. 네모지게 지어 아가리 쪽으로 절반을 세 골로 접어 만듦.
- 730) 石山. 돌산. 바위로 이루어진 산.
- 731) 山中之靈物. 산 속의 신령스런 짐승.
- 732) 志氣. 의지와 기개.
- 733) 變化. 술법을 써서 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함.
- 734) 山神祭. 산신에게 드리는 제사.
- 735) 一片丹心.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정에서 우리나라오는 충성된 마음이나 절개.
- 736) 清水. 맑은 물.
- 737)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 738) 溪邊楊柳. 시냇가의 버드나무.
- 739) 塵土. 먼지와 흙.
- 740) 巖床. 상처럼 생긴 바위.
- 741) 祭板. 제물을 차려놓는 상.
- 742) 拜席. 의식(儀式)에서 절을 하는 곳에 까는 자리.
- 743)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744) 東頭西尾. 머리를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놓음.

- 745) 席下에. 자리 아래에서.
- 746) 拜禮. 절하는 예. 절하여 예를 포함.
- 747) 至誠讀祝. 정성을 다하여 축문을 읽음. ‘축문’은 제사 때에 읽어神明(神明)께 고하는 글.
- 748) 維歲次. 제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 749) 朔. 초하루. 축문에서 월건 다음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임.
- 750) 敢昭告于. 감히 고하나이다.
- 751) 上天日月星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 752) 后土. 토지의 신.
- 753) 神靈前. 신령님 앞에. 신령님께.
- 754) 伏祝합니다. 엎드려 빕니다.
- 755) 偶然得病. 병을 얻음.
- 756) 天醫道士. 하늘나라 의사인 도사.
- 757) 問病. 본래는 ‘앓는 사람을 찾아보고 위로함’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병에 관하여 묻는다는 뜻으로 쓰임.
- 758) 千年兎肝. 천 년 묵은 토끼의 간.
- 759) 卽瘥云헌 故로. 곧 나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 760) 此山中. 이 산속.
- 761) 千年兎一首. 천 년 묵은 토끼 한 마리.
- 762) 許給. 주기를 허락함.
- 763) 千萬祝願. 수없이 축원합니다.
- 764) 謹以清酌. 삼가 맑은 술로.
- 765) 常事. 아들이 부모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떳떳한 일이라는 뜻으로 《예기》에 나오는 말. 제문이나 축문의 끝에 상투어로 씀.
- 766) 尙饗.神明이 제물을 받아 드시기를 비는 말. 흠향하시옵소서.
- 767) 祝手. 두손 모아 빕.
- 768) 동글동글.
- 769) 꼬리.
- 770)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771) 綠水青山. 푸른 물이 흐르는 푸른 산.
- 772) 조금 휘어져 굽은.
- 773) 楊柳. 버드나무.
- 774) 엉거주춤.
- 775) 山中兎. 산 속의 토끼.
- 776) 月中兎. 달 속의 토끼.
- 777) 畫像. 그림으로 그린 초상.
- 778) 산중토(山中兎). 산 속의 토끼.
- 779) 월중토(月中兎). 달 속의 토끼. 전설에 달 속에서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 함.
- 780) 화중토(畫中兎). 그림 속의 토끼.

- 781) 누구가.
- 782) 箕山. 중국 하남성에 있는 산. 요 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숨어 산 곳.
- 783) 潁水. 중국 하남성에 있는 강. 요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허유가 못 들은 말을 들었다고 하여 귀를 씻은 곳.
- 784) 巢父. 중국 요임금 때의 이름 높은 선비. 속세를 떠나서 산의 나무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함.
- 785) 許由. 중국 요임금 때 숨어서 살던 선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고, 도리어 못 들은 말을 들어 귀가 더러워졌다고 하여 영수에서 귀를 씻었다고 함.
- 786) 避世가자고. 세상을 피해 숨자고.
- 787) 首陽山. 중국의 산서성(山西省)에 있는 산으로 백이 숙제가 굶어 죽은 곳.
- 788) 白夷 叔齊. 중국 은(殷)나라의 처사. 고죽군(孤竹君)의 두 아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려고 하자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효(孝)가 아니며, 신하로서 임금을 살해하려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간곡하게 말렸다. 그러나 무왕이 은(殷)을 평정하자,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수치로 여겨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결국 아사했다.
- 789) 採薇하자고. 고사리를 캐자고.
- 790) 百花深處一僧歸라, 春風石橋花林에. 온갖 꽃이 피어 있는 곳에 한 중이 돌아온다, 꽃수풀 속 봄바람 부는 둘다리에. 김만중이 지은 <구운몽>에서 성진이 육관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을 다녀오다가, 온갖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둘다리에서 여덟 선녀를 만나게 된 일을 가리킨 것임.
- 791) 性眞. <구운몽>의 남자 주인공의 천상계에서의 이름.
- 792) 和尚. 중을 높여 부르는 말.
- 793) 玩月長醉. 달을 즐기면서 늘 술에 취해 있음.
- 794) 太白. 당나라 때의 시인 이태백.
- 795) 騎鯨上天.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이태백은 신선이 되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함.
- 796) 桃花流水. 물 위에 뜬 복숭아꽃.
- 797) 武陵桃園.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도화원기>에 복숭아꽃잎이 흘러오는 곳으로 거슬러 가니 별천지가 있었다고 하였다.
- 798) 그곳인가.
- 799) 青山夔洲白碌灘. 청산에 살면서 섬과 회고 푸른 여울을 두려워함.
- 800) 呂洞賓. 당나라 때 사람으로 호는 순양자(純陽子). 64세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강호를 떠돌았는데, 목숨을 연장하는 술법을 배워 여덟 명의 신선 중 하나로 일컬어짐.
- 801) 此山中 雲深한데 不知處 오신 손님. 이 산중에 구름이 깊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찾아오신 손님. 당나라 때 시인 가도(賈島)의 시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에 나오는 '지체차산중(只在此山中) 운심부지처(雲深不知處)'(이 산 속에 있기는 하지만, 구름이 깊어서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의 변형임.
- 802) 緣分.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
- 803) 天上. 하늘 위.
- 804) 理陰陽順四時. 음양을 맡아서 사계절의 변화를 순조롭게 함.

- 805) 禮部尙書.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806) 月兔러니. 달 속의 토끼이더니(토끼인데).
- 807) 搗藥酒. 약초를 넣어 빻은 술.
- 808) 長生藥. 먹으면 오래 산다는 약.
- 809) 謫下人間.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음.
- 810) 兎名. 토끼라는 이름.
- 811) 典獄主簿. 감옥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 812)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 813) 四代孫. 4대 후손.
- 814) 鼈나리. 자라를 의인화하여 부른 이름. ‘나리’는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던 말.
- 815) 何相見之晚晚無故不測. 이렇게 늦게서야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음.
- 816) 短文. 글을 아는 것이 넉넉하지 못함.
- 817) 文字.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자로 된 속어나, 문장.
- 818) 문자통. ‘통’은 정통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문자를 잘 아는 사람으로 쓰임. 여기서는 ‘문자꾸러미’ 정도의 의미.
- 819) 法眼弘眼. 도를 통해 무엇이나 널리 꿰뚫어 볼 수가 있음.
- 820) 紅顏白髮. 좋은 얼굴에 흰 머리.
- 821) 我歌查唱.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는 뜻으로, 꾸밈음이나 나무람을 들어야할 사람이 도리어 큰소리를 침을 이르는 말.
- 822) 紅不甘醬. 빛은 붉은빛이지만 맛이 짜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은 신통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823) 汝啗折角. 네 담(담장) 아니면 내 소뿔 부러졌겠느냐? 남에게 억지로 책임을 지우는 말.
- 824) 利不可獨食. 이익을 혼자서 모두 차지하지는 못함.
- 825) 全不掛鎌. 곡식 따위를 전혀 거두어들이지 못함.
- 826) 坦坦大路. 험하거나 가파른 곳이 없이 평평하고 넓은 큰길.
- 827) 魚東肉西. 차릴 때 물고기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다 놓는 것을 이르는 말.
- 828) 紅東白西.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829) 左脯右醢. 말린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 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830) 노름의 일종인 투전의 가보잡기에서 5, 6, 7을 합해서 여덟 곳이 되는 낱수를 가리키는 말.
- 831) 일삼오대간. 노름의 일종인 투전의 가보잡기에서 1, 3, 5를 합해서 아홉 곳이 되는 낱수를 가리키는 말.
- 832) 一口二言은 二父之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은 두 명의 아버지를 둔 자식이다.
- 833) 全羅監營. 전라감사가 업무를 보는 곳.
- 834) 含笑曰. 웃음 머금고 말하기를.
- 835) 威名. 위엄을 떨치는 명성.
- 836)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837) 막힘없이 깨끗하고 시원스러움.
- 838) 興樂. 흥에 겨워 즐거워함.
- 839) 無雙. 서로 견줄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 840) 江山風月.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 841) 綠水青山. 물과 푸른 산. 곧, 자연.
- 842) 日暮黃昏. 저무는 황혼.
- 843) 月出東嶺. 산봉우리에 달이 뜬.
- 844) 靑林碧溪. 숲과 푸른 시내.
- 845)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846) 甘食. 달게 먹음. 맛있게 먹음.
- 847) 身如浮雲. 자신이 뜬구름과 같음.
- 848) 玩景. 경치를 즐기.
- 849) 五老峯. 여산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다섯 노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유래하였다고 함.
- 850) 鎮國名山. 서울이나 성 뒤에 자리잡은 나라의 운수가 매여 있는 산.
- 851) 萬丈峰.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높은 봉우리.
- 852) 三山. '삼산'은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853) 중국에서 높은 산으로 일컬어지는 다섯 산인 오악(五嶽)을 가리킨 듯함. '오악'은 동악(東嶽) 태산(泰山. 산동성에 있음), 서악 화산(華山. 섬서성에 있음), 남악 형산(衡山. 호남성에 있음), 북악 항산(恆山. 산서성에 있음), 중악 숭산(嵩山. 직례성에 있음)을 이름.
- 854) 萬壑千峰.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 855) 구월산(九月山). 황해도 신천군 용진면에 있는 산.
- 856) 삼각산(三角山). '북한산'의 다른 이름.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있어 이렇게 부른다.
- 857) 蛾眉山.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산.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임.
- 858) 태백산(太白山). 경상북도 봉화군과 강원도 영월군·태백시 경계에 있는 산.
- 859) 수양산(首陽山). 중국 산서성의 남서쪽에 있는 산. 옛날 백이와 숙제가 여기서 굶어 죽었음.
- 860) 上上峰. 맨 꼭대기 산봉우리.
- 861) 緩緩히. 천천히.
- 862) 黑雲. 검은 구름.
- 863) 落照景. 해가 지는 광경.
- 864)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865) 日出景. 해 뜨는 경치.
- 866) 眼下. 눈 아래.
- 867) 森列하니. 뻣뻣이 늘어서니.
- 868) 登泰山小天下.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아 보인다'는 말로, 《맹자》에 나옴.

- 869) 孔夫子. 공자를 높이 일컫는 말.  
 870) 大觀. 천하를 한 눈에 훑어 봄.  
 871)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872) 遊山. 산으로 놀러 다님.  
 873) 江山 風景 興味間에. 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흥미 속에서.  
 874) 地上神仙. 땅에 사는 신선.  
 875)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晉)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876) 赤松子. 중국의 고대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877) 때려죽이다.  
 878) 男中一色. 남자 중의 최고 미남.  
 879) 여자에 방탕하게 빠진 사람  
 880) 風骨. 풍채와 골격을 아울러 이르는 말.  
 881) 眉間. 두 눈썹 사이.  
 882) 火亡煞. 불에 의해 죽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883) 初面에. 처음 얼굴을 대하는데.  
 884) 아무러하거나. 아무렇든지.  
 885) 一介 寒毳. 한 마리의 보잘 것 없는 토끼.  
 886) 三春九秋. 봄 석 달과 가을 석 달.  
 887) 大寒. 24절기 중의 마지막 절후. 양력 1월 21일 경으로 일년 중 가장 추운 때임.  
 888) 嚴冬. 아주 추운 겨울.  
 889) 雪寒風.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추위.  
 890) 萬壑에. 수많은 골짜기에.  
 891) 千峰에. 수많은 산봉우리에.  
 892) 花草木實. 꽃과 풀, 나무열매.  
 893) 전혀 없어.  
 894) 鸚鵡鴛鴦. 원앙새.  
 895) 제법 어두운.  
 896) 힘없이 흐느 모양.  
 897) 던진 듯이. 내던져진 듯이.  
 898) 차가운.  
 899) 片月. 조각달.  
 900) 武關四의.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901) 楚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902) 日月 苦楚 北海上 蘇中郎. 흉노 땅의 북해(카스피해)에서 날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 겪는 한나라의 소무(蘇武). 소무는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갖은 고생 끝에 19년만에 늘어 돌아옴. ‘증랑’은 소무가 증랑장이라는 벼슬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
- 903) 三冬. 겨울 석 달.
- 904) 碧桃紅杏. 벽도의 흰 꽃과 붉은 살구꽃.
- 905) 春二月. 봄 이월.
- 906) 口腹. 배속.
- 907) 深山窮谷. 산 속 깊은 골짜기.
- 908) 해멜.
- 909) 올가미.
- 910)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
- 911) 峰峰이. 산봉우리마다.
- 912) 매를 받쳐 들고 있는.
- 913) 鷹主. 매 주인. 혹 ‘웅사’라고도 함. ‘웅사’는 고려, 조선 시대에 매사냥을 위해 웅방이라는 기관을 두었는데, 그곳에 소속된 매사냥꾼을 웅사라고 하였음.
- 914) 結項致死. 목이 졸려 죽음.
- 915) 祭需. 제사에 쓰는 여러 물건이나 음식.
- 916) 불명. 혹 ‘음삼(陰森)골’이라면, 나무가 우거져 어두침침한 골짜기.
- 917) 지쳐서 힘들게 뛰어가는 모양.
- 918) 짐승 등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소리.
- 919) 매사냥에서 매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수왈치 혹은 수할치라고도 한다.
- 920) 海東靑. 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색깔이 푸른 매.
- 921) 그 해에 깎 새끼 매로, 길이 잘 든 매. 가슴의 깃이 보라색임.
- 922) 두루미깃. 두루미의 깃털로 만든 깃. ‘깃’은 깃을 가리킴.
- 923) 매의 꼬지 위에 표를 하려고 덧꽃아 맨 새의 깃털. 닭이나 기러기 깃에다가 각을 붙인 것. ‘각’은 ‘시치미’라고도 하는데, 매가 날아가 버렸을 때 매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매의 꼬리에다 주인의 주소와 이름, 매의 이름을 적어 달아두는 꼬리표.
- 924) 孔雀羽. 공작의 깃털. 공작의 깃털로 장식을 만들어 매의 꼬리에 단다.
- 925) 불명. 앞의 내용으로 보면 공작의 깃을 달아 만든 마루새인 듯. 마루는 매의 일종.
- 926) ‘도래’는 매의 발목을 묶은 바까치와 장스치를 연결하는 쇠고리. 회전이 자유스러워 줄이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음. ‘장스치’는 도래에 연결된 가죽 줄. ‘바까치’는 매의 발목을 맨 가죽끈.
- 927) 부드럽게 날아가는 모양.
- 928) 덩그렇게. 높이 솟아 당당하게.
- 929) 兩眉間. 두 눈썹 사이.
- 930) 머릿골이 있는 부분.
- 931) 거기에.
- 932) 있나?
- 933) 중턱.
- 934) 松下에. 소나무 밑에.



- 935) 총을 쏠 준비를 하는.  
 936) 都砲手. 포수 중의 우두머리.  
 937)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풀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  
 938)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입는, 풀을 꼴은 적삼.  
 939) 商事物方. 장사꾼이 파는 물건 중. 여기서는 '장사치들이 수입된 물건을 팔던 것 중'이라는 의미인 듯. 혹 '상사(相思) 밤을'로 보아, '토끼를 생각하며 지새는 밤을'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함.  
 940) 倭物. 일본 물건.  
 941) 鳥銃. 화승의 불로 터지게 만든 구식 총. '화승'은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 대의 속살을 꼬아 만든 것으로, 옛날 총열에 화약과 탄알을 채고 이 노끈에 불을 댕겨 귀약 통에 대어 폭발시켰다.  
 942) 이중 탄환.  
 943) 앓나?  
 944) 넓은.  
 945) 樵童 牧豎. 나무하는 아이와 목동.  
 946) 둘러메고.  
 947) 서로 부르며.  
 948) 개를 부르는 말.  
 949) 후드득. 의성어.  
 950) 肝腸. 마음.  
 951) 白登七日困困 漢太祖의 肝腸. 백등이라는 곳에서 흉노에게 포위당해 7일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라 태조의 마음. 기원 전 200년 흉노가 한나라에 침입해 왔는데, 이때 한 고조 유방은 친히 30만의 군사를 이끌고 싸움에 나섰다가 흉노의 모돈선우(冒頓單于)의 40만의 군사에 의해 백등에서 포위당하였다. 7일이 지난 후에 진평(陳平)이 밀사를 보내어 모돈에게 뇌물을 주어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  
 952) 赤壁江上火戰中. 적벽강에서 불로 싸우는 중에. 조조가 적벽강에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 의해 불로 공격을 당해 대패했음. '적벽강'은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으로,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953)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자(字).  
 954) 層巖絕壁. 바위가 층층이 쌓인 높은 절벽.  
 955) 石間. 돌 사이. 바위 사이.  
 956) 짧은.  
 957) 사타구니에.  
 958)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양.  
 959) 목구멍.  
 960) 쓴 냄새. 힘든 일을 표현하는 말.  
 961) 밀구멍.  
 962) 조총을 쏘니.

- 963) 八難. 여덟 가지의 어려운 재난. 곧 배고픔·목마름·추위·더위·물·불·칼·병란.
- 964) 朝生暮死.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는 죽음.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를 가리키는 말.
- 965) 情. 마음. 정신.
- 966)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 967) ‘거짓말’의 낮춤말.
- 968) 내어 말을 하는가? ‘씹다’는 ‘말하다’의 비어.
- 969) 꼭. 틀림없이.
- 970) 答曰. 대답하여 말하기를.
- 971) 天下에. 온 세상에서.
- 972) 別天地. 별세계. 속된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할 만큼 좋은 분위기의 아주 별다른 세상.
- 973) 天壤之間. 하늘과 땅 사이.
- 974) 海乃最大. 바다가 제일 큼.
- 975) 萬物之中에. 세상의 온갖 사물 가운데.
- 976) 神爲最靈. 신이 가장 신령스러움.
- 977) 無邊大海. 끝이 없는 큰 바다.
- 978) 間. 집에서 넓이를 재는 단위로, 대개 일곱 자(210cm) 평방, 또는 여덟 자(240cm) 평방, 아홉 자(270cm) 평방을 이룸.
- 979) 柱礎. 주춧돌. 원주형으로 다듬어 만든 주춧. 둥근 기둥 밑에 받침.
- 980) 朱欄畫閣. 단청 칠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누각.
- 981) 半空에. 반공중에. 하늘 높이.
- 982) 卽位하시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 983) 滿朝廷.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 984) 具足. 빠짐없이 골고루 갖추어 있음.
- 985) 安樂. 편안하고 즐거움.
- 986) 鵝鴨(鵝鴨). 앵무조개의 껍데기를 가공하여 만든 술잔.
- 987) 金盞. 금으로 만든 술잔.
- 988) 千日酒.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맛 좋은 술.
- 989) 千賓玉盤. 천 명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넓은 옥쟁반.
- 990) 不老草.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약초.
- 991) 不死藥.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약.
- 992) 美色. 아름다운 여자.
- 993) 風流. ‘멋’과 ‘맛’을 아는 일.
- 994) 大紅船. 빛깔 고운 큰 놀이배.
- 995) 自言居水勝居山. 물에서 사는 것이 산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 말함.
- 996) 瑤池. 중국의 전설 속의 선녀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는 연못.
- 997) 群山. 산의 무리. 많은 산.
- 998) 十里沙場. 길이가 십리나 되는 긴 모래밭.
- 999) 弱手.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

- 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청조(靑鳥, 파랑새)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 목왕(周 穆王)께 전했다고 함.
- 1000) 海內太平. 바다 속이 태평함.
- 1001) 月清明. 달은 맑고 밝음.
- 1002) 秋江上. 가을 강물 위.
- 1003) 漁笛소리.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 1004)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1005) 涇水. 중국 감숙성 화평현과 고원현의 두 곳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에서 위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 중국에서는 경수(涇水)·위수(渭水)·이수(伊水)·낙수(洛水)·한수(漢水)·소수(灋水)·상수(湘水)·장수(章水)·공수(貢水)를 구류(九流)라고 하고, 황하(黃河)·양자강(楊子江)·회수(淮水)·제수(濟水)를 사독(四瀆)이라고 하고, 절강(浙江)과 양자강을 이강(二江)이라 하고, 동정(洞庭)·청초(靑草)·단양(丹陽)·팽려(彭蠡)·태호(太湖)를 오호(五湖)라고 한다.
- 1006)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007) 洛水. 섬서성 정변현에서 비롯하여 위수와 합쳐져 황하로 들어가는 강.
- 1008) 淮水. 중국 대별산맥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양자강으로 들어가는 강.
- 1009) 漾津. 섬서성 반총산에서 비롯하여 흐르는 한수의 상류.
- 1010) 蒲津. 산서성에서 비롯하여 황하로 흘러가는 포수(蒲水)에 있는 나루인 듯하다.
- 1011) 彭蠡(彭蠡). 강서성에 있는 호수인 과양호의 옛 이름.
- 1012) 瀟湘. 호남성 동정호의 남쪽 영릉 부근으로, 소수와 상수가 합치는 곳. 주변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소상팔경(瀟湘八景)'으로 유명함.
- 1013) 或去或來.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함. 왔다 갔다 함.
- 1014) 赤壁江. 송나라 때의 문장가 소동파가 귀양가서, 음력 7월 16일 날 밤에 배를 띄우고 놀며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다고 하는 강. 호북성 황강현에 있음.
- 1015) 蘇子瞻. 송나라 대문호인 소동파(蘇東坡). '자첨(子瞻)'은 그의 자(字).
- 1016) 采石江.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이 술에 취해 달을 잡으려다가 빠져 죽었다는 강.
- 1017) 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은 그의 자(字).
- 1018) 재미.
- 1019) (보통에서) 벗어난. 뛰어난.
- 1020) 風骨에. 풍채와 골격에.
- 1021) 美人美色.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들.
- 1022) 데리고.
- 1023) 萬歲同樂. 만 년 동안이나 함께 즐김. 오래오래 함께 즐김.
- 1024) 願一見之水宮. 수궁을 한 번 보기를 원함.
- 1025) 水邊. 물가.
- 1026) 一喜一悲. 한편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픔.
- 1027) 或先或後. 앞서거나 뒤서거나.
- 1028) 앙금앙금.
- 1029) 遠路水邊. 물가까지의 먼 길.

- 1030) 여우.
- 1031) 착실하거나 미덥지 않은.
- 1032) 碌碌한. 보잘 것 없는.
- 1033) 古人, 옛 사람.
- 1034) 토사호비(兔死狐悲).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
- 1035) 巖穴에. 바윗굴에.
- 1036) 길들고, 여기서는 ‘보금자리를 꾸미고 살다’는 뜻.
- 1037) 林泉, 숲 속에 있는 샘. 변하여 자연을 뜻하기도 함.
- 1038) 同性 삼아 同氣相通. 여기서 ‘동성’은 ‘같은 부류’의 의미로 쓰임. ‘동기상통’은 같은 종류끼리 서로 통합.
- 1039) 燕人, 연나라 사람. 전국시대 말 연나라 사람이었던 형가를 가리킴.
- 1040) 荊軻. 중국 전국시대 자객. 연(燕)나라의 태자 단(丹)을 위해 진왕(秦王) 정(政)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진왕에게 죽음. 진왕 정은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으로 고쳐 불렀음.
- 1041) 易水寒風, 역수의 찬 바람. ‘역수’는 중국 하북성에 있는 강 이름. 형가가 진왕 정을 죽이려고 떠날 때 태자 단과 친구들이 나와서 전송한 곳임.
- 1042) 壯士一去. 장사가 한번 떠남.
- 1043) 기기. 여기서는 역수를 가리킴.
- 1044) 千秋 怨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시지 않을 원한.
- 1045) 楚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 1046) 秦 武關. 진나라의 무관. 무관은 지명. 중국 협서성 상은현 동쪽에 있는데, 진나라의 남쪽 관문이었음.
- 1047)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음.
- 1048) 亂邦不居.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않음.
- 1049) 나자빠지는데. 하던 일을 못하겠다고 때를 쓰는데.
- 1050) 얼굴.
- 1051) 요리조리 들추며 뒤지듯.
- 1052) 자꾸 되작이는 모양.
- 1053) 품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
- 1054) 감정 따위를 세게 자극해 봐야.
- 1055) 속임수로 속여 넘겨보다.
- 1056) 大小成事. 크고 작은 일을 이룸.
- 1057) 相. 관상에서 얼굴이나 체격의 됃됨이.
- 1058) 人中. 코와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골이 진 곳.
- 1059) 짧은.
- 1060) 短命格. 오래 살지 못할 분수.

- 1061) 眼中. 눈 속.
- 1062) 日暮時. 해 넘어갈 때.
- 1063) 불명. '징구리'는 '정수리'가 아닌가 생각됨. '정수리'는 머리 위 한가운데. '징구리 보고'를 '징그려 보고'로 해석하기도 함.
- 1064) 口辯. 날을 잘하는 제주와 솜씨.
- 1065) 不遠千里. 천리를 멀다 앎.
- 1066) 梁惠王. 중국 전국시대에 위(魏) 나라의 제후 앵(鶯)은 서울을 대량으로 옮기고 왕이 되었는데, 이가 혜왕이다.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천하의 인재를 불러들였는데, 맹자도 그를 찾아간 적이 있다.
- 1067)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068) 漁父 姜太公. 문왕을 만나 등용되기 이전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강태공을 가리킴.
- 1069) 文王.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 이름은 창(昌). 강태공을 모사로 삼고 국정을 바로잡아 국력을 길러 천하의 반을 통일하였음.
- 1070) 入周. 주나라에 들어감. 강태공이 문왕을 따라 주나라에 들어간 것을 가리킴.
- 1071) 漢既渡岷 蜀道難의 黃面將軍 韓信이. 한나라 군사를 이끌고 험한 길인 진창을 건넜던 얼굴색이 누렇던 한신 장군. '한기도창'은 '한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진창을 이미 건너'라는 뜻. 한신이 진나라와 싸울 때 수령이 많은 진창 지방으로 군대를 끌고 나온 일을 말함. '촉도난'은 '험한 촉나라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후에는 '험한 길'을 뜻하게 되었다. '황면장군'은 한나라 유방의 장수인 한신을 가리키는데, 한신의 얼굴이 누렇다하여 붙인 이름.
- 1072) 瀟何. 한 고조 유방의 참모로, 한신을 천거하여 도원수로 삼게 했다.
- 1073) 漢中. 중국 섬서성 남서쪽 한강(漢江) 북쪽의 땅으로, 사천·호북에 이르는 요충인데, 한 고조 유방이 항우로부터 한왕(漢王)에 책봉된 곳임.
- 1074) 大將壇. 장수가 지휘를 위해 위치하는 단.
- 1075) 벗어난. 홀룩한.
- 1076) 風骨. 풍채와 골격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077) 花容美色. 꽃같은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
- 1078) 갑시다.
- 1079) 滔滔滔滔. 넘실넘실.
- 1080) 秋江. 가을 강.
- 1081) 風月. 청풍(淸風)과 명월(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곧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가로 읊음, 혹은 그 지은 시.
- 1082) 十里長江碧波上. 폭이 십 리나 되는 장강(양자강)의 푸른 물결 위.
- 1083) 거룻배인가. '거룻배'는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 1084) 五湖上 煙月 속에 范相公이 타고 가는 배인가? 오호의 안개 자욱한 달밤에 범상공이 타고 놀던 배인가. '오호'는 동정호, 또는 태호라고도 하고, 공호, 서호, 매량호, 금정호, 유호의 다섯 호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범상공'은 오호에 배를 띄우고 여행을 한가하게 보냈던 범려(范蠡). '범려'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월나라의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재상이 되었으나, 후에 이를 버리고 미인 서시를 데리고 도

- 지방에 가서 부자가 되어 살았다고 함. 후에 그 재물마저 나누어주고 강호에서 노닐었다고 함.
- 1085) 夜泊秦淮近酒家.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는데, 술집이 가깝다.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의 한 구절. 원문은 다음과 같다. 연룡한수월룡사 야박진회근주가 상녀부지망국한 격강유창후정화(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진회'는 진회수를 가리킴. '진회수'는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1086) 洋洋滄波. 끝없이 넓은 푸른 물결.
- 1087) 놀면서 날아다니는.
- 1088) 雙雙白鷗. 짝을 지어 노는 갈매기.
- 1089) 蕭蕭秋風送雁群. 쓸쓸한 가을 바람이 기러기떼를 날려보내다. 당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의 시 〈추풍인(秋風引)〉의 '何處秋風送雁群(어디서 오는 가을 바람이 쓸쓸한 기러기떼를 보내는가)'에서 따온 구절.
- 1090) 소상강(瀟湘江). '소상강'은 양자강의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091) 동정호(洞庭湖).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민물 호수. 양자강의 중류에 있음.
- 1092) 거기에.
- 1093) 하는 마을.
- 1094) 白雲青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1095) 碧海. 푸른 바다.
- 1096) 하필이면 그날에.
- 1097) 風勢. 바람의 기세.
- 1098) 마구 뒤틀리고 우그러져서.
- 1099) 走字看. '도망갈 판'이라는 뜻.
- 1100) '복'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은 말.
- 1101) 없는.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 1102) 가자니까.
- 1103) 龍大旗. 교룡기(蛟龍旗). '교룡기'는 임금이 거동할 때 쓰는 큰 기로, 누른 바탕에 용틀임과 구름을 채색으로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불꽃을 상징하는 붉은 형질이 달렸음.
- 1104) 당기듯.
- 1105) 매우 또는 몹시.
- 1106) '자세(藉勢)를 부린다'라는 의미인 듯. '자세를 부린다'는 무엇을 등대고 세력을 부린다.
- 1107) 담가보아.
- 1108) 발목까지 물이 차면.
- 1109) 짐승.

- 1110) 片箭. 축이 날카롭고 짧은 화살.  
 1111) 화살.  
 1112) 물결이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  
 1113)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  
 1114)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1115) 물건이 공중이나 바다에 떠 있는 모양.  
 1116) 茫茫. 넓고 아득함.  
 1117) 滄海. 넓고 큰 바다.  
 1118) 蕩蕩然. 넓고 큰 물살이 힘찬.  
 1119)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1120)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1121) 三江. 삼강은 중국에 있는 송강, 전당강, 포양강의 세 강.  
 1122)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1123) 嘹唳然.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1124)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1125) 이것이지만.  
 1126) 曲終人不見. 노래가 끝나고 사람은 보이지 않음.  
 1127) 數峯. 몇몇 산봉우리.  
 1128)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1129) 나를 두고, 나 때문에.  
 1130) 長沙. 중국 호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1131)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사람으로,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장사왕(長沙王)과 양(梁) 나라 회왕(懷王)의 태부가 됨. 굴원의 닛을 위로 하는 부(賦)를 남겼음.  
 1132)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湘江)으로 들어 감. 중국 전국시대 굴원이 주위의 참소를 당하고 분함을 못 이겨 빠져 죽은 곳.  
 1133)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을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다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경〉을 짓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1134)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1135) 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인사말로 쓰임.  
 1136)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장현의 서쪽의 황학산에 있는 누각.  
 1137) 日暮鄉關何處是, 연파강상(煙波江上)의 사인수(使人愁)는 최호(崔灝)의 유적(遺蹟) 인가.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시름만 더해 준다'는 시구는 당나라 때 시인 최호가 남긴 자취인가. 최호가 쓴 〈황학루〉의 끝 구절. 최호는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1138)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1139) 三山은 반락청천외(半落青天外)요, 이수중분백로주(二水中分白鷺洲). 이태백의 〈등 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 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이수'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킨.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섬.
- 1140)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늙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1141)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 1142) 一去後에. 한번 간 뒤에.
- 1143)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 1144)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145) 그냥.
- 1146) 蘇東坡. 송나라 시인으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 이름은 식(軾), 동파(東坡)는 호임. 〈적벽부(赤壁賦)〉로 유명함.
- 1147) 依舊하여. 옛과 같이.
- 1148)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호임.
- 1149) 一世之雄. 한 시대의 영웅.
- 1150) 而今에 安在哉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 1151)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 1152) 姑蘇城外. 고소성 밖. '고소성'은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1153)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1154) 쇠로 된 북소리. 곧 종소리.
- 1155) 客船에. 나그네가 탄 배에.
- 1156)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1157) 煙籠寒水月籠沙할 제.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 데.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의 한 구절.
- 1158) 商女. 술 파는 여인.
- 1159) 不知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을 모름.
- 1160) 隔江猶唱後庭花.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이 지은 〈박진회(泊秦淮)〉라는 시의 한 구절.
- 1161) 岳陽樓. 중국 호남성 악양현에 위치한 누대. 당나라 때에 세워졌으며, 아름다운 동정호의 조망으로 유명한 곳임.
- 1162) 湖上에. 호수 위에.
- 1163) 三百尺. 삼백 자. 약 90m.
- 1164) 扶桑. 해 뜨는 곳. 혹은 해 뜨는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1165) 一輪紅이. 해가.  
 1166) 한 데 마구 섞여서 몹시 끓으며.  
 1167) 魚龍. 물고기와 용.  
 1168) 水盡. 藍天. 물이 끝나는 고에 쪽빛 하늘이 있음.  
 1169) 西로. 서쪽으로.  
 1170) 西天西域. 옛날에 인도를 이르던 말. 불가의 이상국.  
 1171) 蓮花世界. 연꽃이 피어 있는 세계. 불교에서 극락을 뜻함.  
 1172) 削髮一切. 모두 머리를 깎고 있는.  
 1173) 大師. '남자 중'을 높이어 일컫는 말.  
 1174) 經文. 불교의 경전에 실은 문장.  
 1175) 說法. 불교의 교의를 풀어 밝힘.  
 1176) 金鷄. 중국 신화 속의 새. 도도산(桃都山)에 도도수(桃都樹)라는 큰 나무가 있고, 나무 가지와 가지 사이가 삼천리나 되는데, 그 위에 금계가 있어 해가 처음 뜰 때에 햇빛이 그 나무에 비치면 우는데, 금계가 올면 천하의 닭들이 모두 따라 울어 새벽이 왔음을 알린다고 함.  
 1177) 懸板. 글씨나 그림을 새겨 벽이나 문 위에 다는 널조각.  
 1178) 黃金 大字. 황금색의 큰 글자.  
 1179) (큰 물체가)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떠오르는 모양.  
 1180) 別有天地非人間. 인간 세상과는 다른 천지가 따로 있다. '이상향'을 이르는 말.  
 1181) 氣像.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1182) 風月. 청풍명월(淸風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가리키는 말로, 청풍명월을 노래한 시를 가리키기도 함.  
 1183) 山中遊客이 到水宮하니, 四海風光이 入眼中이라. 산 속에서 놀던 손님이 수궁에 도착하니, 사방의 바다 경치가 눈 안에 들어오는구나.  
 1184) 微官末職. 지위가 낮은 보잘 것 없는 벼슬아치, 또는 그 직위.  
 1185) 獄. 감옥.  
 1186) 여기서의 인간 세상을 가리킴.  
 1187)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1188) 들어오라고 해라.  
 1189) 藍輿.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 승지나 참의 이상의 벼슬아치가 탔다.  
 1190) 末疾. 고치기 어려운 나쁜 병증.  
 1191) 伏地. 땅에 엎드림.  
 1192) 塵世.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1193) 現身.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처음으로 뵈.  
 1194) 반가와 하시어.  
 1195) 生擒. 산 채로 잡음. 사로잡음.  
 1196) 待命. 윗사람의 명령이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  
 1197) 左右 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의 나졸. '나졸'은 조선조 때 포도청의 하급 병졸. 자기가 맡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을 체포하는 일을 맡았음.

- 1198) 禁軍. 조선조 때 궁중을 지키고 임금이 거동할 때 호위와 경비를 맡아 하던 말 탄 군사.
- 1199) '승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승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1200) 海狗. 물개.
- 1201) 巡令手. 대장의 전령(傳令). 호위를 맡거나,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 1202) 갑자기 힘차게 앞으로 달려 나가.
- 1203) 秦皇. 진시황.
- 1204) 山陽 싸움에 馬超 싸듯. 삼국지를 토대로 해서 쓴 고소설 《산양대전》에서 마초(馬超)가 조조의 부하 장수 한효에게 포위당한 일을 가리킴. 마초는 관우의 도움으로 풀려났음. 마초는 서량태수(西涼太守) 마騰(馬騰)의 아들로, 아버지 마등이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자 군사를 일으켜 장안성을 열흘 동안 포위했다가 함락시키는 등 조조의 군사를 크게 무찔렀음.
- 1205) 세차게 마구. 또는 무리하게 힘을 들여서.
- 1206) 營門出師. 병영에서 군사를 내보냄.
- 1207) 三伏달음. 복날에 그 해의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고기로 국을 끓여 먹는 일.
- 1208) 약을 넣어 끓인 개장국.
- 1209) 烏鷄湯. 검고 작은 닭인 오계를 푹 삶아 고은 탕.
- 1210) 개잘량. 방석처럼 깔려고 털이 붙어 있는 채로 가공한 개가죽.
- 1211) 만들어.
- 1212) 瘀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맺혀 있는 증세, 또는 그 피. 흔히 무엇에 부딪쳤을 때 생김.
- 1213) 內腫. 내장에 난 부스럼.
- 1214) 血痰. 피 섞인 거래.
- 1215)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1216) 塗炭에. 진흙과 숯불에.
- 1217) 頭皮. 잡은 소의 머리와 가죽.
- 1218) 足. 잡은 소의 네 다리.
- 1219) 소의 발통을 고기로 이르는 말.
- 1220) 회쳐 먹는 간.
- 1221) 되새김질하는 위의 세 번째 것으로, 잎 모양의 많은 조각이 있음.
- 1222) 厚薄없이.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공평하게.
- 1223) 꾸며 만들고.
- 1224) 牛黃.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는 노란 색깔의 단단한 물체. 한약재로 쓰임.
- 1225) 重한. 무거운. 많은.
- 1226) 先看目後看足이라. 먼저 눈을 보고, 뒤에 발을 본다는 말로, 말을 고르는 방법.
- 1227) 腰短項長千里馬로다. 허리가 짧고 목이 긴 것이 하루에 천 리를 간다는 천리마로다.
- 1228) 燕王도 五百金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연나라 소왕(昭王)이 광외에게 어진 신하를 구하는 법을 묻자, 광외가 말하기를, “옛날 어느 왕이 신하에게 천금을 주면서 천리마

를 사오라고 했는데, 그 신하는 오백금을 주고 죽은 말 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연유를 묻자, 죽은 말의 뼈도 오백금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 살아있는 천리마라면 얼마를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 좋은 말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져 천리마를 세 마리나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여진 신하를 구하고 싶으시면 우선 저부터 쓰십시오. 그러면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자 과연 인재들이 연나라로 몰려들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임.

- 1229) 大王前에. 임금님 앞에.
- 1230) 千金賞. 많은 돈을 주는 상.
- 1231) 結縛. 몸이나 두 손을 동여 묶음.
- 1232) 붉은.
- 1233) 朱欸대. 주릿대나 무기로 쓰이는 붉은 칠을 한 몽둥이.
- 1234)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1235) 짐승의 정강이에 튀어나온 뼈.
- 1236) 靈德殿. 수궁의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1237) 무엇을 들어 힘차게 내던져.
- 1238) 江漢之將. 양자강과 한수를 지키는 장수. 강물에 사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 1239) 川澤之軍. 냇물과 연못에 사는 군인. 냇물과 연못에 사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 1240) 擁衛. 주위를 둘러쌌.
- 1241) 龍宮之下에 必死當兎였다. 용궁에서는 토끼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 1242) 더운 김에. 아직 더울 때에.
- 1243) 회음(淮陰). 중국 강소성 중부에 있는 도시. 수운이 발달하여 북쪽의 밀과 남쪽의 쌀의 집산지였음.
- 1244)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섰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나라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때 그는 ‘교토사구루팽(狡兔死走狗烹.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1245) 蕭何. 한나라 고조 유방의 참모, 명재상. 강소성 출생. 장량(張良), 한신(韓信), 조참(曹參)과 함께 고조의 공신 중의 한 사람.
- 1246) 巴蜀. 서촉(西蜀)이라고도 하는데 파촉이란 지금의 중경(重慶)을 중심으로 한 파국(巴國)과 성도(成都)를 중심으로 한 촉국(蜀國)을 합한 지명으로, 현재의 사천성(四川省) 전역에 해당된다.
- 1247) 漢王. 한나라 왕. 곧 한 고조 유방(劉邦)을 가리킴.
- 1248) 窮八十. 가난하게 살던 80년.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을 만나기 전 80년을 가난하게 살았고, 문왕을 만난 이후 80년은 부귀를 누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를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라고 한다.
- 1249) 姜太公. 강태공은 속칭이며, 이름은 여상(呂尚)임. 중국 주나라의 재상으로 무(武)왕

- 을 도와 은(殷)나라를 정벌하고 주(周)나라를 세웠음.
- 1250) 文王.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 이름은 창(昌). 강태공을 모사로 삼고 국정을 바로잡아 국력을 길러 천하의 반을 통일하였음.
- 1251) 南陽.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방으로, 공명이 은거하던 곳.
- 1252) 諸葛亮. 자는 공명(孔明). 시호 충무(忠武). 낭야군 양도현(琅玕郡 陽都縣:山東省 沂水縣) 출생.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 겸 전략가. 명성이 높아 와룡선생이라 일컬어졌다. 오의 손권과 연합해 남하하는 조조의 대군을 적벽의 싸움에서 대파하고, 형주·익주를 점령했다. 그 후에도 수많은 공을 세웠고, 221년 한의 멸망을 계기로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재상이 되었다.
- 1253) 玄德.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제1대 황제(재위 221-223) 유비(劉備)의 자(字). 관우·장비와 결의형제하였으며, 제갈량을 모사로 맞아들였다. 220년 조비가 한나라 헌제의 양위를 받아 위의 황제가 되자, 221년 그도 제위에 올라 한의 정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국호를 한(漢 : 蜀漢)이라 하였다.
- 1254) 餘恨. 남는 한.
- 1255) 갈라.
- 1256) 갈라짐을 안 당하려고.
- 1257)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 1258) 必有曲折. 반드시 까닭이 있음.
- 1259) 泰山이 崩頽하고. 태산이 무너지고. 태산이 무너지면 임금에게 재앙이 있다고 함.
- 1260) 五星. 풍수지리설에서 하늘의 형체를 이룬다는 다섯 별인 火星·金星·水星·木星·土星.
- 1261) 陰陰하여. 어두워서.
- 1262) 時日曷喪. 해가 언제 사라질까.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폭군인 겐(桀)이 자기를 해라고 했으므로, 폭정을 못 이긴 백성들이 빨리 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함.
- 1263)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들.
- 1264) 貪虐한. 욕심이 많고 포악한.
- 1265) 商紂임금. 상나라, 곧 은(殷)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紂)를 말함.
- 1266) 聖賢. 성인과 현인.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
- 1267) 임금 구명.
- 1268) 比干. 은나라 때의 충신. 주(紂)의 잘못을 깨우쳐주려다 죽임을 당했음.
- 1269) 無故히. 까닭 없이.
- 1270) 구명이.
- 1271) 없다면. 없으면.
- 1272) 兎命. 토끼의 목숨.
- 1273) 누구에게.
- 1274) 醫書. 의술을 적은 책.
- 1275) 脾受病則口不能食. 비장(지라)에 병이 나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함.
- 1276) 膽受病則舌不能言. 쓸개에 병이 나면 혀로 말을 하지 못함.

- 1277) 腎受病則耳不能聽. 신장(콩팥)에 병이 나면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함.
- 1278) 肝受病則目不能視. 간에 병이 나면 눈으로 보지 못함.
- 1279) 萬物. 모든 사물.
- 1280) 小兎. 토끼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281) 肝人卽. 간은 곧.
- 1282) 月輪精氣. 달의 정기.
- 1283) 생겼사옵더니. 생겼기 때문에.
- 1284) 들어나이다. 집어넣습니다.
- 1285) 病客. 아픈 사람.
- 1286) 언뜻하면. 무엇이 잠깐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 1287) 요구하여 귀찮도록 조르기 때문에.
- 1288) 동여.
- 1289) 瀛州. 영주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 1290) 石上. 바위 위.
- 1291) 上上가지. 맨 위의 가지.
- 1292) 맨 끄트머리에다가.
- 1293) 桃花流水. 복숭아꽃이 떠오르는 시내.
- 1294) 玉溪邊. 맑은 시냇가.
- 1295) 濯足하리. 발을 씻으리.
- 1296) 玩景次. 구경하리.
- 1297) 一身之內臟. 한 몸 속의 내장.
- 1298) 꺼내고.
- 1299) 任意로. 마음먹은 대로.
- 1300) 徒知一이요, 未知其二로소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 1301) 太昊 伏羲氏.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은 뱀이고, 얼굴은 사람으로, 소의 머리와 범의 꼬리를 가졌다고 함. '태'는 매우, '호'는 밝다는 뜻. 따라서 덕이 높은 천자로서 매우 밝아 해나 달과 같다는 뜻임.
- 1302) 蛇身人首. 몸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의 형상.
- 1303) 神農氏.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며, 성은 강(姜)임.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와 약사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 1304) 人身牛首.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형상.
- 1305) 길고.
- 1306)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1307) 玉體. 사람의 몸을 높여 부르는 말.
- 1308) 털이 보드랍게 복싹복싹 난 상태를 이르는 말.

- 1309)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1310) 속느라고.
- 1311) 標. 표시.
- 1312) 빨간.
- 1313) 구멍.
- 1314) 來歷. 지금까지 지내온 경로나 경력.
- 1315) 밀구멍.
- 1316) 내기 때문에.
- 1317) 萬物始生於東方三八木, 南方二七火. 西方四九金, 北方一六水, 中央五十土. 동방삼팔 목, 남방이칠화, 서방사구금, 북장일륙수, 중앙오십토에서 만물이 처음 생김.
- 1318) 東方三八木. 풍수지리설에서 오행의 하나인 목(木)은 천수(天數) 3과 지수(地數) 8이 모여서 생겼으며, 동쪽을 가리킨다.
- 1319) 南方二七. 오행의 하나인 화(火)는 천수(天數) 2와 지수(地數) 7이 모여서 생겼으며, 남쪽을 가리킨다.
- 1320) 西方四九金. 오행의 하나인 금(金)은 천수(天數) 4와 지수(地數) 9가 모여서 생겼으며, 서쪽을 가리킨다.
- 1321) 北方一六水. 오행의 하나인 수(水)는 천수(天數) 1과 지수(地數) 6이 모여서 생겼으며, 북쪽을 가리킨다.
- 1322) 中央五十土. 오행의 하나인 토(土)는 천수(天數) 5와 지수(地數) 10이 모여서 생겼으며, 중앙을 가리킨다.
- 1323) 天地陰陽. 온 세상의 음양.
- 1324) 四時精氣. 사계절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
- 1325) 五色光彩. 다섯 가지 색깔의 찬란한 빛.
- 1326) 和하여. 화합하여.
- 1327) 내기 때문에.
- 1328)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나아 살아남.
- 1329) 名藥. 이름난 약.
- 1330) 사담.
- 1331) 渭水 漁夫 姜太公.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며 지내다가 문왕(文王)을 만나 은(殷)나라를 멸망시킨 강태공. 강태공은 중국 주(周)나라 초기의 정치가로 본명은 여상(呂尚). 위수 강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문왕을 처음 만나 그의 군사(軍師)가 되었으며, 뒤에 무왕(武王)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여 제(齊)나라에 제후로 봉해졌다.
- 1332) 瓢子. 표주박.
- 1333)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런 모양.
- 1334) 窮八十 達八十. 가난한 80년, 영달한 80년. 강태공이 무왕을 만나기 이전까지 가난하게 80년을 살았고, 후에 영달하여 80년을 살았던 것을 이룸.
- 1335) 顯考.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주나 축문 첫머리에 쓰는 말.
- 1336) 樂山樂水.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산수(山水) 경치(景致)를 좋아함을 이르는 말

- 1337) 東方朔이. 한나라 무제 때의 신하. 자(字)는 만청(曼倩). 벼슬이 금마문시중에 이르렀으며,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음.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고 함.
- 1338) 三千甲子. 육십갑자의 삼천 배. 곧 18만 년을 이른다.
- 1339) 聖德. 임금의 덕을 높여 이르는 말.
- 1340) '보'가 돼지나 곰의 쓸개를 썰 때 쓰는 수효이므로, '보째'는 한 덩이 전체를 이르는 말.
- 1341) 잡수셨으면.
- 1342) 還黑. 다시 검어짐.
- 1343) 落齒復生. 빠진 이가 다시 남.
- 1344) 換骨奪胎. 용모가 환하고 아름다워 판사람처럼 됨.
- 1345) 延年益壽. 나이를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삶.
- 1346) 萬病回春. 모든 병이 다 나음.
- 1347) 팔의 난알만큼.
- 1348) 卽瘥하고. 병이 곧 낫고.
- 1349)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여기서는 '두 사람 모두'라는 의미.
- 1350) 兩舍. 둘이 서로 마음이 일치함.
- 1351) 晚時之歎. 기회를 놓쳐 뒤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1352) 解縛. 결박을 풀.
- 1353) 御前. 임금의 앞.
- 1354) 矢石中. 화살과 돌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 1355) 不分生死. 죽고 사는 것을 구분하지 않음.
- 1356) 膽力.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
- 1357) 紫霞酒. 시선 세계에 떠도는 자줏빛 구름으로 담은 술.
- 1358) 千日酒.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좋은 술.
- 1359) 麒麟脯. 기린의 고기를 말려 만든 음식.
- 1360) 鸚鵡盞. 앵무조개로 만든 술잔.
- 1361) 琉璃瓶. 유리로 만든 술병.
- 1362) 主人之道理로. 주인으로서의 도리로.
- 1363) 잡수신.
- 1364) 二三盃. 두세 잔.
- 1365) 담뱃. 넘칠 정도로 가득하게.
- 1366) 字. (사람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 본 이름 외에 부르기 위하여 짓는 이름. 흔히 장가든 뒤에 본 이름 대신으로 부름.
- 1367) 醫書. 의학에 관한 책.
- 1368) 今時初聞. 지금 처음 들음.
- 1369) 春雉自鳴. 봄날 꿩이 제 울음 때문에 들켜 죽는다는 말.
- 1370) 風流. 음악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
- 1371)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함부로 흩어져 있음.

- 1372) 狼藉.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움.
- 1373) 王子 璉.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뒤에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날아갔다고 전함.
- 1374) 鳳 鸞. 왕자 진이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 듯함.
- 1375) 郭處士. 당나라 무종 때의 곽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곽도원은 격구(擊颺)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376)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나라 질장구와 비슷해서 그렇게 말한 듯함.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밤을 담은 큰 놋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서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377) 成蓮子.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인.
- 1378) 張良.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 장량(張良). 해하 싸움에서 달밤에 옥통소를 구슬프게 불어 초나라 항우의 군사들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겼음.
- 1379) 嵇康.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숙야(叔夜)이며,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
- 1380) 奚琴. 깡깡이를 아악에서 이르는 이름.
- 1381) 阮籍.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으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인물. 자(字)는 사종(嗣宗)이며, 하남(河南) 사람이다.
- 1382) 擊鼗鼓 吹龍笛.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고, 용의 울음 소리를 내는 피리를 불다. 당나라 때 시인 이하(李賀)의 시 〈장진주(將進酒)〉에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는 '취용적 격타고'로 되어 있다.
- 1383) 凌波詞. 당나라 현종이 꿈속에서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을 깬 뒤에 지었다는 노래.
- 1384)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385) 羽衣曲. 당나라 현종이 지은 노래.
- 1386) 採蓮曲. 중국 양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당나라 24악곡 중의 하나인 〈강남동(江南弄)〉 속에 들어 있는 악곡.
- 1387) 風樂. 우리나라 고유의 옛 음악.
- 1388) 흥겨운 신과 멋을 내어.
- 1389) 藥 藥. 약이로구나.
- 1390) 渭水邊. 위수의 물가. '위수'는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로 강태공이 낚시질을 하던 곳.
- 1391) 兔肝. 토끼의 간.
- 1392) 窮八十達八十. 가난하게 살던 80년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80년.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을 만나기 전 80년을 가난하게 살았고, 문왕을 만난 이후 80년은 부귀를 누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를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라고 한다.
- 1393) 彭祖翁. 팽조 노인. 800년을 살았다고 하는 중국 전설 속의 노인.
- 1394) 東方朔. 자는 만천(曼倩). 산둥성 염차 사람. 막힘이 없는 유창한 변설과 재치로 한무제(漢武帝)의 사랑을 받아 측근이 되었다. '익살의 재사'로 많은 일화가 전해진다. 속설에 서왕모(西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였다 하여 '삼천갑자 동방삭'으로 일컬어졌으며, '오래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그 뜻이 바뀌어 쓰인다



- 1395) 팔의 난알만큼.
- 1396) 三千甲子. 삼천 번의 갑자. 한 갑자는 60년이므로, 삼천갑자는 180,000년임.
- 1397) 壽. 수명.
- 1398) 史記. 중국 한나라 사마천(司馬遷)이 황제(黃帝)로부터 한나라 무제(武帝)까지의 역대 왕조의 사적을 적은 역사책. 130권. 제래의 전설이나 기록 외에 널리 여행하여 사료를 수집해서 만든 책으로, 역사서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높이 평가되며, 중국 정사(正史)와 기전체(紀傳體)의 시초로 일컬어짐.
- 1399) 長生不死.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삶.
- 1400) 홍거운 신이나 멧을 내어..
- 1401) 靑布帳. 푸른 색의 포장. 버들가지가 우거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1402) 柳綠帳. '버들의 푸른 장막'이란 뜻으로, 여름이 되어 우거진 버드나무 숲을 가리킴.
- 1403) 淸風. 맑은 바람. 시원한 바람.
- 1404) 우쭐우쭐. 크게 울동적으로 자꾸 움직이는 모양.
- 1405) 질그릇의 하나. 흔히 물 길는 데 쓰는 것으로, 보통 둥글고 배가 부르고 아가리가 넓으며 양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
- 1406) 노구술. 아무데나 옮겨서 걸고 쓸 수 있는 술.
- 1407) '노고지리'는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동시에 '노구술을 지리'라는 뜻을 담고 있음.
- 1408) 체신없이 까불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면서.
- 1409)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던 금군(禁軍)의 우두머리 장수.
- 1410) 병어. 병어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60cm, 높이는 45cm 정도로 납작하고 둥그스름하며, 흰색이고 등은 파란색을 띤 은백색이다.
- 1411) 물 따위가 물결을 이루며 흔들리는 소리.
- 1412) 君子는 可欺以其方이라. 군자는 그럴 듯한 방법으로 남을 속일 수 있음이라. 《맹자》의 〈만장〉편에 나오는 말임.
- 1413) 患候. 옷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 1414) 回春. 중한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음.
- 1415) 本是. 본디. 본래.
- 1416) 奸邪. 간교하고 교활함.
- 1417) 一縷. '한 오리의 실'이라는 뜻으로, 몹시 미약하거나 불확실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이르는 말. 여기서는 '보잘 것 없는'이라는 뜻으로 겸손하게 한 말.
- 1418) 다하여.
- 1419) 草木禽獸. 풀이나 나무, 짐승들.
- 1420) 誹笑. 비웃음.
- 1421) 孟獲. 남만의 왕으로, 서기 225년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익주를 침입하였으나, 제갈량이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자 제갈량에게 항복하였다.
- 1422) 七縱七擒.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줌.
- 1423) 諸葛亮.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181-234). 자(字)는 공명(孔明). 시호는 충무(忠武).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의 위(魏)나

- 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다. 유비가 죽은 후에 무향후(武鄉侯)로서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중에 병사하였다.
- 1424) 九族. 고조, 증조, 조부, 부친, 본인, 아들, 손자, 증손, 현손 및 형제, 사촌형제, 육촌형제, 팔촌형제를 아울러 일컫는 말.
- 1425) 滅하여. 사라지게 하여. 처부수어. 여기서는 ‘죽여’라는 뜻.
- 1426) 陵遲處斬. 죄인을 머리, 손, 발, 몸뚱이 따위로 토막을 내는 극형.
- 1427) 餘恨. 남은 한. 못다 한 한.
- 1428) 至重. 매우 무거움.
- 1429) 欺罔. 남을 속여 넘김.
- 1430) 夏徠.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폭군 곁.
- 1431) 虐政. 포악한 정치.
- 1432) 龍逢. 곁 임금의 충신. 옳은 일을 간하다 죽임을 당함.
- 1433) 殺害하고. 살해하고. 죽이고.
- 1434) 未久에.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 1435) 亡國. 나라가 망함.
- 1436) 邪鬼. 사악한 귀신.
- 1437) 살 것을.
- 1438)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관리.
- 1439) 沒死. 모조리 다 죽임.
- 1440) 상대편의 분수에 맞지 않는 희망이나 꿈에 대하여 비웃거나 조롱할 때 쓰는 말.
- 1441) 여기 있다.
- 1442) 大驚. 크게 놀람.
- 1443) 定配. 정배를 보내어 쫓아냄. ‘정배’는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
- 1444) 어찌할 수 없이.
- 1445) 二水. 양자강의 지류인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키는 말.
- 1446)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 1447) 三山.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1448) 日落長沙秋色遠한데 不知何處弔湘君고. 해는 긴 모래밭에 떨어지고 가을 산빛은 아득한데, 어디서 상군을 조문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태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에 있는 구절.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 1449) 君子.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 1450) 問曰. 물어 말하되.
- 1451) 何以至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십니까?
- 1452) 回足青山하니 觀不過諸觀이요, 濯足無臨하니 殆不過鳳凰이라. 素無知識하여 流魅平生이라. 청산으로 발걸을 돌려 돌아오니 경치마다 경계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고, 더러운 발이 이르지 않아, 봉황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세상이라. 본디 아는 게 없어 (별주부에게 속아 용궁에 갔다가) 도깨비가 되어 평생을 떠돌

- 뻘했다.
- 1453) 歸帆. 항구로 돌아오는 돛단배.
- 1454) 越范蠡. 월나라의 범려. '범려'는 중국 전국시대 월(越)나라의 재상.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쳐 멸망시켰으나, 후에 벼슬을 버리고 스스로 도주공(陶朱公)이라 일컬으며 부자로 살았음.
- 1455) 檻外長江空自流. 당나라 때의 시인 왕발(王勃)의 시 〈등왕각(藤王閣)〉의 마지막 구절. 난간 밖의 강물만이 부질없이 흐른다.
- 1456) 藤王閣. 중국 강서성 남창현에 있는 누대로, 당 고조의 아들 이원영(李元嬰)이 홍주도독(洪州都督)으로 있을 때 세웠는데, 그가 등왕에 봉해졌으므로 등왕각이라고 부른다.
- 1457)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 1458)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459) 蘇子瞻. 송나라 때 문인인 소동파(蘇東坡). 〈적벽부〉를 썼음.
- 1460) 泛舟遊. 배를 띄우고 놀다.
- 1461) 東山上. 동쪽 산 위에.
- 1462) 斗牛間. 북두칠성과 견우성 사이.
- 1463) 徘徊.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님.
- 1464) 白鷺橫江. 백로가 강을 가로질러 감.
- 1465) 笑指蘆花月溢船. 웃으며 손가락으로 흰 갈대꽃과 달빛이 가득찬 배를 가리킴.
- 1466) 秋江. 가을 강.
- 1467) 騎鯨仙子. 고래를 탄 신선, 곧 이태백을 가리킴.
- 1468) 空明月之團圓. 빈 하늘엔 밝은 달만 둥글다.
- 1469) 還山弄明月. 산중으로 돌아와 밝은 달을 보며 즐김.
- 1470) 遠海近山. 바다는 멀고, 산은 가까움.
- 1471)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472) 漁釣하던. 낚시질하던.
- 1473) 姜太公. 주나라 때 사람으로, 문왕을 만나 등용되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음.
- 1474) 岐周. 창 의 할아버지인 고공(古公)이 북쪽에서 쳐들어온 오랑캐를 피하여 자리잡은, 섬서성 기산현에 있는 기산 남쪽의 주원 지방을 가리키는데, 뒤에 무임금이 이 땅의 이름을 따서 국호를 주(周)라고 했다.
- 1475) 釣臺. 강태공이 무왕을 만나 등용되기 전 낚시를 하던 곳.
- 1476) 銀鱗玉尺. 비늘이 은빛처럼 번쩍번쩍하고 모양이 좋은 큰 물고기.
- 1477) 碧海水邊. 푸른 바닷가.
- 1478) 모르는 채하고.
- 1479) 已往之事. 이미 지나간 일.
- 1480) 몹시 빠르고 세찬 모양.
- 1481) '실없는 사람'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482) '발기다(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헤쳐 발리다)에서 나온 욕으로, '찢어죽임 녀석'이라

- 는 뜻.
- 1483) 슬기롭기.
- 1484) 나와 같고.
- 1485) 밀구멍.
- 1486) 셋이. 세 개가.
- 1487) 白雲靑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1488) 所爲. 소행. 이미 해놓은 일이나 짓.
- 1489) 웅기짐. 웅기 그릇을 짚어진 짐.
- 1490) 진취성이나, 활발하며 시원한 성질. 여기서는 ‘버릇이나 싹수’라는 의미로 쓰였음.
- 1491) 藥和劑. 약방문(藥方文).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재의 종류와 분량을 적은 글.
- 1492) 복. 참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 몸이 뚱뚱하고 등지느러미가 작으며, 이가 날카로움. 고기는 맛이 좋으나 내장에 독이 있어 중독될 염려가 있음.
- 1493)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 1494) 作末. (썰거나, 갈거나 뺄아서) 가루로 만들.
- 1495) 梧子大. 오동나무 열매만큼 큰 덩이.
- 1496) 丸. 환약(丸藥).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둥글둥글하게 빚은 약.
- 1497) 만들어.
- 1498) 加味虛浪湯. ‘허랑’은 말이나 행동이 허황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고, ‘가미’는 원방에다 다른 약재를 섞은 한약을 말함. ‘가미한 허랑탕’이라는 이름으로 우습게 지어붙인 이름.
- 1499) 月經水. 월경으로 나오는 피.
- 1500)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고고학에서는 보통 키가 30cm 이하인 것을 이른다.
- 1501) 卽效. 즉시 나타나는 효력.
- 1502) 칩냉쿨.
- 1503) 그물에 뚫려 있는 구멍. 그물눈.
- 1504) 正朝. 설날 아침.
- 1505) 寒食.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이 날은 자손들이 저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 높고 큰 언덕을 추모하며 제사를 지내고, 묘지에 손질을 하는 날임.
- 1506) 端午. 음력 오월 오일.
- 1507) 木碑. 나무로 만든 비석.
- 1508) 어찌할 도리 없이.
- 1509) 쉬파리의 때. ‘쉬파리’는 파리의 일종.
- 1510) 쉬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쉬파리라는 뜻으로 쉬파리를 의인화한 표현.
- 1511) 파리의 알.
- 1512) 가득.
- 1513)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깔겨 주면.
- 1514) 얹어놓으면.
- 1515) 뒤집어놓으면.

- 1516) (줄을) 긋거나 접거나 한 자리.  
 1517) 日月. 해와 달.  
 1518) 여기서는 ‘작은 손가락’이라는 의미.  
 1519) 天地人. 하늘과 땅과 사람.  
 1520) 三才. ‘삼재’는 음양설에서 세계의 근본이 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컫는 말.  
 1521) 집게손가락.  
 1522) 가운데손가락.  
 1523) 無名指. 약손가락.  
 1524) 小指. 새끼손가락.  
 1525) 짧고짧기.  
 1526) 子午卯酉.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네 요소. 곧, 자는 북쪽,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유는 서쪽.  
 1527) 乾坎艮震巽離坤兌. 《주역》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쳐서 나타내는 팔괘의 상(象).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1528) 佛道. 불교의 이치.  
 1529) 坎中連. 팔괘의 하나인 감의 상형.  
 1530) 艮上連. 팔괘의 하나인 간의 상형.  
 1531) 六道記文. 불교에서 중생이 지은 죄에 따라서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여섯 세계, 곧 지옥, 마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 대해 적은 글.  
 1532) 大藏經. 일체의 불경을 모두 모아놓은 것.  
 1533) 一掌中이라. 손바닥 하나 속에 있다.  
 1534) 樵童牧豎. 나무하는 아이들과 목동.  
 1535) 경상도 민요의 선율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메나리조로 된 민요를 뜻함.  
 1536) 太古라 天皇氏는 木德으로 王하시고, 먼 옛날 천황씨라는 분이 나타나 목덕(木德, 金木水火土의 오행 가운데 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靑에 가까운 기운을 이룸)으로써 임금이 되었다 하고.  
 1537) 燧人氏 教人火食. 수인씨가 사람들에게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가르쳤음. 수인씨는 중국의 삼황오제 시절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을 사용하는 법과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1538) 困敎. 곤궁하게.  
 1539) 厚薄. 후함과 박함. 너그러움과 너그럽지 못함.  
 1540)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1541) 深山窮谷. 깊은 산 깊은 골짜기.  
 1542) 골짜기.  
 1543) 몽똥그려. 되는 대로 몽치어 써서.  
 1544) 힘껏. 있는 힘을 다하여.  
 1545) 爲父母保妻子. 부모를 위하고 자식을 보호함.  
 1546) 마음에 미땅치 않거나 무엇에 싫증이 나서 그만둘 때 내는 소리. ‘에기’보다 센 느낌을

- 준다.
- 1547) 목소리가 높은.
- 1548) 어떤 일을 하려고 버르거나 굳게 마음먹었던.
- 1549) 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알 만한 소리나 기색.
- 1550) 갑자기 몹시 놀랐을 때에 내는 소리.
- 1551) 너희들보다.
- 1552) 흥겨운 신이나 멋을 내어..
- 1553) 寬大長者. 성품이 너그럽고 점잖은 사람.
- 1554)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 1555) 局量. 도량이나 궁리.
- 1556) 나만하며. 나정도 되며.
- 1557) 運籌決勝.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만든 쟁가지로 주역의 괘를 뽑아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함.
- 1558) 張子房. 한 고조를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모사. 이름은 량(良). '자방'은 그의 자(字).
- 1559) 意思. 생각.
- 1560) 亂世之雄. 어지러운 세상의 영웅.
- 1561)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 1562) 神出鬼沒.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뜻으로, 자유자재로 출몰하여 쉽사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음의 비유.
- 1563) 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또는 그런 일을 꾸미는 재간.
- 1564) 武陵桃園.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도화원기>에 복숭아꽃잎이 흘러오는 곳으로 거슬러 가니 별천지가 있었다고 하였다.
- 1565) 杜鵑. 두견새.
- 1566) 지저귀어.
- 1567) 岐山曠野. 기산의 넓은 들. '기산'은 주나라 문왕의 아버지 고공단보(古公亶父)가 이곳에 터를 잡고 어진 정사를 펴자, 문왕 때에 이르러 봉황이 나와 울었다고 함.
- 1568) 열씨구열씨구에 이어서 붙인 말.
- 1569) '머리'의 비어.
- 1570) 날째에 빼앗았겠다. 날째에 움켜 가졌겠다.
- 1571) 맛있는.
- 1572) 머리 부분.
- 1573) 슬프지 않으나.
- 1574) 無主空山. 주인 없는 빈 산.
- 1575) 무엇이기에.
- 1576) 意思중치. 의사주머니. 생각주머니.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듯함.
- 1577) 구멍.
- 1578) 개의 창자.

- 1579) 無主空山. 임자 없는 빈산.  
 1580) 石山. 돌로 이루어진 산.  
 1581) 까마귀와 까치.  
 1582) 삼장으로 된 시조의 첫째 장.  
 1583) 반 이상. 반이 넘게.  
 1584) 그때에는.  
 1585) 속여서.  
 1586) 自奉. 몸을 스스로 잘 봉양함.  
 1587) 그때서야.  
 1588) 속은 줄.  
 1589) 兔糞. 토끼의 똥.  
 1590) 侍湯. 어버이의 병환에 약시중을 드는 일.  
 1591) 患候. 옷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1592) 卽瘥. 병이 곧 나음.  
 1593) 完然히. 흠 없이 완전하게.  
 1594) 月宮. 달나라에 있다는 상상 속의 궁전.  
 1595) 寓意小說.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쓴 소설. 교훈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띤다.  
 1596) 異名. 다른 이름.  
 1597) 寓意.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함. 또는 그런 의미.  
 1598) 著作하니.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지으니.  
 1599) 大義名分.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나 본분.  
 1600) 더질더질. 판소리의 맨 끝에 오는 말로, 북소리의 의성어인 듯.





정응민 바디 수궁가(조상현 창)

Jeong Eung-min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Jo Sang-hyeon)

## 1. (용왕 득병) 남해 용왕이 병을 얻어 나을 가망이 없자, 홀로 탄식을 한다.

[아니리] 갑신년 중하월<sup>1)</sup>에 남해 광리왕<sup>2)</sup>이 영덕전<sup>3)</sup> 높이 짓고,  
삼해 용왕<sup>4)</sup>을 청하실 제  
군신빈객<sup>5)</sup>이 천승만기<sup>6)</sup>요,  
강한지장<sup>7)</sup>과 천택지군<sup>8)</sup>이 일시에 모여들 제,  
주악<sup>9)</sup>이 뽕진<sup>10)</sup>하고 평주교착<sup>11)</sup>이라.  
이삼일 노니더니,<sup>12)</sup>  
남해 용왕이 영해천열풍<sup>13)</sup>을 과히<sup>14)</sup> 썩어 졸연득병<sup>15)</sup>하여,  
약방<sup>16)</sup> 도제조<sup>17)</sup>를 불러 주야로 약을 쓰되  
만무회춘지망<sup>18)</sup>이라,  
용왕이 탄식을 하시는디,  
[진양조] 영덕전<sup>19)</sup> 높은 집에 벗 없이 홀로 누워 애통하여 우는 말이,  
“천무열풍<sup>20)</sup> 좋은 시절 해불양파<sup>21)</sup> 태평헌디,  
괴이한 병을 얻어 신음중에<sup>22)</sup> 누웠으니,  
살려줄 이 뉘 있으며, 구하여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냐?”  
애통<sup>23)</sup>하여 울음을 운다.

## 2. (도사 문병) 도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왕의 병세를 살 핀다.

[엇모리] 하루는 현운<sup>24)</sup> 흑무,<sup>25)</sup> 하루는 현운 흑무 공중을 뒤덮고,  
표풍세우<sup>26)</sup>가 사면으로 내리더니,

**1. (The Dragon King Gets Ill)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gets ill. He is not likely to recover, so he despairs.**

[Aniri] In May of a certain year,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builds a new palace.

He invites three dragon kings of three seas.

There are numerous kings and officials with their carriages and horses.

Soldier fishes from rivers, streams, and ponds gather simultaneously.

The part is magnificent with music and wine.

They have a good time for a few days.

Overexposed to the hot wind of the wide sea,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suddenly gets ill.

Government doctors try medicines on the king day and night.

There is no hope he will get well.

He laments over his fate.

[Jinyangjo] The king lies in a high building of the sea palace alone and wails sadly.

“The people enjoy peace and prosperity now.

But I got a strange disease, and I am in distress.

Who can help me? Who can save me?”

The dragon king weeps sadly.

**2. (A God Visits) A god comes down from heaven and diagnoses the dragon king.**

[Eonmori] One day, dark clouds and mist cover the sky.

A whirlwind blows and a drizzle comes down everywhere.

어떠한 청의도사<sup>27)</sup> 몸에는 마포장삼,<sup>28)</sup> 손에는 옥<sup>29)</sup>을 쥐고, 궁중으로 내려와 재배이진왈,<sup>30)</sup>  
 “약수삼천리<sup>31)</sup>의 해당화 구경과 백운 요지연<sup>32)</sup>의 천년벽도<sup>33)</sup>를 얻으려고 지하<sup>34)</sup>에 왔삽더니,  
 풍편<sup>35)</sup>에 듣사온즉 대왕의 병세가 만만위중타허옵기로<sup>36)</sup> 뵈옵고 저<sup>37)</sup> 왔나이다.”

### 3. (약성가) 도사가 온갖 약과 침법을 다 써도 용왕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는다.

[아니리] 용왕이 왈,<sup>38)</sup>

“도사 이리 오시기는 하늘의 도움이라.

원컨대 도사는 황황한<sup>39)</sup> 나의 병세를 자세히 짐작하사<sup>40)</sup> 선약<sup>41)</sup>을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 왈, “우선 맥<sup>42)</sup>을 보사이다.”

[자진모리]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 맥<sup>43)</sup>을 볼 제,

“심소장<sup>44)</sup>은 화<sup>45)</sup>요,

간담<sup>46)</sup>은 목<sup>47)</sup>이요,

폐대장<sup>48)</sup>은 금<sup>49)</sup>이요,

신방광<sup>50)</sup> 수<sup>51)</sup>요,

비위<sup>52)</sup>는 토라.

간목<sup>53)</sup>이 태과<sup>54)</sup>하야

목극토<sup>55)</sup>허였으니 비위가 상하옵고,<sup>56)</sup>

담경<sup>57)</sup>이 심허니<sup>58)</sup> 신경<sup>59)</sup>이 미약허고,

폐대장이 왕성허니 간담경<sup>60)</sup> 자진<sup>61)</sup>이라.

A god wearing blue clothing and a hemp coat, and holding a jade scepter in his hand comes down to the sea palace, bows twice, and speaks.

“I have come to the earth to see wild roses and a long river and to pick divine peaches by a legendary pond.

I heard Your Majesty had a serious illness. I’m here to see you.”

### **3. (Medicine Song) The god tries all sorts of medicines and needles, but the dragon king does not get better.**

[Aniri] The dragon king says,

“You have come here. Heaven must be helping me.

I am seriously ill. I wish you to diagnose me carefully and show me an efficacious medicine.”

The god says, “Let me check your pulse.”

[Jajinmori] The king holds out his hand, and the god checks his pulse.

“The heart and the small intestine are Fire.

The liver and the gall bladder are Wood.

The lungs and the large intestine are Gold.

The kidney and the bladder are Water.

The spleen and the stomach are Earth.

Your liver is too strong.

Wood defeats Earth, so your liver has injured your spleen and stomach.

Your gall bladder is so strong that your kidneys are weak.

Your lungs and large intestine overshadow your liver and gall bladder.

방서<sup>62)</sup>에 일렸으되, 비<sup>63)</sup>는 일신지조종<sup>64)</sup>이요,  
 담<sup>65)</sup>은 내일신지표본<sup>66)</sup>이라.  
 심정즉 만병이 식히고,<sup>67)</sup>  
 심동즉 만병이 생하오니,<sup>68)</sup>  
 심경<sup>69)</sup> 곧 상하오면 무슨 병이 아니 날까?  
 오로칠상<sup>70)</sup>이 급하오니  
 보중탕<sup>71)</sup>으로 잡수시오.”  
 숙지황<sup>72)</sup> 주중<sup>73)</sup> 닷 돈<sup>74)</sup>이요,  
 산사육<sup>75)</sup> 천문동<sup>76)</sup> 세신<sup>77)</sup>을 거토하고,<sup>78)</sup>  
 육정용<sup>79)</sup> 택사<sup>80)</sup> 앵속각<sup>81)</sup> 각 한 돈, 감초<sup>82)</sup> 칠 푼,  
 수일승전반연용<sup>83)</sup> 이십여 첩<sup>84)</sup>을 쓰되 효무동정<sup>85)</sup>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백출탕<sup>86)</sup>을 잡수시오.”  
 백출<sup>87)</sup>을 초구<sup>88)</sup>하야 서 돈이요,  
 사인<sup>89)</sup>을 초구하야 두 돈이요,  
 백복령<sup>90)</sup> 사향<sup>91)</sup> 오미자<sup>92)</sup> 회향<sup>93)</sup> 당귀<sup>94)</sup> 천궁<sup>95)</sup> 강활<sup>96)</sup> 녹각<sup>97)</sup>  
 각각 한 돈, 감초 칠 푼<sup>98)</sup>  
 수일승전반연용<sup>99)</sup> 삼십여 첩 쓰되 효무동정이라.  
 “양감<sup>100)</sup>이 급하오니 가미강활탕<sup>101)</sup>을 잡수시오.”  
 마황<sup>102)</sup> 두 돈, 진피<sup>103)</sup> 강활 방풍<sup>104)</sup> 백지<sup>105)</sup> 천궁 창출<sup>106)</sup> 승마<sup>107)</sup>  
 갈근<sup>108)</sup> 세신 각 한 돈, 감초 오 푼  
 수일승전반연용 사십여 첩을 쓰되 소무동정이라.  
 “신농씨<sup>109)</sup> 백초약<sup>110)</sup>을 갖가지로 다 쓰려다는<sup>111)</sup> 지레<sup>112)</sup> 먼저 죽  
 을 테니,  
 백초약을 한 데 모아 가마<sup>113)</sup>에 많이 댈여<sup>114)</sup> 한 번에 먹어 보자.”  
 약을 한 데 모을 적에,

A medical book says the spleen is the most important organ.  
The gall bladder is the indicator of the bodily condition.  
If you aren't anxious, all illnesses will disappear.  
If you have any anxiety, all illnesses will appear.  
If your heart is weak, all illnesses will appear.  
All your internal organs are weak.  
Please have some medicinal soup."  
The god prepares a steamed medicinal root.  
He shakes dust off medicinal fruit and a medicinal root.  
He also prepares medicinal plants, a root, a stem,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2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medicines above in vain.  
"You have serious diarrhea. Eat medicinal root soup."  
The god fries a medicinal root.  
He also roasts medicinal seeds.  
He prepares medicinal materials: a tuckahoe, a yam root, a schizandra, a fennel seed, an angelica root, an antler,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3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preceding medicines in vain.  
"Your positive energy is too strong. Take medicinal soup."  
He prepares medicinal materials: an ephedra stem, an old tangerine skin, a parsnip root, diverse roots, kudzu,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4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foregoing medicines in vain.  
"You might die before you take all of the herbal medicines one by one.  
Let's boil all of them together in an iron pot. Take them at once."  
The god puts all the medicines together.

인삼은 미감<sup>115)</sup>허니 대보원기<sup>116)</sup>허고, 지갈생진<sup>117)</sup>허며 조영양위<sup>118)</sup>  
로다.

백출은 감온<sup>119)</sup>허니 건비강위<sup>120)</sup>허고, 제사제습<sup>121)</sup>허고 겸치담  
비<sup>122)</sup>라.

감초는 감온허니 구즉온중<sup>123)</sup>허고 생직사화<sup>124)</sup>로다.

청심환<sup>125)</sup> 소합환<sup>126)</sup> 팔미환<sup>127)</sup> 육미환<sup>128)</sup>

경옥고<sup>129)</sup> 자음경옥고<sup>130)</sup>

백복령<sup>131)</sup> 적복령<sup>132)</sup>

대황<sup>133)</sup> 망초<sup>134)</sup> 창출, 백출, 승마, 갈근, 세신, 청피,<sup>135)</sup> 진피,  
반하,<sup>136)</sup> 육계,<sup>137)</sup>

천산갑,<sup>138)</sup> 단사,<sup>139)</sup> 연실,<sup>140)</sup>

회향,<sup>141)</sup> 당귀<sup>142)</sup> 천궁<sup>143)</sup> 강활,

목통,<sup>144)</sup> 오미자, 천문동, 맥문동,<sup>145)</sup>

호황련,<sup>146)</sup> 당황련,<sup>147)</sup>

가미육군자탕,<sup>148)</sup> 청서육화탕,<sup>149)</sup> 이원익기탕,<sup>150)</sup> 강활탕,<sup>151)</sup>

도인탕,<sup>152)</sup> 백사주,<sup>153)</sup> 위령탕,<sup>154)</sup>

두꺼비 오줌, 곰의 쓸개까지

신농씨 백초약을 갖가지로 다 먹어도 백약<sup>155)</sup>이 무효로구나.

침구<sup>156)</sup>로 다스리자.

동침<sup>157)</sup> 은침<sup>158)</sup> 빼어들고 혈을 잡아 침질혈 제,

천지지상경<sup>159)</sup>이니 유주<sup>160)</sup>로 주어보자.

갑일<sup>161)</sup> 갑술시에<sup>162)</sup> 담경<sup>163)</sup> 주유<sup>164)</sup>를 주고,

을일<sup>165)</sup> 유시<sup>166)</sup>에 대장경 상양<sup>167)</sup>을 주고, 영구<sup>168)</sup>로 주어 보자.

일 신맥,<sup>169)</sup> 이 조해,<sup>170)</sup> 삼 외관,<sup>171)</sup>



Ginseng is sweet, so it creates vigor, eases thirst, and strengthens the stomach.

A japonica root is warm and sweet, so it stops diarrhea and makes healthy the spleen, the stomach, and the gall bladder. A licorice root is warm and sweet too, but it is the best when it is fried and gives off heat in a raw state.

The doctor tries pills that clear one's heart and stomach, pills that restore vigor,

medicine for blood circulation, medicine for negative energy, white medicine, red medicine,

a rhubarb root, niter, roots, young and old tangerine skins,

a *Pinellia ternata* root, some cinnamon bark,

a dry bark, a medicinal mineral, lotus fruit,

herbal grass, an angelica root, a stem for alleviating pain,

a dry stem, schizandra, a medicinal root, a root increasing negative energy,

a medicinal root, a peptic root,

hematic soup, soup for the heart, soup for strengthening intestines, Apiaceae soup,

peach seed soup, white snake soup, soup for urination,

the urine of a toad, and the gall bladder of a bear.

All sorts of medicines of a famous ancient doctor do not work.

"Let's try acupuncture."

He takes out bronze and silver needles and applies them to the right spots.

He also chooses the right times for acupuncture.

He applies acupuncture on the gall bladder at the right time.

He applies acupuncture on the large intesti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oriental medical practice.

Needles are applied to the shinbones, the ankle bones, the wrists,

사 임읍,<sup>172)</sup> 육 공손,<sup>173)</sup>  
 칠 후계,<sup>174)</sup> 팔 내관,<sup>175)</sup> 구 열결,<sup>176)</sup>  
 삼기<sup>177)</sup>를 붙여 팔문<sup>178)</sup>과 좌맥<sup>179)</sup>을 풀어주되 효험이 없으니,  
 임맥<sup>180)</sup>과 독맥<sup>181)</sup>과 십이경맥<sup>182)</sup>을 주어 보자.  
 승장<sup>183)</sup> 염천<sup>184)</sup> 천돌<sup>185)</sup> 구미<sup>186)</sup>  
 거궤<sup>187)</sup> 상완<sup>188)</sup> 중완<sup>189)</sup> 하완<sup>190)</sup> 신궤<sup>191)</sup> 단전<sup>192)</sup>  
 곤륜<sup>193)</sup>을 주고, 족태음비경<sup>194)</sup> 삼음교<sup>195)</sup> 음릉천<sup>196)</sup>을 주어 보자.  
 아무리 약과 침구를 쓰되 병세<sup>197)</sup> 점점 위중<sup>198)</sup>하니,

#### 4. (토끼 간 처방) 도사가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니, 용왕은 토끼를 구하기 어렵다며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아니리] 용왕이 기가 막혀,  
 “도사께서 맥을 더 착실히 보아주옵고,  
 병명이나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가 다시 정신을 차려 용왕의 기색<sup>199)</sup>을 요만허고<sup>200)</sup> 살펴보니,  
 [중모래] 도사 맥을 다시 본다.  
 “맥이 경동맥<sup>201)</sup>이라  
 비위맥<sup>202)</sup>이 상하오니 복중<sup>203)</sup>에서 난 병이요,  
 복중이 절려<sup>204)</sup> 아프기는 화병<sup>205)</sup>으로 난 병인데, 음양풍병<sup>206)</sup>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동하여,<sup>207)</sup>  
 손기,<sup>208)</sup> 신기<sup>209)</sup>는 정음<sup>210)</sup>이요, 진경해미는<sup>211)</sup> 정양<sup>212)</sup>이라.

the top and bottom of the feet,  
fingers, palms, a part of the wrist,  
eight important parts of the king's body in vain.  
Needles are applied to twelve special parts of the king's body.  
They are the lower lip, the tongue bone, the chest bone, the  
space between ribs,  
upper parts of the navel, the navel, a lower part of the navel,  
an upper part of the ankle, and diverse parts of the feet.  
No matter how medicines and needles are tried, the king's illness  
gets worse.

**4. (Prescription of a Hare's Liver) The god says only  
a hare's liver can cure the king. The dragon king  
asks for a different prescription, saying it is hard  
to get a hare.**

[Aniri] The dragon king is speechless.

"God, please check my pulse carefully again,  
and tell me about the name of the disease."

The god collects himself and carefully checks the energy of the  
dragon king's face.

[Jungmori] The god checks the dragon king's pulse again.

"Your pulse moves in fear.

The veins in the spleen and stomach were damaged, so your  
illness occurred in the belly.

It stemmed from the mental disorder and the disharmony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energies.

Six energies were activated.

The strongest negative energy and the strongest positive energy  
coexisted.

음허화동<sup>213</sup>)에 황달<sup>214</sup>)을 겸하였사오니,  
진세산간<sup>215</sup>)의 천 년 토끼 간을 얻으면 차효<sup>216</sup>)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은 염라대왕이 동성<sup>217</sup>) 삼촌이요, 동박삭<sup>218</sup>)이가  
조상이 되어도 누루 황, 새암 천, 돌아갈 귀.”<sup>219</sup>)

**[아니레]** 용왕이 왈,

“신농씨<sup>220</sup>) 백초약은 어찌 약이 아니 되고, 조그만한 토끼 간이 약이  
되오리까?”

도사 왈, “대왕은 진이요, 토끼는 묘라.

묘을손은 음목이요,<sup>221</sup>)

간진술은 양토<sup>222</sup>)라.

갑인을묘대계수<sup>223</sup>)요,

진간사산원속목<sup>224</sup>)이라.

목극토<sup>225</sup>)하고

수생목<sup>226</sup>)하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진양조]** “연하다.<sup>227</sup>) 수연이나,<sup>228</sup>) 창망헌<sup>229</sup>) 진세간의<sup>230</sup>) 벽해<sup>231</sup>)

만경 밖의,<sup>232</sup>) 백운이 구만리요,<sup>233</sup>)

묘연한<sup>234</sup>) 수국중에<sup>235</sup>)

유사일로상<sup>236</sup>)의 약수삼천리<sup>237</sup>)라.

수국 진세<sup>238</sup>) 왕래간에<sup>239</sup>) 유현<sup>240</sup>)이 노수<sup>241</sup>)허니

어찌하여 얻으리까?

석자의<sup>242</sup>) 진시황은 만승천자<sup>243</sup>) 위엄<sup>244</sup>)으로

불사약<sup>245</sup>)을 구하려고 동남동녀<sup>246</sup>) 오백인을 허송삼산<sup>247</sup>)한 연후  
에<sup>248</sup>)

일발청산<sup>249</sup>)에 종적<sup>250</sup>)이 없었으니

못 구하고 죽었으며,

The negative energy shrunk, the positive energy rose, and jaundice followed.

A hare's liver from the mountain of the human world would work.

If you don't get a hare's liver, you will die even if the God of Death is your uncle, and even if your ancestor lived very long."

**[Aniri]** The dragon king speaks.

"How come a famous ancient doctor's medicines don't work, but a little hare's liver does?"

The god responds, "You are a dragon, and he is a hare.

Wood has negative energy.

Earth has positive energy.

Water is created.

A hare is Earth.

Wood overcomes Earth.

Earth and Wood create life together.

How can a hare's liver not be a medicine?"

"That makes sense, but the human world is out of this blue sea, and far from her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vast sea country.

Sand moves by wind and water along a long river.

There is a big gulf between the sea country and the land.

How can I get a hare?

An ancient emperor, Qin Shi Huang(秦始皇) had enormous political power.

He sent five hundred boys and girls to a divine mountain to get the elixir of life.

They disappeared without a trace in the mountain.

The emperor failed to take the elixir of life and died.

만고영웅<sup>251</sup>) 한무제<sup>252</sup>) 승로반<sup>253</sup>)이 허사가 되어 육십삼 세 봉하시  
 니,<sup>254</sup>)  
 성쇠흥망<sup>255</sup>)이 때가 있고,  
 수명장단<sup>256</sup>) 재천<sup>257</sup>)이라.  
 여산 송백<sup>258</sup>) 울울창창<sup>259</sup>) 삼천고분<sup>260</sup>) 황제묘인데,  
 토끼라 허는 짐승은 해외<sup>261</sup>) 일월의 밝은 세상,<sup>262</sup>) 백운 청산 무정처  
 로<sup>263</sup>) 시비 없이<sup>264</sup>) 다니는 짐승을  
 내가 어찌 구하더란 말이오?  
 달리 약명을 일러주고 가옵소서.”

## 5. (어전 회의 1) 용왕이 어전회의를 소집하니, 온갖 물고기 들이 들어온다

[아니리] 도사 이른 말이,  
 “태산지간에 유백규지사허고,<sup>265</sup>)  
 요순지군에 유고수지신이라.<sup>266</sup>)  
 대왕의 성덕<sup>267</sup>)으로 어찌 충의지신<sup>268</sup>)이 없으리까?  
 이제라도 수궁 만조제신<sup>269</sup>)을 불러 하교<sup>270</sup>)하여 보옵소서.”  
 말이 지자<sup>271</sup>) 인홀불견<sup>272</sup>) 간 곳이 없다.  
 용왕이 도사 말 옳이<sup>273</sup>) 듣고  
 수궁 만조백관<sup>274</sup>)을 일시에 불러들이는디,  
 이 세상 같으면 일품<sup>275</sup>) 재상님이 들어오실 터이로되,  
 수국이라 허는 곳은 맞진<sup>276</sup>) 고기가 지천<sup>277</sup>)이 되어  
 수궁 제신<sup>278</sup>)들이 들어오는데,  
 모다<sup>279</sup>) 물고기 등물들이<sup>280</sup>) 들어오겠다.

A hero for all ages, Han Wu Di(漢武帝), wanted to live forever  
but died at the age of sixty three.  
Heaven decides whether a country rise or fall.  
Heaven also determines the length of your life.  
There are thousands of imperial tombs in the mountain thick  
with pine trees and nut pine trees.  
A hare is an animal that wanders around in mountains and  
clouds under the sun and the moon in the bright outside world.  
How can I get one?  
Please give me a different prescription.”

##### **5. (Royal Meeting 1) The dragon king convenes a royal meeting. All sorts of fishes come.**

[Aniri] The god speaks to the king.  
“There is a scholar even in a mountain to become a government  
official.  
Even virtuous kings can have bad subjects.  
There is sure to be a loyal official because you are a virtuous  
king.  
Please call all the subjects of the sea palace and give an order  
to them.”  
After he finishes talking, the god suddenly disappears.  
The dragon thinks the god was right.  
He calls all the subjects of the sea palace.  
If this were the world of the land, the premier would come in  
first.  
In the sea country, delicious fishes are common.  
The subjects of the sea palace come in.  
They are all fishes and aquatic animals.

[자진모리] 승상<sup>281)</sup>은 거북,  
 승지<sup>282)</sup>는 도미,  
 판서 민어,  
 주서<sup>283)</sup> 오중어,<sup>284)</sup>  
 한림<sup>285)</sup> 박대,<sup>286)</sup>  
 대사성<sup>287)</sup> 도로목,<sup>288)</sup>  
 방첨시<sup>289)</sup> 조개,  
 해운궁<sup>290)</sup> 방개,<sup>291)</sup>  
 감옥관<sup>292)</sup> 수달,<sup>293)</sup>  
 유수<sup>294)</sup> 광어,<sup>295)</sup>  
 병사<sup>296)</sup> 청어,<sup>297)</sup>  
 군수 해구,<sup>298)</sup>  
 현감 홍어,  
 부서<sup>299)</sup> 찰방,<sup>300)</sup>  
 어사<sup>301)</sup> 송어,  
 대장 범치,<sup>302)</sup>  
 조부장<sup>303)</sup> 조구,<sup>304)</sup>  
 부변랑청<sup>305)</sup> 청달이,<sup>306)</sup>  
 가오리, 금군, 나줄,<sup>307)</sup> 순령수,<sup>308)</sup>  
 대원수<sup>309)</sup> 고래,  
 수피,<sup>310)</sup> 해구, 모조리,<sup>311)</sup>  
 원참군<sup>312)</sup> 남생이,<sup>313)</sup>  
 별주부<sup>314)</sup> 자라,  
 모래모자,<sup>315)</sup> 병어,  
 전어, 대구, 명태,  
 눈치,<sup>316)</sup> 준치, 삼치,



[Jajinmori] A turtle is a minister.

A snapper is an advisor to the king.

A croaker is a minister.

An octopus is a recorder of history.

A shark is a minister of the government record.

A sandfish is a regulator.

A shellfish is a military officer.

A diving beetle is a ship captain.

An otter is a prison official.

A flatfish is a provincial official.

A herring is a general.

A seal is a county administrator.

A skate is a provincial head.

A croaker is a provincial official.

A mullet is a royal inspector.

A goby is a general.

A yellow corbina is a military officer.

A blue ray is an inspecting official.

A ray is a soldier.

A whale is the chief of staff.

A seal is a gray mullet.

A tortoise is a military officer.

A terrapin is a low official.

A false minnow, a pomfret,

a shad, a cod, a pollack,

a cornet fish, a herring, a mackerel,

꿩치, 갈치, 물메기,<sup>317)</sup>  
 미끈덕 배암장어,<sup>318)</sup> 정언사령<sup>319)</sup> 짜가사리,<sup>320)</sup>  
 돌 밑에 꺾지,<sup>321)</sup>  
 산 냇물에 중고기,<sup>322)</sup>  
 깊은 물에는 금잉어,  
 빛 좋은 피리,<sup>323)</sup> 망둥이,<sup>324)</sup>  
 짱둥이,<sup>325)</sup> 승통이,<sup>326)</sup>  
 올챙이, 개고리,<sup>327)</sup> 송사리,  
 눈쟁이<sup>328)</sup>까지 그저 꾸역꾸역 들어와 용왕전에<sup>329)</sup> 복지청령<sup>330)</sup>허는  
 구나.

## 6. (어전 회의 2) 토끼 간을 구해 올 사람을 구하는데, 모두 적당하지 않다.

[아니리] 용왕이 이만허고<sup>331)</sup> 보시더니,  
 “내가 용왕이 아니라, 팔월 대목장날 생선전<sup>332)</sup>의 도물주<sup>333)</sup>가 되었  
 구나.  
 병중에 입맛만 당기었제.  
 경내<sup>334)</sup> 중에 진세에 나가 토끼를 잡아 짐의 병을 쾌할 자<sup>335)</sup> 뉘<sup>336)</sup>  
 있는고?”  
 좌우의 신하들이 면면상고<sup>337)</sup>하고 묵묵부답<sup>338)</sup>이어늘,  
 [중모리] 용왕이 기가 막혀 탄식하여 우는 말이,  
 “할고사군<sup>339)</sup> 개자추<sup>340)</sup>와  
 광초망신 기신<sup>341)</sup>이는 죽을 임군<sup>342)</sup>을 살렸으니  
 군신유의<sup>343)</sup> 중할시고.<sup>344)</sup>  
 원통타, 우리 수궁 만어지중에<sup>345)</sup> 일충신<sup>346)</sup>이 없었으니,

a saury, a hairtail, a catfish,  
a slippery eel, a small yellow catfish(a messenger),  
a perch from under a stone,  
a fish from a stream,  
a golden carp from deep water,  
a shiny minnow, a fish from a beach,  
a fish with a big head, a fish,  
a tadpole, a frog, and a minnow  
come out continuously and kneel down in front of the dragon  
king.

**6. (Royal Meeting 2) They seek an animal to get a hare.  
Nobody is appropriate.**

[Aniri] The dragon king has been sitting back and watching his  
subjects.

“It looks like I am not a dragon king but a head merchant of  
the fish market before a big holiday.

You all stimulated my appetite when I am sick.

Who will go out to the world of the land and bring a hare to  
cure my disease?”

Subjects on the left and right are silent, looking at each other’s  
face.

[Jungmori] Struck dumb, the dragon king wails.

“Jie Zi Tui(介子推) saved his king by giving him his thigh to eat.  
Ji Xian(紀信) saved his king by deceiving the enemy.

Subjects should be loyal to their king.

It is regrettable that I have a lot of fishes in the sea palace, but  
no one is loyal to me.

이 아니 원통허리?”

자탄<sup>347</sup>)을 마지않으니,

[아니레] 신자지도리<sup>348</sup>)로 저희들끼리 공론<sup>349</sup>)이 분분허되,<sup>350</sup>)

“숭어 너 어떠허뇨?”<sup>351</sup>)

“나는 세상에 나가고 싶되 헛감도 좋거니와 제찬<sup>352</sup>)으로 위주<sup>353</sup>)허니  
나갈 수 있나?”

“도미 너 어떠하뇨?”

“춘삼월<sup>354</sup>) 호시절<sup>355</sup>)에 풋고사리 맛난 판에 온통 찌개로 죽을 테니  
나갈 수 있나?”

뉘 아들놈이 앓어 죽지, 나가서 죽어야?”<sup>356</sup>)

저희들끼리 한참 이리 야단헐 제,

[중중모레] 정언<sup>357</sup>)이 여짜오되,

“세상이라 허는 곳은 인심이 흉악하야

수궁 신하 얼른하면<sup>358</sup>) 잡아먹기 위주허니,

용맹 지혜가 없는 자 보내지를 못허리다.”

“수문장<sup>359</sup>) 물메기<sup>360</sup>)가 어떠헌고?”

“물메기는 장수구대<sup>361</sup>)하고 호풍신<sup>362</sup>) 수염 좋아

식량이 장히 넓어,<sup>363</sup>)

조그만헌 산천수<sup>364</sup>) 요기감<sup>365</sup>) 얻으려고 다니다가,

사립<sup>366</sup>) 쓴 저 어웅<sup>367</sup>) 세우사풍조불귀<sup>368</sup>)라,

입감<sup>369</sup>) 꿰어 던진 낚시 탐식<sup>370</sup>)하여 집어먹고 단불요대<sup>371</sup>) 죽거드면,

세상의 이질,<sup>372</sup>) 복질,<sup>373</sup>) 배아피,<sup>374</sup>) 술병<sup>375</sup>) 설사난 데 국 끓여 보  
위약<sup>376</sup>)만 되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군수 해구<sup>377</sup>)가 어떠헌고?”

“해구는 신경<sup>378</sup>)이 너무 좋아 호색<sup>379</sup>)을 허는 고로

How sad this is!”

The dragon king continues sighing.

**[Aniri]** The subjects discuss the matter as they should as subjects to the dragon king.

“How about you, the gray mullet?”

“I wish to go to the land, but humans eat me raw, and I am the best food during a ritual.

So I can’t go there.”

“How about you, the snapper?”

“I will die, being used for soup along with delicious young bracken in spring.

So I can’t go there.

I would rather die here than there.”

The subjects make a commotion as said above.

**[Jungjungmori]** The carp says,

“Humans on the land are cruel.

If a fish appears, they only try to eat it.

So we can’t send one there who doesn’t have wisdom and courage.”

“How about the gatekeeper, the catfish?”

“The catfish looks good with a big mouth and long whiskers. But he eats a lot.

He will wander around in small streams, looking for food.

Old fishermen wearing bamboo hats will cast hooks.

The catfish will eat the baits on the hooks and die without fail.

He will be used in soup for dysentery, stomachache, a disease caused by alcohol, and diarrhea.

So we can’t send him there.”

“How about the seal, a country administrator?”

“Having too strong stamina, a seal is lascivious.

색필망신<sup>380</sup>)이라

보내지를 못허리라.”

“하낭청<sup>381</sup>) 새우가 어떠허뇨?”

“하낭청 새우는 용맹이 초등<sup>382</sup>)하여 뛰기는 잘하오나,

안정<sup>383</sup>)이 생긴 것이 단명지상<sup>384</sup>)이라

보내지 못하리라.”

해운공<sup>385</sup>) 방개<sup>386</sup>)가 썩 나서 살살 기어 복지주왈,<sup>387</sup>)

[중중모리] “신의 고향 세상이라. 신의 고향은 세상이라.

청림 벽계<sup>388</sup>) 산천수<sup>389</sup>) 가만히 잠신하야<sup>390</sup>) 수십 년을 사울 적에

월중토,<sup>391</sup>) 망월퇴<sup>392</sup>) 안면<sup>393</sup>)이 적실허니,<sup>394</sup>)

소신<sup>395</sup>)을 보내시면

소신의 엄지발<sup>396</sup>)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득<sup>397</sup>) 집어다가

대왕전<sup>398</sup>)에 바치리다.”

[아니레] 왕왈,<sup>399</sup>)

“너는 십각<sup>400</sup>)이 구존<sup>401</sup>)하여 걸음은 잘 걸으나,

인적<sup>402</sup>)이 얼른하면<sup>403</sup>) 뒷걸음질을 잘하기로

당대사<sup>404</sup>)를 믿지 못해 보내지를 못허리라.”

이렇듯 공론이 분분할 제,

## 7. (별주부 상소) 별주부가 자기가 가겠다고 상소를 올린다.

[진양조] 영덕전<sup>405</sup>) 뒤로 한 신하 들어온다.

은목단족<sup>406</sup>)이요, 장경오획<sup>407</sup>)로다.

호흥배<sup>408</sup>) 등에 방패<sup>409</sup>)를 지고 앙금앙금<sup>410</sup>) 기어 들어와

He will collapse due to women.  
 So we can't send him there."  
 "How about a shrimp, a low official?"  
 "A shrimp is courageous and capable of running fast.  
 But the way his eyes look indicates he will die young.  
 So we can't send him there."  
 A diving beetle, a ship captain, steps forward slowly, kneels  
 down, and speaks.  
**[Jungjungmori]** "The land is my hometown.  
 I lived in a blue stream in a green forest for decades.  
 I am familiar with hares in the mountain and on the moon.  
 Please send me there.  
 I will grab the hare's thin waist with my claw and bring him  
 to Your Majesty."  
**[Aniri]** The king speaks,  
 "You can walk well because you have ten legs.  
 But you run backward if you hear human sounds.  
 I can't give you an important mission and I can't send you  
 there."  
 They can't reach an agreement.

## **7. (Terrapin's Formal Letter) Terrapin turns in a formal letter, saying that he would go to the land.**

**[Jinyangjo]** An official comes through the back gate of the palace.  
 He has small eyes, short legs, a long neck, and a curved mouth.  
 He wears a cloth on his hard shell and climbs up to the dragon king slowly.

국궁재배<sup>411</sup>)를 허고, 상소<sup>412</sup>)를 올리거늘,  
 [아니레] 상소허였으되 별주부 자래였다.  
 [창조] 신은 본시<sup>413</sup>) 수국 충신지후예<sup>414</sup>)로  
 추치낭중<sup>415</sup>)에 영탈이출<sup>416</sup>)하던 모수<sup>417</sup>)의 재조<sup>418</sup>)와,  
 탄탄위아하고<sup>419</sup>) 행걸어시허든<sup>420</sup>) 예양<sup>421</sup>)의 충성과,  
 육국<sup>422</sup>)을 함중<sup>423</sup>)허든 소진<sup>424</sup>)의 구변<sup>425</sup>)과  
 맹획<sup>426</sup>)을 칠종칠금<sup>427</sup>)허든 제갈량<sup>428</sup>)의 지모<sup>429</sup>) 없사오나,  
 당차국체미령지시하와<sup>430</sup>)  
 기감불충도보하오리까?<sup>431</sup>)  
 차의성상지위령과 무궁지조화로 광피사해하시니,<sup>432</sup>)  
 하왕불리며 하구부득으로  
 진세 일개토를 하난착래리까?<sup>433</sup>)  
 복원 성상은 파탈하생불인지덕하시고<sup>434</sup>)  
 즉령소신으로 사속출세케 하옵시며,<sup>435</sup>)  
 진세 일개토를 착지어정하여 국제평복하심을 신소원야로소이다.’<sup>436</sup>)  
 왕이 왈, “영준지신<sup>437</sup>)이요, 충직지언<sup>438</sup>)이라.  
 패공<sup>439</sup>)은 한신<sup>440</sup>)을 대장을 삼었으되  
 황후<sup>441</sup>)는 한신다려<sup>442</sup>) 도적이라 허였으니,  
 그 일이 어찌된 일이나? 미재로다.<sup>443</sup>) 미재라.  
 오늘날 주석지신<sup>444</sup>)을 보았구나.  
 그러나 여기 앉아 들으니,  
 세상 사람이 왕배탕<sup>445</sup>)이니, 자래탕이니 별미<sup>446</sup>)로만 안다 허니,  
 나가서 죽으면 그 아니 원통하뇨?”<sup>447</sup>)  
 별주부 황공대왕,<sup>448</sup>)  
 “신의 충성 유여허여<sup>449</sup>) 목을 늘였다 오프렸다 진퇴<sup>450</sup>)를 무수히 허고,  
 홍문연<sup>451</sup>) 변쾌<sup>452</sup>) 쓰던 도리방패<sup>453</sup>) 져사옴고,<sup>454</sup>)



He bows twice to the king and gives a formal letter to him.  
**[Aniri]** He is Terrapin, a low official.  
**[Song Mode]** I am a descendent of a loyal subject in this sea country.  
 I am not as talented as an ancient man whose talent was revealed automatically.  
 I am not as loyal to my king as an ancient man who was loyal to his master.  
 I am not as eloquent as an ancient politician.  
 I am not as smart as an ancient military strategist.  
 But Your Majesty is sick.  
 How can I not do something for you?  
 Your dignity and virtue cover the whole world.  
 How can I fail to get what I want?  
 How can I fail to get a hare?  
 I wish you don't mind that I am not virtuous.  
 Please give me an order to go to the land right away.  
 I hope that I will bring a hare here and you will get well."  
 The king speaks, "He is a smart, talented, loyal, and honest subject.  
 An ancient king appointed a man as a general.  
 But his queen took the general to be a rebel.  
 What are we to make of the story? We don't know.  
 I met an important loyal subject today.  
 I heard a story here.  
 Humans in the land take terrapin soup as a delicacy.  
 Wouldn't it be sad if you die on the land?"  
 Terrapin speaks in fear.  
 "I am loyal to you, and I can pull my neck in and out numerous times.  
 I am carrying a strong shield on my back.

강상에<sup>455</sup> 등실 높이 떠 망보기<sup>456</sup>를 잘하오니  
 인간 봉패<sup>457</sup>는 없사오나,  
 해중지소생<sup>458</sup>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sup>459</sup>이나 자세히 그려 주옵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 8. (토끼 화상) 용왕이 화공을 불러 별주부가 가지고 갈 토끼의 화상을 그리게 한다.

[중중모리] “화공<sup>460</sup>을 불러라.”

토끼 화상을 그린다.

연 소왕<sup>461</sup> 황금대<sup>462</sup> 미인 그리든 화공,  
 남국 천자 능허대<sup>463</sup> 일월 그리던 명화사.<sup>464</sup>  
 동정유리청홍연<sup>465</sup> 금수추파<sup>466</sup> 거북 연적<sup>467</sup> 오징어로 먹 갈아,  
 양두화필<sup>468</sup>을 덩벽<sup>469</sup> 풀어 단청 채색<sup>470</sup>을 두루 묻혀, 백룡연화간  
 지상<sup>471</sup>에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명산<sup>472</sup> 승지간의 경개<sup>473</sup> 보던 눈 그리고,  
 난초 지초<sup>474</sup> 원갯 행초<sup>475</sup> 꽃 따 먹든 입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 제<sup>476</sup>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봉래<sup>477</sup> 방장<sup>478</sup> 운무<sup>479</sup> 중의 내<sup>480</sup> 잘 맡던 코 그리고,  
 만화방창화림중<sup>481</sup> 펼 펼 뛰든 발 그리고,  
 대한<sup>482</sup> 엄동<sup>483</sup> 설한풍<sup>484</sup> 방풍<sup>485</sup>하던 털 그리고,  
 신농씨<sup>486</sup> 상백초<sup>487</sup> 이슬 털던 꼬리 그려,

I am good at seeing things on the surface of a river.  
I will not fall into disaster.  
Born here, I don't know what a hare looks like.  
Please draw a picture of a hare in detail for me."  
The king is persuaded by Terrapin.

## **8. (A Picture of a Hare) The dragon king calls an artist and has him draw a picture of a hare for Terrapin.**

[Jungjungmori] "Bring an artist here."

The artist draws a picture of a hare.

He drew a picture of beautiful girls in a golden tower for his king.

He is the famous artist who drew the picture of a high tower.

He uses a colorful inkstone, a turtle-like bowl, and black ink from a squid.

He puts a two-sided brush on the ink of various colors and moves the brush around on white silk with flower patterns.

He draws the picture of the eyes which were gazing at the beautiful scenery,

the mouth which was eating fragrant grasses and flowers,

the ears which were listening to the songs of cuckoos and parrots,

the nose which was smelling everything in mountains covered with cloud and fog,

the legs which were moving fast through the green spring forest,

the fur which was protecting him from the cold wind and snow in winter,

and the tail which moved back and forth to shake off dew from herbal grass.

두 귀는 종긋,<sup>488)</sup>  
 두 눈은 도리도리,<sup>489)</sup>  
 허리 늘씬,<sup>490)</sup>  
 뽕지<sup>491)</sup> 묘뚝,<sup>492)</sup>  
 좌편은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라.<sup>493)</sup>  
 녹수청산<sup>494)</sup>의 에굽은<sup>495)</sup> 장송,<sup>496)</sup>  
 휘늬늘어진<sup>497)</sup> 양류지,<sup>498)</sup> 들랑날랑<sup>499)</sup> 오락가락  
 양그주춤<sup>500)</sup> 섰는 양은<sup>501)</sup>  
 아미산월반륜추<sup>502)</sup>가 이에서<sup>503)</sup> 더할쏘냐?  
 “아나,<sup>504)</sup> 별주부야.  
 네 가지고 나가거라.”

## 9. (별주부 아내와 작별) 별주부가 아내와 작별한다.

[아니리] 별주부 토끼 화상 간수<sup>505)</sup>혈 제,  
 목을 늘어 뒷덜미에다 넣고 목을 딱 움츠려놓으니  
 물 한 점 젖을쏘냐?  
 용왕이 어주<sup>506)</sup>를 내리며 허시는 말씀,  
 “경<sup>507)</sup>이 세상에 나가 토끼 잡아 짐의 병을 쾌할진댄<sup>508)</sup> 수궁을 반  
 분<sup>509)</sup>한들 무슨 한이 있으리오?”  
 별주부 황공대왈,<sup>510)</sup>  
 “신의 충성 보옵소서.”  
 [진양조] 하직하고 물러나와 처자를 이별할 제,  
 “여보소, 마누라.”

The ears are straight up.  
The eyes are round.  
The waist is slim.  
The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Tall pine trees hanging down are on the blue mountain and stream.  
A hare appears to move in and out of a willow drooping down.  
The hare appears to stand up hesitantly.  
He looks better than the one on a half moon over a mountain.  
“Here you are, Terrapin.  
Take this and go out.”

## **9.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Aniri] Terrapin keeps the picture as follows.  
He stretches his neck out, puts the picture on the back of his neck, and draws his neck in.  
The picture is free of water.  
Offering wine to Terrapin, the dragon king speaks,  
“If you go out to the land, bring a hare, and cure me of the disease, I will be happy to give you the half of this sea palace.”  
Terrapin responds,  
“You will see how loyal I am to you.”  
[Jinyangjo] Terrapin leaves the king, goes to his home, and says goodbye to his family.  
“Hello, honey.”

“에이?”

“나는 용왕 봉명사신<sup>511</sup>)으로 토끼 잡으러 세상을 나가되,  
마누라를 잊지 못하고 가오.

이웃집 남생이<sup>512</sup>)라 허는 놈이 생긴 것이 음골<sup>513</sup>)의 아들이라  
여자가 각근<sup>514</sup>)하면 색근낭패<sup>515</sup>) 어려우니 가까이 가지 말소.

나 꼭 닮았고,

우명<sup>516</sup>)하기 말할 수가 없으니 가까이 하지 마소.”

별주부 암자라 거동<sup>517</sup>) 보아라.

물부리<sup>518</sup>)같은 콧궁기<sup>519</sup>)로 숨을 쉬고,

녹두같은 눈을 깜짝이며 책하여<sup>520</sup>) 허는 말이,

“나리님 체위<sup>521</sup>) 중허시고, 연기노중<sup>522</sup>)하시거늘

소년경박자<sup>523</sup>)의 비루<sup>524</sup>)허신 말씀으로 못 잊고 간다 허니

마음이 미안<sup>525</sup>)이오.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나가시며

조그마한 아녀자<sup>526</sup>)를 잊지 못하고 간단 말이 조정에 발론되면,<sup>527</sup>)

만조제신<sup>528</sup>)들의 웃음 될 줄 모르시고

노류장화<sup>529</sup>)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리]** 별주부 대소허며,<sup>530</sup>)

“충신지자<sup>531</sup>)는 충신이요,

열녀지자<sup>532</sup>) 열녀로다.

가중<sup>533</sup>) 마음이 저러허니 토끼 잡기 무슨 걱정되리?

내 만사를 믿고 다녀오리다.”

별주부 마누라 문밖에까지 나와,

“창망한<sup>534</sup>) 진세간에<sup>535</sup>) 평안히 다녀오오.”

“그러나 부대<sup>536</sup>) 남생이를 조심허오.”

“Hello.”

“At the dragon king’s order, I am going to the land to catch a hare.

I am worried about you.

The tortoise, our neighbor, is crazy about girls.

A lustful man ruins his life, so don’t get close to him.

He looks like me.

He is extremely wicked, so watch out for him.”

Behold Terrapin’s wife.

She breathes through long nostrils.

Blinking her small eyes, she scolds her husband.

“The king is in high status, and he is old.

It is immature of you to say that you are worried about me.

That is regrettable.

You are going to the land for the sake of the king.

If it is known to the government officials that you are worried about your little wife,

they will look down on you.

Don’t speak cheap words.”

**[Aniri]** Terrapin laughs happily.

“A loyal subject’s son is a loyal subject.

A faithful woman’s daughter is a faithful woman.

Since my family supports me, I don’t worry about catching a hare.

Let me go to the land without any worries.”

Terrapin’s wife sees Terrapin out through the gate.

“The sea is vast. Come back in one piece from the land.”

“Please look out for the tortoise.”

## 10. (고고천변) 별주부가 세상에 나가 보니 세상 경치가 아름답다.

[중중모리] 하직코 물러서, 수정문<sup>537)</sup> 밖 썩 나서니  
경개<sup>538)</sup> 무궁 장히<sup>539)</sup> 좋다.  
고고천변일륜홍<sup>540)</sup> 부상<sup>541)</sup>에 등실 높이 떠,  
양곡<sup>542)</sup>의 잣인<sup>543)</sup> 안개 월봉으로<sup>544)</sup> 돌고,  
예장촌<sup>545)</sup> 개 짓고,  
회안봉<sup>546)</sup> 구름이 뒹구나.  
노화<sup>547)</sup>는 눈 되고,  
부평<sup>548)</sup>은 물에 등실,  
어룡<sup>549)</sup>은 잠자고,  
자고새<sup>550)</sup>는 펄펄 날아든다.  
동정여천파시추<sup>551)</sup> 금수추파<sup>552)</sup>가 여기라.<sup>553)</sup>  
앞발로 벽파<sup>554)</sup>를 찍어당겨, 뒷발로 창랑<sup>555)</sup>을 탕탕.  
이리 저리, 저리 요리,  
앙금 등실 높이 떠 사면을 살펴보니,  
지광<sup>556)</sup>은 칠백 리,  
파광<sup>557)</sup>은 천일색.<sup>558)</sup>  
천외무산의 십이봉<sup>559)</sup>은 구름 밖에 가 멀고,  
해외소상<sup>560)</sup> 일천 리 안하<sup>561)</sup>의 경개로다.  
오초는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였고,  
건곤은 어이하여 일야에 등실 떠,<sup>562)</sup>  
남훈전<sup>563)</sup> 달 밝은데 오현금<sup>564)</sup>은 끊어지고,  
낙포<sup>565)</sup>로 등등 가는 저 배,  
쫓각달 무관수의<sup>566)</sup> 초 회왕<sup>567)</sup>의 원혼<sup>568)</sup>이요.



## 10. (Sunrise) Terrapin sees the beautiful scenery in the world of the land.

[Jungjungmori] Terrapin leaves his family and goes out through the crystal gate.

The landscape is spectacular.

The red sun rises high above the horizon.

A thick fog in the sunny valley moves around the Moon Peak.

A dog barks from a village.

Clouds hang over a peak.

Reed flowers fall down like snow.

Duck weeds float on the pond.

Fishes sleep in the water.

A bird flies vigorously in the sky.

The breeze and the waves of a wide and clear lake signify autumn.

Terrapin pulls and pushes blue waves of water with his front and rear legs.

He moves around.

He gazes aroun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land is wide.

The color of the wat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sky.

Twelve peaks are above the clouds at a distance.

A river stretches for thousands of miles in front of Terrapin's eyes.

Wu(吳) and Chu(楚) countries were to the east and to the south.

The sky and the earth are reflected on the lake day and night.

The sound of a pentachord stopped in a palace on the bright moon.

A boat goes to a port.

It seems to be the revengeful spirit of an imprisoned king, King Huai(懷).

모래 속에 잠신하야<sup>569)</sup> 천봉만학<sup>570)</sup>을 바라보니,  
 만경대<sup>571)</sup> 구름 속에 학선<sup>572)</sup>이 울어 있고,  
 칠보산<sup>573)</sup> 비로봉<sup>574)</sup>은 허공에 솟아,  
 계산과무울차야<sup>575)</sup> 산은 층층 높고,  
 경수무풍야자과<sup>576)</sup> 물은 술렁<sup>577)</sup> 깊고,  
 만산<sup>578)</sup>은 울울,<sup>579)</sup>  
 국화는 점점, 낙화<sup>580)</sup>는 동동,<sup>581)</sup>  
 장송은 낙락,<sup>582)</sup> 늘어진 잡목,  
 평피진<sup>583)</sup> 떡갈잎, 다래몽동,<sup>584)</sup>  
 칙년출,<sup>585)</sup> 머루, 다래,  
 으름년출,<sup>586)</sup> 능수버들, 빗남기,<sup>587)</sup>  
 오미자, 치자, 감자,<sup>588)</sup> 대추,  
 갯인<sup>589)</sup> 과목<sup>590)</sup> 얼크리지고 뒤틀어져 구부<sup>591)</sup> 칭칭 감겼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sup>592)</sup>  
 갈매기, 해오리,  
 목포리,<sup>593)</sup> 원앙새,  
 강상<sup>594)</sup> 두루미, 수많은 떼고니,<sup>595)</sup>  
 소호천자 기관허든<sup>596)</sup> 만수문전의<sup>597)</sup> 봉황새,  
 양양창과점점동<sup>598)</sup> 사랑허다<sup>599)</sup>고 원앙새,  
 칠월 칠석 은하수 다리 놓던 오작이,<sup>600)</sup>  
 목포리,<sup>601)</sup> 해오리,<sup>602)</sup> 너수,<sup>603)</sup> 징경새,<sup>604)</sup> 아옥 따옥 이리저리 날아  
 들 제,  
 또 한 경개<sup>605)</sup>를 바라봐.  
 치어다보니 만학천봉이요,<sup>606)</sup>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sup>607)</sup>로구나.

Terrapin hides himself in the sands and sees numerous mountains and valleys.  
A crane sings on a tower in clouds.  
A peak rises high into the sky.  
When the fog clears, the mountain looks even higher.  
Clear and deep water creates waves without wind.  
All the mountains are thick with trees.  
Mottled chrysanthemums, fallen leaves,  
drooping branches of a tall pine, stretching scrubs,  
wide oak trees, stumpy actinidia argutas,  
kudzu vines, actinidia argutas, wild grapes,  
clematises, weeping willows, cherry trees,  
schizandra, gardenias, fruit, jujubes,  
and all sorts of fruit trees are firmly intertwined with each other.  
A fishing boat comes back.  
Seagulls fly around.  
Seagulls, white herons,  
unknown birds, mandarin ducks,  
cranes on a river, numerous swans,  
a phoenix which used to work for the government at a gate,  
lovely mandarin ducks which drifted on the waves of the wide sea,  
crows and magpies which form a bridge in the Milky Way on July 7th,  
white herons, ospreys, and other birds come from different places.  
Terrapin beholds another place.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s are above.  
A white sandy plain is below.

에구부러진<sup>608</sup> 늙은 장송<sup>609</sup> 광풍<sup>610</sup>을 못 이기어 우줄우줄<sup>611</sup> 춤을  
춘다.

원산<sup>612</sup>은 암암,<sup>613</sup>

근산<sup>614</sup>은 중중,<sup>615</sup>

기암<sup>616</sup> 층층,<sup>617</sup>

메사니<sup>618</sup> 울어,

천리시내<sup>619</sup>는 청산으로 들고,

이 골 물이 쭈루루루루, 저 골 물이 쉼쉴,<sup>620</sup>

열의 열두 골<sup>621</sup> 물이 한 데로<sup>622</sup> 합수쳐,<sup>623</sup>

천방자 지방자 월턱져 구부져,<sup>624</sup> 방울이 버کم져,<sup>625</sup>

건너 평풍석<sup>626</sup>에다 마주 팡팡 마주 썰려,<sup>627</sup>

대해수중<sup>628</sup>으로 내려가느라고 버کم<sup>629</sup>이 북적,<sup>630</sup>

물너울<sup>631</sup>이 뒤뚱,<sup>632</sup> 워르르르 뿔뿔 뒤등그러져<sup>633</sup> 산이 울렁거  
려<sup>634</sup> 떠나간다.

어디메로<sup>635</sup> 가잔 말?<sup>636</sup>

아마도 예로고나,<sup>637</sup>

이런 경계가 또 있나?

그 때에 별주부는 운층경<sup>638</sup>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전후불견수목처<sup>639</sup>에 분간할 길이 전혀 없고,

허다히<sup>640</sup> 기는 짐생 생면부지<sup>641</sup> 나의 눈에 토끼 얼굴을 어이 알리?

## 11. (온갖 짐승들이 모임)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 보니 온갖 짐승들이 회의를 하러 모인다.

[아니리] 이렇듯 잔디밭에 가 죽은데끼<sup>642</sup> 엮졌을 제<sup>643</sup>

The branches of old drooping pine trees dance in the wild wind.  
Distant mountains are dusky.  
Close mountains are deep.  
Bizarre rocks are steep.  
Echoes are heard.  
A long stream turns around a green mountain.  
Flowing water generates sounds in valleys.  
Water from different valleys is combined in one place.  
The water runs down wildly, making foam.  
It bumps head-on into large rocks.  
It heads to the middle of a wide sea while making foam.  
Large waves dance around, make loud sounds and shake a  
mountain as they go down.  
Where are they headed?  
This is the scenery.  
What a spectacle it is!  
Terrapin climbs up through clouds and looks around.  
Trees are so densely populated that he can't see other things.  
There are so many animals that Terrapin hasn't seen before that  
he can't see a hare.

**11. (The Meeting of All Sorts of Animals) Terrapin  
comes out to the land and sees all sorts of animals  
gather to hold a meeting.**

[Aniri] Terrapin lies face down on a sandy field as if he were  
dead.

마침 그날사 말고 산짐승들 회의가 있었든가 온갖 짐승들이 모다<sup>644</sup>)  
모여드는데,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대략 몇 가지만 외워 보는데,  
[엇모레] 소슬양풍석양천<sup>645</sup>) 소슬양풍석양천, 여러 짐생이 내론  
다.<sup>646</sup>)

공부자 작춘추<sup>647</sup>)에 절필<sup>648</sup>)허든 기린이,<sup>649</sup>)

삼군삼영<sup>650</sup>) 거동시<sup>651</sup>) 천자 옥련<sup>652</sup>)의 코끼리,

옥경선관<sup>653</sup>) 승필<sup>654</sup>)허니 풍채 좋은 사자라.

출입풍운<sup>655</sup>) 표범이요,

서백<sup>656</sup>)이 위수<sup>657</sup>) 사냥할 제 비웅비표<sup>658</sup>)의 꿈이라.

북희씨<sup>659</sup>) 양희생<sup>660</sup>)의 길러내던 노양,<sup>661</sup>) 소양,<sup>662</sup>)

창해역사<sup>663</sup>) 박랑사중<sup>664</sup>) 저격허든<sup>665</sup>) 다람이,<sup>666</sup>)

강수동류원야성<sup>667</sup>) 슬피 우는 잔나비,<sup>668</sup>)

피 많은 여우, 뿔 좋은 사슴,

돈피,<sup>669</sup>) 사피,<sup>670</sup>) 사향노루,<sup>671</sup>)

날담부,<sup>672</sup>) 길담부,<sup>673</sup>) 날랜 토끼,

너구리, 오소리, 멧돌<sup>674</sup>)까지 내려온다.

## 12. (별주부 호랑이를 부름) 별주부가 토생원을 부른다는 것이 발음을 잘못하여 호생원을 부르니, 호랑이가 듣고 좋아하며 내려온다.

[아니레] 이렇듯 세상 짐생들이 다 내려오는데

토끼들 아니 올수 있나 허고 자래가 한번 불러 보는데,

‘퇴, 퇴, 퇴, 토생원!’<sup>675</sup>) 허고 불렀으면 토끼가 내려 올 것인디,

수로만리<sup>676</sup>)를 아래턱으로만 물결을 밀고 나와,

Of all days, all sorts of animals of the mountains gather to hold a meeting today.

The animals are so many that I can't enumerate them all here.  
[Eonmori] Animals gather in the evening when a cool wind blows.

Confucius ended his book with a story of hunting down a giraffe.

An elephant carried a wagon for an emperor.

A god used to ride a large old lion in heaven.

A leopard creates a wind and a cloud.

A king came across a bear when he was hunting in a river.

An ancient king used old and young sheep as sacrifice during the ritual.

A squirrel watched someone try to kill a king.

A river flowed constantly to the east, and a monkey wept sadly at night.

A sly fox, a deer with good antlers,

a yellow marten, a musk deer,

a marten, a fast hare,

a raccoon, a badger, and a boar gather.

## **12. (Terrapin Calls the Tiger.) Terrapin mistakenly calls the tiger instead of Hare. Pleased, the tiger comes down from the high seat.**

[Aniri] All sorts of animals gather as said above.

Thinking a hare was coming too, Terrapin calls him.

If Terrapin said "Mr. Hare," a hare would come to him.

He pushed water with his lower jaw on the long journey on the sea.

퇴 자가 살짝 늘어져 호 자로 변하는디,  
 “퇴, 퇴, 퇴, 호 호 호생원!” 하고 불러 노니,  
 첩첩산중<sup>(677)</sup>에 있던 범이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느닷없는 범이 막 내려 닥치는다,<sup>(678)</sup>  
**[엇모래]**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장림<sup>(679)</sup> 깊은 골로 한 짐승 내려온다.  
 몸은 얼썩덜썩,<sup>(680)</sup>  
 꼬리는 잔뜩 한 발<sup>(681)</sup>이 넘고,  
 누에머리<sup>(682)</sup>를 흔들며,  
 양 귀 찢어지고,  
 전동<sup>(683)</sup>같은 앞다리,  
 동개<sup>(684)</sup>같은 뒷다리로  
 엉금엉금 내려올 제,  
 쇠낫<sup>(685)</sup>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sup>(686)</sup>를 좌르르 좌르르 흘으며,  
 주홍 입 찹 벌리고 ‘홍앵홍앵’ 허는 소리  
 태산이 무너지는 듯 산천이 진동허니,  
 자라가 정신없이 목을 오므리고 가만히 었졌것다.<sup>(687)</sup>

### **13.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호랑이가 내려와 별주부를 보고 잡아먹으려 하자, 별주부가 영겁결에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아니레]** 호랑이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며,  
 ‘거 뉘가 날 불렀나?  
 방금 이 근처에서 불렀는디 어디 가고 없을까?  
 그래, 귀 밝은 것이 장히<sup>(688)</sup> 우환<sup>(689)</sup> 되든고.’<sup>(690)</sup>



He mispronounces the name 'hare.'  
He says, "Mr. Tiger!"  
This is the first time the tiger is addressed with such respect.  
Abruptly, a tiger comes to Terrapin.  
**[Eonmori]** The tiger comes to Terrapin  
A beast comes down through a deep valley with pine trees.  
His body is mottled.  
His tail is more than one meter long.  
He shakes his sharp head.  
His ears are torn apart.  
His hind legs are robust.  
His fore legs are strong.  
He comes down slowly.  
With his long claws, he disturbs the thick sand and the roots  
of the grass.  
He opens his red mouth and roars.  
It seems as if a mountain collapses and the whole world shakes.  
Confused, Terrapin remains motionless with his head pulled in.

**13. (The Tiger and Terrapin Meet.) The tiger comes  
down, sees Terrapin, and tries to eat him.  
Terrapin gives his name without thinking.**

**[Aniri]** The tiger goes down and looks around.  
He mumbles, 'Who called me?'  
Somebody called me a minute ago here. Where is he?  
Yes, I might get into trouble because my ears are sensitive.'

잔말<sup>691</sup>)을 무수히 하고 발밑을 살펴보니  
 꼭 쇠똥 말라진 것이 있겠다.  
 ‘이것이 날 불렀나?  
 아니다. 꼭 도리방석<sup>692</sup>)같이 삼켰구나.’<sup>693</sup>)  
 큰나큰 발로 자래 복판<sup>694</sup>)을 잔뜩이<sup>695</sup>) 눌러놓으니  
 자래가 못 견디어,<sup>696</sup>)  
 “아이고, 무거워 못 살것소.  
 계가<sup>697</sup>) 뉘라시오?”  
 호랑이 놀래어,  
 “나는 백수지장<sup>698</sup>) 호생원 맹호장군<sup>699</sup>)이로다. 너는 무엇이냐?”  
 자래 기가 막혀 속으로 하는 말이, ‘내가 불러놓고 자초재화<sup>700</sup>)로 잘  
 죽는구나.’  
 어찌 무섭고 겁이 나던지 바로 제 이름을 가르쳐주는데,  
 “소어<sup>701</sup>)는 명색<sup>702</sup>)이 수국 자래새끼요,”  
 호랑이가 자래란 말을 듣고 한바탕 재미있게 노는데,  
**[중모레]** 호랑이 반겨 듣고, “얼씨구나, 내 복이야.  
 내 평생 먹은 마음 왕배탕<sup>703</sup>)을 원했더니,  
 자래라니 먹어보자.”  
 자래가 먹자는 소리에 기겁하여,  
 “소어는 자래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먹고 죽는 철남생이<sup>704</sup>)요!”  
 “남생이<sup>705</sup>)라니 더욱 좋다.  
 습기<sup>706</sup>)에는 단약<sup>707</sup>)이요, 치담치습<sup>708</sup>)을 험다 허니  
 약으로만 먹어보자.”  
 “아이고, 나 두꺼비요!”

After talking to himself, the tiger looks down.  
 There is something looking like dry cow dung.  
 He murmurs, 'Did this thing call me?'  
 No. It looks like a round mat.'  
 The tiger presses the middle of Terrapin with this large foot.  
 Not being able to bear the weight, Terrapin speaks,  
 "Ouch. You are so heavy. I might die.  
 Who are you?"  
 The tiger is surprised.  
 "I am the boss of all the animals, General Tiger. What are you?"  
 Struck dumb, Terrapin talks to himself, 'I've brought this trouble  
 upon myself.'  
 He is so scared that his name escapes his own mouth.  
 "I am Terrapin from the sea country, sir."  
 After hearing the word 'terrapin,' the tiger sings and dances.  
**[Jungmori]** Pleased, the tiger says, "Hurrah! I am lucky today.  
 I've wanted to eat terrapin soup all my life.  
 Let me eat a terrapin."  
 Terrapin is petrified to hear the tiger.  
 "I am not a terrapin, sir!"  
 "Then, what are you?"  
 "I am a poisonous tortoise!"  
 "A tortoise is even better.  
 It is the best medicine for wet energy, removing phlegm.  
 Let me take this medicine."  
 "Alas. I am a toad!"

“두꺼비라니 더욱 좋다.

너를 산 채 불에다 살라<sup>709)</sup> 술에 타서 먹고 보면 만병회춘<sup>710)</sup> 명약<sup>711)</sup>이라더라.

그저 먹어보자. 으르르르!”

[창조] 허고 달려들어 놓으니,

자래 기가 맥혀, “아이고, 제기럴 자식이

동의보감<sup>712)</sup>을 얼마나 달통을 했는고,<sup>713)</sup>

나를 이렇게 약 취해<sup>714)</sup> 먹기로 작정을 한 놈도 처음 보았네.”

[중모레] 슬피 통곡 우는 말이,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이제는 내가 못 살겠네.

나의 충성 부족튼가<sup>715)</sup>

객사죽음<sup>716)</sup> 웬일이며,

나 죽기는 싫잖으나

영덕전 병든 용왕을 어느 뉘가 살려주며,

북당<sup>717)</sup>의 학발모친,<sup>718)</sup> 홍안옥빈<sup>719)</sup> 젊은 아내 천리타국<sup>720)</sup>에 나를 보내놓고

오늘이나 소식이 올까, 내일이나 기별<sup>721)</sup> 올거나 기다리고 바랄 적에,

의문망<sup>722)</sup>이 몇 밤이며,

단장곡<sup>723)</sup>이 몇 날이고?

진충보국<sup>724)</sup> 허잖더니<sup>725)</sup>

충성도 못 이루고 객사죽음 웬일이여?”

이렇듯이 슬피 울다가,

“A toad is even better.

If I roast you alive and eat you with wine, I will gain my health back.

Let me take this medicine. Come here!”

**[Song Mode]** The tiger runs at Terrapin.

Dumfounded, Terrapin murmurs, “He is a bastard.

He must have mastered the classic medical book.

I’ve never seen such a villain resolved to eat me as a medicine.”

**[Jungmori]** Terrapin wails.

“I am dying now. I can’t live anymore.

My loyalty to the king must be short.

I can’t believe I am dying in a foreign land.

I don’t mind my dying.

But who will save my sick dragon king in the sea palace?

I left my old mother and young wife, and took a long journey to this foreign land.

They are looking forward to news from me everyday.

How many nights did they wait for me on the gate?

How many days did they sing sad songs?

I wanted to fulfill my duty to my king.

I can’t believe I am dying in a foreign land without fulfilling my duty.”

Terrapin wails as said above.

14. (별주부 호랑이 축송) 별주부가 목이 늘어난 내력을 말하고, 호랑이에게 겁을 주면서 불알을 꼭 물자, 호랑이가 급히 도망한다.

[아니리] ‘아서라,<sup>726</sup> 기왕 죽을 바에는 패술<sup>727</sup>이나 마지막 써보리라.’

움친<sup>728</sup> 목을 길게 빼어 고성<sup>729</sup>으로 허는 말이,

“네 이놈, 나의 성명을 가르쳐 줄 터이니 똑똑히 들어보아라.

나는 남생이도 아니요,

두꺼비도 아니요,

남해 용궁 공신<sup>730</sup> 자라 별나리<sup>731</sup>로다.”

호랑이 무식하여 자래 별 자 모르고,

“별나리? 별나리? 그것 조그만한 것이 직품<sup>732</sup>은 장히<sup>733</sup> 높구나.

그러면 별나리께서 무엇하러 왔으며,

목은 왜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 방정맞게 삼겼는고?”<sup>734</sup>

“네 이놈, 내의 목 근본을 이를 테니 들어보아라.”

[자진모리] “우리 수궁 영덕전 퇴락<sup>735</sup>하야

중창<sup>736</sup>을 하려하고 천여 간<sup>737</sup> 되는 집을 나 혼자 기와 일 제,<sup>738</sup>

충설<sup>739</sup> 끝 돌아가다 한 발 자칫 미끄러져 목으로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더니,

명의다려<sup>740</sup> 문의하니

호랑이 쓸개를 열 보<sup>741</sup>만 먹으면 즉효약<sup>742</sup>이 된다기에,

우리 수궁에서 호랑이 귀신을 칩떠<sup>743</sup> 타고 함경도로 내려가 백두산

호랑이 잡아먹고,

서울로 칩떠 올라 삼각산<sup>744</sup> 호랑이 잡아먹고,

이 산중에 들어와 너를 보니 반가워라.

호랑이귀신 게<sup>745</sup> 있느냐?

14. (Terrapin Expels the Tiger) Terrapin explains how his neck got long, threatens the tiger, and bites the tiger's balls. The tiger runs away.

[Aniri] Terrapin murmurs, 'I am dying anyway. Let me play a trick on the tiger as a last resort.'

He sticks out his long neck and shouts at the tiger.

"You villain. Let me give you my name. Listen carefully.

I am not a tortoise.

I am not a toad.

I am a meritorious official, Terrapin, from the sea palace of the South Sea."

Ignorant, the tiger doesn't understand what Terrapin said.

"Meritorious official? You are tiny, but your rank must be high.

What brought you here?

How come you can pull your neck in and out so repulsively?"

"You fool. Let me explain how I got this neck."

[Jajinmori] "Our sea palace once collapsed.

I lifted tiles up to the roof alone in order to rebuild a large palace.

I made a false step around the corner of the eaves and fell down with my neck first, and it became like this.

I consulted a famous doctor.

If I eat ten tigers' gall bladders, I will be cured immediately.

I rode a tiger-killer, went to Hamgyeong-do Province, ate a tiger of Baekdu Mountain,

came to Seoul, ate a tiger of Samgak Mountain,

came to this mountain, and found you with delight.

Is the tiger-killer there?

비수검<sup>746</sup>으로 호랑이 배 바빠 가르고 쓸개 나오너라.  
 식기 전에 맛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앙금앙금 기어 달려들어  
 호랑이 불알을 꼭 물고 어찌 뽕뽕이<sup>747</sup>를 쳐냈던지,  
 호랑이가 못 견디어,  
 “아이고, 조금만 놓으시오.  
 제일 오장<sup>748</sup> 당겨 못 살겠소.”  
 아무리 떼려고 허여도 떨어지지 않는고  
 무진<sup>749</sup> 더 물고 앞발로 버티니,  
 호랑이 하릴없이 그대로 엎드려져 별주부전에<sup>750</sup> 비는디,  
**[진양조]**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별나리전에 비나  
 이다.  
 나는 오대독신이요.  
 사십이 넘어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sup>751</sup> 일점 혈육<sup>752</sup>이 없으니,  
 만일 요것을 뺏기고 보면 손세<sup>753</sup>를 막게 되니  
 후회막급<sup>754</sup> 절통<sup>755</sup>허요.  
 차라리 여기 대신으로 내 원눈이나 하나 빼 잡수시오!”  
 “이놈, 안 될 말이다.  
 아생연후에 살타라니<sup>756</sup>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놔!”  
 호랑이 기가 맥혀,  
 “아이고! 여기를 놔줘야 쓸개라도 드리지요.”  
**[아니레]** 이만하면 이놈을 반이나 휘어놓았제.<sup>757</sup>  
 더 질게<sup>758</sup> 물고 있다 호랑이가 뒷발질 한 번 해서  
 툭 떨어지는 날이면 호랑이 뱃속으로 직행을 혈 판이니,  
 요것이 인심 쓴 체라고<sup>759</sup> 이빨을 슬그머니 벌려 놓으니,



Cut this tiger's belly open with a sharp knife quickly and take out his gall bladder.

Let me eat it while it is warm."

After finishing, Terrapin runs at the tiger.

He bites the tiger's balls and turns around again and again.

The tiger can't bear the pain.

"Let go of me.

I can't stand this anymore."

The tiger tries to shake Terrapin off.

But Terrapin holds the tiger harder, using his fore legs.

The tiger cannot but back down, begging Terrapin.

**[Jinyangjo]** "I beg you. I beg you, Mr. Terrapin.

I am the only child for five generations in my family.

I went past forty and am approaching fifty, but I don't have a child.

If I lose my balls, my family line will stop.

That is regrettable and deplorable.

Please take out my left eye and eat it instead of my balls!"

"You scoundrel. No way.

If I release you, you will kill me.

Shut up and take out your gall bladder!"

The tiger is stunned.

"Gosh! Let go of my balls first. And I'll give you my gall bladder."

**[Aniri]** The tiger is submissive now to Terrapin.

If Terrapin keeps biting the tiger, the tiger will kick Terrapin with his hind leg.

Terrapin will fall down and go right into the tiger's belly.

Terrapin pretends that he is generous to the tiger, slowly opening his mouth.

호랑이가 이 틈에 막 도망을 가는데,  
**[휘모리]** 호랑이 몽구렸다<sup>760</sup> 펄쩍 뛰어 달아난다.  
 큰 싸움에 화살 단듯,<sup>761</sup>  
 조총<sup>762</sup>에서 철환<sup>763</sup> 단듯,  
 초가성<sup>764</sup>에 놀란 패왕<sup>765</sup> 겨우 난출<sup>766</sup>허는 격으로<sup>767</sup> 태산을 넘  
 어, 강수<sup>768</sup> 지내어  
 인흘불견<sup>769</sup> 간 곳 없다.

## 15. (별주부 산신제) 별주부가 산신제 준비를 하고 축문을 지어 읽으며 토끼 만나기를 기원한다.

**[아니리]** 겁김에 어찌 뛰었던고 해남 관머리<sup>770</sup>에서 의주 압록강변까  
 지 뛰어  
 숨을 내쉬고 한편을 살펴보니,  
 철남생이<sup>771</sup>란 놈이 목을 뽀쫂쫂롬<sup>772</sup> 내놓고 다박다박<sup>773</sup> 호랑이  
 앞으로 걸어 들어오니,  
 “그놈 그새<sup>774</sup> 여기 온다!”  
 또 거기서 뛰어논 것이  
 저 함경도 쇠스랑고개<sup>775</sup>에 덜름<sup>776</sup> 앓어  
 쫓겨온 놈이 장담<sup>777</sup>을 허것다.  
 “내 용맹이나 된개<sup>778</sup> 살아왔지,  
 만일 내가 용맹이 없었으면 지금쯤 그놈 뱃속에 들어 굳었으렷다.<sup>779</sup>  
 그러나 그놈 이빨 힘 대단허다.  
 우수이<sup>780</sup> 쫓쫓 애리네그려.”<sup>781</sup>

Using the opportunity, the tiger runs away.

**[Hwimori]** The tiger prepares to run and moves fast.

He moves like an arrow in a war.

He moves like a bullet from a rifle.

He goes over a mountain and crosses a river as an ancient king  
fled from his enemy.

He slowly disappears.

**15. (Terrapin's Ritual to Mountain God). Terrapin  
prepares for a ritual to a mountain god, composes  
a written prayer, and recites it, praying that he  
meets a hare.**

**[Aniri]** The tiger was so scared that he runs from the  
southernmost to the northernmost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He breathes and looks at a certain place.

A tortoise pushes out his head a little and walks slowly at the  
tiger.

"He followed me all the way here!"

The tiger runs fast from there.

He sits on a mountain pass in Hamgyeong-do Province.

Although he is a fugitive, he speaks with confidence.

"I escaped alive because I was brave.

If I had not been brave, I must be dead in his belly now.

By the way, his teeth are really strong.

My balls are hurt."

그때에 별주부는 간신히 범을 쫓고 곰곰이 생각하니,  
 ‘호랑이라 하는 짐승은 산중지영물<sup>782)</sup>이라,  
 나의 충성과 지기<sup>783)</sup>를 보려하고 산심님이 변화<sup>784)</sup>하여 그런 줄 모  
 르니,  
 산신님을 위하여 산제<sup>785)</sup>나 착실히 지내보리라. 허고,’  
**[중모레]** 반송가지<sup>786)</sup> 꺾어내려  
 광석암상<sup>787)</sup> 살살<sup>788)</sup> 끌고,  
 추풍낙엽<sup>789)</sup>으로 자리 삼어 골라 펴고,  
 떨어진 산과목실<sup>790)</sup> 삼색<sup>791)</sup>으로 주워다가  
 좌홍우백<sup>792)</sup> 갈라 피고,<sup>793)</sup>  
 맑고 맑은 석간수<sup>794)</sup> 제주<sup>795)</sup> 삼어 부어놓고,  
 은어 단치<sup>796)</sup> 잡어다가 우양<sup>797)</sup>으로 대<sup>798)</sup>를 허고,  
 석하에<sup>799)</sup> 꿰좌<sup>800)</sup>하여 분향재배<sup>801)</sup> 독축<sup>802)</sup>허는구나.  
**[축문]** “갑신 팔월 계유 삭<sup>803)</sup> 초칠일,  
 남해신<sup>804)</sup> 별주부는 감소고우산신국수전하노니<sup>805)</sup>  
 남해 용왕이 우연득병하야<sup>806)</sup>  
 백약<sup>807)</sup>이 무효키로  
 명의에게 문의헌즉,<sup>808)</sup>  
 진세퇴간<sup>809)</sup>을 쓰면 비단신병지거근하고<sup>810)</sup> 겸차연년익수운운고  
 로,<sup>811)</sup>  
 도월원해삼만리허여<sup>812)</sup> 신궁재도차산에<sup>813)</sup> 비금주수<sup>814)</sup>가 만산왕  
 래<sup>815)</sup>허오나,  
 본시<sup>816)</sup> 해중지소생<sup>817)</sup>으로 난변퇴자<sup>818)</sup>허여  
 자감민박지정을 대강 양고하오니,<sup>819)</sup>  
 복결신령은 하감주부지충하사<sup>820)</sup>  
 차산중일개퇴만<sup>821)</sup> 즉이지급하옵시기를<sup>822)</sup>

Meanwhile, Terrapin ponders after he managed to get rid of the tiger.

He murmurs, 'A tiger is a divine animal in mountains.

It might be that a mountain god appeared in the form of the tiger to test my will and courage.

Let me conscientiously hold a ritual to the mountain god.'

**[Jungmori]** Terrapin pulls off a small pine branch.

He brushes dirt off a rock with the branch

He spreads fallen leaves and uses them as a mat.

He picks up fallen fruit of diverse colors.

He puts red fruit on the left and white fruit on the right.

He uses the clear water from rocks as an offering wine of the ritual.

He catches a fish and uses it instead of a cow and a sheep of the ritual.

He kneels down by rocks, burns incense, bows twice, and recites a ritual prayer.

[Ritual Prayer] "This ritual prayer begins on Aug 7.

Terrapin from the sea palace prays to a mountain god.

The dragon king got sick suddenly.

All sorts of medicines didn't work.

We consulted a renowned doctor.

He said a hare's liver could not only cure the dragon king but also lengthen his life.

I took a long journey from the sea to this mountain and saw birds fly and other animals run.

Born in the sea, I can't identify a hare.

So I speak to you about my worry briefly.

Kneeling down, I pray that the mountain god is sympathetic to me.

Please grant me a hare from this mountain.

비무후간<sup>823)</sup>

근이청작<sup>824)</sup> 지천우신<sup>825)</sup>

복유<sup>826)</sup> 상사<sup>827)</sup> 상향.”<sup>828)</sup>

## 16. (별주부 토끼 상면) 별주부가 토끼를 발견하고 토생원 이냐고 물으니 토끼가 좋아하며 내려온다.

[아니리] 재배<sup>829)</sup> 후 일어나 좌우를 살펴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sup>830)</sup>

한 짐승이 내려오던가 보더라.

[중중모리] 그림청택요림중<sup>831)</sup> 한 짐승이 내려온다. 한 짐승이 내려  
온다.

정신이 썩썩허고

이목<sup>832)</sup>이 정직허여

월중토<sup>833)</sup> 기상이라.

자래 목 속의 화상 내어 토끼 보고 화상 보니,

월중토 망월토<sup>834)</sup> 안면이 적실허니,<sup>835)</sup>

‘옳다. 저것이 토끼다.

아까는 내가 잘못 불러 호랑이 만나 봉패<sup>836)</sup> 보았으나,

이번은 되게<sup>837)</sup> 붙여보리라.’<sup>838)</sup> 허고,

“퇴, 퇴, 퇴, 퇴생원!” 허고 불러놓으니,

토끼가 듣고서 좋아라, 토끼가 듣고서 반가라,<sup>839)</sup>

“거<sup>840)</sup> 뉘가 날 찾나? 거 뉘가 날 찾아?

날 찾을 이가<sup>841)</sup> 없건마는 거 누가 날 찾아?

기산<sup>842)</sup> 영수<sup>843)</sup> 소부<sup>844)</sup> 허유<sup>845)</sup> 지의허자고<sup>846)</sup> 날 찾아?

I wish everything goes well.  
I respectfully offer this glass of clear wine to the god.  
Please take these offerings.”

**16. (Terrapin Meets Hare.) Terrapin spots a hare and asks him whether he is a hare. Hare happily comes to Terrapin.**

[Aniri] After the ritual, Terrapin stands up and looks around.  
Heaven is moved by Terrapin’s conscientious effort.  
An animal comes to Terrapin.  
[Jungjungmori] An animal comes to Terrapin from a beautiful forest of a blue mountain.  
He looks energetic.  
His ears and eyes look clear.  
He looks like a hare on the moon.  
Terrapin takes the picture out of the back of his neck and looks at both the picture and the hare.  
He realizes that the animal is a hare.  
He mumbles, ‘Yes, that is a hare.  
A while ago I mispronounced a hare’s name and got into trouble with the tiger.  
This time, I will pronounce his name correctly.’  
He says, “Mr. Hare!”  
Hare is pleased and delighted to hear Terrapin.  
“Who is looking for me? Who are you?  
I am not expecting anybody. Who is looking for me?  
Are ancient hermits asking me to live a reclusive life with them?

계명산<sup>847)</sup> 통소 불어<sup>848)</sup> 팔친병<sup>849)</sup>을 홀트릴<sup>850)</sup> 제 동의청병<sup>851)</sup>이  
날 찾아?

도화유수<sup>852)</sup> 무릉<sup>853)</sup> 가자 거주속객<sup>854)</sup>이 날 찾아?

상산사호<sup>855)</sup> 네 노인이 바둑을 두자고 날 찾아?

건년산 과부토끼가 연분<sup>856)</sup>을 땃자고 날 찾아?”

이리로 깡충, 저리로 깡충, 자우뚱거리고<sup>857)</sup> 내려온다.

## 17. (토끼 흥미 자랑) 별주부가 토끼를 만나 흥미를 묻자 토끼가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며 얘기한다.

[아니리] 이렇게 내려오다가 딱 받아놓은 것이,

“아이고, 이마야!”

“아이고, 코야!”

“이 양반아, 초면<sup>858)</sup>에 남의 이마는 왜 이렇게 받소?”

“오비이락<sup>859)</sup>이요.

이녁<sup>860)</sup> 이마 아픈 줄만 알제,

남의 코 아픈 것은 모른단 말이오?

그러나저러나 우리가 초면에 만났으니

통성명<sup>861)</sup>이나 험시다.

게<sup>862)</sup> 뉘라 허오?”

“예, 나는 천상월궁<sup>863)</sup>에서 이음양순사시<sup>864)</sup>허고 대소월<sup>865)</sup>을 갈음  
허며<sup>866)</sup> 화초를 분별허든 예부상서<sup>867)</sup> 월중퇴<sup>868)</sup>리니,

도약취중에<sup>869)</sup> 장생약<sup>870)</sup> 그릇 짓고

상제전<sup>871)</sup> 득죄하여<sup>872)</sup> 차산중<sup>873)</sup>에 적하<sup>874)</sup>허니,

세상에서 이르기를 그래도 명색이 토공선생이라 대접허오.”



The sound of a flute scattered eight thousand soldiers over a mountain. Are they looking for me?

Is a person asking me to go to a paradise together and offering wine to me?

Are four old men looking for me to play go with them?

Is the widow hare from the neighboring mountain proposing a date?"

Hare jumps here and there, and comes unsteadily to Terrapin.

**17. (Hare brags about his life.) After meeting Hare, Terrapin asks him about his life. Hare brags about his life.**

[Aniri] While coming to Terrapin, Hare collides with him.

"My forehead hurts."

"My nose hurts!"

"Why did you bump into my forehead on the first time we met?"

"That was an accident.

You know your forehead hurts.

How come you don't know my nose hurts?

By the way, we just met.

Let's exchange names.

Who are you?"

"I am Hare on the moon. I was a ceremonial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mooth change of seasons, the phase of the moon, and the growth of flowers.

Drunk, I made an elixir incorrectly.

The king of gods punished me, expelling me to this mountain. But I am treated with respect in this world, calling me Mr. Hare."

자래 퇴명<sup>875)</sup> 반기<sup>876)</sup> 듣고,  
 “반가운 말씀이요.  
 나는 남해 용궁의 별주부러니,  
 즉문진세지성명하고 불원천리이래러니,<sup>877)</sup>  
 피차<sup>878)</sup> 이리 만나기는 천만몽외<sup>879)</sup>요,  
 구양성화<sup>880)</sup>러니 하상견지내아들이요.”<sup>881)</sup>  
 토끼 들더니, “나도 유식하지마는 별주부도 문장<sup>882)</sup>인 것 같소.  
 우리 두 문장이 만났으니, 문자지름<sup>883)</sup>이나 한번 험시다.”  
 “그릅시다.”  
 “피차 이리 만나기는  
 출가외인<sup>884)</sup>이요.”  
 “양상화매<sup>885)</sup>요.”  
 “법지불행은 장고통속이요.”<sup>886)</sup>  
 “우이독경<sup>887)</sup>이요.”  
 “막비왕토요.”<sup>888)</sup>  
 “여필종부<sup>889)</sup>요.”  
 “숙불환생<sup>890)</sup>이요.”  
 “여담절각<sup>891)</sup>이요.”  
 “세모방천<sup>892)</sup>이요.”  
 “아가사창<sup>893)</sup>이요.”  
 “어동육서<sup>894)</sup>  
 흥동백서<sup>895)</sup>  
 좌포우혜<sup>896)</sup>  
 분향재배<sup>897)</sup>요.”  
 “친사돈통가문<sup>898)</sup>이요.”  
 “일구이언허는 자는 삼천억부지자라.”<sup>899)</sup>

Terrapin is pleased to hear the name 'Hare.'  
 "I am glad to hear your words.  
 I am Terrapin from the sea palace of the South Sea.  
 I heard about this land and came from the sea palace far from  
 here.  
 I didn't expect I would meet you here.  
 I admired your fame for a long time."  
 Hare responds, "I am knowledgeable, but you speak profound  
 sentences too.  
 Since we met, let's play the game of speaking profound  
 sentences."  
 "That's a good idea."  
 "We just met each other.  
 Once a woman is married, she is no longer a member of her  
 biological family."  
 "A seller and a buyer strike a deal."  
 "A violation of a law involves a noise."  
 "You can't teach a cow how to read."  
 "Any place is owned by the king."  
 "A wife should follow her husband."  
 "Once a food is cooked, it can't become raw."  
 "My ox's horn is broken because of your fence."  
 "A hair can prevent a leakage of water through a bank."  
 "Your criticism against me can be directed to you."  
 "Fish to the east, and meat to the west.  
 Red fruit to the east, and white fruit to the west.  
 Dried meat to the left, and a sweet rice drink to the right.  
 We burn incense and bow twice."  
 "There is an open gate between two families-in-law."  
 "Contradicting oneself is like having three hundred billion  
 fathers."

토끼 육먹는 줄 모르고,  
 “거 나도 유식하지마는 참말로 별주부도 문장이요.”  
 “그런데 퇴선생 어찌 왔소?”  
 “아, 불렀기에 왔지.  
 별주부는 어찌 왔소?”  
 “세상이 좋다기로 구경차<sup>900</sup>)로 나왔으나,  
 당최<sup>901</sup>) 세상 흥미를 모르겠으니  
 퇴선생이 알면 좀 알려주소.”  
 토끼 요놈이 제 자랑을 늘어놓는디,  
**[중모레]** “이 내 몸이 한가하여,  
 일모황혼<sup>902</sup>) 잠이 들었다가 월출동령<sup>903</sup>) 잠을 깨어  
 진세간<sup>904</sup>)에 배회할 제,  
 임자 없는 녹수청산<sup>905</sup>) 내집 삼어 왕래하고,  
 값 없는 산과목실<sup>906</sup>) 양식 삼어 포식<sup>907</sup>)허니  
 신여부운무시비<sup>908</sup>)라 명산 찾아서 완월<sup>909</sup>)할 제,  
 여산<sup>910</sup>) 동남 오로봉<sup>911</sup>)과  
 진국명산<sup>912</sup>) 만장봉<sup>913</sup>)과  
 석교무산십이봉,<sup>914</sup>) 봉래 · 방장 · 영주 삼산<sup>915</sup>)이며,  
 태산 · 숭산 · 형산 · 화산<sup>916</sup>)  
 만학천봉,<sup>917</sup>)  
 천태산,<sup>918</sup>) 아미산,<sup>919</sup>) 수양산,<sup>920</sup>)  
 동금강,<sup>921</sup>) 서구월,<sup>922</sup>) 남지리,<sup>923</sup>)  
 북향산,<sup>924</sup>) 가야산, 속리산을 편답<sup>925</sup>)하고,  
 무산<sup>926</sup>)의 낙조경<sup>927</sup>)과 양곡<sup>928</sup>)의 일출경<sup>929</sup>)을 역력히<sup>930</sup>) 보았으나,

Hare doesn't know he is looked down upon.  
 "I am knowledgeable, but you speak profound sentences too."  
 "By the way, what brought you here, Mr. Hare?"  
 "I am here because someone called me.  
 What brought you here, Mr. Terrapin?"  
 "I heard the land is beautiful. I am here for sightseeing.  
 I have no idea what is great about living here.  
 Please tell me about living here."  
 Hare brags about his life.  
**[Jungmori]** "I am free here.  
 I get up at twilight, when the moon rises over a peak in the east.  
 I wander around in the land.  
 I move around in unowned nature, taking it as my home.  
 I eat fruit for free until I become full.  
 I visit famous mountains leisurely because I am free.  
 I visited Wulau(五老) Peaks looking like old men,  
 a peak on which the future of a country depends, a high peak,  
 twelve mountain peaks, Penlai(蓬萊) Mountain, Fangzhang(方丈)  
 Mountain, Yingzhou(瀛洲) Mountain,  
 Tai(泰山) Mountain, Son(嵩) Mountain, Heng(衡) Mountain,  
 Hua(華) Mountain,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s,  
 Tiantai(天台) Mountain, Emei(峨眉) Mountain, Shouyang(首陽)  
 Mountain,  
 Geumgang(金剛) Mountain in the east, Guweol(九月) Mountain  
 in the west, Jiri(智異) Mountain in the south,  
 Hyang(香) Mountain in the north, Gaya Mountain, and Songni  
 Mountain.  
 I clearly watched the sunset on Wu(巫) Mountain and the sunrise  
 on a valley.

등태산소천하<sup>931</sup>) 공부자<sup>932</sup>)의 대관<sup>933</sup>)인들 이에서 더할쏘냐?  
안기생<sup>934</sup>) 적송자<sup>935</sup>)도 나의 제자 삼어두고 장생불로<sup>936</sup>) 가르치며,  
이따금 심심하면 종아리를 땅땅 치니  
이 내 호강<sup>937</sup>)이 어떠헉가?”

## 18. (토끼의 팔난) 별주부가 토끼의 험난한 삶을 말하며 겁을 준다.

[아니레] 자라 듣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씀이오.  
세상의 제일가는 호걸이오.  
그러나 퇴선비 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은 일색<sup>938</sup>)이나 미간<sup>939</sup>)에 화망살<sup>940</sup>)이 들어,  
죽을 액<sup>941</sup>)이 여덟이시.<sup>942</sup>)  
팔난세상<sup>943</sup>) 자네로다.”  
토끼 어이없어,  
“내 상<sup>944</sup>)이 설령 그리할지라도, 초면에<sup>945</sup>) 그다지 박절하게<sup>946</sup>) 말씀  
을 하신단 말이오?  
내가 말은 허되,  
사실은 목 안의 숨은 하나도 없소.”  
“퇴서방 팔난세상 내 이를 테니 들어보소.”  
[자진모리] “일개 한토<sup>947</sup>) 그대 신세  
삼춘구추<sup>948</sup>) 다 지내고,  
대한<sup>949</sup>) 엄동<sup>950</sup>) 설한풍<sup>951</sup>) 만학에<sup>952</sup>) 눈 쌓이고  
천봉에<sup>953</sup>) 바람칠 제,

I felt better than Confucius who said the world looked small  
from the top of Tai(泰) Mountain.  
I treat two legendary gods as my students, teaching them how  
to live long without growing old.  
When bored, I lash their calves.  
Isn't my life great?"

### 18. (Hare's Eight Hardships) Terrapin threatens Hare, telling him about Hare's hard life.

[Aniri] After hearing Hare, Terrapin responds,  
"How great your life is!  
You are a great figure in the world.  
But your face forebodes your future.  
It looks good, but the space between your eyebrows indicates  
you will be killed by fire.  
You will go through eight crises.  
Your life is filled with eight hardships."  
Hare is stunned.  
"Even if my fate is bad, how can you say such cruel words to  
me when we just met?  
I bragged about my life.  
To tell the truth, however, my life is precarious."  
"Let me tell you about your eight hardships. Listen."  
[Jajinmori] "You are just a hare with a trivial fate.  
Spring and autumn go.  
In cold winter, snow piles up on numerous valleys.  
A wind blows hard on numerous peaks.

화초목살<sup>954</sup> 바이없어<sup>955</sup>  
 어둑한<sup>956</sup> 바위틈 벗 없이 앓은 모양  
 채운<sup>957</sup> 편월<sup>958</sup>의 무관수<sup>959</sup> 초희왕<sup>960</sup>의 원한이요,  
 일월고초복해상 소중량<sup>961</sup> 원혼이라.  
 주려 죽을 자네 몸이 삼동<sup>962</sup> 고생을 다 지내고,  
 벽도홍행<sup>963</sup> 춘이월<sup>964</sup>에 주린 구복<sup>965</sup>을 채우려고 심곡심산<sup>966</sup> 기  
 다닐<sup>967</sup> 제  
 골골이 묻은 것은 목달개<sup>968</sup> 엄착귀<sup>969</sup>요,  
 기슭으로 도는 것은 사냥개 물이꾼,  
 험산곡<sup>970</sup> 있는 것은 토끼 잡는 아호<sup>971</sup>라.  
 송하에<sup>972</sup> 숨은 것은 불 잘 놓는<sup>973</sup> 저 포수,  
 오는 토끼 놓으려하고<sup>974</sup> 왜물<sup>975</sup> 조총<sup>976</sup> 약<sup>977</sup>을 잡어  
 대둔쟁이<sup>978</sup> 철환<sup>979</sup> 넣어 불 박아<sup>980</sup> 손에 들고 은근히 앓었다,  
 토끼 앞에 당도하면 좀 뒤, 좀 앞 단속하야,  
 반달같은 방아쇠,  
 고추같은 불을 당겨<sup>981</sup>  
 한 눈 재그리고<sup>982</sup> 반만 일어서서,  
 닫는 토끼 쨍그려 보고 ‘꾸루루루 팡.’”  
 헛총<sup>983</sup> 놓으니,<sup>984</sup>  
 토끼 깜짝 놀래,  
 “아이고, 그 총소리 좀 내지 마오.  
 우리 삼대가 총으로 다 망했소.”  
 “사면으로 두른 것은 토끼 잡는 그물이라.  
 은왕성탕<sup>985</sup> 가신 후에 그 그물을 누가 들며,  
 들로 내려 토끼 은신,  
 수풀 속의 막대로 뚜드리며, ‘위리 오호’ 쫓는 것은 술 먹은 초동<sup>986</sup>이라.



Flowers, grasses, and fruits are gone.  
 You sit alone between dark rocks.  
 Your fate is the same as that of the ancient king who died below  
 radiant clouds and the crescent moon.  
 Your life is as hard as that of the ancient diplomat who lived  
 in a hut near the Caspian Sea.  
 You almost starve to death and manage to hang on in winter.  
 When peach and apricot blossoms bloom in spring, you wander  
 around deep mountains and valleys to fill your empty stomach.  
 Snares and traps are hidden in every valley.  
 Chasers and hunting dogs move to the foot of a mountain.  
 A hungry tiger is in a rugged valley.  
 A hunter hiding under a pine tree is a sharp shooter.  
 In order to catch you, he puts gunpowder in a Japanese rifle.  
 He also puts a heavy bullet in it, kindles fire, and holds the rifle,  
 waiting for you.  
 If you arrive in front of him, he aims at you.  
 The trigger looks like the half moon.  
 He kindles fire as red as pepper.  
 He squints his eye and stands half way up.  
 You run, but he frowns at you. Bang!"  
 Terrapin mimics a gunshot.  
 Hare is startled.  
 "Gosh, stop mimicking the gunfire.  
 All of my family members perished because of rifles."  
 "Nets to catch hares are set up in every direction.  
 Who will get rid of the nets for the sake of you?  
 You run to the field and hide there.  
 Drunken woodcutters hit the bush with sticks and chase you  
 with their dogs.

그대 신세 생각하면 적벽강상전패허든<sup>987)</sup> 조맹덕<sup>988)</sup>의 정신이요,  
작은 눈 부릅뜨고,  
짜룬<sup>989)</sup> 쏜지<sup>990)</sup> 뒤로 끼고,  
암상<sup>991)</sup> 고석<sup>992)</sup> 절벽상에 바빠바빠 도망갈 제,  
입궁기<sup>993)</sup> 쓴 내<sup>994)</sup> 나고,  
밑궁기<sup>995)</sup> 조총 놓을 제<sup>996)</sup>  
조생모사<sup>997)</sup> 자네 신세  
한가허다고 뉘 이르며,  
만산풍경<sup>998)</sup> 좋다헌들  
무삼<sup>999)</sup> 정<sup>1000)</sup>으로 유산,<sup>1001)</sup>  
무삼 경황<sup>1002)</sup>에 완월?<sup>1003)</sup>  
아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다는  
그런 거짓말일랑은 뉘 앞에다가 내어 씹나?"<sup>1004)</sup>

## 19. (수궁 흥미) 별주부가 수궁의 온갖 자량을 늘어놓으며, 토끼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아니리] 토끼 듣고 뉘이 없어,  
“여보, 그러면 수궁 풍경 소식 좀 들어봅시다.”  
“말이라 허는 것은 들으면 병이지요.  
팔난세상 살던 이가 수궁풍경 흥미 듣고 가자하면 뉘 수 없고,  
가기로 하면 한 등짐<sup>1005)</sup> 헐 터이니,  
차라리 안 듣는 것이 낫지요.”  
토끼 듣고 하는 말이,  
“주부공<sup>1006)</sup> 유식헌 것 같어도 무식허오그려.

You feel like the ancient premier, Cao Cao(曹操), who lost a war in Chibi(赤壁) River.  
You open your small eyes wide.  
Your short tail touches your back.  
You flee on the rocks covered with moss on a cliff.  
You taste bitter in your mouth.  
You are shot on the back.  
Your life is always in jeopardy.  
Who says you are free?  
Mountains are beautiful?  
But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visit mountains for fun?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enjoy the moon?  
A few minutes ago, you said you lashed the calves of gods.  
Do you think I would buy such a blatant lie?"

**19. (Good Things about Sea Palace) Terrapin boasts of the sea palace, proposing that Hare go there with him.**

[Aniri] Hare is struck dumb.  
"Hello. If so, please tell me about the sea palace."  
"If you hear about it, you will become impatient.  
Given that you live in the eight hardships, you will ask me to take you there, and I won't be able to push you off.  
I can't take you there either because you will be a burden to me.  
You had better not hear about the sea palace."  
Hare speaks,  
"I thought you are knowledgable, but in fact you are ignorant.

봉우유신<sup>1007</sup> 추우강남<sup>1008</sup>)이란 말도 못 들었소?  
 혼자만 안락하고 벗은 모르니  
 그 아니 한심인가?”  
 별주부 이 말 듣고 속으로 좋아라고,  
 “오, 그렇다면 내 이르게 들어보오.”  
 이놈이 역으로<sup>1009</sup> 유인을 허는디,  
**[아니레]** “우리 수궁 장관<sup>1010</sup>)이라.  
 천양지간<sup>1011</sup>)에 해내최대<sup>1012</sup>)하고,  
 만물지중에<sup>1013</sup> 신위최령<sup>1014</sup>)이라.  
 무변대해<sup>1015</sup>)에 영덕전 높은 집을 천여 간<sup>1016</sup>) 지었으되,  
 호박 기둥,  
 황금 주추,<sup>1017</sup>  
 산호주<sup>1018</sup>)로 난간하니,  
 주궁패궐<sup>1019</sup>)은 영룡허여 삼광<sup>1020</sup>)을 응하였고,  
 곤의수상<sup>1021</sup>) 황홀하야 오복<sup>1022</sup>)을 가졌으니,  
 우리 용왕 즉위하사<sup>1023</sup>) 만족<sup>1024</sup>)이 귀시하고,<sup>1025</sup> 백성이 양덕<sup>1026</sup>)  
 이라.  
 앵무<sup>1027</sup>) 금잔<sup>1028</sup>) 천일주<sup>1029</sup>)와  
 천빈옥반<sup>1030</sup>)의 불로초<sup>1031</sup>) 빈사과<sup>1032</sup>)를 싫도록 자신<sup>1033</sup>) 후에,  
 수궁 미색<sup>1034</sup>) 수십 명, 갓은 풍류<sup>1035</sup>) 세악수<sup>1036</sup>) 좌우로 가득 세우고,  
 자연거수승거산<sup>1037</sup>)이라.  
 요지<sup>1038</sup>)로 들어갈 제,  
 칠백 리 군산<sup>1039</sup>)은 물 속에 벌여 있고,  
 삼천사장<sup>1040</sup>) 해당화는 약수<sup>1041</sup>)에 붉어 있다.  
 한가 태평하야 월청명<sup>1042</sup>)  
 추강상<sup>1043</sup>) 어적소리<sup>1044</sup>) 화답<sup>1045</sup>)허며,

Friendship is an important value in our life.  
 You enjoy happiness, but don't care about your friend.  
 Isn't that deplorable?"

Deep in his mind, Terrapin is pleased to hear what Hare said.  
 "If you insist, let me tell you about the sea palace."  
 Terrapin implicitly tempts Hare to the sea palace.

**[Aniri]** "My sea palace is spectacular.  
 The sea is the largest thing between heaven and earth.  
 God is the most sacred thing in the world.  
 The sea palace is high and wide in the limitlessly large sea.  
 Pillars are made of amber.  
 Cornerstones are made of gold.  
 Balustrades are made of coral beads.  
 Pearls and clams of the sea palace are brilliant like the sun, the  
 moon, and stars.  
 The emperor's trousers are embroidered and splendid, bringing  
 about blessings.  
 When my king came to the throne, all the people treasured him  
 and looked up to him.  
 A thousand-day-old wine is served on a shell and a golden glass.  
 You can avail yourself of elixir plants and snack on a wide jade  
 tray.  
 Dozens of beautiful girls dance in accordance with many sorts  
 of music.  
 You will say living in the sea is better than in the land.  
 A boat arrives at a divine pond.  
 Many mountains are reflected on the pond.  
 Wild roses are red on a long sandy field of a divine river.  
 The sea is peaceful, and the moon is bright.  
 We respond to a fisherman's flute on an autumn river.

경수<sup>1046</sup>) 위수<sup>1047</sup>) 낙수<sup>1048</sup>) 회수<sup>1049</sup>) 양진<sup>1050</sup>) 포진<sup>1051</sup>) 팽예<sup>1052</sup>)  
 소상<sup>1053</sup>) 흑거흑래<sup>1054</sup>) 노닐 적에,  
 적벽강<sup>1055</sup>) 소자침<sup>1056</sup>)과  
 구선하던<sup>1057</sup>) 유룡<sup>1058</sup>)이며,  
 애월하던<sup>1059</sup>) 태백<sup>1060</sup>)이도  
 수궁 풍경 보았으면 세상에서 머물쏘냐?  
 원컨대 토선생도 나를 따라 수궁 가면 늙름한 저 풍신<sup>1061</sup>)에 용호대  
 장<sup>1062</sup>) 틀림없네.  
 물실차기<sup>1063</sup>) 따라가세.”

## 20. (여우 만류) 토끼가 별주부를 따라 수궁을 가는데, 여우 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토끼 듣고 허는 말이,  
 “참말로 따라갔으면 좋겠소마는  
 수궁천리 먼먼 길에 일거<sup>1064</sup>)  
 소식 끊어지면 그 아니 원통허오?”  
 별주부 듣고 또 다시 구변<sup>1065</sup>)을 내는디,  
 [중중모리] “수궁천리 머다 마소. 수궁천리 머다 마소.  
 맹자도 불원천리<sup>1066</sup>) 양혜왕<sup>1067</sup>)도 가 보았고,  
 위수<sup>1068</sup>) 어부 강태공<sup>1069</sup>)도 문왕<sup>1070</sup>) 따라 귀히<sup>1071</sup>) 되고,  
 한기도창촉도란의 황면장군 한신이<sup>1072</sup>)도 소하<sup>1073</sup>) 따라 한중<sup>1074</sup>)  
 가서 일국의<sup>1075</sup>) 재상이 되었으니,  
 원컨대 퇴선생도 나를 따라 수궁에 가면 늙름헌 저 풍신<sup>1076</sup>)에 혼련  
 대장<sup>1077</sup>)을 혈 것이니,

We travel to and come back from famous rivers, their tributaries,  
ports, lakes, and sites famous for scenic beauty.  
An ancient poet had good time on a river.  
An ancient king wanted to become a god.  
Another ancient poet loved the moon.  
Had they known the sea palace, they would not have lived in  
the land.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certainly become  
a brave general, given that you look majestic.  
Don't miss out on this chance. Let's go."

## **20. While Hare follows Terrapin to the sea palace, a fox shows up and tries to dissuade Hare from going.**

[Aniri] Hare speaks,  
"I wish I could follow you to the sea palace.  
The sea palace is far from here.  
I am afraid I might not be able to come back."  
Terrapin becomes eloquent again.  
[Jungjungmori] "Don't say the sea palace is far from here.  
Mencius visited a king, taking a long journey.  
An ancient fisherman of a river, Jiang Taigong(姜太公), followed  
a king and lived a precious life.  
An ancient military officer who led his soldiers to a muddy road  
followed a politician and became a premier.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become the general  
of the military academy, given that you look majestic.

염려 말고 따라가세.”

[아니리] 하여튼 우리 인간 세상이나 짐승들이나 벼슬은 좋아 했던가,  
훈련대장 시켜준다 허니 호감이 잔뜩 나서,  
요놈이 따라나서기로 작정을 했든가 보더라.

[중모리] 자라는 앞에서 앙금앙금<sup>1078)</sup>

토끼는 뒤에서 깡충깡충

원로해변<sup>1079)</sup>을 내려갈 제,

저 건너 바우 밑에 깊이 묻힌 여호<sup>1080)</sup>가 썩 나서,

“이애, 토끼야!”

“왜야?”

“너 어디 가느냐?”

“나 별주부 따라서 벼슬허러 간다.”

“허허, 자식 어린지고.<sup>1081)</sup>

너희 둘이 수작혈 적 내 여기 근처 앓아 다 들었다.

가지 말아라. 가지를 마라.

내 말 듣고서 가지를 마라.

수궁에 들어가면,

칼 잘 쓰던 연인<sup>1082)</sup> 형가<sup>1083)</sup> 역수한풍<sup>1084)</sup> 슬픈 소리 장사일거<sup>1085)</sup>

저 못 왔고,

소상강<sup>1086)</sup> 모운간<sup>1087)</sup>에 제녀<sup>1088)</sup>도 울어 있고,

연년춘초<sup>1089)</sup> 푸른 곳에 왕손<sup>1090)</sup>도 귀불귀라.<sup>1091)</sup>

토끼 너도 수궁에 들어가면 돌아오지는 못허리라.

수궁인즉<sup>1092)</sup> 위방<sup>1093)</sup>이라.

위방불입<sup>1094)</sup>이요,

난방불거<sup>1095)</sup>라.

가지 말아라. 가지를 마라.

내 말 듣고서 가지를 마라.”



Don't worry. Let's go."

[Aniri] Whether humans or animals, they like a government position.

Hare is moved by the suggestion that he will become the general.

Hare makes up his mind to follow Terrapin.

[Jungmori] Terrapin toddles ahead of Hare.

Hare scampers behind Terrapin.

They take the long journey to the shore.

A neighboring fox comes out from the deep lair between rocks.

"Hello, Hare!"

"What?"

"Where are you going?"

"I am following Terrapin to the sea palace."

"Gee, how foolish you are!"

When you talked with Terrapin, I was here and heard you two.

Don't go there.

Listen to me. Don't go there.

You can't come back from the sea palace.

An ancient swordman never returned, after saying goodbye to his friends by a river when a cold wind blew.

Two ancient queens wept when the sun set over a river.

Grass rose up every spring, but a descendent of a king couldn't come back.

Hare, you will not return either if you go to the sea palace.

The sea palace is a dangerous country.

A dangerous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A disorderly country is not to be lived in.

Don't go to the sea palace.

Listen to me, and don't go there."

## 21. (별주부 토끼 유인) 토끼가 주저하자 별주부가 토끼를 유인하여 수궁으로 출발한다.

[아니레] “허, 나 오늘 우리 여우 사촌 아니었드라면 큰일 날 뻔했  
고.<sup>1096)</sup>

별주부 잘 가시오.

나는 오던 길로 돌아가다 맹감<sup>1097)</sup>이나 따 먹지.”

깡충깡충 뛰어가니,

자래 어이없어,

“여보, 토선생. 토선생 생긴 것이 복이 없으니 할 수 없소.

가기는 가시오마는 내의 말을 듣고 가오.

일전에<sup>1098)</sup> 저 녀석이 남해 수변<sup>1099)</sup>으로 가재 사냥 내려왔다

실수하여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제,

우리 수궁 대장 범치 세상 구경 나가셨다

마침 보고 쫓아가서 저 녀석을 건져 업고 수궁으로 돌아오니,

용왕이 보시고 풍신<sup>1100)</sup>이 점잖다고 훈련대장 허라 허니,

호반<sup>1101)</sup>이라 마다허고,

약방<sup>1102)</sup> 도제조<sup>1103)</sup> 이조판서 보국<sup>1104)</sup> 주어도 마다허고,

궁중에 무임<sup>1105)</sup>으로 있다가 시녀 간통허고,

어전<sup>1106)</sup> 곤장<sup>1107)</sup> 삼십 도<sup>1108)</sup>에 축출<sup>1109)</sup>허여 본국으로 쫓았더니,

그 한으로 남도 못되게 방맹이를 드요그려.<sup>1110)</sup>

알아서 하시오.

나는 가요.”

모른 채허고 별주부 두어 발<sup>1111)</sup> 내려가니,

**21. (Terrapin Wins Hare Over.) Hare hesitates.  
Terrapin wins Hare over. They depart for the sea  
palace.**

[Aniri] “But for my cousin, the fox, I would have gotten into big trouble.

So long, Terrapin.

I will go back home and eat fruits of vines.”

Hare scampers back.

Terrapin is speechless.

“Hello, Mr. Hare. Your physical appearance indicates you are unlucky.

You can go, but please listen to me before you go.

The other day, that fox came to the beach of the South Sea to hunt lobsters.

Making a mistake, he was almost drowned.

A goby, a general, from the sea palace was there for sightseeing.

He spotted the fox and carried him to the sea palace.

The dragon king saw the fox and wanted to appoint him as the general of the military academy.

The fox declined the offer because he didn't like a military position.

He also declined a medical position and ministerial position.

He stayed in the palace without a position and had an affair with a maid.

The king gave an order to hit him with a cane thirty times and to expel him back to the land.

Resentful at the sea palace, he is jealous of you.

Make a wise decision.

I am leaving.”

Pretending he doesn't mind, Terrapin takes a few steps.

토끼 허허 웃고,  
 “이것 양수<sup>1112</sup> 지팽이로구나.<sup>1113</sup>  
 별주부 말도 그럴 듯, 여우 말도 그럴 듯.  
 어찌 해야 옳단 말이나?  
 별주부 같이 갑시다.  
 남해 수변<sup>1114</sup>까지 가 보아  
 발목물만 지면<sup>1115</sup> 가려니와  
 허리물<sup>1116</sup>만 저도 못 가겠소.”  
 자래 돌아다보며,  
 “어서 오시오. 점잔지하에<sup>1117</sup> 왜 그리 번덕이 많소?”  
 같이 내려가,  
**[진양조]** 남해수변<sup>1118</sup> 당도하니,  
 세우중<sup>1119</sup>에 돛을 달고 도용도용<sup>1120</sup> 뗏는 배는  
 한가한 추강<sup>1121</sup> 어부 풍월<sup>1122</sup> 실러 가는 뱃가?  
 범피창과<sup>1123</sup> 높이 떠서  
 청강<sup>1124</sup>흥미 무한경<sup>1125</sup>을 백구다려<sup>1126</sup> 문답헐 제,  
 “소소한풍추야월<sup>1127</sup>에 울고 가는 저 기력아.  
 네 어디로 행하느냐?<sup>1128</sup>  
 소상<sup>1129</sup> 동정<sup>1130</sup> 어디 두고,  
 여관한등<sup>1131</sup> 잠든 나를  
 네가 어이 깨우느냐?”  
 만리청강<sup>1132</sup> 위의 여산<sup>1133</sup> 동남 물결이<sup>1134</sup> ‘위르르 출렁’.  
**[아니레]** “아이고, 저 물 봐라.  
 바가지 없는 물속<sup>1135</sup>에 꿈쩍팔쩍없이 고기밥 되겠구나.  
 “별주부, 잘 가시오. 나 수궁에 가서 용왕을 시켜준다 해도 못 가겠소.

Hare laughs.  
 “It is hard to make a decision,  
 Both sides sound plausible,  
 What should I do?  
 Terrapin, let’s go.  
 Let’s go to the beach of the South Sea.  
 If the water reaches below my ankle, I will go.  
 But if it reaches my waist, I won’t go.”  
 Terrapin turns around.  
 “Come here. You are gentle but capricious.”  
 They go together.  
**[Jinyangjo]** Terrapin and Hare arrive at the beach of the South Sea.  
 A boat sets a sail in drizzle and moves gently by the waves.  
 Is it carrying a fisherman’s poem in the quiet autumn river?  
 It floats on the blue sea.  
 Hare and Terrapin ask sea gulls about the happy life on the clear water and the vast landscape.  
 “Wild geese honk while flying in a cold wind in lonely moonlit autumn night.  
 Where are you headed?  
 Why don’t you fly to Xiaoxiang(瀟湘) River and Dongting(洞庭) Lake?  
 I was sleeping under a cold light in an inn.  
 Why are you waking me up?”  
 Southeast waves are made in an upper region of a long river.  
**[Aniri]** “My goodness. Look at that water.  
 Having no place to hide, I might become the food for fish in that water.  
 So long, Terrapin. I wouldn’t go to the sea palace even if I were to become the dragon king

별주부 기가맥혀,

‘에라, 내가 저녀석을 한번 질러볼 수밖에 수가 없다.’ 하고,

**[아니리]** “수궁에는 충 없소?”

“여보시오. 아, 충이라 허는 것이 불이 일어나야 나가는 것인데,  
물 속에서 충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럼 활은 없소?”

“활도 없고 총도 없으니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시오.”

“그럼 내가 발을 넣어보아서  
허리물<sup>1136</sup>만 지면 갈테지만은  
목물<sup>1137</sup>만 져도 나 안 갈라요.”

“그렇게 허시오.”

토끼 요것이 지혜 있는 짐승이라,  
토끼 버드나무 곁가지<sup>1138</sup> 앞발로 휘어잡고, 뒷발을 물에 넣으니,  
물은 벌써 턱밑에 오르는데 발밑은 수만 리렸다.

**[창조]** 다시 오르랴<sup>1139</sup> 나뭇가지 힘을 주니

찢어져 점점 물에 잠기거늘,

**[휘모리]** 저 자래 거동<sup>1140</sup> 보아라.

와락 뛰어 달려들어 토끼 두 귀 검쳐잡고<sup>1141</sup> 물에 풍 빠져놓으니,  
이제는 하릴없이<sup>1142</sup> 죽는구나.

“어따, 이놈, 별주부야! 나 탄 게 무엇이오?”

“이놈아, 잔말<sup>1143</sup> 마라.

잔물이 입에 들면 병어리가 되느니라.”

이 물고개, 저 물고개<sup>1144</sup> 이윽고 들어가니,

천지 명랑<sup>1145</sup>허고

일월이 조요<sup>1146</sup>커늘,

Terrapin is dumfounded.

He thinks he has no choice but to give Hare a blow.

**[Aniri]** “Aren’t there rifles in the sea palace?”

“Look, a rifle can’t be triggered without fire.

A rifle can’t be fired in water.”

“Aren’t there bows?”

“There are neither rifles nor bows.

You may come or not.”

“Then, I will put my feet in water.

If water stays below my waist, I will go.

If water reaches my neck, I won’t go.”

“Suit yourself.”

Hare is a clever animal.

He holds a protruding willow branch with his fore legs and puts his hind legs in the water.

The water almost reaches his neck. But the water is very deep.

**[Song Mode]** Hare pulls the branch to go back up.

The branch is cut off, and Hare falls down into water

**[Hwimori]** Behold Terrapin.

Terrapin rushes to Hare, grabs his two ears, and pulls him down into water.

I am bound to die now.

“Gee. Terrapin. What is it that I am riding?”

“You fool. Shut up.

If salty water goes into your mouth, you will become dumb.”

Terrapin and Hare go over waves.

Sky and earth are clear.

The sun and the moon are bright.

“토끼 눈 떠라!”

[아니레] 토끼 눈 떠 사면을 살펴보니,

[중모레] “동<sup>1147</sup>)을 바라보니 일륜홍<sup>1148</sup>)이 어려 있고,

서를 바라보니 일발청산<sup>1149</sup>) 층층헌디 비취색<sup>1150</sup>)이 어려 있고,

남을 바라보니 대봉<sup>1151</sup>)이 비진<sup>1152</sup>)허고,

북을 바라보니 약수삼천리<sup>1153</sup>) 해당화 장히<sup>1154</sup>) 좋다.

중앙은 백록탄<sup>1155</sup>) 여동빈,<sup>1156</sup>) 소동파,<sup>1157</sup>) 장건<sup>1158</sup>)이며 비상  
천<sup>1159</sup>)하는 거동 이에서 더할쏘냐?

깊기는 깊다마는 들어와보니 별유천지<sup>1160</sup>)로다.

이러한 좋은 경치에 글 한 귀<sup>1161</sup>) 못해서야 훈련대장 할 수 있나?

산림유객이 도용궁허니

사해풍광입안중이라.”<sup>1162</sup>)

## 22. (토끼 잡아들임) 수궁에 당도하여 나졸들이 토끼를 잡 아들이자, 토끼가 자신은 토끼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아니레] “퇴선생.

여기 잠깐 앉아계옵시면

우리 수궁 남여<sup>1163</sup>) 내보낼 테니 타고 들어오옵소서.”

“그리허오.”

자래 들어와 복지주왈,<sup>1164</sup>)

“진세<sup>1165</sup>)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sup>1166</sup>)이요.”

용왕이 반기<sup>1167</sup>) 여겨

“만리진세<sup>1168</sup>)에 무사히 다녀오며,

토끼를 잡아왔는가?”



“Hare, open you eyes!”

[Aniri] Hare open his eyes and take a look at the landscape.

[Jungmori] “I see the red sun in the east.

I faintly see a mountain as green as jade in the west.

I see a large phoenix fly high in the south.

I see beautiful sweetbriars along a divine river in the north.

Lu Dong Bin(呂洞賓), Su Dong Po(蘇東坡), Zhang Qi An(張騫)

rise up above white and blue rapids in the middle.

The sea palace is in the deep sea, but it is a paradise.

Given the scenic view is great, I should write a poem as the  
future general of the military academy.

A guest from a mountain arrives in the sea palace.

Marine scenes enter his eyes from all directions.”

## **22. (The Arrest of Hare) Hare and Terrapin arrive in the sea palace. Guards try to arrest Hare. He denies he is a hare.**

[Aniri] “Hello, Mr. Hare.

Sit here for a minute.

I will send a carriage for you. Come inside on the carriage.”

“That’s fine.”

Terrapin goes inside, lies face down, and speaks.

“Your Majesty, this is Terrapin from the land.”

The king is glad to see him.

“How was your long trip in the sea?

Did you bring a hare?”

“대왕의 성덕<sup>1169</sup>)으로 진세 일개토<sup>1170</sup>)를 생금<sup>1171</sup>)하여  
 수정문 밖에 대령<sup>1172</sup>)하였나이다.”  
 용왕이 반기허여,  
 “기특타<sup>1173</sup>) 주부지충<sup>1174</sup>)이여.”  
 어주<sup>1175</sup>)를 내려 치하<sup>1176</sup>)허시고 좌우에 명하여,  
 “토끼 바빠 잡어들여라!”  
 수궁이 진동하게 호령하여 놓으니,  
 토끼 문밖에서 듣고,  
 ‘아차, 내 일이야. 사지<sup>1177</sup>)를 들어왔구나.  
 사불여의<sup>1178</sup>) 도망을 허자헌들 수로 만 리 갈 수 없고,  
 수국 중에 숨자헌들 내 모양이 조<sup>1179</sup>)가 나니,<sup>1180</sup>)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백계무책<sup>1181</sup>)이로구나’  
 죽은데끼<sup>1182</sup>) 엮졌을 제<sup>1183</sup>)  
**[자진모리]** 좌우 나줄<sup>1184</sup>) 별군직<sup>1185</sup>)과 수많은 도루묵,<sup>1186</sup>) 해모지  
 리,<sup>1187</sup>) 원참군<sup>1188</sup>) 남생이,<sup>1189</sup>)  
 청사<sup>1190</sup>) 홍사<sup>1191</sup>) 가막쇠<sup>1192</sup>)를 요하<sup>1193</sup>)에 빚겨<sup>1194</sup>) 차고  
 우루루 나오더니,  
 “이애, 토끼 거<sup>1195</sup>) 있느냐?”  
 토끼 깜짝 놀래,  
 “내 이름은 토끼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도적 지키는 개요.”  
 “개라니 더욱 좋다.  
 삼복<sup>1196</sup>)에 너를 잡아 약개장<sup>1197</sup>)도 좋거니와  
 개가죽 벗겨내어 잘량하니<sup>1198</sup>) 더욱 좋다.

“Thanks to your virtue, I brought a hare alive from the land.  
 He is waiting outside the crystal gate.”  
 The dragon king is pleased.  
 “Terrapin, you are a praiseworthy loyal subject.”  
 After offering a glass of wine to Terrapin, he gives an order.  
 “Bring Hare here immediately!”  
 His stern order shakes the sea palace.  
 Hearing the order, Hare mutters,  
 “Oh my goodness. I came to a dangerous place.  
 I can’t flee because I am surrounded by the vast sea.  
 I can’t hide in the sea palace because that is disgraceful.  
 Alas. What should I do?  
 A good idea doesn’t occur to my mind.”  
 Terrapin lies face down on the ground as if he were dead.  
**[Jajinmori]** Numerous sailfin sandfishes, gray mullets, and  
 tortoises are soldiers.  
 They carry blue and red iron hooks under their waists obliquely.  
 They come out in a crowd.  
 “Is Hare there?”  
 Hare is surprised.  
 “I am not a hare.”  
 “Then, what are you?”  
 “I am a dog watching out for thieves.”  
 “A dog is even better.  
 A dog is a good material for a tonic soup in hot summer.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tilized as a mat.

이 개 바빠 몰아가자.”

“아이고, 망아지요!”

“말이라니 더욱 좋다.

선간목후간죽<sup>1199</sup>)에

요단향장천리마로다.<sup>1200</sup>)

연인도 오백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sup>1201</sup>)

너를 산 채 몰아다가 대왕전에<sup>1202</sup>) 바쳤으면 천금상<sup>1203</sup>)을 아니 주랴?

들거라. 우!”

“아이고, 나 망아지도 아니고 송아지요!”

“소라니 더욱 좋다.

도탄<sup>1204</sup>)에 너를 잡아

두피,<sup>1205</sup>) 족,<sup>1206</sup>) 갈비,

양,<sup>1207</sup>) 회간,<sup>1208</sup>) 처넙,<sup>1209</sup>) 콩팥

후박없이<sup>1210</sup>) 나뉘 먹고,

네 뿔 빼어 활도 매고,<sup>1211</sup>)

네 껍질 벗겨 내어 신도 짓고, 북고 매고,

네 속에 든 우황<sup>1212</sup>) 값 중헌<sup>1213</sup>) 약이 되고,

똥 오줌은 거름을 하니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소 바빠 몰아가자!”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제기랄! 너희들의 할애비다.”

여러 놈이 달려들어 청사 홍사 가막쇠를 이리저리 질끈 묶어,

주장대<sup>1214</sup>) 들어매고 성화<sup>1215</sup>)같이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어따, 이놈 별주부야! 너희 수궁 남여는 본래 이러느냐?”

Let's take this dog to the king."

"I am a colt!"

"A horse is much better.

You have good eyes and legs.

You must be a fine horse.

An ancient man paid a lot of money to buy the bones of a dead horse.

Since you are alive, the king will give us more money if we take you to him.

Carry him inside!"

"I am not a colt but a calf!"

"A cow is much better.

We will paste you with mud and put you in a charcoal fire.

Your head, skin, feet, ribs,

stomach flesh, liver, fourth stomach, and kidney,

will be evenly distributed among us.

Your horn will be used to make a bow.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to make shoes and drums.

The bile in your gall bladder is an expensive medicine.

Your dung and urine will be used for manure.

No part of your body will be useless.

Let's take this calf to the king in a hurry!"

Hare is stunned.

"Damn it, I am your grandfather."

They run at Hare and tie him with blue and red iron hooks.

They carry the red stick on which Hare hangs to the king rapidly.

Hare is dumfounded.

"You villain, Terrapin! Does a carriage look like this in this sea palace?"

“오나. 세상 남여와는 다르리라.”

영덕진 넓은 뜰에 동맹이쳐<sup>1216</sup> 대랑대랑 끌어 들고,

“토끼 잡어들었소!”

### 23. (토끼의 피) 용왕이 토끼 배를 가르라고 하니, 토끼가 피를 내어 뱃속에 간이 없다고 둘러댄다.

[아니리] 용왕이 이만허고<sup>1217</sup> 보시더니,

“이놈, 네가 토끼냐?”

“예, 토끼로소이다.”

“내 우연득병<sup>1218</sup>허여 백약이 무효키로

명 의에게 문의 헌즉

니 간이 약이된다 허기에

내 어진 충신을 보내여 너를 잡아 왔으니

너 죽노라 한을 마라.

네가 죽더라도 신체는 비단으로 감장<sup>1219</sup>허여 칠곽<sup>1220</sup>에 정히<sup>1221</sup>

담아,

장풍<sup>1222</sup> 향양<sup>1223</sup> 명당<sup>1224</sup>을 가려 깊이깊이 안장<sup>1225</sup>허고,

정조<sup>1226</sup> 한식<sup>1227</sup> 단오<sup>1228</sup> 추석 연년이<sup>1229</sup> 오는 명절 제사라도

착실히 분별할 것이니,

너 죽는다 한을 마라.

[창조] 토끼 기가맥혀 두 눈만 꿈적꿈적허고 앓았다가,

[아니리] 우자천려에 필유일득<sup>1230</sup>이라.

한 피를 생각하여,

배를 착 내밀며,

“Yes. It is different from a carriage in the land.”

Hare is thrown on and dragged over the wide yard of the sea palace.

“We’ve brought Hare here!”

**23. (Hare’s Trick) The dragon king gives the order to open Hare’s belly. Hare tells a lie that there is no liver in his belly.**

[Aniri] The dragon king has been sitting back and watching his subjects.

“You villain! Are you Hare?”

“Yes, I am Hare.”

“I happened to catch a disease. All sorts of medicines are ineffective.

I consulted a renowned doctor.

He said your liver is a good medicine.

I sent a virtuous subject to the land and had him bring you here. Don’t resent your death.

After you die, your body will be wrapped up with silk and placed on a lacquered coffin with respect.

You will be buried in a carefully chosen propitious site.

A ritual will be performed for you on every big holiday every year without fail.

Don’t resent your death.

[Song Mode] After hearing the dragon king, Hare is speechless.

[Aniri] Even a fool can think up a good idea if he thinks hard for a long time.

A trick occurs in Hare’s mind.

He sticks out his belly inordinately.

“자, 내 배 따보시오.”<sup>1231)</sup>

용왕이 생각건대, ‘저놈이 배를 안 때일라고<sup>1232)</sup> 생발광<sup>1233)</sup>을 할 터인데,

저렇게 배를 착 내민 것이 암만해도 수상허제.’

“네 이놈, 네가 지금 안 죽을라고 별 수단을 다 부린다마는  
그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말이나 몇 자리<sup>1234)</sup> 허고 죽어라.”

“말이고 뭐이고 당장에 내 배 따시오.”

“어허, 이놈, 할 말 있으면 어서 말을 허여라.”

**[중모레]**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태산이 봉퇴하고<sup>1235)</sup> 오성<sup>1236)</sup>이 음음하여<sup>1237)</sup>

시일갈상<sup>1238)</sup> 노래 소리

억조창생<sup>1239)</sup> 원망 중에,

탐학한<sup>1240)</sup> 상주임금<sup>1241)</sup>이 성현<sup>1242)</sup>의 뱃속에 칠궁기<sup>1243)</sup> 있다 하고,  
비간<sup>1244)</sup>의 배를 갈라 무고히<sup>1245)</sup> 죽였은들 일곱 궁기<sup>1246)</sup>가 있습디까?

소퇴도 배를 갈라보아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대왕병도 못 나수고<sup>1247)</sup> 소퇴만 죽사오면

그 아니 원통허오?

복원<sup>1248)</sup> 대왕은 상찰하숙<sup>1249)</sup>허옵소서.”

용왕이 들으시고,

“네 말이 간교<sup>1250)</sup>허다.

의서<sup>1251)</sup>에 일렸으되, 비수병즉구불능식<sup>1252)</sup>허고,

담수병즉설불능언<sup>1253)</sup>허고,

신수병즉이불능청<sup>1254)</sup>허고,

간수병즉목불능시<sup>1255)</sup>라.

간이 없고야 눈으로 어찌 만물을 보느냐?”

“예, 그 말 대답허오리다.



“Well, open my belly.”

The king thinks, ‘Hare should make noises in order not to have his belly opened.

There must be reason why Hare sticks out his belly to be opened.’

“You villain. You are now resorting to every means to escape your death.

Stop acting like that. Say a few words and die.

“Forget about words. Just cut my belly open.”

“You villain. If you have something to say, go ahead and say it.”

**[Jungmori]** “I will tell you about something because you insist, Your Majesty.

A mountain collapsed, and Five Stars became dark.

The people sang a song, wishing for the death of their king.

The people resented the king.

An atrocious king believed there were seven holes in a wise man’s belly.

He opened his good official’s belly only to learn there were not seven holes.

It would be nice if you opened my belly and found a liver.

If there is not a liver, you will not be cured and I will die.

Isn’t that regrettable?

I wish you listen to my humble words.”

The dragon king responds,

“Your words are wicked.

A medical book says if your spleen is ill, you can’t eat.

If your gall bladder is ill, you can’t speak.

If your kidneys are ill, you can’t hear.

If your liver is ill, you can’t see.

If you don’t have a liver, how can you see things?”

“Let me answer your question, Your Majesty.

대왕은 단지기일이요 미지기이로소이다.<sup>1256)</sup>  
 복희씨<sup>1257)</sup>는 어찌하여 사신인수<sup>1258)</sup>가 되었으며,  
 신농씨<sup>1259)</sup> 어찌하여 인신우수<sup>1260)</sup>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기드란허웁고,<sup>1261)</sup>  
 소토는 무슨 일로 꼬리가 이리 묘뚝<sup>1262)</sup>하오며,  
 대왕의 옥체<sup>1263)</sup>에는 비늘이 번쩍번쩍,  
 소토의 몸에는 털이 요리 송살송살,<sup>1264)</sup>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개 있고, 오후 까마귀 쓸개 없사오니,  
 인생 만물 비금주수<sup>1265)</sup>가 한가지라 뻑뻑 우기니 답답치 아니 하오리까?  
 소퇴의 간인즉은<sup>1266)</sup> 월륜정기<sup>1267)</sup>로 생겼삽기로<sup>1268)</sup>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믐이면 간을 들입니다.<sup>1269)</sup>  
 세상의 병객<sup>1270)</sup>들이 소퇴 곧 얼른허면은<sup>1271)</sup> 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서 파초 앞에다 꼭꼭 싸서,  
 칩노<sup>1272)</sup>로 칭칭 동여,<sup>1273)</sup>  
 영주<sup>1274)</sup> 석상<sup>1275)</sup> 계수나무 늘어진 가지 끝끝터리에다<sup>1276)</sup> 달아 매  
 놓고,  
 도화유수<sup>1277)</sup> 옥계변<sup>1278)</sup>에 탁족하러<sup>1279)</sup>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서,  
 수궁 흥미가 좋다기로  
 완경차<sup>1280)</sup>로 왔나니다.”<sup>1281)</sup>  
 용왕이 반이나 옳이<sup>1282)</sup> 듣고,  
 “그러면 간 출입허는<sup>1283)</sup> 표<sup>1284)</sup>가 있느냐?”  
 “있지요.”  
 “어디 보자.”

Your knowledge is incomplete.  
 Why did a legendary king have a snake's body and a man's head?  
 Why did another legendary king have a man's body and a cow's head?  
 Why does Your Majesty have a long tail?  
 What made my tail this short?  
 Why does Your Majesty have shiny scales?  
 Why is my body covered with soft hair?  
 Let's talk about a crow.  
 It has a gall bladder before noon, and not after noon.  
 Isn't it frustrating you insist flying and walking animals are of the same kind?  
 My liver was created by the energy from the moon.  
 On the full moon, I take it out.  
 On the end of the month, I put it back in.  
 Sick people of the world pester me for my liver if I don't take great care.  
 I wrap my liver in a plantain leaf.  
 I tie it tightly with a vine.  
 I hang it at the end of the top branch of a cinnamon tree in a divine rocky mountain.  
 I came down to wash my feet in a clear stream carrying peach blossoms.  
 I met Terrapin by chance.  
 I heard there is a lot of fun in the sea palace.  
 I came here for sightseeing."  
 The dragon king is convinced to some degree.  
 "If so, do you have a hole for taking your liver in and out?"  
 "Yes, I have."  
 "Let me take a look."

“자, 보시오.”

빨간한<sup>1285</sup> 궁기<sup>1286</sup>가 서이<sup>1287</sup> 늘어 있거늘,

“저 궁기가 모두 다 어떤 내력<sup>1288</sup>인고?”

“예, 내력을 아뢰리다.

한 궁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 궁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궁기로는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로<sup>1289</sup> 출입허나니다.”

“그러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궁기<sup>1290</sup>로 내웁기에

만물시생<sup>1291</sup>에

동방삼팔목,<sup>1292</sup>

남방이칠화,<sup>1293</sup>

서방사구금,<sup>1294</sup>

북방일육수,<sup>1295</sup>

중앙오십토,<sup>1296</sup>

천지음양,<sup>1297</sup> 사시정기,<sup>1298</sup> 아침 안개 저녁 이슬, 오색광채<sup>1299</sup>를  
응하야<sup>1300</sup>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내웁기,<sup>1301</sup>

만병회춘<sup>1302</sup>의 명약<sup>1303</sup>이라,

으뜸 약이 되나니다.

미련허더라, 저 주부야.

세상에서 날보고<sup>1304</sup> 이런 이약을<sup>1305</sup> 허였으면,

네 간 말고라도 우리 사돈네 간이 일만팔천여 보<sup>1306</sup>가 계수나무에  
걸렸거늘,

한 보<sup>1307</sup>만 떼어 왔드래도 너도 충신이 될 것이고, 나도 공로가 있을 것,

미련허드라, 저 주부야.

만시지탄<sup>1308</sup>이 쓸 데가 없구나.”

“Here you are.”

There are three red holes in a row.

“What do you have the three holes for?”

“Let me tell you in detail.

I used one to take a shit and another to take a pee.

I take my liver in and out at my will through my last hole.”

“Which holes do you use to take your liver in and out?”

“I swallow my liver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When things were first created,

Wood was in the east,

Fire was in the south,

Gold was in the west,

Water was in the north,

and Earth was in the middle.

I harmonized with the ground, the sky, negative energy, positive energy, the energy generating the four seasons, the morning fog, the evening dew, and the five brilliant colors.

I put my liver in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last hole.

My liver is a panacea.

It is the best medicine.

How stupid Terrapin is!

You should have told me the truth while we were on the land. Eighteen thousand livers of my relatives by marriage are on cinnamon trees in addition to mine.

If we brought a liver, you will become a loyal subject, and I would be praised.

How stupid Terrapin is.

It is of no use to regret.”

## 24. (수궁 풍류)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고, 큰 잔치를 베풀어 즐기도록 한다.

[아니래] 용왕이 이 말을 듣고 뒤로 벌렁 넘어갔든가 보더라.<sup>1309)</sup>  
“토끼 해박<sup>1310)</sup>허고 전상<sup>1311)</sup>으로 모셔라.” 영을 내려노니,  
수궁 미녀 전어 수십 마리가 양쪽으로 옹위<sup>1312)</sup>하야 토끼를 전상에 모셔노니,  
용왕이 허는 말이,  
“여보, 퇴공. 아까 내가 한 말은 퇴공이 세상에서 전쟁을 당하시면 어떻게 방비를 허실란고<sup>1313)</sup> 허여, 그 담력을 시험해 보느라고 험한 것이니,  
너무 패념<sup>1314)</sup>치 말게나.”  
“경각간<sup>1315)</sup>에 죽을 목숨 대왕 덕택에 살았는데,  
무슨 패념이 있사오리카?”  
용왕이 도리 허느라 술을 한 잔 먹고,  
토끼한테 술을 권하니,  
토끼 요놈은 노상<sup>1316)</sup> 산골물만 먹든 놈이  
언제 동정춘주<sup>1317)</sup> 맛을 봤어야 말이지,  
한 잔 먹더니마는,  
“카! 술맛 좋소.  
한 잔만 더 주시오.”  
이놈이 맛보느라고 한 십여 잔,  
그냥 먹어보느라고 한 이십여 잔,  
일배 일배 부일배<sup>1318)</sup>로 수십여 잔을 잔뜩 퍼먹어 놓니,  
술이 깜박 취해갖고  
용왕의 자<sup>1319)</sup>를 제가 손수 지어 부르는데,  
“여보소, 용갯이!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동의보감<sup>1320)</sup>을 많이 봤지마는,

## 24. (Having Fun in the Sea Palace) Fooled by Hare, the dragon king throws a big party for him.

[Aniri] After hearing what Hare said, the dragon king is completely taken in.

He gives an order. "Set Mr. Hare free and take him to a high place."

Several shads, beautiful girls, help Hare on the left and right to a high place.

The dragon king speaks,

"Hello, Mr. Hare. I was testing your courage before because I wanted to know how you would behave if a war breaks out. Please don't harbor resentment to me."

"My life was in jeopardy, and you saved me.

How can I have a hard feeling toward you?"

The dragon king drinks the wine first because he is a host.

He offers the wine to Hare.

Hare drank only the water of brooks of mountains in the past.

He didn't drink the wine of the sea palace before.

After drinking a glass of the wine, he says,

"This wine tastes good.

Give me one more glass."

He drinks more than ten glasses to have a taste of the wine.

He drinks more than twenty glasses to try to drink the wine.

He gradually drinks dozens of glasses.

He becomes drunk.

He calls the dragon king in an informal manner.

"Hello, Dragonie. In the land I read a classic medical book many times.

토끼 간이 약된다는 말은 금시초문<sup>1321</sup>)이요.”  
 뜻밖에 토끼를 위하여 수궁 풍류<sup>1322</sup>)가 낭자<sup>1323</sup>)헐 제  
 [엇모래] 왕자 진<sup>1324</sup>)의 봉피리<sup>1325</sup>) 나나노 나노 나나노 나노,  
 광처사<sup>1326</sup>) 질장구<sup>1327</sup>) 찌지렁 꿈 껌 꿈, 성련자<sup>1328</sup>) 거문고 등등지  
 등등,  
 장량<sup>1329</sup>)의 옥통소, 혜강<sup>1330</sup>)의 해금<sup>1331</sup>)이며,  
 완적<sup>1332</sup>)의 휘파람, 격타고 취용적<sup>1333</sup>)  
 능과사<sup>1334</sup>) 보허사<sup>1335</sup>) 우의곡<sup>1336</sup>) 채련곡<sup>1337</sup>)을 곁들여서 노래  
 헐 제,  
 낭자한 풍악<sup>1338</sup>) 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토끼놈 좋이라고 앞발을 어긋 딛고<sup>1339</sup>) 춤을 추며 노닌다.  
 “얼씨구 절씨구 자화자자 즐씨구.  
 약일레라.<sup>1340</sup>) 약이여.  
 내 간이 약이여.  
 위수변<sup>1341</sup>) 강태공도 날 만나 간 좀 먹고 궁팔십 달팔십<sup>1342</sup>) 일백육  
 십을 살았고,  
 동방삭<sup>1343</sup>)이 날 만나 간 좀 달라기에 팔난만큼<sup>1344</sup>) 주었더니 삼천갑  
 자<sup>1345</sup>) 십팔만 장생불로<sup>1346</sup>)하였네.  
 대왕의 환후<sup>1347</sup>)도 내의 간을 가지면 천천만만세<sup>1348</sup>)를 태평으로 누  
 릴 테니,  
 어찌 안 좋을씨고?  
 얼씨구나 좋네.”



But I've never heard a hare's liver is a medicine."  
All of a sudden, the music shakes the sea palace to entertain  
Hare.

**[Eonmori]** They play a phoenix-shaped pipe,  
a bowl-shaped drum, a six-stringed zither,  
a jade flute, a Korean fiddle,  
a whistle, a drum made of alligator skin, and a dragon pipe.  
They sing a divine pond song and a divine song along with two  
ancient songs.

The music spreads and shakes the sea palace.  
Exuberant, Hare sings and dances with his fore legs crossed.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Medicine, medicine!

My liver is a medicine.

An ancient fisherman of a river met me, ate a little bit of my  
liver, and lived for 160 years.

An ancient official met me, ate a little bit of my liver, lived for  
180,000 years without growing old.

Your Majesty, if you eat my liver, you will live happily forever  
too.

Isn't this great?

Yippee! Hurrah."

25. (토끼 방정) 토끼가 출랑거리며 춤을 추고 놀다가 간이  
들었다고 의심받자, 급히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한다.

[중중모리] 앞내 버들은 청포장<sup>1349</sup>) 두르고,  
뒷내 버들은 유록장<sup>1350</sup>) 둘러,  
한 가지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평퍼져,<sup>1351</sup>)  
바람 부는 대로 흔들흔들, 우줄우줄<sup>1352</sup>) 춤을 출 제,  
아버지는 노구<sup>1353</sup>)를 지고,  
어머니는 동이<sup>1354</sup>)를 이고,  
노고지리<sup>1355</sup>) 지리 지리 노고지리.”  
앞발을 번쩍 추켜들더니 출랑출랑<sup>1356</sup>) 노닌다.  
[아니리] 귀 밝은 대장 범치가 토끼 뒤를 졸졸 따라 다니다가,  
“아따 토끼 저놈 뱃속에 간 들었네!” 허고 소리를 질러노니,  
토끼란 놈 깜짝 놀래 그 자리에 퍼썩<sup>1357</sup>) 주저앉더니마는 술이 팍  
깨어,  
“야, 이 발고락<sup>1358</sup>)을 찢을 녀석아.  
빈 속에 술잔이나 들어가니  
똥뎡이 쳐<sup>1359</sup>) 노는 소리를  
간이 들어서 그런 줄 아느냐?”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속으로는 딱 질려서,  
군자<sup>1360</sup>)는 가기이기방<sup>1361</sup>)이요,  
견기이작<sup>1362</sup>)이라.  
용왕을 속인 김에 아주 토끼 망 자<sup>1363</sup>)가 제일이라 허고  
어전에 복지하야,

**25. (Hare's Flippancy)** Hare dances frivolously. Others think there must be a liver in his belly. He says he wants to go back to the land immediately.

**[Jungjungmori]** "Green willows are along the front stream.

Blue willows are along the back stream.

A branch is torn off.

Another is horizontal.

The willows dance along with the wind.

My father carries an iron pot on his back.

My mother carries a water jar on her head.

A skylark sings a song."

Hare holds up his fore legs and dances flippantly.

**[Aniri]** A goby, a general, with sensitive ears has been following Hare.

He shouts, "There is a liver in that Hare's belly!"

Startled, Hare slumps down on the spot and sobers up completely.

"You should be killed by tearing your toes apart.

Wine got into my empty stomach.

Some shit is moving around, generating sounds.

How can you say a liver is making the sounds?"

He said so, but he is scared in his mind.

A wise man can deceive others well.

He should go far away, once he learned about a foreign land.

Hare thinks he should flee while the dragon king is fooled.

He gets down in front of the king and speaks to him.

“용왕의 병세 만만위중<sup>1364</sup>)하오니  
 별주부를 명하여<sup>1365</sup>) 세상을 보내주시오면 간 보차<sup>1366</sup>) 들여다가 대  
 왕 병을 즉차즉회<sup>1367</sup>) 허겠나이다.”  
 용왕이 반기하사 별주부를 명하야,  
 “퇴선생을 모시고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주시거든 함께 돌아오도록  
 하여라.”  
 영<sup>1368</sup>)을 내려노니

## 26. (별주부 애원) 별주부가 토끼의 배를 가르자고 용왕에 게 애원하니, 토끼가 배를 가르라고 큰소리친다.

[진양조] 별주부 황공대왈,<sup>1369</sup>)  
 “신의 충성 다 베풀어 원해삼만리<sup>1370</sup>)에 겨우 잡아들인 토끼를,  
 뱃속에 달린 간을 아니 내고 보낼진대, 세상 웃음이 될 것이요,  
 맹획<sup>1371</sup>)을 칠종칠금<sup>1372</sup>)하던 공명<sup>1373</sup>) 지모<sup>1374</sup>) 아니어든,  
 한 번 놓아 보낸 토끼 언제 다시 구하리까?  
 배만 갈라 보옵소서.”  
 [중중모리] 토끼란 놈 듣고 기가 맥혀, 토끼란 놈 듣고 기가 맥혀,  
 “네 이놈, 별가 놈아!  
 네 말이 모두가 당찮은<sup>1375</sup>) 말이다.  
 왕명이 지중<sup>1376</sup>)커든 내가 어찌 기망<sup>1377</sup>)허랴?  
 옛 일을 모르느냐?  
 하걸<sup>1378</sup>)이 학정<sup>1379</sup>)으로 용봉<sup>1380</sup>)을 살해하고<sup>1381</sup>) 미구에<sup>1382</sup>) 망  
 국<sup>1383</sup>)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Your Majesty is seriously ill.

If you order Terrapin to go to the land with me, I will bring a liver here and cure you immediately.”

Delighted, the dragon king gives an order to Terrapin.

“Help Mr. Hare to go to the land quickly and bring a liver here with him.”

The king gave an order.

## **26. (Terrapin’s Entreaty) Terrapin entreats the dragon king to open Hare’s belly. Hare boldly tells them to open his belly.**

**[Jinyangjo]** Terrapin speaks in awe.

“Being loyal to you, I managed to catch Hare from the land far from here.

The world will laugh at us if we send Hare back alive without taking a liver out of him.

I am not the military strategist, Zhu Ge Kong Ming(諸葛孔明), who captured and released his enemy king seven times.

How can I catch Hare again that I once released?

Please open Hare’s belly.”

**[Jungjungmori]** Hearing what Terrapin said, Hare is stunned.

“Your bastard, Terrapin!

What you said is nonsense.

How can I fool the king when his order is stern?

Don’t you know the old story?

An atrocious king in ancient China killed his good official, and his country collapsed before long.

It would be nice if you opened my belly and found a liver in it.

만일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혼백이 수로만리 갈 수 없고,  
 느그<sup>1384)</sup> 나라 원귀<sup>1385)</sup> 되어,  
 느그 용왕 십년 살 데<sup>1386)</sup> 하루도 못살 테요,  
 느그 수궁 만조백관<sup>1387)</sup>을 한 날, 한 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sup>1388)</sup> 였다,<sup>1389)</sup> 배 갈라라.  
 아나, 였다, 배 갈라라.  
 아나, 였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아나, 였다, 배 갈라라.  
 아나, 였다, 배 갈라.”  
**[아니레]** 어떻게 그냥 막 몰아부쳤던고 용왕이 뒤로 벌렁 넘어갔던가  
 보더라.<sup>1390)</sup>  
 “어떤 놈이든지 그저 토끼를 해하는<sup>1391)</sup> 자가 있으면 어망살<sup>1392)</sup> 앞  
 으로 귀양을 보내리라.”  
 영을 내려 노니,  
 어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별주부 하릴없이 토끼를 등에 업고 저 궁 밖을 나서더니마는,  
 “너 이놈, 네가 용케 살아가기는 간다마는  
 너도 양심은 있을 것이다, 이놈아.”  
 “아, 까막까치<sup>1393)</sup>가 내 간 다 먹어 불라.<sup>1394)</sup>  
 어서 가자, 오살놈.”<sup>1395)</sup>  
 하여튼 다시 가는다.

If there is no liver, my poor soul can't leave the vast sea.  
 I will become an evil spirit of this country.  
 Your dragon king will die in a day, instead of living for 100 years,  
 My evil spirit will massacre all the officials in the sea palace at one time.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Only shit is i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Aniri]** Hare behaves so confidently that the dragon king is fooled completely.  
 "If anybody hurts Hare, I will banish him to a fish weir."  
 The king gives an order.  
 Terrapin can't disobey the king's order.  
 He cannot but go out of the sea palace with Hare on his back.  
 "You rat. You are going back alive.  
 But you must have qualms of conscience. You villain."  
 "I am afraid crows and magpies might eat my liver.  
 Hurry up. You fool."  
 They somehow get back to the land.

## 27. (토끼 생환) 토끼가 별주부 등에 업혀 세상을 나가면서 사면 경치를 구경한다.

[진양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sup>1396</sup>)를 바삐 건너 백로주<sup>1397</sup>)를 어서 가자.

삼산<sup>1398</sup>)을 바라보니 청천외에<sup>1399</sup>) 멀어 있고,

일락장사추색원한데

부지하처조상군교?”<sup>1400</sup>)

한 곳을 당도하니 한 사람이 나오는데,

푸른 옷에 검은 관을 쓰고,

거수<sup>1401</sup>)에 읍<sup>1402</sup>)을 하며,

“토공은 수로천리<sup>1403</sup>)에 하이지차오?”<sup>1404</sup>)

토끼 듣고 대답을 허되,

“회족청산하니

관불과제관이요,

탁족무임하니

태불과봉황이라.

소무지식하여

유매평생허니<sup>1405</sup>)

소이즉차이다.”<sup>1406</sup>)

한 곳을 바라보니,

오호창과<sup>1407</sup>) 연월<sup>1408</sup>) 속에 돛대 치는 저 사공은 월범려<sup>1409</sup>) 이 아

니란 말이냐?

둥둥둥둥 세상으로 떠나가는구나.

[중중모리] 백로주<sup>1410</sup>) 바삐 지나 적벽강<sup>1411</sup>)을 당도하니,

소자침<sup>1412</sup>) 범주유,<sup>1413</sup>)



27. (Hare Returns Alive) Hare watches the scenic view,  
as he comes back to the land on Terrapin's back.

[Jinyangjo] "Let's go. Hurry up.

Let's hurry up to the sandy island in a river.

A divine mountain is below the blue sky far from here.

The sun sets on the long sandy field, and a mountain with the  
autumn color is far from here.

It is clear where tribute should be paid to the ancient queens."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place where a person comes out.

He wears blue clothing and a black hat.

He holds up his hands and shows respect to Hare.

"Mr. Hare, why are you taking such a long journey on the sea?"

Hare responds,

"I came back to the green mountains.

I can't just pass by them because I missed them so much.

They were not trodden upon by dirty feet.

It is so peaceful that even a phoenix will not just go by them.

I was not knowledgeable.

I almost became a wandering ghost.

That's what brought me here."

They look at a certain place.

The boatman setting up a sail on a foggy blue lake on moonlight  
must be an ancient politician.

Hare and Terrapin float to the land.

[Jungjungmori] Hare and Terrapin hurriedly pass by a sandy  
island and get to a river.

An ancient poet amused himself on a boat in the river.

동산상<sup>1414</sup>) 달 떠나  
 두우간<sup>1415</sup>) 배회<sup>1416</sup>)하여,  
 백로횡강<sup>1417</sup>) 바빠 가.  
 소지노화월일선<sup>1418</sup>) 추강<sup>1419</sup>) 어부가 빈 배.  
 기경선자<sup>1420</sup>) 간 연후 공명월지단단.<sup>1421</sup>)  
 자래 등 저 달 실어  
 우리 고향을 어서 가.  
 환산농명월<sup>1422</sup>)  
 원해근산<sup>1423</sup>) 좋을시고.  
 위수<sup>1424</sup>)로 돌아드니  
 어조하던<sup>1425</sup>) 강태공<sup>1426</sup>)은 기주<sup>1427</sup>)로 돌아가고,  
 은린옥척<sup>1428</sup>)뿐이라.  
 벽해수변<sup>1429</sup>)을 당도하야  
 깡깡 뛰어내려서 모르는 체로<sup>1430</sup>) 가는구나.

## 28. (토끼 별주부 조롱)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별주부를 올라 가미에 걸어 조롱한 뒤, 욕을 하며 산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리] 토끼 자래 등에서 선뜻<sup>1431</sup>) 내려 깡창깡창 뛰어 저 높은 바  
 우 위에 달름<sup>1432</sup>) 올라왔더니마는,  
 별주부를 내려다보며,  
 “여보시오, 별주부. 간 줄 테니 이리 올라오시오.”  
 “내가 거기를 높아서 어떻게 올라 가겠소?”  
 “그러면 좋은 수<sup>1433</sup>)가 있소.

The moon rises over a mountain in the east.  
 The moon moves between Ursa Major and the Herdsman.  
 A white heron hurriedly crosses a river.  
 With a smile, the heron points to a boat loaded with white reed  
 flowers and moonlight.  
 After a god flew up on a whale, there is nothing but the full  
 moon in the sky.  
 Put that half moon on Terrapin's back.  
 Let's hurry to my hometown.  
 Let's enjoy watching the bright moon in mountains.  
 It is good that mountains are close and the sea is far.  
 Hare and Terrapin reach a river.  
 An ancient politician fished in a tributary of this river.  
 There are large shiny fishes.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blue beach.  
 Hare jumps down and goes off without saying anything.

**28. (Hare Derides Terrapin.) After arriving on the  
 land, Hare derides Terrapin, hanging him in a  
 snare. He speaks curse words at Terrapin and  
 goes to a mountain.**

**[Aniri]** Hare jumps off Terrapin's back swiftly, scampers to a high  
 rock, and sits on it.  
 He looks down on Terrapin.  
 "Hello, Terrapin. Come up here. I'll give you my liver."  
 "How can I climb up such a high place like that?"  
 "Right. I've got an idea.

여기서 홀룽개<sup>1434)</sup>를 하나 내려 보내줄 테니  
 모가지를 걸든지, 다리를 걸든지 양단간에<sup>1435)</sup> 걸면,  
 내가 잡아서 땡겨주리다.”<sup>1436)</sup>  
 “네가 지금 나를 죽일라고 그러지야?”<sup>1437)</sup>  
 “아, 충신이란 하늘도 아는 법인데, 어디 그럴 리가 있겠소?”  
 칙녕쿨로 홀룽개를 해서 내려 보내주니,  
 이놈이 제 마음하고 똑같은 줄 알고 거기다 목을 착 걸었겠다.  
**[중모레]** 토끼놈 거동을 보아라.  
 홀룽이를 잡아다녀 상상가지<sup>1438)</sup>에다 올려 놓으니,  
 나무쟁반 떠나가듯 공중에 둥둥 떠  
 하릴없이 죽었구나.  
 토끼란 놈 내려다보며,  
 “어따, 이놈, 별가놈<sup>1439)</sup>아!  
 네가 나를 살살 유인하여, 느그<sup>1440)</sup> 수궁 들어가,  
 내 배를 갈라 간을 내어 느그 용왕 준다허였더냐?  
 동풍<sup>1441)</sup>에 음건<sup>1442)</sup>하니 바짝 말라서 돼지거라.<sup>1443)</sup>  
 왕배탕<sup>1444)</sup>이 좋을시고.  
 들랑날랑허는 목을 늘여서 죽이리라.”  
 홀룽개 칙 끈을 상상가지에다 올려놓고 산천으로만 도망을 간다.  
**[창조]** 그때 별주부는 목이 졸리어 무슨 말을 허리오마는,  
 속으로 하느님께 축수<sup>1445)</sup>를 허는디,  
**[진양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전 비나이다.  
 나 죽기는 섭잖으나<sup>1446)</sup>  
 영덕전 병든 용왕 어느 뉘가 구하리오?  
 우리 용왕을 살려를 주오.”  
**[아니레]** 이렇게 빌어노니 하느님인들 무심할 수가 있겠느냐?

I'll send a snare down to you.  
 Put either your neck or leg in the snare.  
 And I'll pull you up."  
 "You are trying to kill me. Right?"  
 "Heaven knows you are a loyal subject. How can I kill you?"  
 Hare sends a snare down to Terrapin.  
 Terrapin puts his neck in the snare, thinking Hare is as innocent  
 as he.  
**[Jungmori]** Behold Hare.  
 He pulls up the snare and ties it on the top branch.  
 Terrapin hangs in the air like a wood tray.  
 He is bound to die.  
 Hare looks at Terrapin.  
 "Terrapin. You villain!  
 You enticed me to the sea palace.  
 You intended to open my belly and give my liver to your dragon  
 king.  
 You should dry to death by the east wind.  
 Everybody likes terrapin soup.  
 I will kill you by pulling out your neck that you can take in  
 and out of your body."  
 Hare ties the snare on the top branch and goes off to a  
 mountain.  
**[Song Mode]** Strangled with the vine, Terrapin can't speak.  
 He prays to God in his mind.  
**[Jinyangjo]** "I pray to you, God. I pray to you, God.  
 I don't mind my dying.  
 Who will save my sick dragon king in the sea palace?  
 Please save my dragon king."  
**[Aniri]** How can God ignore such a prayer?

홀룽개는 다행히 풀어졌는데,  
 잔디밭에 가 떨어졌으면 좋을 것을,  
 송곳같이 뾰족한 돌에 가 떨어졌던가  
 등짝이 옹구짐<sup>1447)</sup> 부서지듯 되었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수국으로 들어가야 할 일이다.  
 어떻게 충성이 지극한 별주부든지 가는 토끼를 다시 부른다,  
 “여보시오, 퇴선생!”  
 [창조] “가기는 가시오마는,  
 수궁에서 약속했던 간이나 좀 포리<sup>1448)</sup> 대가리만치만<sup>1449)</sup> 떼어주고  
 가시오.”  
 가던 토끼 슬쩍 돌아보며 욕을 한바탕 갈기고<sup>1450)</sup> 가는다.  
 [중모리] “에이, 요 천하<sup>1451)</sup> 발기를 갈 녀석.<sup>1452)</sup>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들인단 말이냐?  
 미련허드라. 미련허드라. 느그<sup>1453)</sup> 용왕이 미련허드라.  
 느그 용왕 실겅기<sup>1454)</sup> 날갈고<sup>1455)</sup> 나 미련키 느그 용왕 같거든면 영  
 락없이 죽을 텐디.  
 내 밑궁기<sup>1456)</sup> 서이<sup>1457)</sup> 아니었드라면 내 목숨이 어이 살아나라?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청산<sup>1458)</sup>으로 나는 간다.”

29. (토끼 그물에 걸림) 별주부에게 엉터리 약 처방을 일러  
 주고 방정을 떨다가 그물에 걸려 죽게 된 토끼가, 쉬파  
 리들에게 쉬를 슬어주면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말하자,  
 쉬파리가 사람의 손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리] 깡창깡창 뛰어 올라가다가 돌아서서,

Luckily, the snare got loose.  
It would be good if Terrapin fell down on the grass.  
But he falls down on a sharp stone.  
His back is broken into pieces like a pot.  
Given the situation, Terrapin should go back to the sea palace.  
He is so loyal to his king that he calls Hare going to the mountain.

“Hello, Mr. Hare!”

**[Song Mode]** “You can go.

But please give me a little bit of your liver that you promised in the sea palace.”

Hare turns around and throws curse words at Terrapin.

**[Jungmori]** “You are a scoundrel to be drawn and quartered.

How can I take my liver in and out of my belly?

How stupid! How foolish! How stupid your dragon king was!

I would surely be dead now if your dragon king were as smart as I, or if I were as foolish as your dragon king.

How would I come back alive but for the three holes in my body?

I am going back to the green mountain covered with white cloud.”

**29. (Hare is Caught in a Net)** Hare gives an absurd prescription to Terrapin. While acting frivolously, he is caught in a net. He tells flesh flies that he can survive if they lay eggs on his body. Flesh flies tell Hare that he can't defeat a human hand.

**[Aniri]** Hare scampers up and turns around.

“내가 너한테 그동안 지냈던 정리<sup>1459</sup>)를 생각해서 약제<sup>1460</sup>) 하나 일러줄 것인개,<sup>1461</sup>

느그 용왕한테 가서 꼭 그 약제대로 달여 먹여라 잉?

느그 수국 들어가니 이쁜 암자래 많더라.

하루에 일천오백 마리씩만 잡고,

두꺼비 쓸개 열 보,<sup>1462</sup>

복쟁이<sup>1463</sup>) 가루 석 섬,

빈대 오줌 한 되,

새새끼 발톱 말서 되,<sup>1464</sup>

병아리 원눈물<sup>1465</sup>) 한 되,

이것을 환구를 단지<sup>1466</sup>)에다 넣고,

번갯불에 번쩍 달여,

그림자 수건으로 얼른 짜서 먹이면,

죽든지 살든지 끝이 날 것인개.”

허고 깡창깡창 뛰어 올라가는데,

별주부는 수궁에서 어떻게 토끼 배만 가르자고 해왔던지 어이가 없어,

하릴없이 가는 토끼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토끼란 놈은 저 살아났다는 재주로 깡창깡창 뛰어 올라가다가,

토끼 뒷 놓은 데 가서 뒷발이 딱 걸려

또 죽게 되었든가 보더라.

[창조] 토끼 기가 맥혀,

“아이고, 내가 여기서 또 죽네!

내가 이왕에 죽을 바에는 수궁에 가 죽었더라면

정조<sup>1467</sup>) 한식<sup>1468</sup>) 단오<sup>1469</sup>) 추석 사명절<sup>1470</sup>)에 제사라도 착실히 얻어먹고,

하다못해 석비<sup>1471</sup>)가 아니면 목비<sup>1472</sup>)라도 하나 세워 줄 것인디,



“When I consider that I spent a lot of time with you, I’ll give you a prescription.

Go back to your dragon king and make this medicine exactly as the prescription says.

I saw a lot of beautiful female terrapins in the sea palace.

Kill 1,500 female terrapins a day.

Prepare ten gall bladders of toads,

three bags of blowfish powder,

a pack of housebug’s pee,

three packs of young birds’ nail powder,

and a pack of a young chicken’s tears from its left eye.

Put them in a cloud urn.

Boil it with lightning.

Squeeze it with a shadow towel and have your king drink it.

Your dragon king will be cured or die.”

Hare scampers up a mountain.

Terrapin is struck dumb, thinking that he insisted in the sea palace that they open Hare’s belly.

He cannot but watch Hare going away.

Hare scampers joyously, thinking about how he came back alive.

His hind leg is trapped in a net.

He is again bound to die.

**[Song Mode]** Hare is struck dumb.

“Alas. I am dying again!

I should have died in the sea palace.

Rituals would be performed for me on every big holiday every year.

A wood monument, if not a stone monument, would be erected for me.

공연헌 데를 나와

이 지경이 웬일이냐?”

[아니레] 자탄하고 죽은 듯이 었졌는디,<sup>1473)</sup>

그때 마침 어디서 쉬파리떼가 ‘웁’ 하고 달려드니,

토끼 반가라고,<sup>1474)</sup>

“아이고, 쉬낭청<sup>1475)</sup> 사촌님네들,

모두 어디 갔다 인자들<sup>1476)</sup> 오시오?

내 몸에 쉬<sup>1477)</sup>나 좀 슬어주시오.”<sup>1478)</sup>

“아, 이놈아, 네 몸에 쉬 슬기는 어렵지 않다마는,

그 그물을 누가 쳐 놓은 줄 아느냐?

그 그물은 사람의 손으로 쳐 놓은 것이니,

사람의 손 내력<sup>1479)</sup>을 이를 테니

너 한번 들어 볼래?”

아, 이 뚱파리<sup>1480)</sup>떼가 언제 오행팔괘<sup>1481)</sup>를 배웠든고<sup>1482)</sup>

토끼한테 한번 일러 보는디,

[자진모레] “사람의 손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손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얹어 놓으면 하늘이요,

뒤췌노면<sup>1483)</sup> 땅인디,

요리저리 금<sup>1484)</sup>이 있기는 일월<sup>1485)</sup> 다니는 길이요,

엄지 잔가락<sup>1486)</sup>이 두 마디기는 천지인<sup>1487)</sup> 삼재<sup>1488)</sup>요,

집가락<sup>1489)</sup>이 장가락<sup>1490)</sup>만 못하기는 정월, 이월, 삼월,

장가락이 그중에 길기는 사월, 오월, 유월이요,

무명지<sup>1491)</sup> 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칠월, 팔월, 구월이요,

소지<sup>1492)</sup>가 그중에 저릅기<sup>1493)</sup>는 시월, 동지, 선달인디,

자오묘유<sup>1494)</sup>가 여기 있고,

I came back for no reason.

I can't believe this."

**[Aniri]** After lamenting over his lot, Hare lies face down silently.  
Just then, flesh flies come to Hare.

Hare is glad to see them.

"Oh, flesh flies. My cousins.

Where have you been?

Please lay eggs on my body."

"You villain. It is no sweat to lay eggs on your body.

But do you know who set up the net?

It was set up by human hands.

Let me tell you about the background of a human hand.

Are you interested?"

The flesh flies must have heard about the principles of nature.

It explains a human hand to Hare.

**[Jajin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the background of a human hand.

The principles of heaven can be seen on the palm.

The principles of earth can be seen on the back of the hand.

The lines of the palm are the paths of the sun and the moon.

The two knuckles in the thumb stand for heaven, earth, and humans.

The index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signifies January, February, and March.

The middle finger is the longest because it denotes April, May, and June.

The ring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indicates July, August, and September.

The little finger is short because it means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The four directions are in the palm.

건감간진손이곤태<sup>1495</sup>) 선천팔괘<sup>1496</sup>)가 여기 있고,  
 불도로 두고 일리도 감중연,<sup>1497</sup>) 간상연<sup>1498</sup>) 여기 있고,  
 육도기문<sup>1499</sup>)에 대장경,<sup>1500</sup>)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라.<sup>1501</sup>)  
 네 아무리 피를 낸들 사람의 손 하나 못 당하리라.  
 두 말 말고 너 죽어!”

### 30. (초동목수 신세 타령) 토끼가 죽은 채하고 있을 때, 나 무하는 아이들이 신세타령을 하며 올라온다.

[아니리] “죽고 살기는 내 피에 달렸으니,  
 쉬나 좀 슬어주소.”  
 “그래라.” 하고,  
 어디서 제 동기<sup>1502</sup>) 쉬파리떼를 일천오백 마리쯤 불러오더니마는,  
 토끼가 안 보일 정도로 쉬를 담뱃 슬어 뿜었다.  
 토끼란 놈 쉬 한 짐 신고 죽은 듯이 엎졌을 제,  
 그때 마침 초동목수<sup>1503</sup>) 아해들<sup>1504</sup>)이 저 아래서 지게 갈퀴를 짚어지  
 고, 노래를 한 자리씩<sup>1505</sup>) 부르면서 올라오는디,  
 [아니리] “어이가리너, 어이가리 넘차, 어이가리너 너화로구나.  
 하느님이 사람을 낼 적에 준비귀천<sup>1506</sup>)이 없건마는,  
 우리 놈의 팔자는 무삼너르<sup>1507</sup>) 팔자로서 날 곧 새면 지게 갈퀴를  
 짚어지고 심산궁곡<sup>1508</sup>)이 웬일이냐?  
 여보아라, 친구들아.  
 너는 이 꼴을 베고,  
 나는 저 꼴을 베어,

The eight direction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Buddhist principle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some Buddhist teachings about the world are in the palm.  
However clever you might be, you can't beat a human hand.  
Shut up and accept your death!"

**30.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Bewail their  
Lot) While Hare pretends to be dead,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approach him as they  
bewail their lot.**

[Aniri] "I will escape in my own way.

Please lay eggs on me."

A flesh fly says, "No problem."

He calls about one thousand fifteen hundred of his friends.

They lay so many eggs that Hare can't be seen.

Hare pretends he is dead, lying face down with a lot of eggs  
on his back.

At that moment,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come up to  
the mountain with A-frame carriers and rakes on their backs, as  
they sing a folk song.

[Aniri]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When God created humans, there was not much inequality.

How come our fate is so miserable that we carry A-frame carriers  
and rakes on our backs and wander around in deep valleys at  
dawn?

Hello, my friends.

You work in this valley.

I will work in that valley.

부러진 가지, 떨어진 낙엽을 긁고,  
베고 몽뚱그려<sup>1509)</sup>  
위부모보처자<sup>1510)</sup>를 극진공대<sup>1511)</sup>를 하여 보자.  
어이가리너 너화로구나.”

### 31. (토끼 살아남) 토끼가 기지로 살아나서, 잘난 체하며 좋아한다.

[아니리] 이렇게 한 자리씩 부르고 올라가다가 토끼 뒷을 살펴보니,  
과연 토끼가 한 마리가 걸려 있제.  
여러 놈이 달려들어,  
“야, 모닥불 피워라.  
오래간만에 한 마리 걸렸다.”  
옆에서는 모닥불 피우고 야단법석이 났는데,  
꺼내 들고 보니 쉬를 한 짐 담뱃 슬어났거늘,  
“아이고, 이것 씹었는가  
쉬를 많이 슬어서 못 먹겠다.”  
허고 내던져버릴라고 하니,  
그 틈에 고기 욕심 많은 놈 하나가 거기 쪼갰던가,<sup>1512)</sup>  
“아, 이 자석아.<sup>1513)</sup> 맡어 봐. 맡어 봐.  
요새 것은 냄새만 안 나면 예상<sup>1514)</sup> 먹을 만히는 거.”<sup>1515)</sup>  
냄새를 맡으랴ل 적에,  
토끼 앞발을 잡고 입궁기<sup>1516)</sup>에다 냄새를 맡았으면 다행히 구워먹고  
올라갔을 텐디.  
그날사 말고 일이 안 될라고 그랬든가,  
토끼 뒷발을 잡고 뒤 거그다<sup>1517)</sup> 대고 냄새를 맡아놓으니,

Let's rake broken scrub and fallen leaves.  
Let's cut trees down and wrap them up.  
Let's support our parents, wives, and children as best as we can.  
Where should we go?"

### **31. (Hare Survives) Wits save Hare, and he dances arrogantly and joyfully.**

[Aniri] After singing the song, the grass-cutters take a look at the net.

They spot Hare caught in the net.

Many of them run to Hare.

"Make a bonfire.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 caught a hare."

They make a bonfire, creating a commotion.

One grass-cutter picks up Hare and finds out the hare is covered with fly eggs.

"Gee, it must be rotten.

We can't eat it because there are a lot of fly eggs on it."

The grass-cutter tries to throw Hare away.

Among them is a boy who is greedy about meat.

"You fool. Have a smell at it.

We can eat it unless it smells bad."

The grass-cutter tries to smell Hare.

If he had held Hare's fore leg and smelled him near his mouth, they would have eaten Hare.

It is unlucky day for them today, and things go bad.

The grass-cutter holds Hare's hind leg, and smells him near his anus.

아, 이 께 많은 토끼란 놈이 때는 이때다 허고  
 삼년 묵은 도토리 방귀를 소리 없이 ‘쉬’ 꾸어 노니,  
 “크, 썩어서 못 묵겠다.  
 오뉴월 송장 썩은 내 난다.”  
 허고 팔심<sup>1518</sup>) 좋은 놈이 저 건네다 핵 쏘아 던져노니,  
 토끼란 놈 저 건너 가 팔짝 뛰어 나았으며,  
 “야, 이놈들아.  
 내가 수궁에 들어가서 용왕도 속이고, 께 많은 별주부도 다 속이고  
 나왔는디,  
 무식헌 너희놈들 하나 못 속일쏘냐?”  
 허고 이놈이 저 살아났다는 재주로 방정을 떨고,  
 귀를 탈탈탈탈 떨고 올라가는디,  
**[중모레]** “관대장자<sup>1519</sup>) 한 고조<sup>1520</sup>) 국량<sup>1521</sup>) 많기가 날만해?<sup>1522</sup>)  
 소진<sup>1523</sup>) 장의<sup>1524</sup>) 구변<sup>1525</sup>)인들 의사<sup>1526</sup>) 많기 날만해?  
 삼국시<sup>1527</sup>)에 내가 낳던들 공명선생이 말을 헐까?  
 시리함<sup>1528</sup>)도 시리하다.  
 입사출생<sup>1529</sup>)허였으니 내가 진정 영웅이라.  
 용왕도 내 속이고, 별주부도 속여 왔고, 초동들도 속였으니  
 만고풍상<sup>1530</sup>) 이 내 신세  
 이제는 격양가<sup>1531</sup>) 불러볼거냐?”  
 양그주춤<sup>1532</sup>) 노닐 적에,  
 영산홍록<sup>1533</sup>) 봄바람에 너울너울 춤을 추고,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영산색<sup>1534</sup>)을 그림허고<sup>1535</sup>)  
 기산광야<sup>1536</sup>) 너른 들 금잔디가 깔렸는데,  
 이리도 뛰고, 저리도 뛰고, 짜우똥거리고<sup>1537</sup>) 올라간다.



Sly, Hare thinks he should seize the opportunity.  
 He breaks an acorn fart silently that he has been holding for  
 the past three years.  
 “God, It is rotten. We can’t eat it.  
 It stinks like a dead body in summer.”  
 A grass-cutter with strong arms throws Hare away.  
 Hare sits down swiftly in the distance from the grass-cutters.  
 “You scoundrels.  
 I fooled the dragon king and sly Terrapin in the sea palace, and  
 came back alive.  
 How can I not fool stupid people like you?”  
 Hare acts flippantly thinking that his wits saved him.  
 He shakes his ears and climbs up the mountain.  
**[Jungmori]** “I am smarter than a virtuous ancient king.  
 Are ancient eloquent strategists, Su Qin(蘇秦) and Zhang Yi(張  
 儀), more thoughtful than I?  
 Would an ancient strategist, Kong Ming(孔明), be better than I  
 if I had been born in his era?  
 I closely escaped my death.  
 I am a true hero because I escaped from a place of death.  
 I fooled the dragon king, Terrapin, and the grass-cutters.  
 My fate was filled with hardships, but not now.  
 Let me sing a happy song.”  
 Hare dances joyfully.  
 Red and green leaves dance in the spring wind.  
 Red and blue flowers are beautiful in a mountain.  
 On the wide golden grass field of a mountain,  
 Hare scampers around joyously as he climbs up the mountain.

### 32.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토끼가 독수리에게 잡혔으나 속임수를 써서 독수리를 따돌리고 살아난다.

[아니리] 이리 한참 거덜거리고<sup>1538</sup>)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삼사일 굶은 독수리 한 마리가 ‘어디서 요깃감<sup>1539</sup>)을 구할  
꼬?’ 하고 공중을 뱅뱅 배회할 제,  
저 밑을 보니  
무엇이 이렇게 되작거리고<sup>1540</sup>) 올라오는 것이  
요깃감은 되겠다 싶어,  
어떻게 반갑던지 독수리가 그 크나큰 쪽지로 사정없이 내려닥쳐<sup>1541</sup>)  
토끼 뺨을 한 서너 대 붙여 노니,  
토끼 또르르르르 굴러 정신을 잃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딱 살펴보니,  
눈은 둥글둥글하고,  
입은 꼭 낚시 쏬으로<sup>1542</sup>) 생겼는데  
정떨어지게 되었든가 보더라.  
얼른 목어부렸으면<sup>1543</sup>) 아무 병폐<sup>1544</sup>)가 없었을 것인데,  
하도 좋아서 어르고<sup>1545</sup>) 먹다가  
탈이 생기겠다.

[중모레] “얼씨구나 좋을시고. 지화자자 좋을시고.  
삼사일을 굶었더니 요깃감이 생겼구나.  
홍문연<sup>1546</sup>) 높은 잔치 죽물상<sup>1547</sup>)이 이 같으며,  
팔진미<sup>1548</sup>) 만반진수<sup>1549</sup>)가 이에서<sup>1550</sup>) 더할쏘냐?  
눈을 먼저 빼 먹을까,  
코를 먼저 빼먹을까?  
배를 갈라 간을 내어 식기 전에 내가 먹어볼거냐?

32. (Hare is Caught by an Eagle and Escapes.) Hare is caught by an eagle, but deceives the eagle and escapes from him.

[Aniri] Hare goes up the mountain arrogantly.

Just then, an eagle who has been hungry for a few days hovers in the air in search of prey.

He sees below.

An animal climbs up a mountain while brushing his head.

The eagle thinks he can be his prey.

The eagle is so delighted that he swoops down on Hare and hits him on the cheek with his large wing a few times.

Hare rolls over, losing consciousness.

He manages to collect himself.

His eyes are round.

His mouth looks like a fishhook.

He looks repulsive to the eagle.

If the eagle ate Hare, nothing would go wrong.

The eagle is so joyful that he plays with Hare.

Things go wrong.

[Jungmori]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I came across this prey after not having eaten for a few days.

This prey is better than the food on a bamboo table on a big feast.

This prey is better than precious delicacies.

Should I take out his brain and eat it first?

Should I take out his eyes and eat them first?

Should I take out his liver and eat it before it cools down?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 좀도<sup>1551</sup>) 좋네.”

[아니리] “어디서부터 먹었냐?

어두진미<sup>1552</sup>)라 하였으니

대그빚부터<sup>1553</sup>) 차근차근 좇아서<sup>1554</sup>) 내리 먹을란다.”

[창조] “아이고, 장군님.

암디서부터라도<sup>1555</sup>) 잡수시오마는,

내가 이왕 죽게 되었으니 울음이나 실컷 울고 죽을라요.”

“유언이라 아니 들어줄 수 없다마는

너무 많이 울지 마라.

살 빠질라.”

이놈이 허락을 말더니마는 무단히<sup>1556</sup>) 우는디,

[중모리]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나 죽기는 싫잖으나,<sup>1557</sup>)

아까운 의사춤치<sup>1558</sup>)를 무주공산<sup>1559</sup>)에다 버려두고 임자 찾아 못 전  
하고 이 자리에 죽게 되니, 이 아니 원통허리?”

이렇듯이 슬피 우니,

[아니리] “아, 이놈아, 그것이 뫼이간디<sup>1560</sup>) 너 죽기보다 더 서럽단  
말이냐?”

“아이고, 장군님. 일전에<sup>1561</sup>) 제가 남해 수국으로 훈련대장을 허러  
갔는디,

훈련대장을 마치고 이 세상을 나올 때

용왕이 섭섭하시다고, 뭐 요만헌 것 하나를 주십니다.”

“그것이 뫼이냐?”

[창조] “그것이 바로 의사춤치라고 허는 것인디요.”<sup>1562</sup>)

[아니리] “어떻게 생겼냐?”

Hurray! Yippee! Whoopee! Oh boy! What a pleasure!”

**[Aniri]** “Which part of his body should I eat first?

It is said a head is the most delicious when it comes to a fish.  
So I’ll peck at and eat this prey, beginning with his head and  
going down.”

**[Song Mode]** “Oh, general,

You can begin with any part you like.

Sine I will die, let me cry as much as I like before I die.”

“I can’t but listen to your last words.

“But don’t cry too much.

You might lose weight.”

After his wish is granted, Hare cries hard.

**[Jungmori]** “Alas. How miserable my fate is!

Alas. How miserable my fate is!

I don’t mind my dying.

I left Wish-Granting Bag, a precious thing, in an empty  
mountain. Isn’t it sad I can’t deliver it to its owner, if I die.”  
Hare weeps sadly.

**[Aniri]** “You rat. What is Wish-Granting Bag that you think is  
more precious than your life?”

“General, I have been to the sea country in the South Sea to  
become the general of the military academy.

I was about to come back to the land after finishing the service  
as the general.

The dragon king gave me something, saying he hated to say  
goodbye to me.”

“What is it?”

**[Song Mode]** “It is called Wish-Granting Bag.”

**[Aniri]** “What does it look like?”

[창조] “착 펴놓고 보면 일곱 궁기<sup>1563</sup>)가 있어요.  
한 궁기를 탁 통기면서, ‘뽕아리새끼<sup>1564</sup>) 나오니라.’ 그러면 뽕아리새끼가 하루에 일천오백 마리씩 꾸역꾸역 나오고,  
‘씩은 창자 나오니라.’ 그러면 창자가 수수만<sup>1565</sup>) 발<sup>1566</sup>)이 나오고,”  
[아니레] 이놈이 꼭 독수리 좋아 허는 것으로만 외는디,  
[창조] “이런 좋은 보물을 무주공산에다 버려두고,  
임자 찾아 못 전치고 이 자리에 죽게 되니, 이 아니 원통허오?”  
[아니레] 독수리 들으니 대번 환장<sup>1567</sup>)허졌제.  
“아야, 토끼야. 내가 너 살려 줄 텐개<sup>1568</sup>) 고것<sup>1569</sup>) 날 도라.”<sup>1570</sup>)  
[창조] “그러지만 누가 장군님을 믿겼소?”  
[아니레] “아, 이놈아. 네 말 들어보면,  
그 의사춤치 하나만 있으면 평생 식량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창조] “그러지만 누가 장군님을 믿겼소?”  
[아니레] “정 못 믿겼으면 너와 나와 사촌 결의형제<sup>1571</sup>)를 맺자.”  
[창조] “장군님 시장하시면 사촌 형제간을 알아보시리까?”  
[아니레] “뭣이 어째?  
너 이놈, 그라픈<sup>1572</sup>) 안 되겠다.  
시장허니 우선 너부터 좇어<sup>1573</sup>) 먹을란다.”  
“아닙니다요. 저 건너 바우툼에 쪼겨<sup>1574</sup>) 두었습니다요.”  
“그럼 그리 가자.”  
독수리가 토끼를 술 잘 먹는 사람 술병 들듯이 발로 착 채가지고,  
저 건넌 산으로 훨훨 날아가 바우에 널름<sup>1575</sup>) 올라 앉으니,  
“장군님, 여기 잠깐 앉아 계옵시면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얼른 그 보물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이놈,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냐?  
내가 네 다리 하나를 잡고 있을 테니,

[Song Model] “If you unfold it, you will see seven holes.  
If you hit one of the holes and say ‘Come out, chicks,’ one  
thousand five hundred chicks come out continuously.  
If you say ‘Come out, rotten intestines,’ thousands of them come  
out.”

[Aniri] Hare talks only about the eagle’s favorite food.

[Song Model] “I left such a treasure in an empty mountain.  
Isn’t it sad that I die without delivering it to its owner?”

[Aniri] Hare’s story intrigues the eagle.

“Hare, I’ll set you free. Please give the bag to me.”

[Song Model] “But who would trust you, general?”

[Aniri] “You fool. Think about what you said.

If I have Wish-Granting Bag, I will not worry about food for  
the rest of my life.”

[Song Model] “But who would trust you, general?”

[Aniri] “If you can’t trust me, let’s be cousins to each other by  
oath.”

[Song Model] “General, can you respect your cousin, when you  
are hungry?”

[Aniri] “What?

You bastard. Forget about my proposal.

Because I am hungry, I’ll eat you up.”

“No. I kept the bag in between rocks over there.”

“If so, let’s go there.”

The eagle picks up Hare as a drunken man picks up a wine  
bottle.

He flies to the mountain and sits on a rock majestically.

“General, sit here for a moment.

I’ll go inside and bring out the treasure immediately.”

“You villain. How can I trust you?

I will hold your leg.

몸만 죄아<sup>1576</sup>) 들어가서 갖고 나와!”

“대체 그러겼소.”

이놈이 다리 하나를 독수리한테 맡겨놓고 눈치를 살살 보면서 몸만 죄아 들어가는데,

[창조] “아이고, 장군님. 조금만 놓으시오.

의사춤치가 보일랑말랑허요.”

“오냐. 발목만 잡았다.”

[창조] “아이고, 장군님. 조금만 더 놓으란 말이요.

의사춤치가 닿을라고 그냥 갈신갈신<sup>1577</sup>)허요.”

[아니레] “오냐. 엄지발꼬락<sup>1578</sup>)만 잡았다.”

[창조] “아이고, 장군님. 조금만 더 놓으란 말이요.

곧 하면 잡히겠소.”

[아니레] “오냐. 발톱만 잡았다.”

[창조] “아이고, 장군님. 조금만 더 놓으시오.

곧 하면 잡히겠소.”

[아니레] “인제 잡을 데 없는디야?”<sup>1579</sup>)

헐 제, 발로 탁 차고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아, 이놈이 한가한 체라고<sup>1580</sup>) 시조 반장<sup>1581</sup>)을 부르고 자빠졌 제.<sup>1582</sup>)

[시조창] “반 남아<sup>1583</sup>) 늙었으니, 아니 놀지 못 허리라.”

[아니레] “아, 이 토끼야!

나는 시장해 죽겠는데,

너는 한가한 체라고 시조 부르고 있냐?

얼른 나와야!”<sup>1584</sup>)

“야, 이놈아. 의사춤치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요런 것을 의사춤치라고 하는 것이다.



Put only your body in and bring it out!"

"I'll do so."

Hare leaves one of his legs to the eagle, and goes insid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eagle.

**[Song Model]** "General, please release me a little.

I can faintly see Wish-Granting Bag."

"Okay. I am holding only your ankle."

**[Song Model]** "General, please release me a little more.

I can almost touch Wish-Granting Bag."

**[Aniri]** "Okay. I am holding only your toe."

**[Song Model]** "General, please release me a little more.

I can almost grab it."

**[Aniri]** "Okay. I am holding only your claw."

**[Song Model]** "General, please release me a little more.

I can almost grab it."

**[Aniri]** "I can now hold no part of your body."

Just then, Hare kicks the eagle and goes deep inside.

Hare recites half of a poem to pretend that he is relaxing.

**[Poetic Model]** "Since more than half of my life is gone, I cannot but enjoy myself."

**[Aniri]** "Hare, you villain!

I am hungry now.

How can you recite a poem, relaxing?

Come out!"

"You villain. Wish-Granting Bag is no other than this kind of thing.

그러니 속 상하지 말고  
 어서 너 갈 데로 날아가거라.”  
 “뭣이 어째? 너 이놈! 이 세상 안 나올 것이냐?”  
 “내 나이 팔순<sup>1585</sup>)이다.  
 너같은 것 보기 싫으니,  
 이제 팔난세상<sup>1586</sup>) 그만 나가고,  
 여기 앉아서 바둑이나 두고, 용미봉탕<sup>1587</sup>)에 잣죽이나 먹고, 손주  
 들<sup>1588</sup>)이나 봐줄란다.  
 그러니 더 살 빠지기 전에 다른 데로 날아가거라.”  
 독수리 기가 맥혀, “아이고 분하여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분함을 당했네그러.  
 에라, 이놈. 잘 살아라.”

### 33. (후일담) 독수리는 날아가고, 산신이 늙은 토끼 한 마리를 보내 용왕 병이 낫는다.

[옛모리] 독수리 하릴없이 훨훨 날아가고,  
 그때 산신께옵서는 별주부 충성을 생각하여 노퇴일수<sup>1589</sup>)를 내려보내,  
 대왕 병도 즉차즉효<sup>1590</sup>)하여 태평성대<sup>1591</sup>)를 누렸더라.  
 어와, 세상 여러분들, 미물<sup>1592</sup>)의 짐승들도 진충보국<sup>1593</sup>) 일삼는디,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다시 두 말 하오리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할 것이니라.  
 그 뒤야 뉘 알리오?  
 언재무궁<sup>1594</sup>)이나  
 그만, 더질더질.<sup>1595</sup>)

So don't feel bad.  
Fly away right away."  
"What? You bastard! Don't you come out?"  
"I am eighty years old.  
I hate to see you again.  
I hate to go out to the world of eight hardships.  
I'll play go here, eat delicious food including porridge, and take  
care of my grandchildren.  
So fly away before you lose more weight."  
Stunned, the eagle says, "I feel resentful.  
I am suffering from this infuriating insult because I was too  
greedy.  
You bastard. Have a good life."

**33. (subsequent Story) The eagle flies away. The  
mountain god sends an old hare to the dragon  
king. The dragon king is cured.**

[Eonmori] The eagle cannot but fly away.  
Meanwhile, thinking about Terrapin's loyalty, the mountain god  
sends an old hare to the dragon king.  
The dragon king recovers immediately and lives a happy life.  
Hello, my friends in the world. Even animals are loyal to their  
king.  
We, humans, should be loyal to our king too.  
Let's be patriotic to our country and be nice to our parents.  
Who would know what happens afterwards?  
There is a lot more to say.  
But let me finish.

- 1) 仲夏月. 한여름에 해당하는 음력 오월.
- 2) 廣利王. 중국 신화에서 남쪽 바다를 맡고 있다는 축융(祝融) 신. 당나라 현종이 광리왕에 봉했다고 함.
- 3) 靈德殿.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4) 三海. 세 방향의 바다.
- 5) 君臣賓客. 임금과 신하, 그리고 손님.
- 6) 千乘萬騎. 수많은 수레와 말. 승은 수레를 세는 단위.
- 7) 江漢之將. 양자강과 한수를 지키는 장수. 강물에 사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 8) 川澤之君. 냇물과 연못의 임금. 냇물과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 9) 奏樂. 음악을 연주함. 또는 그 음악.
- 10) 逼真. 사정이나 표현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음.
- 11) 觥籌交錯. 벌로 먹이는 술의 술잔과 잔 수를 세는 산가지가 뒤섞인다는 뜻으로, 연회나 성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2) 노닐더니. 한가하게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놀더니.
- 13) 瀛海天熱風. 큰 바다의 뜨거운 바람.
- 14) 過히. 지나치게 많이.
- 15) 卒然得病. 갑자기 병을 얻음.
- 16) 藥房. '내의원(內醫院)'을 가리킴. '내의원'은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던 관청.
- 17) 都提調. 조선시대에 자문기관에 설치한 자문 명예직. 여기서는 내의원의 도제조를 가리킴. 정일품 정승을 지낸 사람이나 정승을 임명하였으나 실무에 종사하지는 않았음.
- 18) 萬無回春之望. 병이 나올 가망이 전혀 없음.
- 19) 靈德殿. 용궁에 있는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20) 天無烈風. 하늘에 거센 바람이 불지 않음.
- 21) 海不揚波. 바다에는 파도가 일지 않음.
- 22) 呻吟中에.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고생하고 허덕이는 가운데.
- 23) 哀痛.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 24) 玄雲. 검은 구름.
- 25) 黑霧. 검은 안개. 짙은 안개.
- 26) 飄風細雨. 회오리바람이 불고 가는 비가 내림.
- 27) 青衣道士. 푸른 옷을 입은 도사.
- 28) 麻布長衫. 마포로 만든 장삼. '마포'는 삼베. '장삼'은 승려의 옷옷으로, 길이를 길게 하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든다.
- 29) 玉. 여기서는 '옥홀(玉笏)'이어야 할 듯. '옥홀'은 옥으로 만들어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손에 쥐던 물건.
- 30) 再拜而進曰. 두 번 절하고 나와 말하기를.
- 31) 弱水三千里. 삼천 리나 되는 약수. '약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강물로,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여국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길이는 2,700리이며, 부력이 약하여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 32) 白雲 瑤池宴. 흰 구름 속의 요지에서 열리는 잔치. ‘요지’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다는 연못.
- 33) 千年碧桃. 천 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신선 세계의 복숭아. 반도(蟠桃).
- 34) 地下. 땅속. 여기서는 용궁을 가리킨 말인 듯함.
- 35) 風便. 소문.
- 36) 萬萬危重타혹기로. 매우 위태하고 심하다고 하시기로.
- 37) 嵬고자 해서.
- 38) 曰. 말하기를.
- 39) 遑遑한. 갈광질광 어쩔 줄 모르게 급한.
- 40) 짐작하시어.
- 41) 仙藥. 효험이 짙 좋은 약.
- 42) 脈. 맥박. 심장의 박동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얇은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동맥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 맥박의 빠르기나 강하고 약함 따위로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
- 43) 脈. 손목이나 발목의 맥박.
- 44) 心小臟. 심장과 소장.
- 45) 火. 오행의 화를 가리킴.
- 46) 肝膽. 간과 쓸개.
- 47) 木. 오행의 목.
- 48) 肺大臟. 하과와 대장.
- 49) 金. 오행의 금.
- 50) 腎膀胱. 생식기와 오줌보.
- 51) 水. 오행의 수.
- 52) 脾胃. 지라와 위.
- 53) 肝木. 오행의 목에 해당하는 간을 이르는 말.
- 54) 太過. 아주 지나치게 심하거나, 많거나, 큼.
- 55) 木克土. 음양오행설에서 목이 토를 이긴다는 말.
- 56) 傷하옴고. 다쳐 상처를 입고.
- 57) 膽經. 쓸개의 경락. ‘경락(經絡)’은 오장 육부의 병이 몸 거죽에 나타나는 자리. 이 자리를 침이나 뜸, 그밖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하면 관계된 장부의 병이 낫게 됨.
- 58) 甚하니. 보통의 정도보다 더하니.
- 59) 腎經. 생식기의 경락.
- 60) 肝膽經. 간과 쓸개의 경락.
- 61) 自盡. 저절로 없어짐.
- 62) 方書. 약방문을 적은 책. ‘약방문’은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 이름과 분량을 적은 종이.
- 63) 脾. 지라.

- 64) 一身之祖宗. 한 몸에서 으뜸으로 중요한 것.
- 65) 膽. 쓸개.
- 66) 乃一身之標本. 한 몸의 표본임.
- 67) 心靜則 萬病이 息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 68) 心動則 萬病이 生하오니,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병이 생기오니.
- 69) 心經. 심장의 경락.
- 70) 五勞七傷. 오로와 칠상. '오로'는 심(心)이 피로하면 혈(血)이 약해지고, 간이 피로하면 혈이 약해지고, 폐가 피로하면 기(氣)가 약해지고, 신(腎)이 피로하면 정력이 약해지고, 방광(오줌보)이 피로하면 먹는 것이 약해지는 것임. 허하고 약한 병이 스스로 오로를 낳고, 오로가 육극(六極)을 낳고, 육극이 칠상을 낳는데, 칠상의 1은 음한(陰寒), 2는 음위(陰痿), 3은 이급(裡急), 4는 정루(精漏), 5는 정소(精少), 6은 정청(精淸), 7은 소변 삭(小便數)을 말함.
- 71)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한의학에서 원기를 도우며 외감(外感. 한의학에서 감기를 가리키는 말)을 푸는 데 쓰는 탕약.
- 72) 熟地黃. 한약재의 한 가지. 생지황을 술에 담갔다가 여러 번 찌는 것. 보혈(補血), 보음(補陰)에 효과가 많음.
- 73) 酒蒸. 술을 뿌려 찌м.
- 74) 다섯 돈. '돈'은 무게의 단위. 관(貫)의 1/1000로 약 3.75g.
- 75) 山查肉. 한약재로서, 씨를 빼낸 산사나무의 열매. 위장을 튼튼하게 하거나 소화제로 씀.
- 76) 天門冬. 한약재의 한 가지. 호라지꽃의 뿌리. 성질은 찬데, 진해제(鎮咳劑)·강장제(强壯劑) 등으로 쓰임.
- 77) 細辛. 한약재의 일종. 족두리풀이나 민족두리풀의 뿌리. 말려서 두통(頭痛), 발한(發汗), 거담(祛痰) 등의 약제로 씀.
- 78) 去土. 흙을 떨어냄.
- 79) 肉蓯蓉. 열당과(列當科)에 딸린 기생식물의 한 가지. 줄기는 살지고 기둥 모양이며, 잎은 비늘같이 나는데, 줄기와 함께 엽록이 없어 누런 갈색을 띰. 깊은 산속에 나는데, 폐병의特效약이라고 함.
- 80) 澤瀉. 한약재의 일종으로, 택사의 덩이뿌리를 가리킴. 성질이 차며, 이수도(利水道), 임질(淋疾), 습진, 부종 따위의 약제로 씀.
- 81) 罌粟殼. 한약재의 한 가지로, 양귀비 열매의 껍질. 거담(祛痰), 진경약(鎮莖藥) 또는 설사, 이질 따위에 약제로 씀.
- 82) 甘草. 한약재의 일종으로 감초의 뿌리. 비위(脾胃)를 돕고, 다른 약의 작용을 부드럽게 하므로, 모든 처방에 널리 쓰임.
- 83) 水一升煎半連用.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계속 복용함.
- 84) 貼. 약봉지에 찢은 약의 뭉치를 세는 말.
- 85) 效無動靜. 힘을 써봐도 효과가 없음.
- 86) 加減白朮湯. 백출탕의 원방에서 다른 약재를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여 지은 탕약. '백출'은 한약재의 한 가지로,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 87) 白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성질이 따뜻하며, 비위(脾胃)를 돕고, 소화불량, 구토, 설사, 습증 등에 씀.

- 88) 炒灸. 불에 볶음.
- 89) 砂仁. 한약재의 일종으로, 측사밀(縮砂密. 키가 1m 쯤 되는 생강과에 딸린 풀)의 씨.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제로 좋은 약재.
- 90) 白茯苓. 한약재의 한 가지로, 빗갈이 흰 복령. 땀이 알맞게 나도록 하고, 오줌을 순하게 하며, 담증(痰症), 부증(浮症), 습증(濕症), 설사 따위에 쓰는데, 보(補)하는 효험이 있음.
- 91) 麝香. 사향노루의 사향낭에서 얻어지는 향료. 여기서는 '산약(山藥)'의 잘못인 듯. '산약'은 한약재의 하나로, 마의 뿌리. 강장제의 약재로서 유정, 몽설, 대하, 요통, 설사 따위에 씀.
- 92) 五味子. 한약재의 한 가지로, 오미자나무의 열매. 폐를 돕는 효험이 있으므로 기침, 갈증에 쓰며, 담과 설사를 그치게 하는 데에도 씀.
- 93) 懷香. 회향풀. 회향풀의 열매. 대회향과 소회향이 있는데, 다 같이 약으로 쓰고, 기름도 짬.
- 94) 當歸. 한약재의 한 가지로, 승검초의 뿌리.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피를 돕는 약으로 쓰이며, 강장제, 진정제로도 쓰임. 특히 부인병에 좋음.
- 95) 川芎. 한약재의 한 가지로, 천궁이·궁궁이의 뿌리. 성질이 따뜻하고, 신맛이 있으며, 혈액순환을 돕는 약제로 순혈·청혈제로 쓰임.
- 96) 羌活. 한약재의 한 가지로, 강활의 뿌리. '강활'은 미나리과에 딸린 두해, 세해살이풀. 깊은 산골짜기에 절로 나는데, 그 뿌리를 해열 및 진통제로 씀.
- 97) 鹿角. 사슴뿔. 한약재의 한 가지.
- 98) 돈의 1/10.
- 99) 水一升煎半連用.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계속 복용함.
- 100) 陽減. 양의 기운을 줄임.
- 101) 加味羌活湯. 강활탕의 원방에 다른 약재를 넣은 탕약.
- 102) 麻黃. 한약재의 한 가지로, 마황의 줄기. 성질은 따뜻하며, 땀을 내게 하는 힘이 강하며, 기침, 두통, 오한 따위에 약재로 쓰임.
- 103) 陳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오래 묵은 귤껍질. 위를 튼튼하게 하고, 땀을 내게 하는 약효가 있음.
- 104) 防風.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방풍나물의 말린 뿌리. 고뿔(감기), 풍병 등에 약으로 씀. 방풍나물은 미나리과에 딸린 세해살이풀.
- 105) 白芷. 한약재의 한 가지로, 구리때의 뿌리. 감기로 인한 두통·요통·비연(鼻淵. 코에서 콧물이 많이 나오고, 때때로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하는 병) 따위에 쓰며, 외과 약으로도 널리 쓰임.
- 106) 蒼朮. 한약재로 쓰는 삼주(영거시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의 뭉치지 않은 뿌리. 백출보다 땀을 내는 힘이 강하여 소화를 범한 외감(外感.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일컫는 말. 감기.)을 푸는 데 많이 씀.
- 107) 升麻. 한약재의 한 가지로, 승마·왜승마·쫓대승마 따위의 뿌리. 열을 내리게 하거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데 쓰여, 외감·설사·하혈·변혈·탈음·탈항 따위에 많이 쓰임.
- 108) 葛根. 한약재의 한 가지로, 칩의 뿌리. 갈증·두통·요통·항강증(項強症) 및 상한(傷寒) 등에 발한·해열제로 쓰이며, 가루로 하여 복용함.

- 109) 神農氏. 고대 중국의 전설 상의 임금으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110) 百草藥. 온갖 약초로 만든 약.
- 111) 쓰려고 하다가는.
- 112) 무슨 일이 채 되기 전이나, 기회나 시기가 이르기 전에.
- 113) 가마솥.
- 114) 달여.
- 115) 味甘. 단맛.
- 116) 大補元氣. 원기를 크게 분돋아 줌.
- 117) 止渴生津.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함.
- 118) 造營養胃. 영양을 조성하고 위를 건강하게 함.
- 119) 甘溫. 달고 따뜻함.
- 120) 健脾強胃. 지라를 건강하게 하며, 위를 강하게 함.
- 121) 除瀉除濕. 설사를 멎게 하고, 습기를 제거함.
- 122) 兼治膽脾. 쓸개와 지라의 병도 아울러 치료함.
- 123) 灸則溫中. 볶으면 따뜻함이 알맞고.
- 124) 生則瀉火. 생것은 열기를 내보냄.
- 125) 清心丸. 심경(心經)의 열을 푸는 환약.
- 126) 蘇合丸. 소합향을 원료로 하여 만든 환약의 한 가지. 위장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맑게 함.
- 127) 八味丸. 육미환에다 육계(肉桂)와 부자를 더한 약. 정력을 돕는 데 쓰임.
- 128) 六味丸. 가루로 만든 육미탕을 꿀에 반죽하여 만든 환약. '육미탕'은 숙지황·산약·산수유·백복령·목단피·택사 따위로 된 가장 흔히 쓰이는 보약. '환약(丸藥)'은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둥글둥글하게 빚은 약.
- 129) 瓊玉膏. 혈액순환을 고르게 하기 위한 보약의 한 가지로, 생지황·인삼·백복령·백밀 따위의 약재를 씀.
- 130) 滋陰瓊玉膏. 음기를 보충해 주는 경옥고.
- 131) 白茯苓. 빛깔이 흰 복령. 오줌이 잘 나오게 하고 담병, 부종(浮腫), 습증 따위를 다스리거나 몸을 보하는 데 쓴다.
- 132) 赤茯苓. 색깔이 담홍색인 복령. 수종(水腫), 소변불리, 설사 따위에 쓴다.
- 133) 大黃. 한약재의 한 가지로, 강군포의 뿌리.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통리(通利. 대소변이 통함)하는 힘이 많아 대소변 불통·조열(燥熱. 마음이 답답하고 몸에 열기가 남)·헛소리·잠꼬대·적취(積聚. 오랜 체증으로 인하여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경가(癥瘕. 여자의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어혈(瘀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뭍혀 있는 증세) 같은 병에 씀.
- 134) 芒硝.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박초(朴硝)를 두 번 달여서 만든 약재. 성질은 차고, 흠어 내리는 작용을 함. '박초'는 초석(硝石. 질산칼륨)을 한 번 구워서 만든 약재.
- 135) 靑皮. 청귤피(靑橘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아직 익지 아니한 푸른 귤의 껍질.
- 136) 半夏.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반하의 뿌리. '반하'는 천남성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로



- 땅속에 등근 뿌리가 있으며, 꽃줄기는 높이 30cm 안팎임. 등근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담, 구토, 습증, 해수 등에 쓰임.
- 137) 肉桂.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건위, 강장제로 씀.
- 138) 穿山甲. 천산갑의 껍질을 말린 것. 한약재로 쓴다. ‘천산갑’은 천산갑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의 길이는 50-80cm, 꼬리의 길이는 20-50cm 정도이며, 몸의 위쪽은 이마에서 꼬리 끝까지 모두 어두운 빛갈의 비늘로 덮여 있다. 몸의 아래쪽은 비늘이 없고 옅은 살색의 털만 있다. 주둥이가 뾰족하고 이가 없어 긴 혀로 먹이를 훔아 먹는다.
- 139) 丹砂. 주사(朱砂). 천연적으로 나는 유화수은으로, 한약재로 사용함.
- 140) 蓮實. 연꽃의 열매.
- 141) 懷香. 회향풀. 회향풀의 열매. 대회향과 소회향이 있는데, 다 같이 약으로 쓰고, 기름도 짤.
- 142) 當歸. 한약재의 한 가지로, 승검초의 뿌리.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피를 돕는 약으로 쓰이며, 강장제, 진정제로도 쓰임. 특히 부인병에 좋음.
- 143) 川芎. 한약재의 한 가지로, 천궁이·궁궁이의 뿌리. 성질이 따뜻하고, 신맛이 있으며,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순혈·청혈제로 쓰임.
- 144) 木通. 으름덩굴의 말린 줄기 또는 말린 뿌리의 목질부. 성질은 차고, 임질과 부증(몸이 통통하게 붓는 병)에 쓰임.
- 145) 麥門冬. 한약재의 한 가지로, 맥문동이나 소엽맥문동의 뿌리. 보음(補陰. 음기를 도움)·청폐(淸肺. 폐를 깨끗이 함)·거담 및 자양제 따위로 씀.
- 146) 胡黃蓮. 한약재의 한 가지로, 미나리아재비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인 호황련의 뿌리. 성질은 매우 차고, 열로 인한 골증(骨蒸. 뼈가 몹시 쑤시는 병)과 도한(盜汗. 잠자는 사이에 저절로 나는 식은 땀)·안질·치질 등에 약으로 씀.
- 147) 唐黃蓮. 한약재의 하나로, 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황련(깽깽이풀)의 뿌리. 여러 해묵은 황련의 뿌리를 캐어 잔털을 따서 벌에 말림. 건위제로 쓰임.
- 148) 加味六君子湯. 보혈제로 쓰이는 탕약.
- 149) 清暑六和湯. 더위에 상한 심장을 다스리는 데 쓰는 탕약.
- 150) 二元益氣湯. 내장을 다스리며 기력을 돋우는 탕약.
- 151) 羌活湯. 강활의 뿌리를 달인 탕약. 해열 및 진통제로 씀.
- 152) 桃仁湯. 복숭아씨의 알맹이를 달인 탕약으로, 어혈과 혈관을 다스리는 약. ‘도인’은 복숭아씨의 알맹이.
- 153) 白蛇酒. 흰 뱀을 넣고 담근 술.
- 154) ‘저령탕(豬苓湯)’인 듯. ‘저령탕’은 저령, 목통, 택사 따위의 약재를 달인 약. 열이 뭉쳐 소변이 순조롭게 소통되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저령’은 참나무류의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의 균핵(菌核)을 말린 것.
- 155) 百藥. 온갖 약.
- 156) 鍼灸. 한의학에서 침과 뜸을 함께 이르는 말.
- 157) 銅鍼. 구리로 만든 침.
- 158) 銀鍼. 은으로 만든 침.

- 159) 天地之上經.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경락'이란 의미인 듯.
- 160) 流注. '자오유주침법(子午流注針法)'을 가리킨 말. '자오유주침법'은 천간·지지·음양·오행·장부·경락과 팔꿈치·무릎관절 이하의 오수혈(五輸穴)을 연합하여 조성된 일종의 날짜와 시간에 따라 침질을 하는 침법.
- 161) 甲日. 일진에 '갑'이 들어가는 날.
- 162) 甲戌時에. 육십갑자 중에서 갑술에 해당하는 시에.
- 163) 膽經. 쓸개의 경락.
- 164) 불명.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에는 44혈이 있는데, 여기에 '주유'는 없다.
- 165) 乙日. 일진에 '을'이 들어간 날.
- 166) 酉時.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 167) 大腸經 商陽. 수양명대장경에 속하는 상양혈. '상양'은 둘째 손가락 노뼈 쪽 손톱 뒷모서리에서 일푼(0.3cm 정도) 뒤에 있다.
- 168) 靈龜. '영구팔법(靈龜八法)'을 이름. 옛날에 쓰던 배혈방법의 하나로서, 고대에 쓰던 팔괘·구궁도·기경팔맥의 이론에 따라 침을 놓을 때의 날짜와 시간을 천간과 지지의 숫자로 계산하여 나온 숫자를, 이미 붙여놓은 팔맥교회혈의 숫자에 대입하여 혈을 선택하는 배혈방법.
- 169) 一 申脉.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1은 신맥에 해당된다는 말. '신맥'은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로서, 바깥 복숭아뼈의 중심에서 4푼 아래인 가는정강이뼈 머리의 아래 기슭 우묵한 곳이다.
- 170) 二 照海.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2는 조해에 해당된다는 말. '조해'는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혈. 안쪽 복사뼈의 중심에서 0.4인치 아래인데, 안쪽 복사뼈의 아래 우묵한 곳.
- 171) 三 外關.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3은 외관에 해당된다는 말. '외관'은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혈. 손등 쪽 손목 가로간 금의 중간에서 2치 위 자뼈와 노뼈 사이에 있다.
- 172) 四 臨泣.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4이면 임읍에 해당된다는 말. '임읍'은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혈. 임읍혈에는 머리 임읍혈과 발 임읍혈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리 임읍혈을 가리킴. 머리 임읍혈은 눈동자로부터 5푼 위에 있으며, 다리 임읍혈은 발등에서 제4, 제5 발목뼈가 갈라진 사이이며, 소지신근건의 바깥쪽에 있다.
- 173) 六 公孫.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6이면 공손에 해당된다는 말. '공손'은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 발 안쪽에서 제1 발목뼈바닥의 안쪽 전하방과 단모지굴근 사이에 있는 우묵한 곳이다.
- 174) 七 後谿.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7이면 후계에 해당된다는 말. '후계'는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혈. 새끼손가락뼈 쪽 제5 손목 손가락뼈마디의 뒤에 있는 금 끝에 있다.
- 175) 八 內關.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8이면 내관에 해당된다는 말. '내관'은 수厥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혈 이름. 손목의 손바닥쪽 가로 간 금의 가운데로부터 2 치 올라가서 장장근건과 노뼈 쪽 수근굴근건 사이에 있다.
- 176) 九 列缺.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9이면 열결에 해당된다는 말.

- ‘열결’은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혈 이름. 손목의 가로 간 굵에서 1.5 치 올라가 요골경상돌기 위에 정맥이 있는 곳이다.
- 177) 三氣. 한의학에서 풍(風), 한(寒), 습(濕)의 세 가지 사기(邪氣)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기’는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78) 불명. 혹 ‘奇經八脉’의 잘못된지도 모르겠음. ‘기경팔맥’은 십이경맥과 달리 다른 길로 자기 혼자 행하는 경맥. 여덟 갈래인데, 임맥, 독맥, 중맥, 대맥, 음교맥, 양교맥, 양유맥, 음유맥이다.
- 179) 左脈. 몸의 왼쪽에 있는 맥.
- 180) 任脈. 기경팔맥의 하나로서, 몸의 앞 정중선에 분포된 경맥이다.
- 181) 督脈. 기경팔맥의 하나로서, 미추골 아래에서 시작하여 척추 속을 따라 올라가다가 풍부혈 부위에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정수리로 나온 다음, 이마와 콧마루를 지나 뒤통 속으로 들어간다.
- 182) 十二經脈. 모든 경맥들 중 기본이 되는 12개의 경맥. 분포된 부위, 연계된 장부에 따라 음경, 양경, 수경, 족경으로 나눈다.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수소음신경(手少陰腎經)·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수궤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족궤음간경(足厥陰肝經)·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열두 가지임.
- 183) 承漿. 임맥의 혈. 정중선에서 아랫입술 아래 가장 깊숙한 곳이다.
- 184) 廉泉. 임맥의 혈. 혀뿌리의 윗변연 중심부이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침을 놓는다.
- 185) 天突. 임맥의 혈. 앞 정중선상에서 흉골병의 경절혼으로부터 위로 5 분 되는 우묵한 곳이다.
- 186) 鳩尾. 임맥의 낙혈 이름. 검상돌기와 갈비활이 갈라진 사이를 연결한 중심에서 1 치 아래에 있다.
- 187) 巨闕. 임맥의 혈로서, 앞 정중선 배꼽 위 6촌 되는 곳이다.
- 188) 上脘. 임맥의 혈로서, 앞 정중선 배꼽 위 5촌 되는 곳이다.
- 189) 中脘. 임맥의 혈 이름. 앞 정중선 배꼽 위 4촌 되는 곳이다.
- 190) 下脘. 임맥의 혈 이름. 앞 정중선 배꼽 위 2촌 되는 곳이다.
- 191) 神厥. 임맥의 혈 이름. 배꼽 중앙이다.
- 192) 丹田. 임맥의 혈인 석문(石門. 앞 정중선 배꼽 아래 2촌 되는 곳), 음교(陰交. 앞 정중선 배꼽 아래 1촌 되는 곳), 기해(氣海. 앞 정중선 배꼽 아래 1.5촌 되는 곳), 관원(關元. 앞 정중선 배꼽 아래 3 촌 되는 곳) 혈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관원혈을 이른다.
- 193) 崑崙.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 이름. 바깥 복숭아뼈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 높이에서 바깥 복숭아뼈의 뒷기슭과 뒤축뼈힘줄의 바깥기슭과의 중간점에 있다.
- 194) 足太陰脾經. 십이경맥의 하나.
- 195) 三陰交. 족태음비경의 혈 이름. 안쪽 복숭아뼈의 중심에서 세 치 올라가 굽은정강이뼈의 안쪽 후연과 긴발가락굽 힘살 사이에 있다.
- 196) 陰陵泉.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 이름. 굽은정강이뼈 안쪽 뒤 아래 우묵한 곳이다.
- 197) 病勢. (더하고 덜한) 병의 형세.
- 198) 危重. (병세가) 위험할 만큼 매우 중함.

- 199) 氣色.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
- 200) 물끄러미.
- 201) 驚動脈. 놀라 움직인 맥.
- 202) 脾胃脈. 지라와 위의 맥.
- 203) 腹中. 배속.
- 204) 걸러. 숨을 크게 쉬거나 움직일 때에,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프게 딱딱 마쳐.
- 205) 火病. 울화병. 울울하고 답답하여 일어나는 심화로 말미암아 생긴 병.
- 206) 陰陽風病. 음양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정신작용·근육 신축·감각 등에 고장이 생긴 병.
- 207) 動하여. 발동하여.
- 208) 巽氣. 팔괘의 손에 속하는 기운.
- 209) 辛氣. 12지의 신에 속하는 기운.
- 210) 正陰. 가장 강한 음기.
- 211) 辰庚亥未는. 12지 중에서 진과 경과 해와 미는.
- 212) 正陽. 가장 강한 양기.
- 213) 陰虛火動. 음기가 허하고 화기가 활발함.
- 214) 黃疸. 주로 간장의 고장으로 생기는 증상으로서 쓸개즙의 색소가 혈액 속으로 이행하여 생기는 병.
- 215) 塵世山間. 인간이 사는 세상의 산 속.
- 216) 差效. 차도. 병이 나아가는 일.
- 217) 同姓. 성씨가 같음.
- 218) 東方朔. 전한(前漢) 때의 사람. 자(字)는 만천(曼倩). 무제를 섬기어 금마문시중이 되었으며, 해학과 변설에 능하였음.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죽지 않고 장수하였으므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일컬음.
- 219) 누를 황(黃), 샘 천(泉), 돌아갈 귀(歸)하겠소. 황천으로 돌아감, 곧, 죽겠다는 말.
- 220) 神農氏. 중국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 성은 강(姜).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을 형상한 인신우수(人身牛首)의 신인(神人). 화덕(火德)으로써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약사의 신. 또 8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역자(易者)의 신이 되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도 불림.
- 221) 卯乙巽은 陰木이요.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묘와 십간의 을은 오행으로는 목(木)에 속하는데, 팔괘의 손(巽)이 소음(少陰)이므로, 셋이 합하여 음의 목이 된다.
- 222) 辰戌은 陽土.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진과 십간의 술은 오행의 토(土)에 해당되는데, 팔괘의 간은 소양(少陽)이므로 셋이 합하여 양의 토가 된다는 말.
- 223) 甲寅乙卯大溪水. 육십갑자의 갑인과 을묘는 큰 강의 기운을 나타낸다.
- 224) 辰艮巳山은 元屬木. (점술이나 택일에 쓰이는 흉병 오행에) 진과 간과 사와 산은 원래 목에 속한다는 말.
- 225) 木克土. 나무가 흙을 이긴다는 말. 나무와 흙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로 남녀 관계나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형이 목극토일 경우 화합되지 않는다고 한다
- 226) 水生木. 음양오행설에서, 물에서 나무가 생긴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227) 然하다. 그렇다.
- 228) 雖然이나. 비록 그러하지만.
- 229) 蒼茫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 230) 塵世間的. 이 세상의.
- 231) 碧海. 푸른 바다.
- 232) 萬頃 밖에. 만 이랑이나 되게 넓은 푸른 바다 밖에.
- 233) 白雲이 九萬里요. '흰 구름이 구만리나 뻗어 있는 먼 곳이요'라는 의미로 쓰였음.
- 234) 渺然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 235) 水國中에. 물의 나라 가운데에.
- 236) 流砂一路上. 유사 한 길 위의. '유사'는 바람이나 물에 흐르는 모래.
- 237) 弱水三千里. 삼천 리나 되는 약수. '약수'는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가진 청조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목왕(周穆王)께 전했다고 함.
- 238) 塵世. 사람이 사는 이 세상.
- 239) 往來間에. 오고가는 가운데.
- 240) 幽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치가 깊고 넓은.
- 241) 路殊. 길이 다름.
- 242) 昔者의. 옛날의.
- 243) 萬乘天子. 만 대의 전차를 부릴 수 있는 천자.
- 244) 威嚴.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 245) 不死藥.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약.
- 246) 童男童女. 어린 사내아이와 계집아이.
- 247) 虛送三山.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에 쓸데없이 보냄.
- 248) 然後에. 그런 뒤에.
- 249) 一髮青山. 한 가닥의 머리카락처럼 가물가물 보이는 산. 송나라 문인 소식의 시 〈정매역통조각(澄邁驛通潮閣)〉의 한 구절인 '청산일발시중원(青山一髮是中原)'에서 따온 말.
- 250) 蹤迹.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
- 251) 萬古英雄.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영웅.
- 252) 漢武帝(BC 156—BC 87). 전한의 제7대 황제(재위 BC 141년—BC 87)이다. 아명은 체(彘)이며 자는 통(通)이다. 묘호는 세종(世宗), 시호는 효무황제(孝武皇帝)이다. 경제의 열 번째 아들이며 효경황후 왕지의 소생이다.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다스렸으며 해의 원정을 펼쳐 흉노, 위만조선 등을 멸망시켜 당시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어 전한의 전성기를 열었다.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에 한사군 또는 한군현을 설치하기도 했다. 중국 역사상 진시황제·강희제 등과 더불어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 253) 承露盤. 하늘에서 내리는 장생불사의 감로수를 받아먹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쟁반.
- 254) 崩하시니. (임금이) 돌아가시니.

- 255) 盛衰興亡. 번성하고 쇠퇴하며, 흥하고 망함.
- 256) 壽命長短. 수명의 길고 짧음.
- 257) 在天. 하늘에 있음. 운명에 달려 있음.
- 258) 驪山 松栢.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중국 섬서성에 있는 여산의 소나무와 잣나무.
- 259) 鬱鬱蒼蒼. '울울창창'은 나무가 백백이 들어서 무성하여 푸른 모양. 따라서 여기서는 '울울창창한 속에' 로 해야 옳음.
- 260) 三千古墳. 삼천 개나 되는 옛 무덤. 황제들도 다 죽어 무덤이 그렇게 많다는 뜻.
- 261) 海外. 바다 밖.
- 262) 日月的 밝은 世上. 해와 달이 있는 밝은 세상.
- 263) 無定處로. 정한 곳 없이. 정처 없이.
- 264) 是非 없이. 본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이 없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가리지 않고'라는 의미 정도로 쓰였음.
- 265) 泰山之間에 有百揆之士하고. 큰 산속에도 벼슬아치가 될 선비가 있고.
- 266) 堯舜之君에 有瞽瞍之臣이라. 요순임금에게도 고수와 같은 신하가 있다. '고수'는 장님이라는 뜻으로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는 우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수로 일컬어졌다. 고수는 후처에게 빠져서 후처와의 사이에서 난 막내아들 상(象)을 사랑하여 순을 죽이려고 했으나, 순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우를 사랑하여 화목하기에 힘썼으므로 모두 선도되었다고 한다.
- 267) 聖德. 임금의 덕을 높여서 이르는 말.
- 268) 忠義之臣. 충성과 절의가 있는 신하.
- 269) 滿朝諸臣. 조정에 가득한 여러 신하.
- 270) 下教. 임금이 명령을 내림.
- 271) 떨어져지자. 끝나자.
- 272) 因忽不見. 보이지 않음.
- 273) 옳게.
- 274)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신하.
- 275) 一品. 옛날 벼슬아치의 최고 급수인데, 무관과 문관의 구별이 있고, 종일품과 정일품이 있다.
- 276) 맛이 있는.
- 277) 至賤. 매우 혼한.
- 278) 諸臣. 여러 신하.
- 279) 모두.
- 280) 等物들이. 여러 사물들이.
- 281) 丞相. 옛날 중국의 벼슬인데, 우리 나라의 정승에 해당한다.
- 282) 承旨.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던 정삼품의 벼슬아치.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관.
- 283) 注書.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려 역사 자료를 기록하던 정7품 벼슬.
- 284) 오징어.
- 285) 한림학사(翰林學士). 조선시대 예문관에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보던 정9품 벼슬.

- 286) ‘박죽상어’인 듯. ‘박죽상어’는 중간 크기의 상어를 말함.
- 287) 大司成. 고려와 조선시대 성균관의 으뜸 벼슬로 정3품.
- 288) 도루묵. 바닷물고기로, 몸길이 15-26cm에 입이 큼.
- 289) 蚌僉使. 내시부의 종3품 벼슬인 첨사 벼슬을 가진 조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 290) 해운공(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291) 물방개. 곤충의 일종으로 몸은 평평한 타원형이고, 길이 30-40mm이며, 몸빛은 흑갈색에 녹색 광택이 남. 뒷다리는 길고 크며, 털이 많고, 물 속을 헤엄쳐 다님.
- 292) 監獄官. ‘형벌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관리’라는 뜻으로 지어낸 말.
- 293) 水獺. 족제비과에 딸린 포유동물. 족제비와 비슷한데, 몸통의 길이는 60-80cm, 꼬리는 40-50cm이고, 몸의 위쪽은 광택이 나는 갈색, 아래쪽은 담갈색임.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교묘히 헤엄치며, 물고기, 개, 조개 등을 잡아먹음. 강기슭이나 늪가에 굴을 파고 살며, 봄에 1-5 마리의 새끼를 낳음.
- 294) 留守. (임금을 대신하여 머물러 지킨다는 뜻) 수도 이외의 요긴한 곳을 다스리던 특수한 벼슬아치의 이름.
- 295) 廣魚. 넙치. 넙치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60cm 정도이고 위아래로 넓적한 긴 타원형이며, 눈이 있는 왼쪽은 어두운 갈색바탕에 눈모양의 반점이 있고, 눈이 없는 쪽은 흰색이다.
- 296) 兵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선조 때 각 지방에 두어 병마를 통솔 지휘하던 종이 품 무관.
- 297) 靑魚. 청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이 좀 늘씬하고 옆으로 넓적함. 길이 35cm 안팎.
- 298) 海狗. 물개.
- 299) ‘부세’인 듯. 경골어류 농어목 민어과의 바닷물고기. 참조기와 유사하긴 생김새 어종으로 굴비를 만들거나 찌 먹는 경우가 많다.
- 300) 察訪. 조선시대에 각 도(道)의 역참을 관장하던 종6품의 외관직(外官職). 마관(馬官)·우관(郵官)이라는 별칭이 있다.
- 301) 御史. 왕의 명령으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임시 관리.
- 302) 솜뱅이목 양볼락과의 바닷물고기. 지느러미와 가시에 독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흥취하고 무섭게 생겼으나 복어와 맛이 유사하며, 매운탕 등으로 인기가 좋다
- 303) 曹部將. 부장 벼슬의 조기. ‘조기’의 ‘조’자를 성으로 하여 만든 말임. 부장은 조선시대 종6품의 무관 벼슬.
- 304) 조기.
- 305) 비변랑(備邊郞). 낭청(郎廳)이라고도 하는, 나라 안팎의 군사기밀을 다루던 종6품 벼슬.
- 306) 청가오리. ‘청분’이라고도 함. 가오리의 한 종류로, 꼬리에 가시가 있음.
- 307) 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에 딸린 하급 병졸. 나졸은 말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 체포를 담당했음.
- 308) 巡令手. 대장의 전령(傳令), 호위를 맡거나,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 309) 大元帥. 전군(全軍)을 통솔하는 대장.
- 310) 물고기 이름인 듯하나 불명.

- 311) ‘숭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숭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312) 龍參軍. ‘원’은 자라이며, ‘참군’은 정칠품, 혹은 종칠품 무관 벼슬. 따라서 ‘원참군’은 ‘자라 참군’이란 의미로 지어낸 이름.
- 313)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314) 鼈主簿. ‘별’은 자라. ‘주부’는 조선조 때 종육품 벼슬 이름. 따라서 ‘주부 벼슬을 하는 자라’라는 뜻으로,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 315) 모래무지. 잉어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5cm 정도이며, 은백색이다. 등과 옆구리에 옅은 황갈색의 반점이 있으며 배는 희다. 머리가 크고 입가에 한 쌍의 수염이 있다.
- 316) 누치.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잉어와 비슷하며, 몸길이는 20-30cm이나 큰 것은 50cm에 이른다.
- 317) 민물에 사는 메기.
- 318) 미끌미끌한 뱀장어.
- 319) 正言使劄. 정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정언’은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육품 벼슬.
- 320) 자가사리. 민물고기의 한 가지로, 동자개와 비슷하나 몸이 작고, 입 둘레에 네 쌍의 수염이 있으며, 몸빛은 누르다.
- 321) 돌 밑에 사는 꺾저기. ‘꺾저기’는 농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쏘가리와 비슷하나 좀 작음.
- 322) 산에 있는 냇물에 사는 중고기. ‘중고기’는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몸은 가름하고 납작하며, 길이는 10-16cm. 몸빛은 등 쪽이 암록갈색이고, 배는 희며, 옆구리 중앙에 암색의 세로띠가 있음.
- 323) 피라미.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 몸길이는 10-14cm.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현저한 혼인색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빛 좋은’이란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임.
- 324) 망둑어. 망둑어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의 길이는 20cm 정도이며, 배지느러미가 빨판처럼 되어 있다. 바닷가의 모래땅에 산다.
- 325) 쟁뚱어. 망둥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15-18cm. 몸은 말뚝망둥이 비슷하여 가늘고 길며, 머리 폭이 넓음.
- 326) 물고기 이름인 듯하나 불명.
- 327) 개구리.
- 328) 송사리의 경상도 사투리.
- 329) 龍王前. 용왕 앞에. 용왕께.
- 330) 伏地聽命. 땅에 엎드려 명령을 들음.
- 331) 몸을 뒤로 조금 젖히고 멀찍이서.
- 332) 生鮮塵. 생선을 파는 가게.
- 333) 都物主.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밀천을 대어주고 장사를 시키는 우두머리.
- 334) 경들. ‘경’은 임금이 신하를 가리키는 데 쓰는 말.
- 335) 快活者. 병을 낫게 할 사람.



- 336) 누가.
- 337) 面面相顧. 서로 얼굴만 쳐다봄.
- 338) 默默不答. 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음.
- 339) 割股事君.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여 임금을 섬김. 춘추시대 진(晉)의 개자추는 문공(文公)이 조나라 망명시에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었다고 함.
- 340) 개자추(介子推). 춘추시대 진(晉)의 선비로 문공(文公)이 망명시에 19년을 모셨으나, 문공이 귀국 후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면산(綿山)에 숨어버렸는데, 후에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자, 불을 질러 나오도록 했으나, 끝내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함. 한식(寒食)날은 개자추가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음.
- 341) 誑楚亡身 紀信. 초나라를 속이고 죽은 기신. 기신은 한나라 고조 때 충신. 한 고조 유방이 하남성에서 초나라의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여자들에게 갑옷을 입혀 뒤를 따르게 한 뒤, 유방의 수레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유방을 피신토록 하고 대신 죽었음.
- 342) 임금.
- 343) 君臣有義. 오륜(五倫)의 하나.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는 의리에 있음을 이른다.
- 344) 重할시고. 중한 것이로구나.
- 345) 萬魚之中에. 수많은 물고기 중에.
- 346) 一忠臣. 한 사람의 충성스런 신하.
- 347) 自歎. 스스로 탄식함.
- 348) 臣子之道理. 신하의 도리.
- 349) 公論. 여럿이 모여 의논함, 또는 여럿이 하는 의논.
- 350) 떠들썩하고 뒤숭숭하되.
- 351) 어떠한가?
- 352) 祭饌. 제사 때 올리는 밥.
- 353) 爲主. 으뜸으로 삼음.
- 354) 春三月. 봄 3월달.
- 355) 好時節. 좋은 시절. 좋은 때.
- 356) 죽겠느냐?
- 357) 正言.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에 딸린 벼슬. 정원은 2명이고 품계는 정6품이었음.
- 358) 무엇이 눈앞에 잠깐 나타나기만 하면.
- 359) 守門將. 대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
- 360) 물에 사는 메기.
- 361) 長鬚口大. 수염이 길고 입이 큼.
- 362) 好風身. 풍채가 좋음.
- 363) 食量이 壯히 넓어. 먹는 양이 매우 많아서.
- 364)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 365) 시장기를 면할 재료.
- 366) 蓑笠. 도롱이나蓑갓.
- 367) 漁翁. 고기 잡는 늙은이. 어부.

- 368) 細雨斜風釣不歸. 가랑비 오고 바람 빗겨 부는데 낚시질을 하며 돌아가지 아니함.  
 369) 미끼.  
 370) 食食. 음식을 탐냄. 음식을 탐내어 먹음.  
 371) 斷不饒貸. '단불요대'는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단숨에 꿈쩍없이'라는 뜻인 듯.  
 372) 痢疾. 설사를 하는 전염병.  
 373) 腹疾. 뱃병. 배앓이 설사 따위.  
 374) 이질.  
 375) 瘧病.瘧로 인해 생긴 병.  
 376) 補胃藥. 위의 기능을 좋게 하는 약.  
 377) 海狗. 물개.  
 378) 腎莖. 음경. 자지.  
 379) 好色. 여자를 좋아함.  
 380) 色必亡身. 여자는 반드시 자신을 망치게 함.  
 381) 鰓郎廳. 낭청벼슬을 하는 새우. '낭청'은 종육품의 벼슬.  
 382) 超等. 등급을 뛰어넘음. 뛰어남.  
 383) 眼睛. 눈동자.  
 384) 短命之相. 목숨이 짧은 생김새.  
 385) 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386) 바위갯과의 하나. 등딱지의 길이는 3cm, 폭은 3.5cm 정도이며, 어두운 녹색이고 몸은 사각형으로 우툴두툴하고 다리에 털이 적다. 등에 'H' 자 모양의 홈이 뚜렷하며 집게발은 수컷이 암컷보다 역세다.  
 387) 伏地奏曰. 땅에 엎드려 아뢰어 말하기를.  
 388) 靑林碧溪. 푸른 숲 속의 푸른 시냇물.  
 389) 山川水. 산속의 냇물.  
 390) 潛身하여. 몸을 물속에 잠그고.  
 391) 月中兔. 달 속의 토끼.  
 392) 망월토(望月兔). 보름달 속에 있는 토끼.  
 393) 顏面. 서로 얼굴이나 알만한 친분.  
 394) 的實하니. 틀림이 없이 확실하므로. 여기서는 '있사오니' 정도로 해야 옳음.  
 395) 小臣.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396) 엄지발가락.  
 397) 무거운 물건을 힘겹게 들 때 나는 소리.  
 398) 大王前. 대왕께.  
 399) 王曰. 왕이 말하기를.  
 400) 十脚. 열 개의 다리.  
 401) 具存. 빠짐없이 갖추어 있음.  
 402) 人跡. 사람의 발자취.

- 403) 무엇이 눈앞에 잠깐 나타나기만 하면.
- 404) 當大事. 큰 일을 맡음. 여기서 이 말은 빼어야 자연스러움.
- 405) 靈德殿. 남해 용왕인 광리왕(廣利王)이 지었다는 궁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 편에 나옴.
- 406) 隱目短足. 눈이 작고 다리가 짧음.
- 407) 長頸鳥喙. 목이 길고, 주둥이가 까마귀의 부리와 같음.
- 408) 虎胸背. 호랑이를 수놓아 무관의 관복의 배와 등에 붙이던 천 조각.
- 409) 자라의 등껍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410) 어린아이나 다리가 짧은 동물이 느리게 걸거나 기어가는 모양.
- 411) 鞠躬再拜. 몸을 굽혀 두 번 절함.
- 412) 上疏. 임금에게 올리는 글.
- 413) 本是. 본래. 처음부터.
- 414) 忠臣之後裔. 충신의 후손.
- 415) 錐處囊中. 송곳이 주머니에 있으면 그 끝이 밖으로 뚫고나오는 것과 같이 재능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그재능이 알려지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416) 穎脫而出. 뾰족한 송곳 끝이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뜻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재능(才能)이 밖으로 드러남을 이르는 말
- 417) 毛遂. 《사기(史記)》의 〈평원군전(平原君傳)〉에 나오는 사람. 전국시대(戰國時代) 말엽 진(秦)나라의 공격을 받은 초나라 혜문왕은 동생이자 제상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 군을 청하기로 했다. 20명의 수행원이 필요(必要)한 평원군은 그의 3,000여 식객 중에서 19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사람을 뽑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다. 이 때 모수라는 식객이 자천하고 나서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 끝이 밖으로 나오듯이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인데, 내 집에 온 지 3년이나 되었다는 그대는 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모수는 자기를 단 한 번이라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기만 한다면 끝뿐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내 보이겠다고 답하였다. 이 채지 있는 답변에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다.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 받으면서 구원군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 418) 재주.
- 419) 吞炭爲啞하고. 숯을 삼켜 병어리가 되어.
- 420) 行乞於市하던. 저자에서 구걸을 하던.
- 421) 豫讓. 《사기(史記)》 〈자객전(刺客傳)〉에 나오는 사람. 중국 춘추시대 말기, 진(晉)나라의 실권자였던 지백(智伯)이 패권다툼에서 조양자(趙襄子)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자, 지백의 신하 중 예양(豫讓)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조양자를 죽이려고 미장이로 변장하고 궁중 공사에 끼어들어가, 조양자가 변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찔러 죽이려다가 실패하여 붙잡혔다. 이에 조양자가 그 이유를 묻자, “지백은 나를 국사(國士)로 대접하였으니, 나도 국사로서 보답하기 위함이다.”라고 대답했다. 조양자는 그를 충신이라 하여 훈방했다. 그러나, 예양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몸에 옷칠을 하여(漆身) 문둥이처럼 하고, 숯을 삼켜(吞炭) 병어리처럼 하고는 걸식하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다리 밑에 숨어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조양자를 죽이려고 했으나

역시 실패하고 잡혔다. 조양자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며 죽이라 명했다. 그러자, 예양은 마지막 소원이라며 조양자의 옷을 빌려달라고 했다. 옷을 건네받은 예양은 가슴 속에서 비수를 꺼내어 그 옷에 세 번 칼질을 하고, “지백 어른, 이제야 원수를 갚았습니다.”라고 하늘을 우러러 외친 다음 그 비수로 자결했다고 한다.

- 422) 六國. 중국 전국시대의 여섯 나라.
- 423) 함종책(合從策). 중국 전국시대에 소진이 주장한 외교 정책. 서쪽의 강국 진(秦)나라에 대항하기 위하여 남북으로 위치한 한·위·조·연·제·초의 여섯 나라가 동맹하여 진에 대항하자는 정책임.
- 424) 蘇秦. 중국 전국시대 중엽의 유세가. 하남성 낙양 사람으로 장의(張儀)와 함께 귀곡선 생에게 배웠다. 처음에 진(秦)나라의 혜왕(惠王)을 비롯하여 제후 밑에서 유세를 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BC 333년 연나라에서 초나라에 이르는 남북선상(南北線上)의 6국의 합종에 성공하여 혼자서 6국의 재상의 인장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무안군(武安君)이라 칭하여 이름을 떨쳤다. 이 때문에 동방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던 진나라는 십수년간 그 진출을 저지당했다. 그러나 그의 합종책은 장의의 연횡책(連橫策)에 패배하여 실패했다.
- 425) 口辯. 말재주. 말솜씨.
- 426) 孟獲. 남만(지금의 베트남)의 왕으로, 서기 225년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익주를 침입하였으나, 제갈량이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자, 제갈량에게 항복하였다.
- 427) 七縱七擒.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줌.
- 428) 諸葛亮.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181-234). 자(字)는 공명(孔明). 시호는 충무(忠武). 뛰어난 군사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曹操)의 위(魏)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다. 유비가 죽은 후에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 중에 병사하였다.
- 429) 智謀. 슬기로운 꾀.
- 430) 當此國體靡寧之時하여. 임금께서 병으로 인하여 편안하지 못한 이 때를 당하여. ‘국체’는 본래 주권의 소재에 따라 나는 나라의 형태이지만, 여기서는 임금을 가리킨.
- 431) 豈敢不忠圖報하오리까? 어찌 감히 충성으로 보답하기를 꾀하지 않겠습니까?
- 432) 此依聖上之威靈과 無窮之造化로 光被四海하시니. 임금님의 위엄 있는 신령스러움과 끝없는 조화에 의지하여 빛이 온 세상을 덮으니.
- 433) 何往不利며 何求不得으로 塵世 一介甕를 何難捉來리까? 어디를 간들 이롭지 않으며, 어느 것을 구한들 얻지 못하여, 세상의 한 마리 토끼를 잡아오기 어렵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하환구득산간일개토(何患求得山間一介甕)’(어찌 산간의 한 마리 토끼를 구하여 얻을 것을 걱정하리오?)로 되어 있다.
- 434) 伏願 聖上은 擺脫下生不仁之德하시고. 엿드려 비움전대, 임금께서는 하생(지위가 낮은 사람)의 불인(어질지 못함)한 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시고. 다른 곳에서는 ‘파탈분전지의(擺脫紛戰之議)’(어지럽게 싸우는 논의를 벗어나)로 되어 있다.
- 435) 卽令小臣으로 使速出世케 하옵시며. 즉시 소신에게 영을 내려 빨리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며.
- 436) 塵世 一介甕를 捉至御庭하며 國體平復하심을 臣所願也로소이다. 세상의 한 마리 토끼를 임금님의 뜰에 잡아와 임금님께서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되기를 신은 바라는 바임

- 니다.
- 437) 英俊之臣. 영리하고 재주가 뛰어난 신하.
- 438) 忠直之言. 충성스럽고 정직한 말.
- 439) 沛公. 한나라를 세운 고조(高祖) 유방(劉邦). 유방이 패에서 났기 때문에 패공이라고 한다.
- 440)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섰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赫赫한 공을 세웠다. 한나라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때 그는 ‘교토사주구팽(狡兔死走狗烹,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441) 皇后. 한 고조 유방의 황후인 여후(呂后). 한신은 고조가 반란을 진압하러 간 사이에 모반을 꾀했으나 여후에게 잡혀 죽었음.
- 442) 한신(韓信)더러.
- 443) 美哉로다. 아름답도다.
- 444) 柱石之臣. 나라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신하.
- 445) 자라탕.
- 446) 別味. 특별히 좋은 맛. 특별히 맛이 좋은 음식.
- 447) 원통한가?
- 448) 惶恐對曰. (위엄이나 지위에 놀리어) 두려워하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 449) 裕餘. 모자라지 않고 넉넉함.
- 450) 進退. 앞으로 나아갔다 물러났다 함.
- 451) 鴻門宴.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고 홍문에서 벌인 잔치.
- 452) 樊噲(? - BC 189). 중국의 전한 초기의 무장. 유방과 같은 패현의 사람. 작위는 무양후(舞陽侯). 시호는 무후(武侯)이다. 개고기를 파는 미천한 신분이며 유방과 친형제처럼 절친한 관계였다. 홍문연에서 항장이 칼춤을 추다가 유방을 죽이려고 했을 때 번개가 막아 유방을 구했다.
- 453) 둥근 방패.
- 454) (둥에다) 짊어졌다수고.
- 455) 江上에. 강물 위에.
- 456) 望보기. 상대방의 동태를 알기 위하여 멀리서 동정을 살피는 일.
- 457) 逢敗. 일이 잘못됨.
- 458) 海中之所生. 바다 속에서 태어남.
- 459) 畫像. 얼굴을 그린 그림.
- 460) 畫工. 그림을 그리는 화가.
- 461) 燕 昭王.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의 소왕. 이름은 평(平)이며,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고, 어진 선비를 후하게 대했으며, 악의(樂毅)를 장군으로 삼아 제(齊)나라의 70여 성을 빼앗았다.

- 462) 黃金臺. 연나라 소왕이 천하의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놀던 곳. 그 누대를 짓는데 천금이 들었다하여 '황금대'라고 하였음.
- 463) 凌虛臺. 하늘을 능멸할 정도로 허공에 높이 솟은 누대. 또는 '능허대'는 송나라 때 진희량이란 사람이 봉상현의 태수로 있을 때 지은 누대 이름. 송나라 때의 문인 소식은 진희량의 밑에 있으면서 그의 명을 받아 1063년에 능허대의 아름다움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내용을 노래한 글을 지었다고 함.
- 464) 名畫師. 이름난 화가.
- 465) 洞庭琉璃青紅硯. 동정호의 유리창(琉璃廠)에서 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나는 고운 벼루.
- 466) 錦水秋波.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여기서는 '금수추파를 담은'으로 해야 함.
- 467) 거북 硯滴. 거북 모양을 한 벼루물을 담는 그릇.
- 468) 兩頭畫筆. 양 쪽에 화필이 달린 붓.
- 469) 듬뿍. 매우 많거나 넉넉하게.
- 470) 丹青 彩色. 붉고 푸른 여러 가지 빛깔.
- 471) 白綾雪花簡紙上. 눈꽃 무늬가 있는 하얀 비단으로 된 화선지 위.
- 472) 天下名山. 온 세상의 이름난 산.
- 473)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
- 474) 芝草. 지치. 쌍떡잎식물 갈래꽃류에 속하는 한 과(科)로, 염료나 약재용으로 쓰임.
- 475) 향초(香草). 향기나는 풀.
- 476) 지저귀어 울 제.
- 477) 봉래산(蓬萊山). 중국에서 상상하던 삼신산(三神山). 신선이 산다는 세 산으로,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산)의 하나.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478) 방장산(方丈山). 삼신산의 하나.
- 479) 雲霧. 구름과 안개.
- 480) 냄새.
- 481) 萬花方暢花林中. 봄이 되어 온갖 사물이 한창 피어나는 꽃수풀 속.
- 482) 大寒.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소한의 다음이며, 양력 1월 21일 경으로 가장 추운 때임.
- 483) 嚴冬. 매우 추운 겨울.
- 484) 雪寒風.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 추위.
- 485) 防風. 바람을 막음.
- 486) 神農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487) 嘗百草. 온갖 풀을 맛봄.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황제인 신농씨가 온갖 풀을 먹어 보아 약초를 찾아냈다고 함.
- 488) (입술이나 귀 따위를) 뻗뻗하게 치켜세우거나 뽀족이 내미는 모양.
- 489) 동글동글함.
- 490) 늘씬. 미끈하게 긴 모양.
- 491) 꼬리.

- 492)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493) 綠水라. 푸른 물이다.  
 494) 綠水青山. 푸른 물과 푸른 산.  
 495) 조금 휘어져 굽은.  
 496) 長松. 키가 큰 소나무.  
 497) 축 아래로 휘어져 늘어진.  
 498) 楊柳枝. 버드나무 가지.  
 499) 들락날락. 연거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500) 엉거주춤.  
 501) 모습은.  
 502) 峨眉山月半輪秋. 이백의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의 첫 구절. 아미산 위에 뜬 반달이  
 벌써 가을이 되었다.  
 503) 이에서. 이보다.  
 504) ‘여기 있다’ 또는 ‘여기 보아라’라는 뜻으로 쓰는 감탄사.  
 505) 물건 따위를 잘 거두어 보호하거나 보관함.  
 506) 御酒. 임금에 주는 술.  
 507) 卿. 임금이 이품 이상의 신하를 가리키던 말.  
 508) 쾌할진댄. 낮게 한다면.  
 509) 半分. 절반으로 나누어 가짐.  
 510) 惶恐對曰. (위엄이나 지위에 눌리어) 두려워하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511) 奉命使臣.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  
 512)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513) 淫骨. 여자를 아주 밝히는 사람.  
 514) 恪謹. 조심함.  
 515) 色近狼狽. 여자를 가까이하면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  
 516) 음흉(陰凶).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거나 속으로는 영악하고 흉악함.  
 517) 舉動. 몸을 움직이는 태도.  
 518) 담배를 끼워서 빼는 물건.  
 519) 콧구멍.  
 520) 責하여.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겨.  
 521) 體位.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522) 年期老重. 나이가 많이 늙음.  
 523) 少年輕薄子. 나이 어려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람.  
 524) 鄙陋.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러움.  
 525) 未安.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움.  
 526) 兒女子.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527) 發論되면. 의논거리로 말하여 드러나게 되면.

- 528) 滿朝諸臣. 조정에 있는 수많은 신하.
- 529) 路柳牆花.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창녀나 기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530) 大笑하며. 크게 웃으며.
- 531) 忠臣之子. 충신의 아들.
- 532) 烈女之子. 열녀의 자식.
- 533) 家中. 온 집안.
- 534) 蒼茫한. 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 535) 塵世間에.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 536) 부디.
- 537) 水晶門. 수정으로 만든 문. 용궁의 문을 가리킴.
- 538) 景概.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
- 539) 壯히. 매우. 씩.
- 540) 杲杲天邊一輪紅. 동틀 무렵 하늘가에 떠 있는 붉은 해.
- 541) 扶桑. 해가 돋는 곳, 혹은 그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542) 暘谷. 해가 돋는 골짜기.
- 543) 자옥하게 긴.
- 544) 月峰으로. ‘월봉’은 달이 뜨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 545) 豫章村. 중국 회남과 강북의 경계에 있는 마을.
- 546) 回雁峯. 중국 호남성에 있는 형산의 으뜸가는 봉우리. 기러기가 겨울에 이곳까지 왔다가, 봄이 되면 북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547) 蘆花. 갈대꽃.
- 548) 浮萍. 개구리밥과에 딸린 물풀.
- 549) 魚龍. 물고기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
- 550) 쟁과에 딸린 작은 새로, 모양은 메추라기와 비슷하나 조금 큼.
- 551) 洞庭如天波始秋. 하늘처럼 맑고 넓은 동정호의 물결이 비로소 가을을 알리다.
- 552) 錦水秋波.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 553) 여기라.
- 554) 碧波. 푸른 물결.
- 555) 滄浪. 맑은 물결.
- 556) 地廣. 땅 넓이.
- 557) 波光. 물 빛깔.
- 558) 天一色. 하늘과 같은 색깔임.
- 559) 天外巫山の十二峯.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560) 海外瀟湘. 바다 멀리까지 뻗은 소상강.
- 561) 眼下. 눈앞.
- 562) (동정호를 중심으로) 오나라는 동쪽으로, 초나라는 남쪽으로 넓게 자리잡았고, (호수에는) 이 세상이 밤낮 없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두보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의



- 한 구절로, 원문은 ‘오초동남탁(吳楚東南拓) 건곤일야부(乾坤日夜浮)’이다.
- 563) 南薰殿. 순임금이 짓고 살았다는 궁전.
- 564) 五絃琴. 줄이 다섯 개가 있는 옛날 중국의 현악기로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함.
- 565) 洛浦. 낙수 강가에 있는 포구. 낙수의 북쪽에 낙양이 있는데, 낙양에서 무관은 하루나 이를 걸리는 거리임.
- 566) 武關囚의. ‘무관수’는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 567) 楚懷王. 초(楚)나라의 왕으로, 진나라의 소왕이 무관에서 만나자고 한 말을 믿고 갔다가 잡히고 말았음. 진나라는 회왕을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굴원이 벼슬을 하다가 참소를 입은 것이 이 때임.
- 568) 冤魂.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 569) 潛身하여. 몸을 물속에 잠그고.
- 570)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571) 萬鏡臺.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불명.
- 572) 鶴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 573) 七寶山. 중국 안휘성 무위현에 있는 산.
- 574) 毘蘆峯. 산봉우리 이름.
- 575) 稽山罷霧鬱嵯峨. 안개가 걷히니 계산이 더욱 높아 보인다. 당나라 시인 하지장의 〈채련곡(採蓮曲)〉의 일절.
- 576) 鏡水無風也自波. 거울같이 맑은 물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물결이 일다.
- 577) 물이 깊은 모양.
- 578) 萬山. 온갖 산.
- 579) 鬱鬱. 나무가 뻗뻗하여 무성한 모양.
- 580) 落花. 떨어진 꽃.
- 581) 가볍게 물 위에 떠내려가는 모양.
- 582) 落落. 가지가 늘어진 모양.
- 583) (가로 퍼진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널찍한.
- 584) 뭉뚱한 다래나무.
- 585) 칙덩굴.
- 586) 으름덩굴.
- 587) 뱃나무.
- 588) 柑子. 감자나무의 열매. 감자나무는 굴과 비슷하나 열매가 굴보다 작음.
- 589) 갓은. 온갖.
- 590) 果木. 과일나무.
- 591) 굽이져.
- 592) 奔飛. 이리저리 날아다님.
- 593) 새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594) 江上. 강물 위의.
- 595) 때로 다니는 고니.

- 596) 少昊天子 紀官하던. ‘소호천자가 벼슬의 이름에 새의 이름을 붙이던 때와 같은 태평성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소호천자는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소호 금천씨(金天氏). ‘소호 금천씨’는 중국 고대의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의 아들로, 황제의 위에 오르자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으므로, 관직 이름에 새 이름을 붙였다고 함.
- 597) 萬壽門前의. 만수문 앞의.
- 598) 洋洋滄點點動. 넓고 넓은 바다 물결에 점점이 떠 움직임.
- 599) 사랑롭다. 사랑스럽다.
- 600) 烏鵲이. 까마귀와 까치.
- 601) 새 이름인 듯하나 불명.
- 602) 해오라기. 백로.
- 603) 너새. 기러기와 비슷하나 몸이 크고 부리가 짧음.
- 604) 징경이. 물수리라고도 하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 605)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
- 606) 萬壑千峰이요.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요.
- 607) 白沙地. 흰 모래사장.
- 608) 약간 휘우듬하게 구부러진.
- 609) 長松. 키가 큰 소나무.
- 610) 狂風. 사나운 바람.
- 611) 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몸 전체를 율동적으로 멋있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 612) 遠山. 멀리 있는 산.
- 613) 暗暗. 깊고 그윽함.
- 614) 近山. 가까이 있는 산.
- 615) 重重. 거둑거둑 또는 겹겹으로 되어 있는 모양.
- 616) 奇巖. 기이한 바위.
- 617) 層層. 층을 이루어 높이 쌓여 있는 모양.
- 618) 메아리.
- 619) 천 리나 되는 긴 시내.
- 620) 물줄기 파위가 끊이지 않고 흐르는 소리.
- 621) 모든 골짜기.
- 622) 한 곳으로.
- 623) 합수(合水)저. 물이 합쳐져.
- 624) 천방저 지방저 언덕저 구부저. 천방지축으로 언덕처럼 솟아오르고 굽이쳐.
- 625) 거품이 일어.
- 626) 병풍석(屏風石). 병풍처럼 생긴 바위.
- 627) 때려.
- 628) 大海水中. 큰 바다 물 가운데.
- 629) 거품.
- 630) 술 식혀 등이 꺾어 끓어오르는 모양. 여기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거품이 끓어오르는 모양을 표현한 것임.

- 631) 바다 같은 넓은 물에 크게 움직이는 물결.  
 632) 크고 묵직한 물체나 몸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  
 633) 뒤틀려서 우그러져서.  
 634) 물결이 자꾸 흔들리는 모양. 여기서는 물속에 비친 산 그림자가 물결에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됨.  
 635) 어느 곳으로.  
 636) 가자는 말인가?  
 637) 여기로구나.  
 638) 雲層境. 구름이 층층이 쌓인 높은 곳.  
 639) 前後不見樹木處. 앞뒤가 안 보이는 나무가 우거진 곳.  
 640) 許多히. 매우 많이.  
 641) 生面不知. 태어나서 만나 본 적이 없어 전혀 모름.  
 642) 죽은 듯이.  
 643) 엎드려 있을 때.  
 644) 모두.  
 645) 蕭瑟涼風夕陽天. 으스스하고 쓸쓸하며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  
 646) 내려온다.  
 647) 作春秋에. 《춘추》를 지을 적에.  
 648) 絕筆. 붓을 놓고 글 쓰기를 그만둠.  
 649) 공자가 《춘추》를 엮을 적에 ‘노나라 애공이 사냥을 가서 …… 기린을 잡다(획린(獲麟))’라는 구절로 끝을 낸 데서 나온 말임. ‘획린’은 절필, 혹은 임종의 뜻으로 쓰임.  
 650) 三軍三營. ‘삼군’은 군대의 좌익, 우익, 중군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삼영’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통틀어 일컫는 말.  
 651) 舉動時. 임금님이 나들이를 할 때에.  
 652) 天子 玉輦. 임금이 타고 다니는 수레.  
 653) 玉京仙官. 신선이 사는 하늘나라의 벼슬아치. ‘옥경’은 도교에서 옥황상제가 있는 곳.  
 654) 乘匹. 타고 다님.  
 655) 出入風雲. 들어오고 나갈 때 바람과 구름을 일으킴.  
 656) 西伯. 주나라의 문왕.  
 657)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658) 非熊非豹.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님.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기에 앞서 점을 쳤는데,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임금을 모실 훌륭한 신하를 만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는데, 이 점괘대로 문왕은 위수 북쪽에서 강태공을 만났음.  
 659) 太昊 伏羲氏. ‘태호’는 매우 밝다는 뜻. 따라서 복희씨는 덕이 높은 천자로서 매우 밝아 해나 달과 같다는 뜻. ‘복희씨’는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은 뱀이고, 얼굴은 사람으로, 소의 머리와 범의 꼬리를 가졌다고 함.  
 660) 羊犧牲. 희생으로 삼은 양. ‘희생’은 제사 때 바치는 산 짐승. 복희씨는 얼룩이 있는 소, 양, 돼지를 길러서 요리하여 제물로 삼았다고 한다.

- 661) 老羊. 늙은 양.
- 662) 少羊. 어린 양.
- 663) 滄海力士. 창해군이라고 하는 힘센 장사. 한 고조의 모사였던 장량이 젊었을 적 진시황을 죽이려고 창해군이라고 하는 장사를 만나 박랑사에서 시황이 탄 수레를 철퇴로 내리쳤으나, 실패했다고 함.
- 664) 博浪沙. 하남성 양무현(陽武縣)에 있는 지명. 여기서 장량이 창해군을 시켜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다 함.
- 665) 狙擊하던. 일정한 대상을 노려서 치던.
- 666) 다람쥐.
- 667) 江水東流猿夜聲. 강물은 하염없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원숭이만 밤에 구슬피 운다. 이태백의 시 <양양가(襄陽歌)>의 한 구절.
- 668) 원숭이.
- 669) 獬皮. 노랑담비의 모피. 또는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일컫는 말.
- 670) 둔피와 같은 말.
- 671) 麤獐노루. 사향노루과의 포유류. 몸의 길이는 1미터, 어깨의 높이는 50cm 정도이며, 어두운 갈색이다. 꼬리는 어두운 갈색, 배는 흰색이고, 불기와 귀, 눈 사이에 잿빛 얼룩 무늬가 있다. 암수 모두 뿔이 없고, 수컷은 위턱에 짧은 송곳니가 밖으로 나와 있다. 배의 향주머니에 사향이 들어있다.
- 672) 날담비. 족제비과 담비속에 딸린 만주날담비와 목도리날담비의 속칭.
- 673) 길담비. 날담비에 이어서 기어다니는 담비라는 의미로 쓴 말. '담비'는 족제비과에 딸린 동물. 족제비와 비슷한데 조금 크고 빛깔이 고음.
- 674) 멧돼지.
- 675) 兎生員. '생원을 하는 토끼'라는 뜻으로, 토끼를 의인화한 표현. '생원'은 과거 소과(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또는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는 뜻으로 그 성 밑에 붙여 부르던 말.
- 676) 水路萬里. 만 리나 되는 먼 물길.
- 677) 疊疊山中.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산 속.
- 678) 가까이 다다르는데.
- 679) 長林. 길게 뻗어있는 숲.
- 680) 얼룩덜룩.
- 681) 두 팔을 벌려서 편 거리.
- 682) 잠두(蠶頭). 보통 산의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특 불거진 모양을 가리킴.
- 683) 箭筒. 화살을 넣는 통.
- 684)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메는 기구.
- 685) 쇠로 만든 낫.
- 686) 큰 모래.
- 687) 옆드려 있겠다.
- 688) 壯히. 매우. 씩.
- 689) 憂患. 근심이나 걱정거리.

- 690) 되더구만. 되더군.
- 691)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 692) 둥근 방석.
- 693) 생겼구나.
- 694) 한 가운데.
- 695) 잘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끈기 있게.
- 696) 견디어.
- 697) 저기가.
- 698) 百獸之長. 모든 짐승들의 어른.
- 699) 猛虎將軍. '사나운 호랑이 장군'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700) 自招災禍.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임.
- 701) 小魚. '작고 보잘 것 없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자라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702) 名色. 어떠한 명목으로 불리는 이름.
- 703) 자라탕.
- 704) '천남성'의 전라도 사투리. '천남성'은 여러해살이풀로 한약재로 쓰는데, 천남성과 중에서 큰천남성의 꽃은 독이 있다. 여기서 '천남생'이라고 한 것은 천남성이 남생이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다. 혹은 남생이의 한 종류를 가리킨 듯하다.
- 705)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706) 濕氣. 한의학에서 습한 기운을 이르는 말.
- 707) 單方藥. '단방약'은 한 가지 약재로 조제한 약.
- 708) 治痰治濕. 담과 습기를 치료함. '담'은 가래, 혹은 몸의 분비액이 큰 열을 받아서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일컫는 말.
- 709) 불에 태워.
- 710) 萬病回春.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711) 名藥. 효험이 좋은 이름난 약.
- 712) 東醫寶鑑.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한 데 모아 편찬한 조선조 때의 으뜸가는 의서. 조선조 선조 30년(1597) 허준이 왕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됨.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 정연한 책으로 총 4권 2책, 활자본.
- 713) 했는지.
- 714) 藥 取해. 약으로 골라 가져.
- 715) 부족하던가.
- 716) 客死죽음. 객지에서 죽는 죽음.
- 717) 北堂. 집의 북쪽에 있는 주부(主婦)가 거처하는 곳.
- 718) 鶴髮母親. 머리털이 하처럼 하얗게 센 어머니.
- 719) 옥빈홍안(玉鬢紅顏). 아름다운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 곧 젊은이의 모습.
- 720) 千里他國. 천 리나 떨어진 먼 남의 나라.

- 721) 奇別. 소식을 전하여 알려줌.  
 722) 倚門望. 문에 기대어 기다림.  
 723) 斷腸曲.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픈 곡조.  
 724) 盡忠報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음.  
 725) 하자고 했더니.  
 726) ‘그만두어라’라는 뜻으로 쓰는 감탄사.  
 727) 悖術. 사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술수.  
 728) 움츠린.  
 729) 高聲. 큰 소리.  
 730)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731) 鼈나리. 자라를 의인화하여 부른 이름. ‘나리’는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던 말.  
 732) 職品. 벼슬의 품계.  
 733) 壯히. 굉장히. 매우.  
 734) 생겼는고?  
 735) 頽落. (건물 따위가) 무너지고 떨어짐.  
 736) 重創. 남은 건물을 헐거나 고쳐서 다시 지음.  
 737) 間. 건축물에서 사방 일곱 자(약 210cm) 내지 아홉 자(약 270cm) 평방의 넓이를 이르는 단위.  
 738) 기와나 벗짚, 이엉 따위로 지붕 위를 덮을 때.  
 739) 衝舌. 추녀.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740) 名醫다려. 명의에게.  
 741) 돼지나 곰의 쓸개를 셀 때 쓰는 수효.  
 742) 卽效藥. 즉시 낫는 약.  
 743) 몸을 힘차게 소구치어 높이 떠올라.  
 744) 三角山.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745) 거기에.  
 746) 匕首劍. 날카롭고 짧은 칼.  
 747) 뱅뱅 돌리는 일.  
 748) 五臟. 한의학에서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다섯 가지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749) 無盡. 다함이 없을 만큼 매우.  
 750) 鼈主簿前에. 별주부 앞에.  
 751) 膝下. 아버지나 조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752) 血肉. 자기가 낳은 자식.  
 753) 孫世. 자손의 늘어가는 정도.  
 754) 後悔莫及.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음.  
 755) 切痛.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함.  
 756) 我生然後에 殺他라고 하니. 내가 산 뒤에 남을 죽인다고 하니.

- 757) 휘어놓았지. 구부러지게 해 놓았지. 곧 굴복을 시켰다는 말.  
 758) 길게.  
 759) 인심 쓴 체하느라고.  
 760) 몽글렀다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가.  
 761) 달려가듯.  
 762) 鳥銃. 구식 장총.  
 763) 鐵丸. 처란. 잘게 만든 총알.  
 764) 楚歌聲. 초나라 노랫소리. 초한 시절에 항우와 유방이 해하성에서 싸울 때, 유방의 군대가 달밤에 초나라 노래를 구슬프게 불러, 항우의 군사들이 고향 생각에 모두 달아났다고 함.  
 765) 초패왕(楚霸王). '항우'를 달리 이르는 말. 진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이 되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766) 闌出. 함부로 경계 밖으로 나감.  
 767) 格으로. 형편에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로.  
 768) 江水. 강물.  
 769)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짐.  
 770) 지명인 듯하나 불명. '관문'의 의미로 보기도 함.  
 771) '천남성'의 전라도 사투리. '천남성'은 여러해살이풀로 한약재로 쓰는데, 천남성과 중에서도 큰천남성의 꽃은 독이 있다. 여기서 '철남생이라고 한 것은 천남성이 남생이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다. 혹은 남생이의 한 종류를 가리킨 듯하다.  
 772) 뽕죽한 끝을 약간 내밀어.  
 773) 조금 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양.  
 774) 그 사이에.  
 775) 쇠스랑처럼 봉우리가 세 개 있는 고개 이름인 듯.  
 776) 어울리지 않게 홀로 우뚝한 모양.  
 777) 壯談.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함. 또는 그 말.  
 778) 되니까.  
 779) 굳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굳었다'는 '죽었다'는 뜻.  
 780) 불명.  
 781) 아리네그려. (상처 따위가) 알알하여 찌르듯이 아프네그려.  
 782) 山中之靈物. 산 속의 신령스런 짐승.  
 783) 志氣. 의지와 기개.  
 784) 變化. 술법을 써서 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함.  
 785) 山祭. 산신제(山神祭). 산신에게 지내는 제사.  
 786) 盤松가지.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가지.  
 787) 廣石岩上. 넓은 바위 위.  
 788) 가만가만 가볍게 계속해서 쓸어내는 소리.  
 789) 秋風落葉.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790)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791) 三色. 세 가지 색깔. ‘삼색과(三色果)’를 가리키기도 함. ‘삼색과’는 제사 지낼 때 상에 올려놓은 밤, 대추, 잣 또는 감을 이른다.
- 792) 左紅右白. 왼쪽 곧 동쪽에는 붉은색 과일, 오른쪽 곧 서쪽에는 흰색 과일을 놓는 제사 상 차림법.
- 793)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 794) 石間水.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
- 795) 祭酒. 제사에 쓰는 술.
- 796) 물고기 이름인 듯하나 불명. 다른 곳에서는 ‘은어 한 마리’로 부른다. 혹 생식 시기에 붉은 색을 띠는 피라미가 아닌가 생각됨.
- 797) 牛羊. 소와 양.
- 798) 代를 허고. 대신을 하고.
- 799) 席下에. 자리 아래에서.
- 800) 跪坐. 무릎을 꿇고 앉음.
- 801) 焚香再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을 함.
- 802) 讀祝. 축문을 읽음. ‘축문’은 제사 때에 읽어 신명(神明)께 고하는 글.
- 803) 朔. 초하루. 축문에서 월건 다음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임.
- 804) 南海臣. 남해의 신하.
- 805) 敢昭告于山神國首傳하노니. 산신의 나라 우두머리 계신 곳에 감히 고하니.
- 806) 偶然得病하여. 우연히 병을 얻어.
- 807) 百藥. 온갖 약.
- 808) 問醫한즉. 의원에게 병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 809) 塵世兎肝. 이 세상 토끼의 간.
- 810) 非但身病之去根하고. 비단 몸의 병의 뿌리를 없앨 뿐만 아니라.
- 811) 兼且延年益壽云故로. 겸해서 또 수명을 더욱더 오래 늘여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 812) 渡越遠海三萬里하여. 먼 바다 삼만 리를 건너서.
- 813) 身躬纔到此山에. 내가 이 산에 도착하자마자.
- 814) 飛禽走獸. 날아다니는 새와 뛰어다니는 짐승.
- 815) 滿山往來. 산에 가득 오고감.
- 816) 本是. 본래.
- 817) 海中之所生. 바다 속에서 태어남.
- 818) 難辨兎者. 토끼를 분별하기 어려움.
- 819) 茲敢憫憫之情을 大綱 仰告하오니. 이에 감히 민망한 마음을 대강 우러러 고하오니.
- 820) 伏乞神靈下鑑主簿之忠하시어. 엎드려 비옵건대, 신령님께서서는 별주부의 충성을 굽어 살피시어.
- 821) 此山中一介兎만. 이 산속 한 마리의 토끼만.
- 822) 卽以支給. 곧 내어주시기를.
- 823) 俾無後艱 더하여 후에 어려움이 없기를.
- 824) 謹以清酌. 삼가 맑은 술 한 잔으로.
- 825) 祇薦于神. 신께 공경하여 바칩니다.



- 826) 伏惟. 엎드려 삼가 생각하옵건대.
- 827) 常事. 아들이 부모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떳떳한 일이라는 뜻으로 《예기》에 나오는 말. 제문이나 축문의 끝에 상투어로 씀.
- 828) 尚饗. 신명이 제물을 받아 드시기를 비는 말. 흠향하시옵소서.
- 829) 再拜. 두 번 절함.
- 830) 至誠이면 感天이라.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리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말.
- 831) ‘그림 靑宅瑤林中’으로 보면, ‘그림같은 푸른 산과 아름다운 숲속’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음.
- 832) 耳目. 귀와 눈.
- 833) 月中兔. 달 속의 토끼.
- 834) 望月兔. 보름달 속의 토끼.
- 835) 的實하니. 틀림없으니.
- 836) 逢敗. 낭패를 당함.
- 837) 매우 강하게.
- 838) 발음을 해 보리라.
- 839) 반가와라고.
- 840) 거기.
- 841) 사람이.
- 842) 箕山. 중국 하남성에 있는 산. 요 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숨어 산 곳.
- 843) 潁水. 중국 하남성에 있는 강. 요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허유가 못 들은 말을 들었다고 하여 귀를 씻은 곳.
- 844) 巢父. 중국 요임금 때의 이름 높은 선비. 속세를 떠나서 산의 나무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함.
- 845) 許由. 중국 요임금 때 숨어서 살던 선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고, 도리어 못 들은 말을 들어 귀가 더러워졌다고 하여 영수에서 귀를 씻었다고 함.
- 846) 支依하자고, 의지하자고. 다른 곳에서는 ‘피세가지고’로 부름. ‘피세가지고’는 ‘세상을 피해 숨자고.’
- 847) 鷄鳴山. 중국 강소성의 남경 서쪽에 있는 산. 여기서는 한나라의 장량이 항우와의 싸움에서 부르게 한 〈계명가(鷄鳴歌)〉에서 음만 따온, 실제와는 상관없는 지명인 듯 하다.
- 848) 항우와 유방의 마지막 싸움인 해하성 전투에서 장량은 통소를 불고, 병사들에게는 초나라 노래인 〈계명가〉를 부르게 했다고 함.
- 849) 八千兵. 팔천 명의 군사. 항우가 처음 강동에서 8,000명의 군사로 일어났음.
- 850) 흠어지게 할.
- 851) 同意請兵. 군사를 요청한 데 동의함. 초한 시절 유방이 항우를 섬멸하려고 공격할 때 고릉(하남)에서 한신과 팽월을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자, 유방은 장량의 권유에 따라 초나라 땅을 한신에게, 양나라 땅을 팽월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다. 이에 한신과 팽월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다. 경포(黥布)도 뒤에 합세하여 대군으로 항우를 해하

성까지 몰아넣어 무절렀는데, 아마도 이 일을 가리킨 듯함.

- 852) 桃花流水. 물 위에 뜬 복숭아꽃.  
853) 무릉도원(武陵桃園).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도화원기>에 복숭아꽃잎이 흘러오는 곳으로 거슬러 가니 별천지가 있었다고 하였다.  
854) 舉酒屬客. 술을 들어 손님에게 권하는 사람.  
855) 商山四皓. 중국 진시황 때에 난리를 피하여 산시성(陝西省) 상산(商山)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 동원공, 기리계, 하황공, 녹리선생을 이른다. ‘호(皓)’란 본래 희다는 뜻으로, 이들이 모두 눈썹과 수염이 흰 노인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856) 緣分.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  
857) 기우뚱거리고.  
858) 初面. 처음 보는 것.  
859) 鳥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860) 듣는 이를 조금 낮추어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당신.  
861) 通姓名.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862) 거기는. 당신은.  
863) 天上月宮. 하늘 위에 있는 달 속의 궁전.  
864) 理陰陽順四時. 음양을 맡아서 사계절의 변화를 순조롭게 함.  
865) 大小月. 크고 작은 달.  
866) 바꾸며.  
867) 禮部尙書.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868) 월중토(月中兔). 달 속의 토끼.  
869) 搗藥醉中에. 술에 취해 약을 찧다가.  
870) 長生藥. 먹으면 오래 산다는 약.  
871) 上帝前. 옥황상제께.  
872) 得罪하여. 죄를 지어.  
873) 此山中. 이 산속.  
874) 謫下.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음.  
875) 토명(兔名). 토끼라는 이름.  
876) 반갑게.  
877) 卽聞塵世之姓名하고 不遠千里而來러니. 금방 인간 세상의 이름을 듣고 천 리를 멀다 않고 왔더니.  
878) 彼此. 나와 당신 모두.  
879) 千萬夢外. 천만 뜻밖.  
880) 久仰聲華. 훌륭한 명성을 오래 동안 우러러 봄. 첫인사에서 인사로 하는 말.  
881) 본래는 ‘하상견지만만무고불측(何相見之晩晩無故不測)’(이렇게 늦게 만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음)인데, 우습게 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함.  
882) 文章. 문장가. 글을 잘 쓰는 사람.

- 883) ‘文字질’인 듯, ‘문자질’은 ‘문자를 가지고 하는 일.’
- 884) 出嫁外人. 시집간 여자는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로라는 뜻.
- 885) 兩相和賣.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서로 잘 의논하여서 물건을 팔고 삼.
- 886) 法之不行은 長鼓통 속이요,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장구통 속처럼 시끄럽다는 뜻인 듯.
- 887) 牛耳讀經. 소 귀에 경 읽기. 둔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
- 888) 莫非王土. 임금의 땅이 아닌 곳이 없음.
- 889) 女必從夫. 여자는 반드시 지아비를 따라야 함.
- 890) 熟不還生. 한번 익힌 음식은 다시 날것으로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와 장만한 음식은 먹어 치울 수밖에 없다는 뜻.
- 891) 汝啗折角. 네 담(담장) 아니면 내 소뿔 부러졌겠느냐? 남에게 억지로 책임을 지우는 말.
- 892) 細毛防川. 가는 털 하나가 냇물을 막는다.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표현한 말.
- 893) 我歌查唱.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는 뜻으로, 꾸밈음이나 나무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큰소리를 침을 이르는 말.
- 894) 魚東肉西. 차릴 때 물고기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다 놓는 것을 이르는 말.
- 895) 紅東白西.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896) 左脯右醢. 말린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 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897) 焚香再拜. 향불을 피우고 두 번 절함.
- 898) 親查頓通家門. 친가와 사돈집이 서로 대문이 통해 있음. 그렇게 가깝다는 말.
- 899) 一口二言하는 耆는 三千億父之子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삼천억 명이나 되는 어머니의 아들이다.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를 과장해서 표현한 것임.
- 900) 구경을 하려고.
- 901) 도무지. 영.
- 902) 日暮黃昏. 저무는 황혼.
- 903) 月出東嶺. 산봉우리에 달이 뜬.
- 904) 塵世間.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속.
- 905) 綠水青山. 물과 푸른 산. 곧, 자연.
- 906)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907) 飽食. 배부르게 먹음.
- 908) 身如浮雲無是非. 몸이 뜬구름과 같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 없음.
- 909)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 910) 廬山. 중국 강서성 북부에 있는 지명. 여산의 동남쪽에 오로봉(五老峯)이 있음.
- 911) 五老峯. 여산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다섯 노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유래하였다고 함.
- 912) 鎮國名山. 서울이나 성 뒤에 자리잡은 나라의 운수가 매여 있는 산.
- 913) 萬丈峰.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높은 봉우리.
- 914) ‘천외무산십이봉(天外巫山十二峯)’의 잘못된 듯. ‘천외무산십이봉’은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라는 말.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915) 三山. '삼산'은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916) 중국에서 높은 산으로 일컬어지는 다섯 산인 오악(五嶽)을 가리킨 듯함. '오악'은 동악(東嶽) 태산(泰山, 산둥성에 있음), 서악 화산(華山, 섬서성에 있음), 남악 형산(衡山, 호남성에 있음), 북악 항산(恆山, 산서성에 있음), 중악 숭산(嵩山, 직례성에 있음)을 이름.
- 917) 萬壑千峰.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 918) 天台山. 중국 절강성에 있는 산.
- 919) 蛾眉山.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산.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임.
- 920) 首陽山. 중국 산서성의 남서쪽에 있는 산. 옛날 백이와 숙제가 여기서 굶어 죽었음.
- 921) 東金剛. 동쪽의 금강산.
- 922) 西九月. 서쪽의 구월산.
- 923) 南智異. 남쪽의 지리산.
- 924) 北香山. 북쪽의 묘향산.
- 925) 遍踏. 두루 돌아다님.
- 926) 巫山.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927) 落照景. 해가 지는 광경.
- 928) 陽谷. 해가 뜨는 골짜기.
- 929) 日出景. 해가 뜨는 광경.
- 930) 歷歷히. 환히 알 수 있도록 또렷하게.
- 931) 登泰山小天下.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아 보인다'는 말로, 《맹자》에 나옴.
- 932)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 933) 大觀. 천하를 한 눈에 훑어 봄.
- 934)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晉)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935) 赤松子. 중국의 고대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 936) 長生不老.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삶.
- 937) 호화롭고 편안한 삶.
- 938) 아주 뛰어난 미인.
- 939) 眉間. 두 눈썹 사이.
- 940) 火亡煞. 불에 의해 죽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 941) 厄. 모질고 사나운 운수.
- 942) 여덟이네.
- 943) 八難世上. 여덟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팔난'은 여덟 가지의 괴로움이나 어려움.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란(兵亂)을 이른다.
- 944) 相. 관상에서 얼굴이나 체격의 됃됨이.
- 945) 初面에. 처음 얼굴을 대하는데.

- 946) 迫切하게. 인정이 없고 쌀쌀하게.
- 947) 一介 寒兎. 한 마리의 보잘 것 없는 토끼.
- 948) 三春九秋. 봄 석 달과 가을 90일(석 달).
- 949) 大寒. 24절기 중의 마지막 절후. 양력 1월 21일 경으로 일년 중 가장 추운 때임.
- 950) 嚴冬. 아주 추운 겨울.
- 951) 雪寒風. 눈 내리고 찬 바람 부는 추위.
- 952) 萬壑에. 수많은 골짜기에.
- 953) 千峰에. 수많은 산봉우리에.
- 954) 花草木實. 꽃과 풀, 나무열매.
- 955) 전혀 없어.
- 956) 제법 어두운.
- 957) 彩雲. 여러 빛깔로 아롱진 구름.
- 958) 片月. 조각달.
- 959) 武關囚의.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 960) 楚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 961) 日月苦楚北海上 蘇中郎. 흉노 땅의 북해(카스피해)에서 날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한나라의 소무(蘇武). 소무는 흉노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갇은 고생 끝에 19년만에 돌아옴. '중랑'은 소무가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
- 962) 三冬. 겨울 석 달.
- 963) 碧桃紅杏. 벽도화(신선세계의 복숭아꽃)와 붉은 살구꽃.
- 964) 春二月. 봄 이월.
- 965) 空腹. 배속.
- 966) 深谷深山. 깊은 골짜기와 깊은 산.
- 967) 기어다닐.
- 968) 올라가미.
- 969)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
- 970) 險山谷. 험한 산골짜기.
- 971) 餓虎. 굶주린 범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험하거나 무서운 대상을 이르는 말.
- 972) 松下에. 소나무 밑에.
- 973) 충을 잘 쏘는.
- 974) 불을 놓으려고. 충을 쏘려고.
- 975) 倭物. 일본 물건.
- 976) 鳥銃. 화승의 불로 터지게 만든 구식 총. '화승'은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 대의 속살을 꼬아 만든 것으로, 옛날 총열에 화약과 탄알을 채고 이 노끈에 불을 댕겨 귀야 통에 대어 폭발시켰다.

- 977) 藥. 화약.
- 978) '대돈쫓잡이'인 듯. 다섯 돈의 무게가 나가는 것. '돈'은 무게의 단위로 약 3.75g
- 979) 鐵丸. 처란. 잘게 만든 총알.
- 980) 가운데 집어넣어.
- 981) 불을 붙여.
- 982) 쩡그리고.
- 983) 실탄을 넣지 않은 총.
- 984) 쏘니.
- 985) 殷王成湯. 은나라 탕왕. '탕왕'은 중국 은나라의 초대 왕. 원래 이름은 이(履) 또는 대을(大乙). 박(亳)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상(商)이라 칭하였으며, 제도와 전례(典禮)를 정비하였다. 13년간 재위하였다.
- 986) 樵童. 나무하는 아이.
- 987) 赤壁江上戰敗하던. 적벽강에서 싸워 패하던. 중국 삼국시절에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과 조조가 적벽강에서 싸웠는데, 여기서 조조가 대패하였다.
- 988)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자(字).
- 989) 짧은.
- 990) 꼬리.
- 991) 巖上. 바위 위.
- 992) 古石. 이끼 낀 오래된 돌.
- 993) 입구멍.
- 994) 쓴 냄새. 힘든 일을 표현하는 말.
- 995) 밑구멍.
- 996) 鳥銃. 놓을 제. 조총을 쏘 때. '조총'은 화승총(火繩銃)을 가리킴. '화승총'은 화승(불을 붙게 하는 노끈)에 불을 붙여 쏘는 총.
- 997) 朝生暮死.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는 죽음.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를 가리키는 말.
- 998) 滿山風景. 온 산에 가득한 풍경.
- 999) 무슨.
- 1000) 情. 마음. 정신.
- 1001) 遊山. 산으로 놀러다님.
- 1002) 景況. 정신적, 시간적 여유나 형편.
- 1003)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 1004) 내어 말을 하는가? '썰다'는 '말하다'의 비어.
- 1005) 등에 진 짐. 여기서 '한 등짐'은 힘껏 등에다 짊어진 짐.
- 1006) 主簿公. 주부를 높여 이르는 말.
- 1007) 朋友有信. 벗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오윤의 한 가지.
- 1008) 追友江南.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로, 자기의 주견이 없이 남의 말에 아부하며 동조함을 이르는 말.
- 1009) 逆으로. 거꾸로.

- 1010) 壯觀. 훌륭하고 멋진 광경.  
 1011) 天壤之間. 하늘과 땅 사이.  
 1012) 海乃最大. 바다가 제일 큼.  
 1013) 萬物之中에. 세상의 온갖 사물 가운데.  
 1014) 神爲最靈. 신이 가장 신령스러움.  
 1015) 無邊大海. 끝이 없는 큰 바다.  
 1016) 間. 집에서 넓이를 재는 단위로, 대개 일곱 자(210cm) 평방, 또는 여덟 자(240cm) 평방, 아홉 자(270cm) 평방을 이룸.  
 1017) 주춧돌. 원주형으로 다듬어 만든 주춧돌. 둥근 기둥 밑에 받침.  
 1018) 珊瑚珠. 산호로 만든 구슬.  
 1019) 朱宮貝闕. 진주와 보배로운 조개로 만든 궁궐.  
 1020) 三光.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의 세 가지 빛.  
 1021) 袞衣繡裳. 고대 천자가 입던 수놓은 하의.  
 1022) 五福. 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복. 보통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이르는데,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貴)함과 자손이 많다(衆多. 많음)함을 꼽기도 한다.  
 1023) 卽位하시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1024) 萬族. 온갖 족속.  
 1025) 貴示하고. 귀하게 여기고.  
 1026) 仰德. 덕을 우러러 봄.  
 1027) 鵬母(鸚鵡盃). 앵무조개의 껍데기를 가공하여 만든 술잔.  
 1028) 金盞. 금으로 만든 술잔.  
 1029) 千日酒.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맛 좋은 술.  
 1030) 千賓玉盤. 천 명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넓은 옥쟁반.  
 1031) 不老草.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약초.  
 1032) 유밀과의 하나. 강정을 만들 때 나오는 부스러기를 기름에 지져 조청으로 버무리 둥쳐서 육면체로 썰거나 틀에 넣어 육면체가 되게 한 후, 여러 가지 색깔로 물을 들인다.  
 1033) 잡수신.  
 1034) 美色. 아름다운 여자.  
 1035) 風流. '멋'과 '맛'을 아는 일.  
 1036) 細樂手. 세악을 연주하는 군인. '세악'은 취타(吹打)가 아닌 장구, 북, 피리, 저, 해금 따위로 구성한 군악.  
 1037) 自言居水勝居山. 물에서 사는 것이 산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 말함.  
 1038) 瑤池. 중국의 전설 속의 선녀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는 연못.  
 1039) 群山. 산의 무리.  
 1040) 三千沙場. 삼천 개나 되는 수많은 모래밭.  
 1041) 弱水.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청조

- (靑島, 파랑새)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목왕(周穆王)께 진했다고 함.
- 1042) 月清明. 달은 맑고 밝음.
- 1043) 秋江上. 가을 강물 위.
- 1044) 漁笛소리.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 1045)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1046) 涇水. 중국 감숙성 화평현과 고원현의 두 곳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에서 위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 중국에서는 경수(涇水)·위수(渭水)·이수(伊水)·낙수(洛水)·한수(漢水)·소수(灋水)·상수(湘水)·장수(章水)·공수(貢水)를 구류(九流)라고 하고, 황하(黃河)·양자강(楊子江)·회수(淮水)·제수(濟水)를 사독(四瀆)이라고 하고, 절강(浙江)과 양자강을 이강(二江)이라 하고, 동정(洞庭)·청초(靑草)·단양(丹陽)·팽려(彭蠡)·태호(太湖)를 오호(五湖)라고 한다.
- 1047)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048) 洛水. 섬서성 정변현에서 비롯하여 위수와 합쳐져 황하로 들어가는 강.
- 1049) 淮水. 중국 대별산맥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양자강으로 들어가는 강.
- 1050) 漾津. 섬서성 반중산에서 비롯하여 흐르는 한수의 상류.
- 1051) 蒲津. 산서성에서 비롯하여 황하로 흘러가는 포수(蒲水)에 있는 나루인 듯하다.
- 1052) 彭蠡(彭蠡). 강서성에 있는 호수인 파양호의 옛 이름.
- 1053) 瀟湘. 호남성 동정호의 남쪽 영릉 부근으로, 소수와 상수가 합치는 곳. 주변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소상팔경(瀟湘八景)’으로 유명함.
- 1054) 或去或來.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함. 왔다 갔다 함.
- 1055) 赤壁江. 송나라 때의 문장가 소동파가 귀양가서, 음력 7월 16일 날 밤에 배를 띄우고 놀며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다고 하는 강. 호북성 황강현에 있음.
- 1056) 蘇子瞻. 송나라 대문호인 소동파(蘇東坡). ‘자철(子瞻)’은 그의 자(字).
- 1057) 求仙하던. 신선 되기를 원하던.
- 1058) ‘유후(留候)’의 잘못인 듯. ‘유후’는 한나라 유방의 책사였던 장량이 ‘유’ 지방에 책봉되었으므로 부르는 이름. 그런데 신선되기를 원했던 사람으로는 흔히 한 무제(漢武帝)를 일컫는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한무제’로 부른다. ‘한 무제(BC 159—BC 87)’는 전한(前漢)의 7대 왕으로, 유교를 국교로 하여 사상의 통일을 꾀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체제를 정비하고, 국토를 넓혀 대제국을 이루어놓기는 하였으나, 만년에는 장기간에 걸친 정권 전쟁의 결과 재정이 악화되고 사회불안이 더했다. 불사약을 구하려고 젊은 남녀 500명을 삼신산으로 보냈다고 한다.
- 1059) 愛月(愛月)하던. 달을 사랑하던.
- 1060) 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은 그의 자(字).
- 1061) 風神. 풍채(風采), 사람의 드러나 보이는 의젓한 겉모양.
- 1062) 龍虎大將. 용과 호랑이처럼 용맹한 장수.
- 1063) 勿失此機.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 1064) 一去. 한 번 가서.
- 1065) 口辯.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 1066) 不遠千里. 천리를 멀다 않음.



- 1067) 梁惠王. 중국 전국시대에 위(魏) 나라의 제후 앵(鶯)은 서울을 대량으로 옮기고 왕이 되었는데, 이가 혜왕이다.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천하의 인재를 불러들였는데, 맹자도 그를 찾아간 적이 있다.
- 1068)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069) 姜太公. 강태공은 속칭이며, 이름은 여상(呂尙)임. 중국 주나라의 재상으로 무(武)왕을 도와 은(殷)나라를 정벌하고 주(周)나라를 세웠음.
- 1070) 文王. 주나라의 기초를 닦은 명군. 덕치에 힘썼고, 상나라와 화평주의적 태도를 취했으며 제후들의 신뢰를 얻었다. 유가로부터 이상적 군주 칭송 받았다. 본명은 '창(昌)'이고, 별칭은 '서백(西伯)'이다.
- 1071) 貴히. 귀하게.
- 1072) 漢既渡倉 蜀道難의 黃面將軍 韓信이. 한나라 군사를 이끌고 험한 길인 진창을 건넌던 얼굴색이 누렇던 한신 장군. '한기도창'은 '한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진창을 이미 건너'라는 뜻. 한신이 진나라와 싸울 때 수령이 많은 진창 지방으로 군대를 끌고 나온 일을 말함. '촉도난'은 '험한 촉나라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후에는 '험한 길'을 뜻하게 되었다. '황면장군'은 한나라 유방의 장수인 한신을 가리키는데, 한신의 얼굴이 누렇다하여 붙인 이름.
- 1073) 瀟何. 한 고조 유방의 참모로, 한신을 천거하여 도원수로 삼게 했다.
- 1074) 漢中. 중국 섬서성 남서쪽 한강(漢江) 북쪽의 땅으로, 사천·호북에 이르는 요충인데, 한 고조 유방이 항우로부터 한왕(漢王)에 책봉된 곳임.
- 1075) 一國의. 한 나라의.
- 1076) 風神. 풍채(風采). 사람의 드러나 보이는 의젓한 겉모양.
- 1077) 訓練大將. 조선 시대에 둔, 훈련도감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이품이었다.
- 1078) 앙금앙금.
- 1079) 遠路海邊. 바닷가까지의 먼 길.
- 1080) 여우.
- 1081) 어리석은지고. 어리석구나.
- 1082) 燕人. 연나라 사람. 전국시대 말 연나라 사람이었던 형가를 가리킴.
- 1083) 荊軻. 중국 전국시대 자객. 연(燕)나라의 태자 단(丹)을 위해 진왕(秦王) 정(政)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진왕에게 죽음. 진왕 정은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으로 고쳐 불렸음.
- 1084) 易水寒風. 역수의 찬 바람. '역수'는 중국 하북성에 있는 강 이름. 형가가 진왕 정을 죽이려고 떠날 때, 태자 단과 친구들이 나와서 전송한 곳임.
- 1085) 壯士一去. 장사가 한 떠남.
- 1086)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087) 暮雲間. 저녁무렵의 노을 속.
- 1088) 齊女. 제나라 여자.
- 1089) 年年春草. 해마다 다시 나는 봄풀.
- 1090) 王孫. 왕의 자손.
- 1091) 歸不歸. 가서 돌아오지 못함. 즉 한 번 죽어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이룸.

- 1092) 수궁은 곧.  
 1093) 危邦. 위험한 나라.  
 1094)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음.  
 1095) 亂邦不居.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않음.  
 1096) 큰일 날 뻔하였구나.  
 1097) 청미래덩굴의 열매. '청미래덩굴'은 백합과의 낙엽 활엽 덩굴성 관목. 줄기는 마디마다 굽으면서 2-3미터 자라고 가시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원형 또는 넓은 타원형으로 덩굴손이 있다.  
 1098) 日前에. 며칠 전에.  
 1099) 水邊.. 물가.  
 1100) 風神. 풍채(風采). 사람의 드러나 보이는 의젓한 겉모양.  
 1101) 虎班. 무반(武班). 군에 적을 두고 군사 일을 맡아보는 관리.  
 1102) 藥房. '내의원(內醫院)'을 가리킴. '내의원'은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던 관청.  
 1103) 都提調. 조선시대에 자문기관에 설치한 자문 명예직. 여기서는 내의원의 도제조를 가리킴. 정일품 정승을 지낸 사람이나 정승을 임명하였으나 실무에 종사하지는 않았음.  
 1104) 輔國.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 '보국승록대부'는 조선시대에 둔 정일품 문무관의 벼슬. 고종 2년(1865)부터 문무관, 종친,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함께 사용하였다.  
 1105) 無任. 맡은 일이 없음.  
 1106) 御前. 임금님 앞.  
 1107) 棍杖. 예전에, 죄인의 불기를 치던 형구. 또는 그 형벌.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었다.  
 1108) 度. 횡수.  
 1109) 逐出. 쫓아냄.  
 1110) 듭니다그러.  
 1111) 발걸음.  
 1112) 두 손.  
 1113) 두 손에 든 지팡이란 뜻으로, 두 가지가 비슷하여 선택하기 어려움을 뜻함.  
 1114) 水邊. 물가.  
 1115) 발목까지 물이 차면.  
 1116) 허리까지 차는 물.  
 1117) 점잖으면서.  
 1118) 南海水邊. 남해의 물가.  
 1119) 細雨中. 가랑비가 오는 가운데.  
 1120) 滔滔滔滔. 넘실넘실.  
 1121) 秋江. 가을 강.  
 1122) 風月. 청풍(淸風)과 명월(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곧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가로 읊음, 혹은 그 지은 시.  
 1123) 泛彼滄波. 저 푸른 물결 위에 둥둥 뜬.  
 1124) 淸江. 맑은 강.

- 1125) 無限景. 끝이 없는 아름다운 경치.  
 1126) 白鷗더러. 갈매기더러. 갈매기에게.  
 1127) 蕭蕭寒風秋夜月. 쓸쓸하게 찬바람 부는 가을 달밤.  
 1128) 行하느냐? 가느냐?  
 1129) 瀟湘. 소상강.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  
 1130) 洞庭. 동정호. 중국 호남성(湖南省) 동북쪽에 있는 호수. 상강, 자수(資水)강, 원강(沅江) 따위가 흘러들며, 호수 안에는 악양루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다.  
 1131) 旅館寒燈. 여관의 찬 등불.  
 1132) 萬里清江. 만 리나 되게 긴 맑은 강.  
 1133) 廬山. 중국 강서성 북부에 있는 지명. 여산의 동남쪽에 오로봉(五老峯)이 있음.  
 1134) 東南. 동남쪽.  
 1135) '바가지로 뜰 수 없어서 바가지가 아예 없는 큰 물의 속'이라는 뜻으로 쓴 듯함.  
 1136) 허리까지 닿는 물.  
 1137) 목까지 차는 물.  
 1138) 걸으로 뺀은 가지.  
 1139) 오르려고.  
 1140) 舉動. 몸을 움직이는 태도.  
 1141) 거머쥐어 잡고.  
 1142) 어찌할 수 없이.  
 1143)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1144) 이 물고개와 저 물고개를 넘어. '물고개'는 출렁이는 물의 높은 부분.  
 1145) 明朗.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함.  
 1146) 照耀. 밝게 비쳐 빛남.  
 1147) 東. 동쪽.  
 1148) 一輪紅. 붉게 떠오르는 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49) 一髮青山. 한 가닥의 머리카락처럼 가물가물 보이는 산. 송나라 문인 소식의 시 〈징매역통조각(澄邁驛通潮閣)〉의 한 구절인 '청산일발시중원(青山一髮是中原)'에서 따온 말.  
 1150) 翡翠色. 비취옥의 빛깔과 같이 곱고 짙은 푸른색.  
 1151) 大鳳. 큰 봉황새.  
 1152) 飛盡. 높이 날.  
 1153) 弱水三千里. 삼천 리나 되는 약수. '약수'는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청조(靑鳥, 파랑새)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목왕(周穆王)께 전했다고 함.  
 1154) 壯히. 매우 씩.  
 1155) 白礪灘. 회고 푸른 여울. '청산기주백록탄(靑山夔洲白礪灘)'(청산에 살면서 섬과 회고 푸른 여울을 두려워함)의 잘못.  
 1156) 呂洞賓. 당나라 때 사람으로 호는 순양자(純陽子). 64세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

자 강호를 떠돌았는데, 목숨을 연장하는 술법을 배워 여덟 명의 신선 중 하나로 일컬어짐.

- 1157) 蘇東坡. 중국 북송의 문인(1036-1101). 자는 자첨(子瞻). 호가 동파.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서화에도 능하였다. 작품에 〈적벽부〉, 저서에 《동파전집(東坡全集)》 등이 있다.
- 1158) 張騫. 중국 전한(前漢) 때의 외교가(?-BC 114). 자는 자문(子文). 인도 통로를 개척하고, 서역 정보를 가져와 동서의 교통과 문화교류의 길을 열었다.
- 1159) 飛翔天. 하늘로 날아올라 감.
- 1160) 別有天地. 특별히 다른 세계(별천지)가 있음.
- 1161) 한 句. 한 구절.
- 1162) 山林遊客이 到龍宮허니, 四海風光이 入眼中이라. 숲속에서 놀던 손님이 용궁에 도착하니, 사방의 바다 경치가 눈 안에 들어오는구나.
- 1163) 藍輿.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 승지나 참의 이상의 벼슬아치가 탔다.
- 1164) 伏地奏曰. 땅에 엎드려 아뢰어 말함.
- 1165) 塵世.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 1166) 現身.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처음으로 뵈.
- 1167) 반갑게.
- 1168) 萬里塵世. 만 리나 멀리 떨어진 인간들이 사는 세상.
- 1169) 聖德. 임금의 덕을 높여 이르는 말.
- 1170) 一介甌. 한 마리 토끼.
- 1171) 生擒. 산 채로 잡음. 사로잡음.
- 1172) 待命. 윗사람의 명령이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
- 1173) 奇特다. 기특하다.
- 1174) 主簿之忠. 별주부의 충성.
- 1175) 御酒. 임금이 주는 술.
- 1176) 致賀.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다.
- 1177) 死地. 죽을 지경의 매우 위험하고 위태한 곳.
- 1178) 事不如意. 일이 뜻대로 안 됨.
- 1179) 調. 품격을 높고 깨끗하게 가지려는 행동.
- 1180) 드러나니.
- 1181) 百計無策. 어려운 일을 당하여 온갖 계교를 다 써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함.
- 1182) 죽은 듯이.
- 1183) 엎드려 있을 때.
- 1184) 左右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의 나졸. '나졸'은 조선조 때 포도청의 하급 병졸. 자기가 맡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을 체포하는 일을 맡았음.
- 1185) 別軍職. 조선 시대에, 별군직청에 속하여 임금을 호위하며 죄인을 잡아내는 일을 맡아 보던 무관 벼슬.
- 1186) 도루묵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25cm 정도이고 옆으로 편평하며, 등은 누런

- 갈색이고 배는 흰 은빛이다.
- 1187) '바다모지리'라는 뜻인 듯. '모지리'는 '승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승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1188) 龍參軍. '원'은 자라이며, '참군'은 정철품, 혹은 종철품 무관 벼슬. 따라서 '원참군'은 '자라 참군'이란 의미로 지어낸 이름.
- 1189)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1190) 靑絲. 빛깔이 푸른 실. 여기서는 '술'을 가리킴. '술'은 가마, 기(旗), 끈, 띠, 책상보, 옷 따위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 1191) 紅絲. 붉은 색 실. 여기서는 '술'을 가리킴. '술'은 가마, 기(旗), 끈, 띠, 책상보, 옷 따위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 1192) 한쪽 끝을 감아 고리뿔을 달고 다른 쪽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배목(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등글게 구부려 만든 고리 걸쇠)에 걸도록 만든 쇠. 흔히 문짝을 잠그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걸어 끼운다.
- 1193) 腰下. 허리 아래.
- 1194) 비스듬히.
- 1195) 거기.
- 1196) 三伏.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삼복'은 여름철의 몹시 더운 기간.
- 1197) 약을 넣어 끓인 개장국.
- 1198) 잘랑을 만들어 장만하니. '잘랑'은 개잘랑으로, 방석처럼 깔려고 털이 붙어 있는 채로 가공한 개가죽을 이룸.
- 1199) 先看目後看足. 먼저 눈을 보고, 뒤에 발을 본다는 말로, 말을 고르는 방법.
- 1200) 腰短項長千里馬로다. 허리가 짧고 목이 긴 것이 하루에 천 리를 간다는 천리마로다.
- 1201) 燕人도 五百金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연나라 사람도 오백금을 주고 죽은 뼈를 사갔으니. 연나라 소왕(昭王)이 괘외에게 어진 신하를 구하는 법을 묻자, 괘외가 말하기를, "옛날 어느 왕이 신하에게 천금을 주면서 천리마를 사오라고 했는데, 그 신하는 오백금을 주고 죽은 말 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연유를 묻자, 죽은 말의 뼈도 오백금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 살아있는 천리마라면 얼마를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 좋은 말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져 천리마를 세 마리나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어진 신하를 구하고 싶으시면 우선 저부터 쓰십시오. 그러면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자 과연 인재들이 연나라로 몰려들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임.
- 1202) 大王前에. 임금님 앞에.
- 1203) 千金賞. 많은 돈을 주는 상.
- 1204) 塗炭에. 진흙과 숯불에.
- 1205) 頭皮. 잡은 소의 머리와 가죽.
- 1206) 足. 잡은 소의 네 다리.
- 1207) 소의 밥통을 고기로 이르는 말.
- 1208) 회쳐 먹는 간.

- 1209) 되새김질하는 위의 세 번째 것으로, 잎 모양의 많은 조각이 있음.
- 1210) 厚薄없이.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공평하게.
- 1211) 꾸며 만들고.
- 1212) 牛黃.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는 노란 색깔의 단단한 물체. 한약재로 쓰임.
- 1213) 重한. 무거운. 많은.
- 1214) 朱杖대. 주릿대나 무기로 쓰이는 붉은 칠을 한 몽둥이.
- 1215) 星火. 유성이 떨어질 때의 불빛을 가리키는 말로, 몹시 급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216) 무엇을 들어 힘차게 내던져.
- 1217) 몸을 뒤로 조금 젖히고 멀찍이서.
- 1218) 偶然得病. 우연히 병을 얻음.
- 1219) 勸葬. 장사 치르는 일을 끝마침.
- 1220) 漆柳. 옷칠을 칠한 꺾. ‘꺾’은 관을 넣기 위해 따로 짜 맞춘 매장 시설.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 1221) 精히. 정성을 들어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게.
- 1222) 藏風. 풍수지리에서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는 지형지물
- 1223) 向陽. 햇볕을 마주 받음.
- 1224) 明堂. 풍수지리에서,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뗏자리나 집터.
- 1225)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 1226) 正朝. 설날 아침.
- 1227) 寒食. 명절의 하나. 동지가 지난 뒤 105일이 되는 날인데, 4월 5일이나 6일 쯤 든다. 한식날은 중국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이 날은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 1228) 端午. 명절의 하나로 음력 오월 오일.
- 1229) 年年이. 해마다.
- 1230) 愚者千慮에 必有一得.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천 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가지 얻는 게 있다는 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을 하면 그 과정에서 한 가지쯤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1231) 갈라보시오.
- 1232) 배 가르는 일을 안 당하려고.
- 1233) 세찬 몸부림.
- 1234) 마디.
- 1235) 泰山이 崩頽하고. 태산이 무너지고, 태산이 무너지면 임금에게 재앙이 있다고 함.
- 1236) 五星. 풍수지리설에서 하늘의 형체를 이룬다는 다섯 별인 火星·金星·水星·木星·土星.
- 1237) 陰陰하여. 어두워서.
- 1238) 時日曷喪. 해가 언제 사라질까.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폭군인 길(桀)이 자기를 해라고 했으므로, 폭정을 못 이긴 백성들이 빨리 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함.

- 1239)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들.
- 1240) 貪虐한. 욕심이 많고 포악한.
- 1241) 商紂임금. 상나라, 곧 은(殷)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紂)를 말함.
- 1242) 聖賢. 성인과 현인.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
- 1243) 일곱 구멍.
- 1244) 比干. 은나라 때의 충신. 주(紂)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다 죽임을 당했음.
- 1245) 無故히. 까닭없이.
- 1246) 구멍이.
- 1247) 낮게 하고.
- 1248) 伏願. 엎드려 바람.
- 1249) 詳察下屬. 하속을 자세히 살핌. ‘하속’은 하인배를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그저 아랫 사람 정도의 의미로 쓰였음.
- 1250) 奸巧. 간사하고 교활함.
- 1251) 醫書. 의술을 적은 책.
- 1252) 脾受病則口不能食. 비장(지라)에 병이 나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함.
- 1253) 膽受病則舌不能言. 쓸개에 병이 나면 혀로 말을 하지 못함.
- 1254) 腎受病則耳不能聽. 신장(콩팥)에 병이 나면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함.
- 1255) 肝受病則目不能視. 간에 병이 나면 눈으로 보지 못함.
- 1256) 但知其一이요 未知其二로소이다. 단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십니다.
- 1257) 伏羲氏.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은 뱀이고, 얼굴은 사람으로, 소의 머리와 범의 꼬리를 가졌다고 함.
- 1258) 蛇身人首. 몸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의 형상.
- 1259) 神農氏.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며, 성은 강(姜)임.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와 약사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 1260) 人身牛首.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형상.
- 1261) 길고.
- 1262)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1263) 玉體. 사람의 몸을 높여 부르는 말.
- 1264) 털이 보드랍게 복슬복슬 난 상태를 이르는 말.
- 1265)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1266) 간은 곧.
- 1267) 月輪精氣. 달의 정기.
- 1268) 생겼기 때문에.
- 1269) 들어 넣습니다.
- 1270) 病客. 아픈 사람.

- 1271) 언뜻하면. 무엇이 잠깐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1272) 침으로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 만든 끈.  
 1273) 동여.  
 1274) 瀛州. 영주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1275) 石上. 바위 위.  
 1276) 맨 꼬트머리에다가.  
 1277) 桃花流水. 복숭아꽃이 떠오르는 시내.  
 1278) 玉溪邊. 맑은 시냇가.  
 1279) 濯足하러. 발을 씻으러.  
 1280) 玩景次. 구경하러.  
 1281) 왔습니다.  
 1282) 옮겨.  
 1283) 出入하는. 들고 내고.  
 1284) 標. 표시.  
 1285) 빨간.  
 1286) 구멍.  
 1287) 셋이. 세 개가.  
 1288) 來歷. 지금까지 지내는 경로나 경력.  
 1289) 任意로. 마음대로.  
 1290) 밀구멍. 밑에 있는 구멍.  
 1291) 萬物始生. 만물이 처음 생김(생겼을 때에).  
 1292) 東方三八木. 풍수지리설에서 오행의 하나인 목(木)은 천수(天數) 3과 지수(地數) 8이 모여서 생겼으며, 동쪽을 가리킨다.  
 1293) 南方二七火. 오행의 하나인 화(火)는 천수(天數) 2와 지수(地數) 7이 모여서 생겼으며, 남쪽을 가리킨다.  
 1294) 西方四九金. 오행의 하나인 금(金)은 천수(天數) 4와 지수(地數) 9가 모여서 생겼으며, 서쪽을 가리킨다.  
 1295) 北方一六水. 오행의 하나인 수(水)는 천수(天數) 1과 지수(地數) 6이 모여서 생겼으며, 북쪽을 가리킨다.  
 1296) 中央五十土. 오행의 하나인 토(土)는 천수(天數) 5와 지수(地數) 10이 모여서 생겼으며, 중앙을 가리킨다.  
 1297) 天地陰陽. 온 세상의 음양.  
 1298) 四時精氣. 사계절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  
 1299) 五色光彩. 다섯 가지 색깔의 찬란한 빛.  
 1300) 應하여. 받아서.  
 1301) 내기 때문에.  
 1302)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나아 살아남.  
 1303) 名藥. 이름난 약.  
 1304) 나더러.



- 1305) 이야기를.
- 1306) 돼지나 곰의 쓸개를 셀 때 쓰는 수효
- 1307) 부(腑).
- 1308) 晩時之歎. 기회를 놓쳐 뒤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1309) 속아 넘어갔던가 보더라.
- 1310) 解縛. 결박을 풀.
- 1311) 殿上. 궁전의 자리 위.
- 1312) 擁衛. 좌우에서 부축하며 지키고 보호함.
- 1313) 하시려내고.
- 1314) 掛念.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음.
- 1315) 頃刻間. 눈 깜빡할 사이.
- 1316) 늘.
- 1317) 冬淸春酒. '동정'은 본래 '동온하정'이란 말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한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어 효도함을 이르는 말. 여기서는 그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함'이란 의미로 썼음. '춘주'는 청명(淸明, 24절기의 하나로 4월 5일 무렵.)에 담은 좋은 술.
- 1318) 一杯一杯復一杯. 한 잔, 한 잔, 또 한 잔. 술을 연거푸 먹는 모습.
- 1319) 字. (사람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 본 이름 외에 부르기 위하여 짓는 이름. 흔히 장가든 뒤에 본 이름 대신으로 부름.
- 1320) 東醫寶鑑. 조선조 광해군 때 허준이 지은 의학서.
- 1321) 今時初聞. 지금 처음 들음.
- 1322) 風流. 음악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
- 1323)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함부로 흩어져 있음.
- 1324) 王子 旣.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뒤에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날아갔다고 전함.
- 1325) 鳳피리. 왕자 진이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 듯함.
- 1326) 郭處士. 당나라 무종 때의 광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광도원은 격구(擊毬)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327)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나라 질장구와 비슷해서 그렇게 말한 듯함.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밥을 담는 큰 놋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서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328) 成蓮子.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인.
- 1329) 張良.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 장량(張良). 해하 싸움에서 달밤에 옥통소를 구슬프게 불어 초나라 항우의 군사들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겼음.
- 1330) 嵇康. 진(晉)나라 사람으로 지는 속야(叔夜)이며,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
- 1331) 奚琴. 깡깡이를 아악에서 이르는 이름.
- 1332) 阮籍.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으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인물. 자(字)는 사종(嗣宗)이며, 하남(河南) 사람이다.

- 1333) 擊鼙鼓 吹龍笛.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고, 용의 울음소리를 내는 피리를 불다. 당나라 때 시인 이하(李賀)의 시 〈장진주(將進酒)〉에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는 ‘취용적 격타고’로 되어 있다.
- 1334) 凌波詞. 당나라 현종이 꿈속에서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을 깬 뒤에 지었다는 노래.
- 1335)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336) 羽衣曲. 당나라 현종이 지은 노래.
- 1337) 採蓮曲. 중국 양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당나라 24악곡 중의 하나인 〈강남릉(江南弄)〉 속에 들어 있는 악곡.
- 1338) 風樂. 우리나라 고유의 옛 음악.
- 1339) 어긋나게 딛고.
- 1340) 藥丸레라. 약이로구나.
- 1341) 渭水邊. 위수의 물가. ‘위수’는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로 강태공이 낚시질을 하던 곳.
- 1342) 窮八十達八十. 가난하게 살던 80년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80년.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을 만나기 전 80년을 가난하게 살았고, 문왕을 만난 이후 80년은 부귀를 이루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를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라고 한다.
- 1343) 東方朔. 자는 만천(曼倩). 산동성 염차 사람. 막힘이 없는 유창한 변설과 재치로 한무제(漢武帝)의 사랑을 받아 측근이 되었다. ‘익살의 재사’로 많은 일화가 전해진다. 속설에 서왕모(西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였다 하여 ‘삼천 갑자 동방삭’으로 일컬어졌으며, ‘오래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그 뜻이 바뀌어 쓰인다
- 1344) 팔의 난알만큼.
- 1345) 三千甲子. 삼천 번의 갑자. 한 갑자는 60년이므로, 삼천갑자는 180,000년임.
- 1346) 長生不老.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삶.
- 1347) 患候. 옷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 1348) 千千萬萬歲. 천천만만년. 아주 오랜 세월.
- 1349) 青布帳. 푸른 색의 포장. 버들가지가 우거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1350) 柳綠帳. ‘버들의 푸른 장막’이란 뜻으로, 여름이 되어 우거진 버드나무 숲을 가리킴.
- 1351)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옆으로 퍼져.
- 1352) 우쭐우쭐. 크게 울동적으로 자꾸 움직이는 모양.
- 1353) 노구술. 아무데나 옮겨서 걸고 쓸 수 있는 술.
- 1354) 질그릇의 하나. 흔히 물 길는 데 쓰는 것으로, 보통 둥글고 배가 부르고 아가리가 넓으며 양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
- 1355) ‘노고지리’는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동시에 ‘노구술을 지리’라는 뜻을 담고 있음.
- 1356) 자꾸 체신없이 까불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 1357) 털썩.
- 1358) 발가락.
- 1359) 세계 닿거나 부딪쳐서.

- 1360) 君子.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
- 1361) 君子는 可欺以其方이라. 군자는 그럴 듯한 방법으로 남을 속일 수 있음이라. 《맹자》의 〈만장〉편에 나오는 말임.
- 1362) 見知離逃. (이방의 풍속을) 보고 알았으면 멀리 떠나야 한다.
- 1363) 亡 字. 도망이라는 글자. 즉 도망함.
- 1364) 萬萬危重. 매우 위태롭고 중함.
- 1365) 命하여. 명령하여.
- 1366) 간 보چه. 간 덩이째로.
- 1367) 즉차즉효(卽差卽效). 병이 곧 바로 낫는 효과를 즉시 보임.
- 1368) 命. 명령.
- 1369) 惶恐對曰. (위엄이나 지위에 놀리어) 두려워하며 대답하여 말함.
- 1370) 遠海三万里. 삼만 리나 되는 멀리 떨어진 바다.
- 1371) 孟獲. 남만의 왕으로, 서기 225년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익주를 침입하였으나, 제갈량이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자, 제갈량에게 항복하였다.
- 1372) 七縱七擒.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줌.
- 1373) 孔明. 제갈량(諸葛亮).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181—234). 자(字)는 공명(孔明). 시호는 충무(忠武).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의 위(魏)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다. 유비가 죽은 후에 무향후(武鄉侯)로서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 중에 병사하였다.
- 1374) 智謀. 슬기로운 꾀.
- 1375) 當찮은. 마땅하지 않은.
- 1376) 至重. 매우 무거움.
- 1377) 欺罔. 남을 속여 넘김.
- 1378) 夏傑.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폭군 겐.
- 1379) 虐政. 포악한 정치.
- 1380) 龍逢. 겐 임금의 충신. 옳은 일을 간하다 죽임을 당함.
- 1381) 殺害하고. 살해하고. 죽이고.
- 1382) 未久에.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 1383) 亡國. 나라가 망함.
- 1384) 너희.
- 1385) 冤鬼. 원통하게 죽어 한을 품고 있는 귀신.
- 1386) 살 텐데.
- 1387)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관리.
- 1388) 상대편의 분수에 맞지 않는 희망이나 꿈에 대하여 비웃거나 조롱할 때 쓰는 말.
- 1389) 여기 있다.
- 1390) 속아 넘어갔던가 보더라.
- 1391) 害하는. 해롭게 하는. 해치는.
- 1392) 어살. 물고기를 잡는 장치. 싸리, 참대, 장나무 따위를 개울, 강, 바다 따위에 날개모양

으로 둘러치거나 꽃아 나무 울타리를 친 다음 그 가운데에 그물을 달아두거나, 길발, 깃발, 통발과 같은 장치를 하여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도록 한다.

- 1393) 까마귀와 까치.  
 1394) 버릴라.  
 1395) 오사(誤死)할 놈. 형벌이나 재앙으로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비명에 죽을 놈.  
 1396) 二水. 양자강의 지류인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키는 말.  
 1397)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1398) 三山.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1399) 青天外에. 푸른 하늘 밖에. 푸른 하늘 멀리.  
 1400) 日落長沙秋色遠한데 부지하처조상군(不知何處弔湘君)고. 해는 긴 모래밭에 떨어지고 가을 산빛은 아득한데, 어디서 상군을 조문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태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에 있는 구절.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1401) 舉手. 손을 위로 들어 올림. 찬성과 반대, 경례 따위의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  
 1402) 揖.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1403) 水路千里. 천 리나 떨어진 먼 물길.  
 1404) 何以至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십니까?  
 1405) 回足青山하니 觀不過諸觀이요, 濯足無臨하니 殆不過鳳凰이라. 素無知識하여 流魅平生이라. 청산으로 발길을 돌려 돌아오니 경치마다 정겨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고, 더러운 발이 이르지 않아, 봉황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세상이라. 본디 아는 게 없어 (별주부에게 속아 용궁에 갔다가) 도깨비가 되어 평생을 떠돌 뻔했다.  
 1406) 所以卽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1407) 五湖滄波. 오호의 푸른 물결. ‘오호’는 동정(洞庭)·청초(靑草)·단양(丹陽)·팽려(彭蠡)·태호(太湖)를 이름.  
 1408) 烟月. 연기에 어린 은은한 달빛.  
 1409) 越范蠡. 월나라의 범려. ‘범려’는 중국 전국시대 월(越)나라의 재상.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쳐 멸망시켰으나, 후에 벼슬을 버리고 스스로 도주공(陶朱公)이라 일컬으며 부자로 살았음.  
 1410)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1411)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1412) 蘇子瞻. 송나라 때 문인인 소동파(蘇東坡). 〈적벽부〉를 썼음.  
 1413) 泛舟遊. 를 띄우고 놀다.  
 1414) 東山上. 동쪽 산 위.  
 1415) 斗牛間. 북두칠성과 견우성 사이.  
 1416) 徘徊.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님.  
 1417) 白鷺橫江. 백로가 강을 가로질러 감.

- 1418) 笑指蘆花月溢船. 웃으며 손가락으로 흰 갈대꽃과 달빛이 가득찬 배를 가리킴.  
 1419) 秋江. 가을 강.  
 1420) 騎鯨仙子. 고래를 탄 신선, 곧 이태백을 가리킴.  
 1421) 空明月之團圓. 빈 하늘엔 밝은 달만 둥글다.  
 1422) 還山弄明月. 산중으로 돌아와 밝은 달을 보며 즐김.  
 1423) 遠海近山. 바다는 멀고, 산은 가까움.  
 1424)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1425) 漁釣하던. 낚시질하던.  
 1426) 姜太公. 주나라 때 사람으로, 문왕을 만나 등용되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음.  
 1427) 岐周. 창 의 할아버지인 고공(古公)이 북쪽에서 쳐들어온 오랑캐를 피하여 자리잡은, 섬서성 기산현에 있는 기산 남쪽의 주원 지방을 가리키는데, 뒤에 무임금이 이 땅의 이름을 따서 국호를 주(周)라고 했다.  
 1428) 銀鱗玉尺. 비늘이 은빛처럼 번쩍번쩍하고 모양이 좋은 큰 물고기.  
 1429) 碧海水邊. 푸른 바닷가.  
 1430) 모르는 채하고.  
 1431)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런 모양.  
 1432) 어울리지 않게 홀로 우뚝한 모양..  
 1433)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  
 1434) 올가미.  
 1435) 兩端間에. 둘 중에 아무것이나.  
 1436) 당겨주겠습니다.  
 1437) 그러는 것이지?  
 1438) 上上가지. 맨 끄트머리 높은 가지.  
 1439) 鼈哥놈. 별이라는 성씨를 가진 놈.  
 1440) 너희.  
 1441) 東風. 동쪽에서 부는 바람. 봄바람.  
 1442) 陰乾. 그늘에서 말림.  
 1443) ‘죽어라’의 속된 말.  
 1444) 자라탕. 자라를 넣고 끓인 탕.  
 1445) 祝手. 두 손 모아 빌.  
 1446) 서럽지 않으나.  
 1447) 웅기짐. 웅기그릇을 짊어진 짐.  
 1448) 파리.  
 1449) 대가리만큼만. ‘대가리’는 ‘머리’를 낮추어 일컫는 말.  
 1450) 되는 대로 마구 지껄이고.  
 1451) 天下.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1452) 욕의 일종. ‘발기다’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헤쳐 발리다.’는 말이므로, ‘발기를 갈 녀석’은 ‘찢어 죽일 녀석’ 정도의 의미.

- 1453) 너희.
- 1454) 슬기롭기.
- 1455) 나와 같고.
- 1456) 밀구멍.
- 1457) 셋이. 세 개가.
- 1458) 白雲靑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1459) 情理. 인정과 도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1460) 藥劑. 약화제(藥和劑). 약방문(藥方文).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재의 종류와 분량을 적은 글.
- 1461) 것이니까.
- 1462) 내장을 덩어리째 일컫는 말.
- 1463) 복. 참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 몸이 뚱뚱하고 등지느러미가 작으며, 이가 날카로움. 고기는 맛이 좋으나 내장에 독이 있어 중독될 염려가 있음.
- 1464) 한 말 서(3) 되.
- 1465) 왼쪽 눈의 눈물.
- 1466)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향아리.
- 1467) 正朝. 설날 아침.
- 1468) 寒食. 명절의 하나. 동지가 지난 뒤 105일이 되는 날인데, 4월 5일이나 6일 쯤 든다. 한식날은 중국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이 날은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 1469) 端午. 음력 오월 오일.
- 1470) 四名節. 네 개의 큰 명절.
- 1471) 石碑. 돌로 만든 비석.
- 1472) 木碑. 나무로 만든 비.
- 1473) 엎드려 있는데.
- 1474) 반가와라고.
- 1475) 쉬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쉬파리라는 뜻으로 쉬파리를 의인화한 표현.
- 1476) 이제.
- 1477) 파리의 알.
- 1478)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깔겨 주시오.
- 1479) 來歷. 지금까지 지내온 경로나 경력.
- 1480) 똥파릿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1.9cm 정도로, 누런 갈색이며 누런색 털이 많다. 똥오줌에 모여드는 성질이 있다.
- 1481) 五行八卦. 오행과 팔괘. ‘오행’은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다섯 원기(元氣)인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를 가지고, 상생과 상극을 따져 길흉을 따짐. ‘팔괘’는 중국 고대 시대에 중국인들이 사용하던 여덟 가지의 괘(卦)로, 《주역》에서 자연계 및 인사계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치어서 여덟 가지의 모양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으로 길흉을 점침.
- 1482) 배웠던지.

- 1483) 뒤집어놓으면.
- 1484) (줄을) 긋거나 접거나 한 자리.
- 1485) 日月. 해와 달.
- 1486) 여기서는 ‘작은 손가락’이라는 의미.
- 1487) 天地人. 하늘과 땅과 사람.
- 1488) 三才. ‘삼재’는 음양설에서 세계의 근본이 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컫는 말.
- 1489) 집게손가락.
- 1490) 가운데손가락.
- 1491) 無名指. 약손가락.
- 1492) 小指. 새끼손가락.
- 1493) 짧기.
- 1494) 子午卯酉.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네 요소. 곧, 자는 북쪽,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유는 서쪽.
- 1495) 乾坎艮震巽離坤兌. 《주역》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쳐서 나타내는 팔괘의 상(象).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 1496) 先天八卦. 주나라 문왕이 만든 후천팔괘와 함께 주역의 근본이 되는, 복희씨가 만든 팔괘.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 1497) 坎中連. 팔괘의 하나인 감의 상형.
- 1498) 艮上連. 팔괘의 하나인 간의 상형.
- 1499) 六道記文. 불교에서 중생이 지은 죄에 따라서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여섯 세계, 곧 지옥, 마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 대해 적은 글.
- 1500) 大藏經. 일체의 불경을 모두 모아놓은 것.
- 1501) 一掌中이라. 손바닥 하나 속에 있다.
- 1502) 同氣. 형제, 자매의 총칭.
- 1503) 樵童牧豎. 나무하는 아이들과 목동.
- 1504) 兒孩들. 아이들.
- 1505) 한 가락씩.
- 1506) 尊卑貴賤.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함.
- 1507) 무슨 놈의.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 1508) 深山窮谷. 깊은 산 깊은 골짜기.
- 1509) 뭉뚱그려. 되는 대로 뭉치어 싸서.
- 1510) 爲父母保妻子. 부모를 위하고 자식을 보호함.
- 1511) 極盡恭待. 그 이상 더할 수 없이 마음을 다하여 공손하게 잘 대접함.
- 1512) 끼어 있던가.
- 1513) 이 녀석아.
- 1514) 例常. 보통.
- 1515) 먹을 만한 것이야.

- 1516) 입구명.
- 1517) 거기에다. ‘거기’는 똥구멍.
- 1518) 팔의 힘.
- 1519) 寬大長者. 성품이 너그럽고 점잖은 사람.
- 1520) 漢 高祖.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劉邦).
- 1521) 局量. 도량이나 궁리.
- 1522) 나만한가?
- 1523) 蘇秦. 중국 전국시대 중엽의 유세가. 하남성 낙양 사람으로 장의(張儀)와 함께 귀곡선생에게 배웠다. 처음에 진(秦)나라의 혜왕(惠王)을 비롯하여 제후 밑에서 유세를 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BC 333년 연나라에서 초나라에 이르는 남북선상(南北線上)의 6국의 합종에 성공하여 혼자서 6국의 재상의 인장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무안군(武安君)이라 칭하여 이름을 떨쳤다. 이 때문에 동방으로 진출을 피하고 있던 진나라는 십수년간 그 진출을 저지당했다. 그러나 그의 합종책은 장의의 연횡책(連橫策)에 패배하여 실패했다.
- 1524) 張儀.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모사. 소진의 주선으로 진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어 혜문왕 때 재상이 되었다. 연횡책을 주창하면서, 위 · 조 · 한나라 등 동서로 잇닿은 6국을 설득, 진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관계를 맺게 하였다.
- 1525) 口辯.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 1526) 意思. 생각.
- 1527) 三國時. 삼국 때. 한나라 말엽 위, 오, 한(촉) 세 나라가 천하를 다투던 시절.
- 1528) 아슬아슬함.
- 1529) 入死出生. 죽을 데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옴.
- 1530) 萬古風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어 온 많은 고생.
- 1531) 擊壤歌.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중국의 요임금 때에 태평한 생활을 즐거워하여 불렀다고 한다.
- 1532) 엉거주춤. 아주 앉지도 서지도 아니하고 몸을 반쯤 굽히고 있는 모양.
- 1533) 映山紅綠. 붉고 푸른 산빛이 비침.
- 1534) 山影山色. 산 그림자와 산의 빛깔.
- 1535) 그리고.
- 1536) 岐山曠野. 기산의 넓은 들. 주나라 문왕의 아버지 고공단보(古公亶父)가 ‘기산’에 터를 잡고 여진 정사를 펴자, 문왕 때에 이르러 봉황이 나와 울었다고 함.
- 1537) 기우뚱거리고. 자꾸 이쪽저쪽으로 기울어 흔들리며.
- 1538) 거드럭거리고. 거만스럽게 잘난 체하며 자꾸 버릇없이 굴고.
- 1539) 療飢飢. 시장기를 면할 재료.
- 1540) 물건들을 요리조리 들추며 자꾸 뒤지고.
- 1541) 내려와서 가까이 다다라.
- 1542) 본으로. 모양으로.
- 1543) 먹어버렸으면.
- 1544) 病弊. 병통과 폐단.



- 1545) 놀리며 장난하고.
- 1546) 鴻門宴. 진나라 끝 무렵에, 하남성의 상구현(商丘縣)과 우성현(虞城縣)의 경계에 있는 홍구(鴻溝)의 군문(軍門)에서, 항우가 유방을 불러다 죽이려고 벌인 잔치. 항우는 범중(范增)의 권유에 따라 유방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유방은 장량(張良)의 피로 변괘(樊噲)를 데리고 달아나 목숨을 구했음.
- 1547) 竹物床. 대나무로 만든 상.
- 1548) 八珍味. 중국에서 성대한 음식상에 차린다고 하는 진귀한 여덟 가지의 음식으로 차린 맛 좋은 음식.
- 1549) 滿盤珍羞. 상 위에 가득히 차린 귀하고 맛있는 음식.
- 1550) 이보다.
- 1551) 좋기도.
- 1552) 魚頭珍味. 물고기는 머리 쪽이 그중 맛이 있다는 말.
- 1553) 머리부터.
- 1554) 뽕쪽한 끝으로 쳐서 찍어서.
- 1555) 아무데서부터라도.
- 1556) 無斷히. 아무 이유 없이.
- 1557) 서럽지 않지만.
- 1558) 意思중치. 의사주머니. 생각주머니.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듯함.
- 1559) 無主空山. 주인 없는 빈 산.
- 1560) 무엇이기에.
- 1561) 日前에. 며칠 전에.
- 1562) 것인데요.
- 1563) 구멍.
- 1564) 병아리새끼.
- 1565) 數數萬. 여러 개의 만. 수만.
- 1566)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
- 1567) 換腸. 어떤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이 됨을 속되게 이르는 말.
- 1568) 테니까.
- 1569) 그것.
- 1570) 다오.
- 1571) 結義兄弟. 남남끼리 의리로 맺은 형제.
- 1572) 그러면.
- 1573) 주워.
- 1574) 끼워.
- 1575) 덜름. 홀로 어울리지 않게 우뚝한 모양.
- 1576)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해서.
- 1577) 걸릴 듯 걸릴 듯합니다.

- 1578) 엄지발가락.  
 1579) 없는데?  
 1580) चेहा-라고.  
 1581)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을 삼장이라고 하는데, 그 한 장의 반절.  
 1582) '있지'를 속되게 하는 말.  
 1583) 반 이상.  
 1584) 나와라.  
 1585) 팔십.  
 1586) 八難世上. 여덟 가지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으로 힘든 세상. '팔난'은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란(兵亂)을 이른다.  
 1587) 龍味鳳湯. 용과 봉황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으로, 맛이 매우 좋은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88) 손자들.  
 1589) 老兔一首. 늙은 토끼 한 마리.  
 1590) 卽差卽效. 병이 곧 바로 낫는 효과를 즉시 보임.  
 1591) 太平聖代. 어진 임금의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1592) 微物. 작고 변변치 않은 물건.  
 1593) 盡忠報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함.  
 1594) 言哉無窮. 할 말이 끝이 없음.  
 1595) 더질더질. 판소리의 맨 끝에 오는 말로, 북소리의 의성어인 듯.